

THE MISSILE

1962年 9月 20日 印刷
1962年 9月 25日 發行

月
刊

미사일

1962
10

國軍의 날 特輯號

제 18 호





干城

朴正熙

-박정희최고회의의장 휘호(揮毫)-

군인의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술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겨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여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미사일 제18호 국군의 날 특집호 목차

표지그림 · 문학진
목차 · 길 · 우경희
삽화 · 이순재

- △ 화 보 ▽
- ◇ 장성환총장 각 부장 초도순시(표지 이면)
 - ◇ 미 제오공군사령관 「자콥 E 스마트」 중장 공군본부 내방(표지 삼면)
 - ◇ 장성환총장에게 김성은 제함군인회장이 감사장(표지 삼면)
 - ◇ 공군장교부인회서 순천 수재민에 구호금품기탁(표지 삼면)
 - ◇ 오늘의 공군(삽입)
 - ◇ 한국항공발전기념 (삽입)

휘호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기념사 공군참모총장 공군중장 장성환 (4)

공군에 부치는 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김종오(6)
제십사회「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해군참모총장 해군중장 이맹기(7)
해병대사령관 해병중장 김두찬 (8)

이달의 권두논문 **건국이념과 국가재건** 김동하 (9)
<국군의 날 시> 민족의 젊음 위에 박두진 (2)
십월 「상달」의 금석(今昔)이달의 역사> 이병수 (91)

실천수기 나의 출전 회고 공군대령 이호영 (41)

나의 출전 일기 공군대령 현창건 (45)

◇ 하늘은 우리의 일터 <국군의 날에> 공군중령 박희규 (53)
인공위성과 장래전 <논단> 공군중령 고대지 (86)

홀려간 창공의 낙수(落穗)들 <창공구락부시대> 마혜승 (84)

◇ THE LONGEST DAY <전쟁영화 · 노르만디이상륙작전> 편집계 (63)

한글날 특집

- 우리 말과 현대생활 정인승 (28)
- 한국문학의 「멋」 양주동 (31)
- 우리 말과 영어 홍복유 (34)
- 우리 말과 운치 김민수 (36)

국제연합에 대한 우리의 기대 김준환 (13)
소련의 거부권 일00회가 의미하는 것 김창순 (38)

- ◇ 체크와 동독의 식량위기 편집계 (88)
- ◇ 리오데 자네이로 <세계경이순례> 하리바톤 (70)

특집 군인과 명예

인격과 명예	김계속 (16)
명예심은 가치적인 욕구다	이은상 (19)
한국인의 수치심	김정옥 (21)
군인과 명공심	한학수 (23)
명예와 평가	성인기 (25)

소비에트연방의 매스 · 미디어 <현대의 매스 · 컴> 공군중령 김기점 (92)

군사 서구의 연방세력 김기태 역 (55)
중공군의 전쟁과 모순 김사천 역 (59)
태평양지역의 공군력 TS. 무어만 (60)

북리 비행사들의 훈련과 생활 공군대위 정낙현 (49)

미사일교실 전체주의국가관의 오류 <민주주의세미나> 김낙봉 (72)
공산주의와 간접침략 <공산주의세미나> 이동현 (78)
화폐의 형태와 그 제도 <생활경제> 최호진 (75)
김치와 비타민 <생활과학> 최영복 (80)

그후의 생활 <공군 예비역 장병을 찾아서> 편집계 (68)

책 읽기 ② 나베에의 전염 안델센 동화집 최태호 (99)
릴케의 편지 박목월 (101)
빌헬름 · 마이스터 서연 (104)
나폴레옹전기 백대현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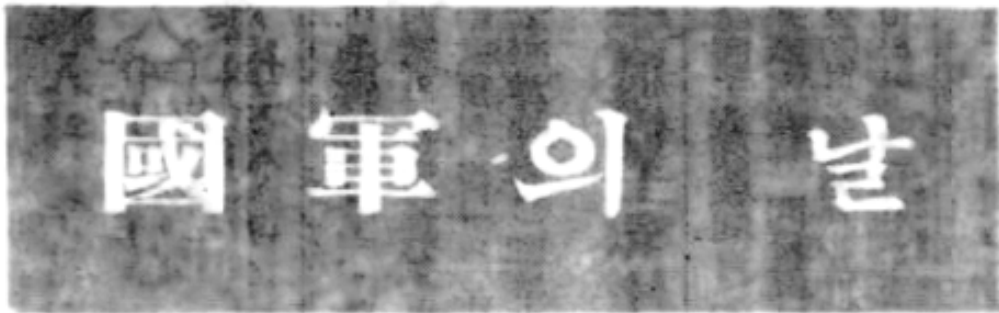
◇제 2차대전과 항공기 <항공발달사> K.나이트 (95)

장병페이지 제일훈련비행단편 (106)

<글 · 그림> 한 생애 박래현 (113)
라디오 성경린 (108)
수필 무한에의 도전 임인수 (109)
고요 한승오 (120)
가을의 장 김정철 (121)
창작 갯생 홍성유 (24)

추리소설 **간첩 Three Six** 유기영 (117)
만화 고두현 (66)
. 이시지 (67)

축



해 해 육 국
병 방
대 군 군 부

군진수칙

1.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1.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1.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1.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1.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1.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혁명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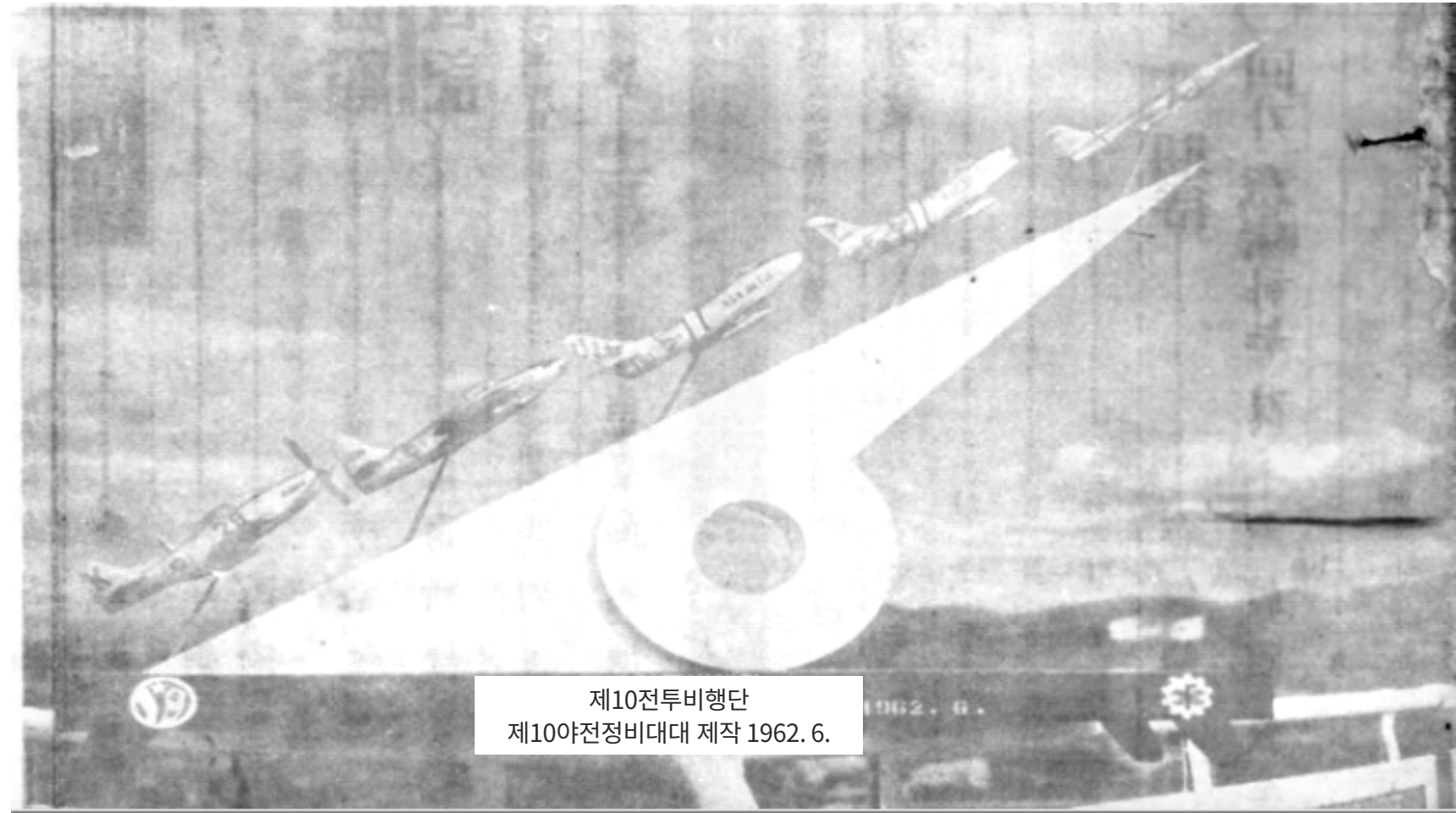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약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도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략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번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은익의 노래

조지훈 작사
김성태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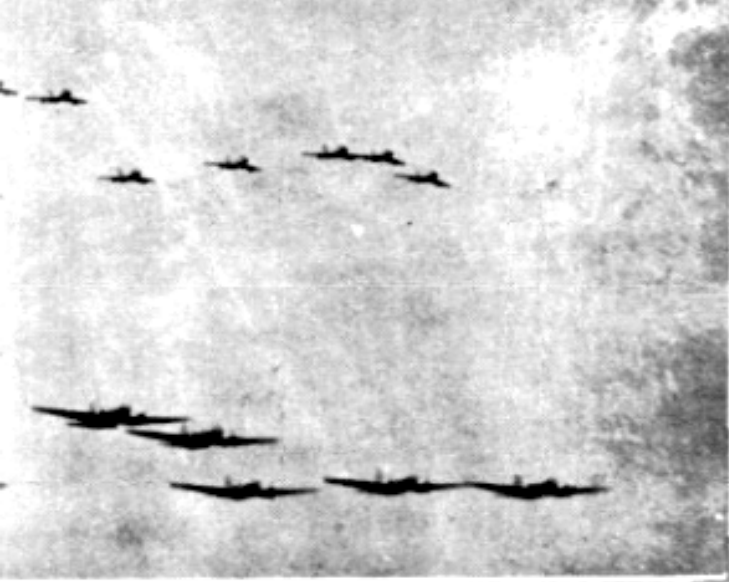
1. 국토를 지키려는
원이 뭉쳐서
하늘높이 떴지어
솟아 오르니
그 이름도 아름답다
창공의 용사
해동청 보라매가
바람을 탄다
하늘에 살아서
높아져라 이상아
희망에 빛나는
아 은빛 날개다

2. 하늘을 지키려는
원이 뭉쳐서
죽음으로 맹세코
날개를 펴니
그 모습도 미더웁다
창공의 용사
검은 구름 헤치며
웃으며 간다
하늘에 살아서
넓어져리 도량아
정의에 빛나는
아 은빛 날개다



제10전투비행단
제10야전정비대대 제작 1962. 6.

필승의태세



이제부터

국군의 날 특집화보

1962

한국공군 발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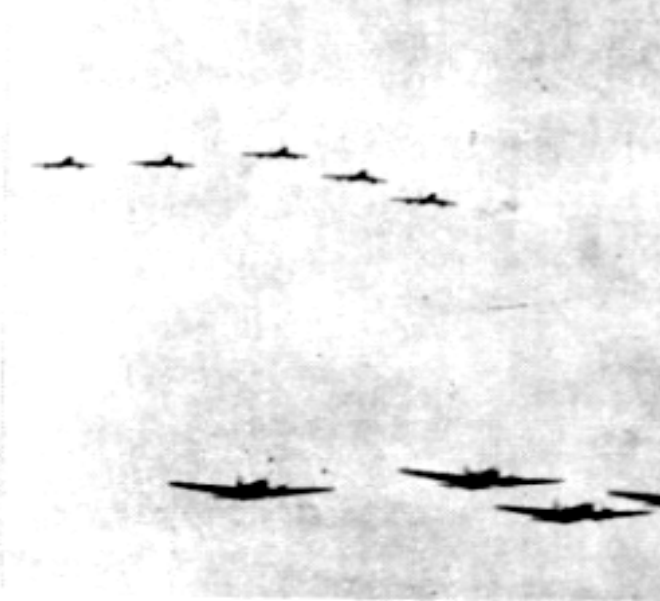
1. 초창기

공군의 창건은 8·15해방과 더불어 해외 공군예에서 활약하고 있던 하늘의 선각자들이 계속 한국(還國)함에 따라 현대 국방에 있어서 공군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성과 또한 북한괴뢰들의 남침야욕을 예견하는 가운데 공군운동을 전개한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하여 한국공군 창건을 위한 단계로서 이른바 7인간부로 호칭되는 우리 공군계의 대선배들 즉 20여년을 해외에서 활약한 최용덕장군(이대 총참모장)을 비롯한 김정열 장군(초대 및 삼대 총참모장) 박범집 장군(초대 참모부장 고 소장) 장덕창 장군(사대 참모총장), 이근석 장군(이대 비행단장 고 준장), 김영환 장군(초대 비행단장 고 준장) 등이 1948년 4월 1일에 공군부대 창설 간부요인으로 국방경비대 보병학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5월 5일에 항공부대가 창설되고 초대 부대장에는 최용덕 장군이 취임하였다.

1948년 9월 13일에는 미군으로부터 L-4형 경비행기 10대를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항공부대를 항공사령부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그 예하(隸下)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고, 그보다 2일후인 9월 15일에는 태극 표식을 단 10대의 비행기가 우리 조종사들의 손에 의하여 서울 상공



(상) 비행관제
(하) 각종 무기 장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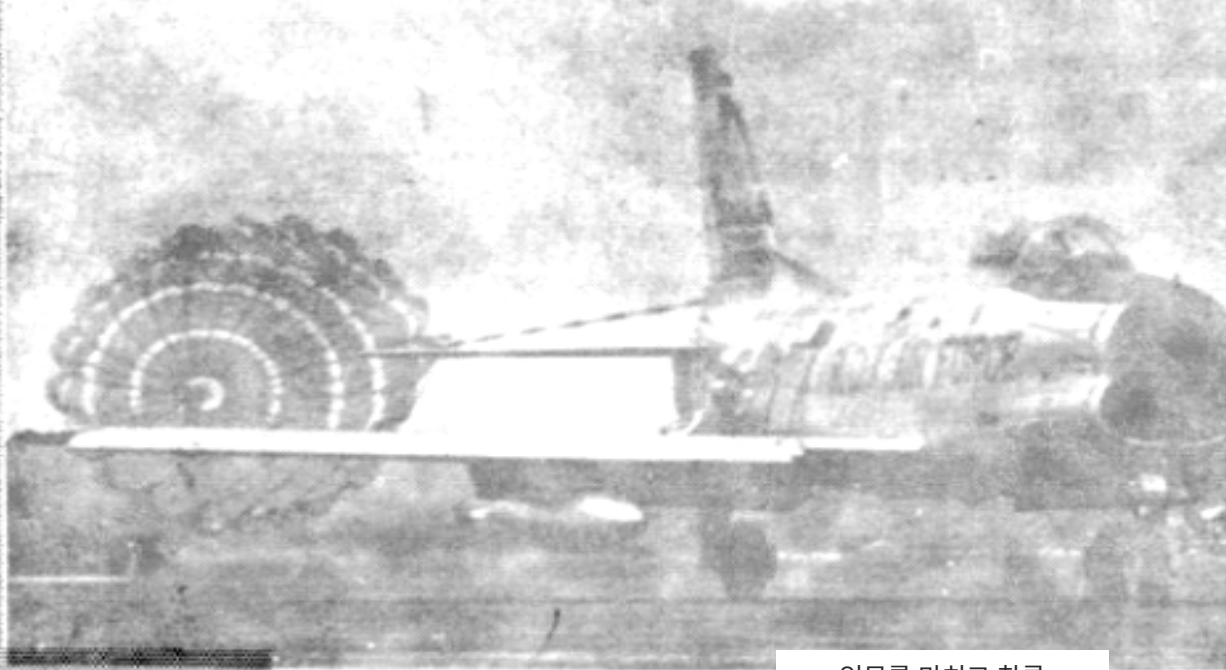
건군 14주년.

약진하는 우리 공군은 불철주야 조국의 하늘을 지키며 전력강화에 총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다. 언제건 때만오면 명령일하 하늘의 사자로서 창공을 주름잡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빈틈없는 경계태세에 꾸준한 교육훈련. 여기 몇 개의 단면을 모아 오늘의 공군을 부각 한다.

에서 최초로 역사적인 초비행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우리 공군은 최초에는 육군의 하나의 예속부대로서 발족하였으나 현실적인 정세로 보나 또는 선진국가의 편제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공군의 조속한 독립이 요청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제일차적인 조치로서 인적강화책을 위하여 1949년 2월 15일 육군항공사관학교의 설립을 보게되었고 김정열장군이 초대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1949년 6월 28일 항공국의 설치를 보아 초대 국장으로 박범집 장군이 보임되어 군행정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공군 발전은 점차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요람기를 면치 못한 이때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주(使喚)를 받은 불순분자들에 의하여 여순(麗順) 반란사건 제주도 반란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창설의 공군은 동 반란진압을 위한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사다난한 건설기를 거쳐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공군 독립을 보게 되고 초대 참모총장에는 김정열장군이 취임하였다. 그 후 1950년 5월 14일에는 국민의 정성어린 헌납금으로 구입된 건국기(T-6, 연습기) 10대의 명명식이 내외귀빈과 다수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기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러나 우리공군이 독립한지 불과 8개월만에 6·25의 공산 남침을 당하였던 것이다.

2, 전반기

독립 일천(日淺)하여 아직 일군으로서의 기틀이 잡히기도 전에, 불의의 공산남침을 당한 우리 공군은 심히 당황하였으나, 곧 이에 대처하여 여의도 비행장내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당시 보유중이던 22대의 경비행기로써 UN 공군기가 내도(來到)하기 전인 7월 1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지상군과 UN군과의 연락임무를 비롯한 적정찰기 및 전단살포 등에 협력하기는 한편, 당시 전투기를 한 대도 보유치 못하였던 만큼 30「파운드」의 국산폭탄 수개씩을 이들 경비행기에 싣고 동두천, 의정부 등 전선에 나가 남하중인 적군에게 목측(目測)으로 투하하였다. 이와 같이 불리한 조건에서 고투하던 때에 마침 2차대전시에 위력을 발휘하던 F-51(일명 무스탕) 10대를 미군으로부터 인수, 1950년 7월 3일부터 전투기에 의한 최초의 역사적인 출격이었으며, 이 전투기들은 우리 지상군을 엄호하고, 남하하는 적을 맹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1950년 9월 15일에는 UN군이 인천에 역사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으므로 한국공군도 이에 호응하여, 기지를 진해로부터 여의도를 거쳐 평양에까지 전진시켰고 평양, 선천, 강릉, 안주 등 지구에 출격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실지회복이 거의 안수(安遂)되려 할 때에 중공군의 대거 개입으로 또다시 철수치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공군은 전투부대를 대전기지에 이동시켜서 작전을 계속케 하는 동시



임무를 마치고 착륙



헬리콥터 출동

약진은 거듭

약진은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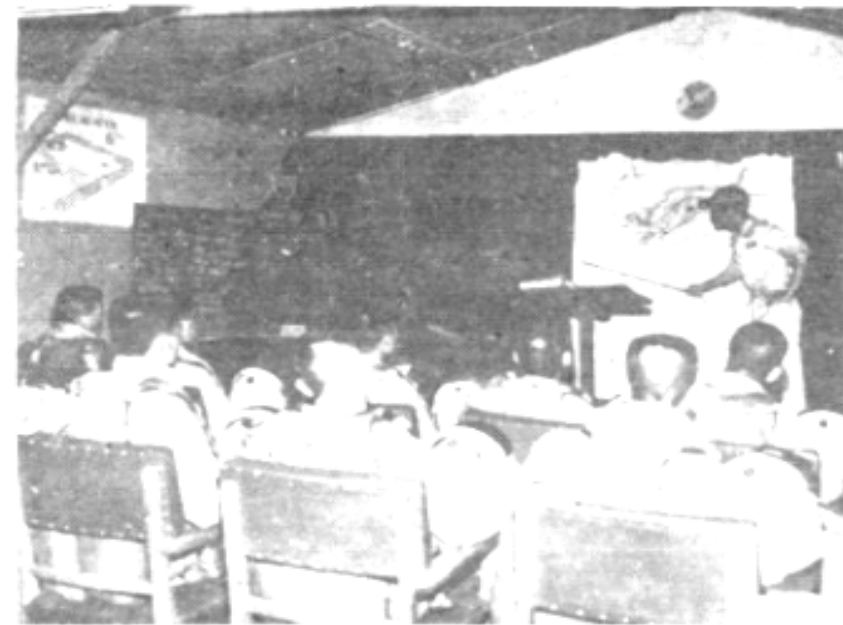
에 잔여 비행단병력은 제주기지에 이동시켜 차기작전에 대응하여 가일층(加一層) 맹렬한 훈련을 전개하였고 훈련된 병력을 계속 일선기지에 파송하였다. 한편 후방지역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잠동(蠶動)하던 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소탕에 많은 공헌을 하는 동시에 일선에서는 김두만 준장(당시 계급 소령)을 비롯하여 백회출전을 돌파하는 용사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공군의 전력은 명실공히 강화됨으로써 1951년 10월을 기하여 강릉지구를 근거로 하여 적후방에 대한 한국공군 단독 출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28일에는 동부전선에서 한국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는 공지협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2년 12월 25일에는 당시 제1전투비행단장 장덕창 장군 직접지휘하에 적의 소위「크리스마스」공세를 선제하는 대출격을 감행하여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국도가 양단된 채 휴전은 성립되었는데 기간 한국공군은 단순출격을 개시한 이래로 휴전성립일까지 무려 8,276회의 유효출격을 감행하였고, 39명의 백회출격 용사를 배출하였는데 이로써 인적 물적으로 적에게 준 손실은 지극히 막대한 바 있었다.

3, 휴전후 UN군의 강타를 받아 공산남침은 일단절(一坦折)은 되었으나 후일의 괴뢰 재남침에 대

복잡한 기재취급훈련



상황 설명



상황 설명

비치 않을 수 없어, 한국공군도 맹렬한 훈련기에 들어가, 준비개선을 통한 현대공군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는데 우선 첫 단계로 최신 제트기 보유를 위한 제트조종교육 및 정비교육에 주력하였으며 1955년 6월에는 제1차로 F-86 세이버 제트기 5대의 정식인수로 한국공군도 드디어 현대화된 공군으로서의 제1보를 내어 디디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레이다」에 대한 기술교육과 C-46 수송기의 조종 및 정비교육이 진행되었고 1955년 10월 제7회 항공일에는 우리나라 초유의 제트기 공중 전시가 실시되어 수만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1957년 10월부터는 국내 주요 기지간에 C-46에 의한 정기수송업무를 개시하였고, 1958년 1월에는 미공군으로부터 항로통신 통제업무를 정식으로 이양받아 항공기의 안전항공에 있어서 한국공군이 그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공군의 유일한 전투기로서 활약하던 F-51이 1957년 5월 28일부로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공군의 전투부대인 제10전투비행단은 완전히 제트전투기(F-86)로써 준비하게 되었고, 1958년 8월에는 또하나의 전투비행단 즉 제11전투비행단이 김포기지(K-14)에서 창설되었으며, 1960년 4월 15일에는 F-86D형 전천후요격기 18대를 도입, 제10전투비행단에 제108요격비행대대를 창설함으로써 우리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기상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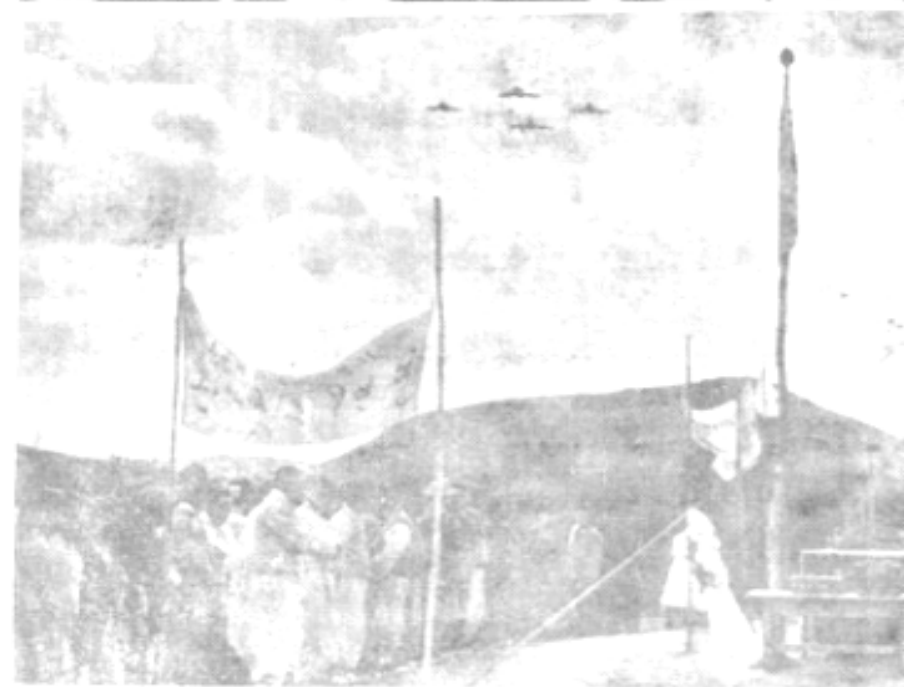
준비는만

항공기 정비



공군은약수

편지 10개년의 기념제명
재건행위의 일환이므로 각 부대는 변지
능어추두락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맹
활약중



부패와 빈곤의 틈바구니에서, 인간의 양식과 민족의 번영을 잠식하던 불법과 부정이며, 조국을 망치려던 제반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자손만대의 기반을 공고(鞏固)히 하고자, 1961년 5월 16일, 우리공군은 감연(敢然)히 일어서 조국혁명을 일으켰고, 몸소 국가재건의 선봉이 되어 우리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완수하려는 성스러운 대목표 밑에 경제재건으로 민생고를 추방하고, 전력증강으로 국토방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군에 있어서도 1961년도부터는 더욱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혁신된 국가방침에 호응하여, 전술공군으로서의 위치를 견지(堅持)하는 동시에 전투력증강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동년 7월 1일을 기하여, 우리공군은 전술공중작전, 공중탐색 구조와 정찰작전 및 모든 훈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또한 만일 전쟁 돌발시에는 한미협동 방위작전과 육·해·공 및 해병대의 협동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권을 통합하는 작전사령부를 오산에 창설함으로써 지휘계통을 일원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동일부로 F-86D형 전천후요격전투기로 장비된 제109요격비행대대를 제10전투비행단 산하에 또 하나 창설하였고, 동년 8월 15일에는, 대구기지(K-2)에 주둔중인 전부대의 후방기구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07기지전대를 창설하고, 그 후 더욱 강화되는 K-2기지 각부대의 후방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동 기지전대를 기지단으로 승격하였다.

현대전의 제반 양상을 보더라도, 금후의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육·해·공이 완전일체가 된 입체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요 불가결의 조건이므로, 우리공군에 있어서도 공지협동작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술 및 절차를 통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공지협동작전교육대가 작전사령부 산하로 K-16기지에 창설되었다.
그리고, 창군이래로 우리공군에 충실한 항공창(航空廠)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항공기의 정비를 거의 외국에 의존하여야 하는 애로가 막심할뿐더러 막대한 국고금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착공되었던 동양 굴지의 규모와 시설을 겸비한 우리의 대항공창이 그동안 3년간의 공사를 끝마치고 1962년 4월 29일에 드디어 준공되었는데 이로써, 현대화중에 있는 우리 한국공군에 또 하나의 새로운 면모와 위력을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공군은 L-4형 연습기 10대를 입수하여 서울상공에서 감격적인 초비행을 하였을 때부터 이미 13개성상에 걸쳐 끝없는 형극(荊棘)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런데, 6·25의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공군은 비액적인 대 발전을 이룩하였으니 항공기에 있어서도 F-51 무스탕기 시대를 거쳐 이제 신에 Z기로 장비되었고, 인적, 물적 및 전술면에 있어서도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데 거의 부자유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되었음은 실로 경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을 가져온 배후에는 전공군장병의 피와 땀과 더불어 자유우방으로부터의 많은 원조와 또한 전체 국민의 아낌없는 후방과 열성에 녹유(綠)유(由)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미 사 일

제 18 호

1962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주정호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김석항



국군의 날 특집호

민족(民族)의 젊음 위에

-국군(國軍)의 날에-

박두진(朴斗鎭)

일찍이 역세였던 동방의 밝은 나라

민족의 젊음 위에 영광 있거라.

그실리어 햇볕에 적동(赤銅)으로 뻗적이는

늠름한 당신들이 우리들을 지킨다.

우리들의 아기들

우리들의 아낙을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들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지킨다.

우리들의 산보로

우리들의 식사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휴식

우리들의 사색과 잠자리를 지킨다.
 당신들이 총을 잡고 적을 막는 위치
 당신들이 무너지면 우리들도 무너지고
 당신들이 너머지면 우리들은 죽는다.
 우리들의 오늘의 영위와 내일への 계산
 애인을 가족을 이웃을 친화하는,
 생활과 욕구와 거래(去來)의 계산
 건설과 허영과 갈등의 모두까지
 시기와 파쟁(派爭)과 불의의 모두까지
 당신들의 노고로써 마음대로 하게하는
 당신들은 영맹(英猛)한 민족의 자호자(字護者)다.
 민족의 정의를
 민족의 안전을
 민족의 자유, 자주
 통일과 평화를 위한
 바다같은 가슴으로 바다들을 밀어라.
 산악같은 골격으로 산악들을 넘어라.
 하늘같은 마음으로 하늘들을 날알.
 일찍이 억세었던 동방의 밝은 나라.
 민족의 젊음 위에 영광 있거라.

건군(建軍) 제14주년(第十四周年)

국군(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참모총장 공군중장 장성환(張盛煥)



현하 국제정세는 공산침략의 위협하에서 긴장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북
 한괴뢰 또한 이러한 공산진영의 횡포에 편승하여 재침을 위한 전력강화에 영일(寧
 日)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재건과 자립경제를 이룩하여야 하는 이 중대
 한 시기에 건군 제 14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지난날을 되살피고 앞
 으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오늘의 의의는 실로 큰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동경(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공군은 소수의 항공기와 더불어 창군된 이래 오늘의 면모를
 갖추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연락기에 수류탄을 싣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지상군에게 투하하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거니와 치
 열(熾烈)을 극한 전쟁 중에도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후원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
 고 공군장병의 헌신적인 봉사에 크게 힘입어 차츰 전술공군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자유와 조국수호의 전술
 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우리 공군으로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자란 우리 공군은 끊임없는 전력증강을 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양끝지의 강공창 준공, 전천
 후요격비행대대의 창설 등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공중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개척의 숨 가쁜 경쟁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산진영의 공군력증강은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괴뢰공군은 이를 배경으로 간단(間斷)없이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25동란을 회상할 때 우리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적기의 공습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항상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공할 무기의 발달과 공군력의 증대는 현대전의 양상을 달리하여 군사적 목표에만 국한되던 전쟁이 이제는 전선의 전후방을 막론한 전면적 전쟁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래에 있을 유기적이며 과학적인 전쟁에 적응하여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침에 대비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막중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공군은 자유방공군과 더불어 일단 유사시에는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이 고요히 잠들고 있는 순간까지도 경계임무에 당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신형기를 도입하고 신기지를 건설하는 등 점차 증대하여가는 적의 침략위협에 대비함으로써 적이 어느 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습을 가해 온다하더라도 능히 이를 반격 좌절시킬 수 있는 방공태세강화에 총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산침략을 저지하는 일편(一便) 낡고 부패한 과거를 일소하고 새로운 터전위에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새 나라를 건설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방 없는 국가제건은 없으며 국가제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국방력 강화란 기대할 수 없고 또 그 어느 것이나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성취하기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전은 총력전임을 생각할 때 군사력 강화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없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건군 14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본인은 공군 전장병과 더불어 승공의 신념을 한층 공고히 하고 국방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진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그 간의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62년 10월 1일



의의깊은 제14회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에 주야로 분투하시는 공군장병 여러분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회고하여 보건데 1951년 이날은 우리들이 불법 남침하여 온 적 공산군의 홍수같은 공세를 오랜 고전난투 끝에 깨쳐버리고 전렬(戰列)을 가다듬어 북진을 개시, 드디어 원한의 38선을 돌파하였던 날인 것입니다.

이날로 비롯된 우리들의 북진작전은 그 후의 미묘한 국제정세의 제약 때문에 비록 무참히도 저지 당하였지만은 우리들의 비장한 결의와 염원은 휴전기간의 숨막히는 통분속에서 우리들의 가슴에 변함없이 맥박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은 피로서 확보한 현방어선을 굳게 지키는 한편 권토중래의 앞날을 위해서 전력강화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공군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 바 있어 강화된 전투편제의 위용과 이를 담당하는 공군장병의 고도로 향상된 전투기술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희망을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극동방어에 중요한 일익(一翼)을 책임지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략전술의 추향(趨向)이 공, 해, 육의 협동 유대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이 마당에 공군의 비약적 전진은 육군으로서도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으며 육군 자체의 발전에도 커다란 고무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한국전 당시의 미비된 공군을 추세워 오늘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공군장병 여러분이 겪어 온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點綴)된 투쟁과 노력의 자취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경의와 찬탄을 또한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

저 위대한 5·16 군사혁명만 백척 간두의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진흥의 큰 길을 터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를 마친 우리나라 군대에게는 공통적으로 그 현실을 분석 검토하고 종합된 대공 전투역량으로 일대 약진을 도모할 중대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혁명 후 이를 위한 우리 군대의 노력과정에는 우리가 군대성장기에 바쳐 온 것 이상으로 과단과 인내 그리고 창의를 소요했지만 우리의 만족할만한 수준에 까지 이르러 면은 아직도 많은 노력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축보다는 오히려 반성과 결기의 날로 지켜오고 있는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군장병의 기백속에는 무엇보다도 또 한 해의 포부와 각오가 고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 × ×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 본인은 우리 공, 육군서로의 협동과 유대를 일층 강화하자는 것을 호소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 개념의 추운데 비추어 우리들의 협동과 유대는 더욱 절실히 바래지고 있을 뿐더러 급차 혁명의 주도체로서 앞으로 민족 번영의 뒷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동과 유대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협동과 유대의 전제는 우리로서의 친선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국토방위의 공통적 사명에 투신하고 있다는 자부과 긍지를 지키고 뜨거운 전우애로서 단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3군 계급칭호 및 표지의 통일을 보게 된 것도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무분별한 각 군간의 반목이 국방과 나아가서는 국운을 위태롭게 하였던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서 본인은 또한 우리 공, 육군은 앞으로 더욱 훈련과 전비를 강화하자는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동과 일진일보하는 전략전술 개념의 추이속에서 우리의 전투 역량도 역시 이와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괴뢰군은 휴전 이후 줄곧 차기 남침을 위한 전비 증강에

강분하여 온 결과 전성병력 외에 방대한 지원 및 증원역량을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북한 일대의 삼십여개 공군기지는 근 천대를 헤아리는 공군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 있는 현 정세는 우리들의 반공 적개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공 이념을 더욱 높여 언제나 적을 누를 수 있으며 언제나라도 멸공전쟁에서 치구(馳驅)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에 꾸준한 정력을 다하는 한편 전투태세를 완비하는데 창의와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필승 한국군의 전통은 이후 우리들의 결속과 노력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다시한번 국군의 날의 의의를 되새기며 공군장병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은익(銀翼)의 용사들이여! 불패의 조인들이여!

영광있으라!

해군참모총장 해군중장 이맹기(李孟基)



군사혁명 후 다사다난한 가운데 어느 듯 두 번째의「국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국방을 다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출혈적인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우리 군인을 기르고 아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외구(外寇)의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국민에게 국가의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국군에게는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영예로운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우리의 국토는 틀림없이 도서(島嶼)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론을 빌릴 필요 없이 엄연한 내 강토(疆土)는 내 혈육이 살고 있는 북쪽 땅을 우리는 공산괴뢰에게 독점 당한채 내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일찍이 해군을 개탄하여 세계를 제패한 영국이「자기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바다를 영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한 말이 생각 납니다. 힘이 약하다고 하여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한 일이지만 내 동포 내 강토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군이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는데 있지만 실지회복(失地恢復)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군에게 지어진 가장 큰 사명의 하나는 공산당의 붉은 물결 속에서 역사상대에 놓여 있는 이 북 동포를 구해 내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곧 통일의 길이오 국방의 길이며, 나아가서는 민족해방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보람 찬 길을 걷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복귀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이겁습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국군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한층 전기연마(戰技練磨)를 비롯한 전력증강에 각약면려(刻若勉勵)하여 정신적인 면에서나 전술 및 전략적인 면에서나 능히 복귀를 압도하고 능가할 수 있는 입전태세를 갖추도록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군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혁명과업완수로 민족중흥의 대전기를 마련 해야 할 중대한 시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경제 부흥없이 완전한 국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으로서 국방에 힘써야 함은 물론 국토건설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방 및 경제건설의 2대과업 완수에 원동력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내의 결속과 협조문제입니다. 과학전이며 입체전인 현대전에 있어서 각 군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없이 도저히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공기를 가지지 못한 우리 해군으로서 공군의 협조없이 상륙작전을 비롯한 기타 해상작전에 있어 훌륭한 전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군과 해군은 각각 특수합니다. 그러나 그 특수한 가운데서도 보편화한 하나의 유기적인 대생명체로서 공, 해혼연일체가 될 때 공군은 공군으로서 또 해군은 해군으로서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수호와 국토방위의 어렵고도 무거운 짐을 보다 가볍게 나누어 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공군장병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 한층 우리 해군과 양군간의 유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귀지(貴紙) 「미사일」의 발전과 아울러 공군장병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해병대사령관 해병중장 김두찬(金斗燦)



국군의 날이자 곧 공군창설기념일이기도 한 뜻 깊은 10월 1일을 맞이하여 해병들의 가장 친근한 전우인 공군장병 여러분에게 본인은 충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극히 보잘 것 없는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탄생한 공군이 그간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마침내 현대 공군을 상징할 수 있는 막강의 전력을 건설하여 조국방위의 굳건한 일환이 되고 있는 금일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녕코 우리 창군역사에 가장 특기할 여러분의 업적이며 동시에 전군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6·25동란 중 기선침공을 가해온 북한괴뢰의 실전용전투기 200대에 대항하여 불과 10여대의 연습기를 가지고 서전(緒戰)을 치른 그때의 비분과 그 후 우리 공군이 태극기 표시도 선명한 전투기를 숙련된 솜씨로 조종해서 설욕의 첫 출격을 개시하였을 때 눈물어린 열광의 갈채를 보냈던 당시의 감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바가 있으며 동란전 기간을 통하여『유엔』군중 제2위의 빛나는 출격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매양(每樣) 대공작전의 앞장이 되어 지

상군지원과 제공권 확보의 중책을 수행해 나온 여러분의 혁혁한 전공에 대하여 국민들은 한결같이 깊은 감사와 마음속으로부터의 높은 찬양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군이 더욱 증강되고 더한층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6·25의 교훈에 미루어서만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전쟁이 새로운 전략전술의 개념을 동반하고 있는 현대전이라는 데서 필연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을 띠고 있으며 더욱이 공군은 고도의 입체전하에서 수행되는 상륙작전을 통하여 우리 해병대와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의 전략기동예비대로서 차기작전에 대비하고 있는 해병대의 자체강화목표도 기실(其實)은 공군의 강화문제와 그대로 상통하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방의 공동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이 현안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원조당국의 깊은 이해로 말미암아 점차 그 성실을 거두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공군과 해병대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지표(指標)해서 언제나 유기적인 상호협동을 보다 더 긴밀히 유지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5·16혁명을 일대전기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반공의 모든 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조국재건의 대과업을 전 국민이 거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구악과 부패와 빈곤으로부터 국가민족의 위기를 구출한 우리들은 혁명초기에 발휘한바 불타는 애국심과 무한한 용기와 과감한 실천력을 여기서 더 한층 북돋우고 더욱 더 배가하여 혁명 제2년의 최대과업인 경제 5개년계획을 거군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민족주의 복지국가건설에 보람있게 기여하는 한편 대공전력의 부단한 배양으로 자립국방태세를 철통같이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숙원의 승공통일성업(勝共統一聖業)을 우리들 자력으로 기어이 성취하고자 할 것이라 함을 오늘 의의 깊은 국군의 날에 즈음해서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총장님을 비롯한 공군 전 장병의 배전의 건승과 성공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건국이념(建國理念)과 국가재건(國家再建)

김동하(金東河)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이달의
권두논문

유구 반만년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단일민족의 순결을 연면(連綿)히 이어받아 소박하나마 고유한 민족 문화를 쌓아 올린 우리나라는 결코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건국의 바탕을 갖고 있다. 성쇠흥망이 인류사를 가로 쥘는 기록이라면 이 나라의 숙명도 이 섭리에 초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들이 겪은 민족의 애환은 또한 너무나도 명암의 교착이 많았었다.

아득한 전날의 명암은 고사하더라도 봉건이조의 말로를 재촉한 신세기의 여명도 이 땅에는 결코 따사로운 햇살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 이민족의 등살에 수난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암담한 세상을 저주하던 반세기에 가까운 고난의 사정은 실로 지루하고도 빠져린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저간(這間)에 있어서 3·1봉화로 단말의 절규를 부르짖기도 했고 뜻있는 선구자들로 하여금 신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던지게끔 하였던 것이다.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갈망하던 광복의 순간은 드디어 왔었던 만 운명의 악희(惡戲)는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시련을 부과하고야 말았다.

국도의 양단과 아울러 민족의 분열을 강요당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형극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절반 땅에나마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단결을 가져오고 장구한 세월 속에 스며든 사회적 폐습(弊習)을 과감히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국민 각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여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끔 하는 모든 여건과 질서를 창설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으며

그러하므로써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과 번영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벽찬 건국의 환희도 한때였고 빈곤한 정치 속에 백악이 난무하여 파란 닳던 이 땅의 장래를 또다시 누란(累卵)의 위기속에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 바로 1961년5월16일 전후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 이 겨레가 겪어야 할 현실이었다.

웅혼(雄渾)한 건국의 이념을 앞세우고 3천만의 대행진이 도도(滔滔)히 흐르는 민족중흥의 새아침을 예상하던 벽찬 가슴의 기대가 한낱 신기루와 같이 흩어져 사라질 때 국민들의 허탈감은 비할 수 없이 컸고 배신의 분노는 드디어 분화구를 터뜨리고야 말았던 것이다.

4·19, 5·16은 바로 그것이었다. 백척간두에서 조국의 운명을 구출하고 진정한 건국이념을 조속한 시간 내에 구현하려는 열의의 결정체가 바로 혁명의 주체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혁명정부에서는 이 숭고한 민족중흥의 성업인 국가재건과업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언급하면 이미 혁명기치(革命旗幟)를 올린 지 일개성상이 넘었다. 제1단계의 청소작업은 전광석화로 끝났고 제2단계인 건설단계는 바야흐로 전속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근대국가의 경륜(經綸)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속성으로 되어있다.

고도의 물질문명은 바로 생산력의 비대를 담보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재건과업의 최대의 목표는 건전한 경제 질서의 확립에 두어야 함은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그러기에 혁명정부는 재빨리 경제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제1차로 5개년을 단위로 하여 우선 기간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의욕적인 정책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신창이의 기존산업시설이 보강확대 는 물론 신규시설의 창설 등 눈부신 태동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일방 산업구조의 개선과 아울러 정신개조의 혁명과업 또한 줄기차게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前掲한 3·1건국이념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장구한 세월 속에서 움트고 싹튼 온갖 사회적 폐습과 어두운 그림자를 쇠신타파하고 정의와 근면과 동포애로써 민족단결을 이룩하는 인간개조사업이 경제건설과 병진(併進)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형이상학적인 이 과업이 난지난사인 과업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우리들의 심경은 다음의 고시조로 임하고 있다.

『태산이 높다해도 하늘아래 피로다. 사람이 제 안 오르고 피 만높다 하더라.』『로마는 하로 아침에 이룩된 것은 아니다.』『그렇다. 그러나, 「로-마」로 통하는 길은 주름잡을 수는 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줄기차게 다름질치자 「로-마」를 향해서……』.

이 같이 물심양면의 개혁과 재건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앞길에는 허다한 험산험령(嶮山嶮嶺)이 가로놓여 있다.

기아선(飢餓線)의 국민소득은 확대재생산은커녕 단순재생산도 어렵게 하였고 따라서 고갈에 처한 민족자본 은 생산력을 빈사의 경지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무능한 지난날의 정치는 이러한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단전만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벼락부자가 되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수많은 피탈군상(被奪群像)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저항인 저주와 원한으로 날이 지고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국운을 어지럽힌 정치의 횡포가 극한을 향하여 줄달음 칠 때 이 나라를 적침으로부터 보위한, 정녕코 조국대한과의 운명공동체인 젊은 사자들인 국사용사들의 손에 의하여 운명직전(殞命直前)에서 구출되었다.

이렇듯 혁명의 녹유(緣由)를 고찰할 때 5·16의 거사는 신이 아직도 이 땅을 버리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건국이념과 국가재건을 논함에 있어 가장 주요점을 요약해서 결론을 앞세우다보면, 첫째, 우리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들이 겪은 뼈저린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 천년사적을 반석위에 올려놓고야 말 것이다.

부강하고 평화스럽고 자유로운 조국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조국의 기틀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련해 놓아야만 후손들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못난 조상이라는 누명을 벗게 되겠기에 돌을 깨물고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들 것은 건국의 5대 이념인 3·1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구한 정의 인도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로서 민주주의의 개화를 기하는 데 온갖 노력과 희생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국민 각자는 각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최고도로 발휘하여 소속된 지역에서 창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만 벽찬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재건의 중심과제인 민주주의제도의 확립은 그 전제요건으로 기회균등이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들은 제헌의 명백한 취지 속에서도 국민 각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온거지부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소리 높여 외쳐왔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랬을런지는 모르나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들은 허다한 제 약속에서 각자의 천품(天稟)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고 목살당하여 왔다.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 발전과 번영을 억제하였으며, 지연 시키었는가 상도(想到)할 때 우리는 더 할 수 없는 애도를 금할 길 없다. 그러므로 국가재건과업에 있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제의 하나로 이 숙원의 해결을 들 수 있다.

이미 시시중(施施中)에 있는 각 부면에서의 공개경쟁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시급적인 것이다. 그럼으로써만 인지와 능률의 합리적인 조직동원이 가능하며 국가전체의 종합역량이 유루(遺漏)없이 구상되는 것이다. 근대 국가사회는 고도의 물질문화의 소비가 수반한다. 그러므로 물질조달은 곧 생존을 의미하게끔 되었다.

아무리 도의적인 국가질서가 확립되어 있다고 해도 물질적인 소비재에 궁 한다면 그것은 한낱 좌선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력의 확대야말로 우리 재건과업의

최대최고의 목표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목표만은 기필코 쟁취해야만 된다. 목표물은 멀고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나 오르고 다달아야 한다. 만에 일이라도 이 자리에서 굴한다면 우리는 영영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의 구렁텅이에서 죽어 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을 노예선에 매매하는 단장의 혈투를 뿌리게 될 것이다.

건국의 이념에서 이미 지적하다싶이 우리는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거나 이러한 건국의 이념을 우리 손으로 우리 세대에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산력증강에 전력을 기울여서 부의 원천을 마련해야만 한다.

5개년경제계획은 바로 그 부의 원천을 구축하는「주춧돌」이다. 비록 오늘에 따사롭고 풍유한 생활이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밝은 내일에 살자!

내일의 꿈을 갖다 준 5·16의 아롱진 것속에 포근히 잠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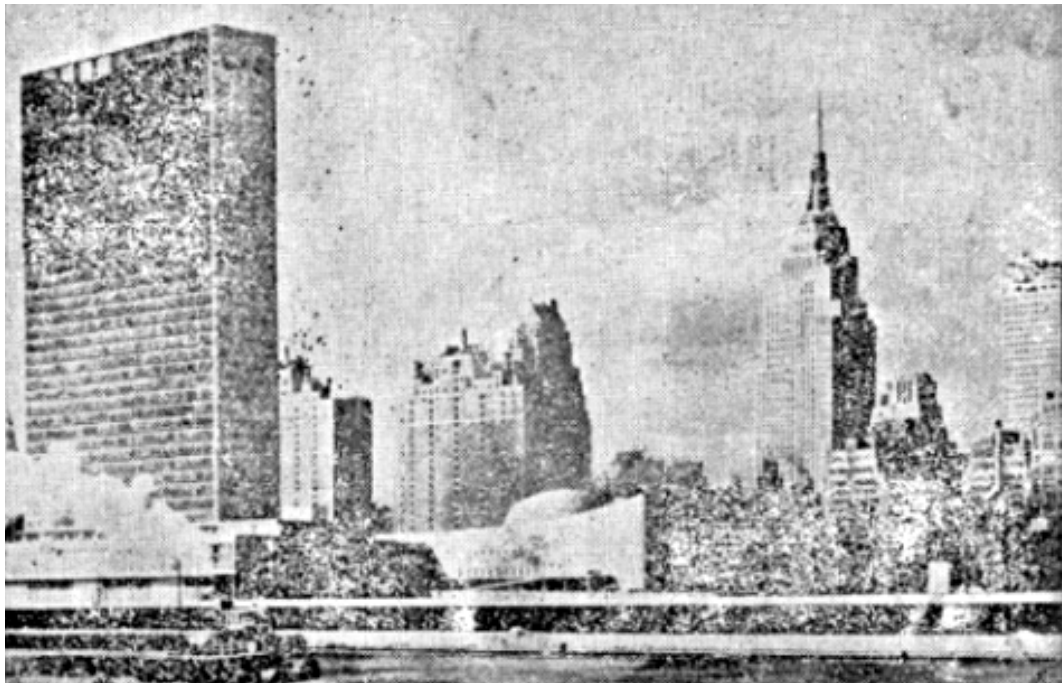
시

젊은 보람

일병 이상직

여기 젊은이가 있다.
회오리 속을 휘감겨간,
가랑잎의 여운처럼
침묵하는 기백이
온통 젊은 가슴에 서리어 있다.
젊은이여!
희망의 열이 치솟는 태양의 섬광이
새세대의 잠을 깨우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 모두 끓는 가슴을 열고,
산혈된 눈동자를 한꺼번에
조국의 기폭아래 멈추어 보자.
젊은이여!
그대의 정열과 시대의 울부짖음이
오직 우리의 뇌리속에서 약동하는 것이다.
집착된 현실이 사선에 놓여도
우리는
용감히 내일의 기약을 응시하자.
용감히 생을 양손에 총일시켜 보자.
만약
그대가 누선상에서 절박된다면
청춘의 의식창조를 망각하는 것이다.
생명을 넘어서라도
시대에 순응병진 할지어라.
청춘의 혈기를 쯤먹는 저주와 수치의 교차점.
그 상태를
미래를 위한 체험뿐으로 여겨
소녀의 마음으로
새 세대의 찬란한 섬광에
「만족」이라 약속해 볼지어다.
방패라 자랑쳐 보자.

(제10헌병대)



UN에 대(對)한 우리의 기대(期待)

김준환(金俊煥)
 <동양통신 외신부차장>

유엔 · 데이에 부쳐서

(1)

「유엔」은 오는 9월18일부터 제17차 총회의 막을 올린다. 거의 예외 없이 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어온 한국 문제는 금년 총회에도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거나와 5·16혁명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의 개최를 맞이하는 우리는 새로운 결의와 만단의 준비를 가지고 대「유엔」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고 더욱이 5·16 후에 이룩한 제반 개혁과 「유엔」의 제 원칙을 지지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국토통일방안을 우방 제국과 비공산 중립제국에게 철저히 인식 시킴으로써 한국문제의 토의에 있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지지가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17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여러 조치를 취하여 왔음이 주지된 사실이거나와 우리는 한국과 「유엔」의 특수한 관계 및 지난번의 제16차 총회를 개관하고 금차 총회를 전망함으로써 「유엔」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풀이하여 보고자 한다.

(2)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한국과 「유엔」은 달리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밀접하고 특수한 관계를 가진다.

첫째,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있어 산파역을 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일본에서 해방된 후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은 그들의 점령 지역을 공산화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을 뿐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국측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진지한 협조를 가질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측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였고 1947년 11월 제2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독립문제의 토의를 보게 되었다. 이때 총회는 「유엔」 한국위원단을 조직하고 동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동「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48년 2월 26일 「유엔」총회는 우선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의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우리의 의사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총회의 이 결의에 따라 제반절차를 밟은 후 동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를 선출하였으며 뒤이어 동년 8월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선포하였던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된 자유선거로 우리가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 1948년 12월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48대6으로 통과시켰다.

셋째, 「유엔」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였다.

1948년 8월15일을 기하여 우리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 측은 군정하에서 그들이 담당하였던 일체를 정부에 인계하고 1949년 6월 29일까지에 한국으로부터 전 미군을 철수시켰다. 그 사이 북한에 공산 괴뢰 정권을 세우고 충분한 장비를 갖춘 공산군을 육성하기에 광분하였던 소련은 미군이 철수한 후인 1950년 6월25일을 기해 북한괴뢰군의 남침을 명하기에 이르렀다.

공산군의 남침이 있자 「유엔」안보이사회는 공산침략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동시 「유엔」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결과 「유엔」 16개국이 한국동란에 참전하여 역경속에서 고전중이던 한국군의 맹우로서 대열을 같이하여 중공군으로 보강된 공산군을 격파하였고 한국을 수호하기에 이른 것이다. 1950년 7월7일 「유엔」이 「트루만」 미국 대통령에 대하여 주한 「유엔」군총사령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맥아더」장군이 그 직을 담당할 이래 한국군과 「유엔」이 파견한 16개국 군대는 동일한 지휘체통하의 전우로서 전례없는 협동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넷째, 「유엔」은 한국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1653년 7월27일의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일단 휴전되었으나 공산은 상존(尙存)한다. 이 공산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유엔」의 책임이요 의무이다. 현재 한국에도 「유엔」군이 계속 주둔중이며 한국군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 하에 있음이 현실인즉 「유엔」은 장차 발생될지도 모르는 국제공산주의세력의 모든 책동(策動) 앞에서 한국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 수립의 산파역이 「유엔」이었고 또 오직 「유엔」의 권능과 역량을 승인 신봉하고 자라온 것이 즉 한국이기 때문이다.

(3)

우리와 「유엔」의 관계가 이상과 같이 밀접·특수한 것이기에 매년 「유엔」총회가 개최되면 한국문제가 거의 예외없이 의제로 상정되어 왔다.

작년9월부터 개최되었던 제16차 총회에서는 1960년도의 제15차 총회에서 의제 폭주로 차기 총회로 토의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안건 중에 한국문제가 들어 있어 한국문제가 자동적으로 상정되었었다.

제16차 총회에서 한국문제의 토의가 개시된 것은 1961년 12월 12일부터이었다. 총회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전회원으로 구성됨)가 한국문제를 상정하기에 앞서 공산졸도국인 외몽고는 11월 30일 한국문제 토의에 남북한대표를 함께 초청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12월7일에는 「유엔」군을 남한으로부터 철수시키라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날 소련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RC)을 폐지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미국은 12월9일 대한민국 대표만을 한국문제 토의에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뒤이어 12월 12일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유엔」15개국은 통일된 한국의 실현을 위한 「유엔」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정치 위원회에서 토의가 시작되자 공산측은 특히 5·16혁명의 발생을 트집 잡아 허무맹랑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비난을 한국에 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대표 「찰스·요스트」씨는 12월13일의 연설에서 「한국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모든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한국정부는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였다. ……우리와 대한민국정부는 북한괴뢰처럼 불행한 땅덩어리를 낙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화(戰禍)와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자유 및 민주주의는 근년에 고무적인 발전을 보여 주었다」고 통쾌한 반박을 가했던 것이다.

같은 날 정부위원회는 대한민국대표를 동위원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무조건 초청하는 동시 북한괴뢰가 한국문제 취급에 있어서의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조건부로 북괴대표도 초청한다는 결의안을 63표 대 18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남북한대표를 동등한 자격으로 초청하자는 외몽고 결의안에 대하여 희랍(希臘) 및 태국(泰國)이 북괴는 조건부로 초청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북한괴뢰의 조건부 초청이라는 선은 1961년 4월에 있었던 제15차 총회에서 미국대표 「아들라이·스티븐슨」씨에 의해 처음 시사되었던 방침이다. 동방침이 비록 아이중립세력(亞阿中立勢力)과의 절충이라는 당시의 객관적 여건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에는 이해가 가나 우리로서는 용납키 어려운 부당한 경향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계숙(金桂淑)
 <철학·서울사대교수>



특
집

권
인
과
명
예

1.

현대는 우주권까지 정복할 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동시에 여기에 따라서 또는 그것과 불가결의 관계를 사회인간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왕성하며 또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인은 좀 더 나은 사회생활과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하여 각 방면에 있어서 싸우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민주적 발전」을 그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와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 심지어는 자연과학적 발달까지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올바른 민주적 발전에 참다운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니 실지로 토의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극도로 전문적이며 기술화되어 있는 동시에 종합적인 발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실지로 그러므로써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인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종합적 연구, 따라서 종합연구소의 발달의 중요성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에 있어서는 과학적 발달에 있어서도 인간적 요인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이라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러나 좀 더 고차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또 현대의 사회조직은 대단히 복잡한 동시에 조직적이며, 또「컴퓨터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복귀는 1948년 이래「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해 왔고 한국전에서「유엔」에 정면 적대하였거늘 또 대한민국이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유엔」의 승인을 얻은 바 있거늘 그들과 우리를 동석시킨다는 것은 만부당한 어불성설인 것이다. 다행히 북괴에 대한 조건부 초청은 19일 정치위원회에서 54표대 17표 불참 11표로 철회되었다.

앞서 정치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우리대표 최덕신 외무장관은 12월14일 동위원회에 출석하여「유엔」원칙을 준봉(遵奉)하여「유엔」과 협조하는 우리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동월 12월 하오 정치위원회는 참전15개국이 제출한 한국문제 결의안을 55대 22기권20으로 통과시켰고 동일 밤 총회는 동결의를 60대11 기권27표로 승인하였다 동결의는『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대외정부형태하의 통일·독립·민주한국의 수립과 동지역(한반도)의 국제 평화 및 안전한 회복을 조성하려는』「유엔」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동시의 UNCURK의 존속을 명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이 앞서 정치위원회를 통과하자 패색을 짐작한 소련은 UNCURK 해체 결의안을, 외몽고는 남한으로부터의 외군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철회 하였으며 참전15개국의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16차 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는 단락을 보았던 것이다.

(4)

이상 제16차 총회의 경과를 보아서도 짐작되는 일이지만 금년 총회에 서도 공산측은 한국문제의 토의에 대해 치열한 방해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공산 측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UNCURK의 해체·남한으로부터의 외군철수·북한괴뢰의 무조건초청 등 진부한 요구를 수단으로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한국정부에 대한 무도한 허위선전을 택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이미 지난 6월「남한으로부터의 외군 철수」문제를 토의할 것을「유엔」에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유엔」총회가 한국문제를 상정하면 작년 총회에서 결의안들이 또 제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소련이 금년에는 진작부터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금년 총회에서 공산측은 한국문제를 위요(圍囿)하고 더욱 치열한 공세로 나올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공산 측의 기중된 외교공세는 그 동기가 자명한 것이다 종전의 독립외교를 지양한 우리 혁명정부의 적극외교가 거둔 성과에 대해 그들이 초조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산측이 금년 총회에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는 이른바 국제 회의안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라오스」의 경우를 예로 하여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한국문제에도「라오스」와 같은 방안을 적용시키고자 억지 제안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월남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공산월맹 측 주장에서 엿보이고 있다. 그러한 공산측안이 제기되는 경우 그것은 1954년의「제네바」회의가 어떻게 귀결되었던가를 아는 우리로서는 일고(一顧)의 가치조차 없는 안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최외무장관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금년도「유엔」총회 대책이 이미 마련 되었다고 밝히고「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라는 통일방안과 북한괴뢰와의 동석을 거부한다는 근본원칙에는 지난번 총회 때와 변함이 없다고 부연하였다.

5.16혁명 후 정부는 수차에 걸쳐 세계 각 부문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거니와 특히 아아중립제국에 대한 적극외교로 여러 신생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므로 금년총회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종전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금년의「유엔」총회는 아마도 예년과 같이 UNCURK 보고 형식으로 한국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우리는「유엔」이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유엔의 책임을 강력히 재확인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20일 UNCURK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비율빈(比律賓)의 「후양·아레그라도」씨는 이렇게 발언하였다.『한국 방위를 위해 UN이 담당하고 있는 기본역할에 비추어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안전이 한국에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UN이 계속 지원해야 하는 책임은 아직도 중대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광범위한 원조를 필요로 하거니와 계속적인 도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은 그대로「유엔」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대변하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끝)

동서일화

없어진 뇌물

성종대왕 때였다. 어느 관리가 지방에 갔다가 비단 열 필을 받고 일을 옳지 않게 처리해준 일이 왕의 귀에 들어왔다. 그 관리가 돌아와 복명(復命)을 하자 왕은 그를 편전에 불러들여, 『요번 일에 수고가 많았을 줄 안다. 듣건대 너는 이런 물건을 좋아한다니 상금으로 가져라』하고 비단 열 필을 내 놓았다.

그러나 관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뇌물을 받은 것이 탄로되었음을 알고 그 관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죽어 달라고 복죄하였다.

그러나 왕은『죄됨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효유(曉諭)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

그 후 또 어느 재상이 척속(戚屬)인 어느 고을 수령에게서 민어와 석어 몇 마리를 받고 그것이 뇌물일까 염려가 되어 임금 앞에 부복하여,

『신의 척속되는 아무 고을 수령이 이런 것을 노모 찬수(饌需)로 쓰라고 보내왔기로 받았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정으로 주는 것은 예요 뇌물이 아니니 받아도 무방하오』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청렴 결백한 이도(吏道)인가.

발달과 함께 대단히 통제력이 강하며, 따라서 기계적인 기능이 지배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기계적인 조직체 속에 있어서의 피동적(被動的)인 생활만으로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 물질적이며 기계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도 현대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한 특징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향의 강화는 고도의 과학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사회생활」이라,「민주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실생활과 행동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인간적」기능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인간가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부족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따라서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의 장애와 폐해(弊害)는 대단히 크다. 즉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사회행동」의 문제는 올바른 현대적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은 한편에 있어서는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독특한 심리현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집단의 성원으로서 집단과 같이 공통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집단과의 관계에 의하여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나, 그러나 우리의 개성의 발달은 가정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와 생활양식은 물론이요, 그 도덕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또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형성되며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생활은 사회행동과 함께 개성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에 있어서는 성격, 능력, 기질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총칭해야「개성」이라고 하며, 그것을 영어로서는「필쓰널리티」라고 한다. 그런데 보통「필쓰널리티」를 인격이라고 번역하면, 심리학자가 쓰는 인격은 주로 복잡한 정신현상을 의식 활동 속에서 융화시키며, 통일시키는 개체에 있어서의 통일체를 말한다. 즉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시간적 통합의식과 함께 현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공간적 통합의식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심리학에 있어서는 미래를 향하여 발달 변화하는 정신현상에 대한 의식적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개성」을 가진 개체로서의 인격도 사람, 즉 인격적 존재를 비인격적 존재에서 구별하는 절대적인 특성이다.

그런데 사람은 개체로서의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에 논한 인격적 특성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구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되어야 한다. 아니 윤리에 있어서는 사람의 사람다운 가치를「인격」에 둔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인격은 심리학에 있어서의 경제적 의식내용의 통합이나 연속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아의식에 의한 정신적 통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인격은 그 자신의 동기에 대하여서도 선택(자유선택)을 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목적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하는 동시에 그 활동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며, 또 실지로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진 주체를 의미한다. 더욱이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러한 성격을 가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자율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진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며 행동하려고 하는 참다운 자유의사를 가진 도덕적 존재인 동시에 인격(인격자)은 그 자신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일반사물의 가치는 공리적(公利的)인 것에 있으나, 인격은 내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즉 인격은「존엄성」을 가져야 하며, 위엄이 있어야 하며,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인격의 발달이 불완전하면, 의식분열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에 빠지며, 이중인격이나 복합인격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인격상실 또는 인간소외에까지 이르게 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현상은 극단적인 대립상태에 있으면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특징의 하나이라고 하면, 현대인으로서의 우리는 인격의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이 현대의 병징(病徵)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격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2,

사람을 사회적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욕구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한 사회생활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촉진 하면서 또 욕구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때에 있어서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대립 협력 도피 등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을 복잡하고도 통제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 각자가 어떻게 처리하여나가는나 하는 것은 각자의 특성 따라서 인격에 의하여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개체로서의 개별적 정신적 발달과 함께 집단내의 다른 성원과의 심적 교류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 약속이나 통제력의 영향도 대단히 크다. 즉 법률이나 관습과 같은 것은 통제력에 의한 집단행동이며 반대로 집단에 통제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군중에 있어서와 같은 비통제적 집단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는 집단행동의 영향은 더욱 크다. 또 집단의 각성원은 집단행동을 직접표면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집단태도와 집단의견으로서도 나타낸다. 심지어는 무조건 남에게 따라가는 태도와 의견, 선입견과 편견 등까지도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또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과 정신적 활동이 혼동되어서 전체사회의 기능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주체적이며 도덕적이며 참다운 민주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또 현대인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인격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욕구와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인격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창조적 지성의 인간형성은 극히 중요하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분담 수행하려고 하는 사회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그 집단속에서 또 독립한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인정 받으려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며, 자기의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이 욕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적극화하여 자기의 욕구와 감정 또는 사상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표현하여 자기의 존재를 남에게 뚜렷하게 알리려고 하는 욕구는「자아표현」의 욕구다. 이 욕구는 소년기에서부터 청년기에 걸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일지도 쓰며 소설도 써보며, 모양도 내 보며, 또는 남이 아니하는 것을 하여 보려고 애쓴다. 청년기가 지나서도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회적 행동에 실패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분발하는 경우도 많다. 문학가가 실연을 계기로 대작을 창작하였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아표현의 욕구의 구체적인 것으로서「명예」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는 동시에 그것을 잘 처리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평가하며, 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지능과 기능의 전력을 다한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욕구로서는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통제활동 가정생활 신체적 활동욕구는 권력욕이나 입신출세욕과 함께 통제활동에 속한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기의 존재와 위치 또는 가치를 특히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명예는 성립된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는 어디까지든지 사회적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명예가 다만 외적인 명성이나 타율적인 것에 그친 때에는 그것은 공명심에서 못 벗어날 것이며 도덕적인 포부가 결여될 때에는 허영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서 참다운 명예는 사람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존엄성, 즉 인격적 가치의 자각에 의한 도덕적 명예를 의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격이 도덕적인 가치의식에 의한 자아의 통일 인 만큼, 참다운「명예」는 이와 같은 참다운 인격의 기반위에서야 하며, 또 여기에서 사회적 욕구로서의 명예는 그 참다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의식과 큰 포부수행에 대한 열정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며, 좁고 적은 자기를 참다운 인격적인 인간으로 형성시킬 때에 우리의 사회적 욕구는 참으로 충족될 것이며,「명예」도 그 참다운 가치를 가질 것이다. 학교에서 감독자 없는 시험제도인「어너·씨스팀」 제도를 장려하는 것도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욕에 눈이 어둡고 인격을 무시하는 현대인의 반성도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집에서 딸을 시집보내면서 시집가서는 말 존재를 잘 하여야 하느니라고 일러 보냈다. 이 색시는 시집에 가서 말을 조심해 쓰는데 한번은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을 보고「송아지님이 머치님을 쓰시고 마당에서 뛰시니까 강아지님이 보시시고 지즈십니다」하더니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 가다가 시아버지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밥상님을 모시고 내 발님이 들어가오니 아버님 대갈님을 치시요」하더라.

명예심(名譽心)은 가치적(價值的)인 욕구(慾求)다

-그 내재성(內在性)의 정당(正當)한 파악(把握)을 위하여-



노산(鷲山) 이은상(李殷相)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나라 근대문학 중에 한문으로 된 유명한 수필 한 편을 번역해서 읽어보고자 한다. 작자는 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 제목은「모기이야기」(苦蚊說)- 호남 전주의 모기라면 전국에 이름이 들렸고 해안지대에 있는 모든 모기들도 역시 전주 모기와 형제를 서로 닮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다 순천 금오도 모기를 추대하여 할아버지를 삼기 때문에, 금오도 모기야말로 일국의 모기 대왕인 것이다.

이 섬에는 본시 사슴이 많아, 사슴 때문에 금오도의 이름이 일찍부터 전국에 들렸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 데서부터 양식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사슴의 피를 마시러 오는 자가 많은데, 그래도 여기 와서 모두들 모기에게 살을 뜯겨서 피가 감해지기 때문에 「금오도 사슴은 반드시 사람에게 보약이 되지 못 한다」고 까지 하는 말이 생겼으니 그것은 사슴의 피가 사람에게 보약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해됨이 많다는 것을 말함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곳 모기는 크기가 쇠파리만하고 입부리는 보릿 가스랑이 같으며, 한 놈이 울어도 우레소리 같고, 떼를 지어 날며 하늘을 덮으며 낮에도 사람의 살 위에 엉겨들어 피를 빨기를 반대처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누웠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튼 일어나 탄식하되

『모기야 내가 무슨 죄냐』

하고 말하자, 마침 경상도 함안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함안이라고 불리우는 이가 있어, 모깃불을 피우다가 나의 탄식소리를 듣고 웃으며 하는 말이,

『천하에 완전한 복이란 없는 것이오. 그리고 또 반드시 서로 뒤집어지는 이치가 있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오? 해가 돋았다가는 지고, 달도 차면 기울고, 또 물은 불을 이기지마는, 흙이 도리어 물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벌은 능히 온갖 짐승을 먹어 천하에 적이 없지마는 턱 벌레에게는 씹히고야 말며, 연가시는 때미를 잡지마는 참새가 그 뒤를 덮치는 것은 보복이 바로 소연하지오. 또 인간의 일로 말할지라도 큰 부자에게는 반드시 그 재산을 깎는 자가 생기고, 조금 넉넉한 자라도 그 이익을 갈라 가지는 자가 있는 법이니 그 계 모두 다 하늘의 시키는 일이오. 당신이 사람의 피를 마신 지 몇날 동안에 피가 왕성하고 살이 부드러워지니까 아마 하늘이 모기를 시켜서 당신의 이익을 갈라 가지게 하는가 보오』

『그래 그렇겠소. 내가 취한 이익을 모기와 더불어 갈라 가져서 하늘의 뜻에 순종 가는 건 좋거니와 사슴은 그래 모기에게 무슨 은혜를 끼쳤기에 이같이 모기가 나서서 복수를 하는 것인고』

「함안」이 다시 하는 말-

『보시오. 모기란 하잘 것 없는 미물이오. 또 더구나 외로운 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슴이 아니었던들 그 이름을 사방에 드날릴 수가 없었을 것이니 어찌 그래 큰 은혜가 아닐 것이오』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초연히 앉아 탄식하였다.

『미물도 명예 앞에서는 죽는 것인가?』

(운양문집에서)

× × ×

한말, 김윤양의 수필「고문설」은 명예심이란 생명과 함께 그 비중을 다투는 것임을 말한 풍자적인 명품이다. 그러나 모기 같은 미물이야 명예가 무엇인지 알 것이 있으리마는, 아닌게 아니라 다른 동물 가운데는 저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저를 욕하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우리 옛 풍속의 한가지로 「소싸움」을 붙이는 일이 많았는데, 두 편 소 입자는 각각 제소 곁에까지 닳아서서 「우리 소 잘한다」고 응원을 해야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싸움이 끝난 뒤에, 소는 저를 응원해 주지 않은 것에 괘씸한 생각을 품고 제집 주인을 뿔로 떠받아 크게 상치기까지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같이 동물에게도 명예심의 일단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더구나 인간이란 생물적 조건에 있어서는 모든 동물과 더불어 가치적 조건을 더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비로소 모든 동물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인간의 삼대욕이란,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을 말함인 것인데, 그 중에 식, 색, 두 가지는 생물적인 현상이지만, 명예 한가지만은 가치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보면 인간이 모든 동물과 다른 까닭이야말로 명예욕 한 가지를 더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명예욕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의 하나인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적인 품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긍지요, 과시요, 자부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가치적 존재로서의 요소인 이「명예」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훼손치 않고 보전, 강화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명예욕의 선량한 충족을 위해서는 오히려 식욕이나 색욕 같은 인간으로서의 생물적인 욕망을 스스로 제압함에까지도 이르는 것이다. 아니 모든 재산이나 지위나 생명까지라도 유쾌히 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니, 우리가 동서고금의 역사상, 수많은 충신들과 순국 의사와 순교, 순직자에게서 그 많은 호적(好適)한 예를 보는 것이다.

사슴이 뿔을 아끼는 이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명예를 최대한으로 아끼고, 위하는 것임은 물론이요, 특히 교양과 지식을 쌓을수록 그 도는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것임을 본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것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식욕을 전폐하고 고민하기도하며, 또 마침내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가일층(加一層) 노력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위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존중히 여겨 주기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와 남과의 사이에 각인의 명예를 서로 위해주는 조절과 교환에 의해서 사회의 질서가 서고, 사회의 발전이 있고, 나아가서 모든 문화는 향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를 유지한다는 것은 도덕상 내지 법률상으로 고소하는 것쯤은 초급의 이야기요. 생명을 갈고 사투함에 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진 명예감정의 근본원칙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나 탐내고 있는 명예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과연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는 그것이다.

나는 앞에서「명예란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적인 품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긍지요, 과시요, 자부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그「가치적인 품위」에 대한 자기충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긍지로 여길 만한, 과시로 여길 만한, 자부할만한, 존중히 여길만한,「명예로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양,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할「명예로운 실질적인 내용」 그것은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다만 남에게 자기를 존중히 여겨 주기만을 기대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명예위에 상찬(賞讚)을 가해 주기만 강요하기까지 하는 일이 많음을 본다.

각자의 명예에 대한 타인의 존중이란 것은 인간사회발전의 가장 소중한 항목 중의 한 가지임은 물론이다.

그러기 때문에 고래(古來)로부터「민중이 가지고 있는 식욕, 색욕(성욕), 명예욕의 삼욕을 충족히 해주라」는 것이 위정자의 성공요결 인 것이요, 그리고 또 하필 위정자뿐 아니라, 모든 부면의 지도자나 모든 기관의 운영자에게까지 가장 요긴한 묘제(妙諦)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나 군중이 이「명예」에 대해서 강렬한 의욕을 가질수록, 그 국가 그 사회가 힘차게 발전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지도자는 매양 그 본유(本有)한 의욕을 살려 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군대라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명예욕을 충족시켜 주는 곳에 더 큰 공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논공행상(論功行賞)이란 것이 바로 그 때문에 있어 온 것이요, 또 언제나 필요불가결한 것임도 물론이다.

이 명예욕의 정당한 충족으로 말미암아서는 일,

이인만이 아니라 전군이 사기가 왕성해져서 대승리, 대공적을 성취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지휘자들이 군중의 명예욕을 살려서 싸야함을 말함이어니와, 국민이나 군중 자신들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점인 것이다.

옛날 한나라 때, 풍이(馮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매양 논공행상이 있을 적이면 모든 장병들은 서로 다투어 제 공을 내세우기에 바쁘건만, 그는 홀로 멀리 떨어져 큰 나무 밑에 가서 우두커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일러「대수장군(大樹)」이라고 일컬었고 인하여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후세에까지 전한 것임을 본다.

남의 상훈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자기 자신이 궁지로 여길 만한, 과시할 만한 자부할 만한, 스스로 존중히 여길 만한, 명예로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저절로 그 보답이 오고야마는 것이다.

명예는 결코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내재적인 것이다. 가치적인 품위를 어찌 외부에서 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설혹 외부의 상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내재적인 실질이 없는 것이라면 그 명예는 도리어 역효과로 욕(辱)됨이 되고야마는 것이다.

저 임진란이란 무서운 전쟁이 끝난 뒤에 조정에서는 역사적인 일대논공행상이 있었다. 그때 최고의 일등공신은 3인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니, 충무공과 권표도원사(權標都元師)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충무공을 모함하고 기류(妓流)들과 향락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왜적의 칼아래 지저분하게 죽어, 그 머리가 일본으로까지 모욕의 표본품으로 실려 가기까지 한 원군이었다.

임란의 일등공신이란 외부적 상훈을 가지고 원군의 가치적 존재로서의 명예로운 품위가 확립되어지는 것이 아님은 여기서 명백히 입증되어 있음을 본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명예에 대한 정당한 의욕을 발휘해야 할 따름이다. 내재적인 가치를 충실히 갖추는 곳에 명예욕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아무런 실질적인 품위를 갖추지 못하고 다만 외부적인 상훈만을 탐하는 것은 명예욕에 대한 자기 모독인 것이다.

남의 존중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존중할만한 가치적인 품위를 먼저 세우도록, 그것의 내재성을 정당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인(韓國人)의 수치심

김정옥(金貞玉)
〈이대학생처장〉

사람이 하등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긍정이 되면 마음의 동요나 주위의 유혹에 끌리어 가지 않는 자제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 왔다. 또 생활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스스로 인정도 한다. 물론 우리가 하등동물이 되어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이 인간의 자제력이 모디어 한 개인에 국인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도덕이 되고 한 가정이면 그 집안의 가풍을 이루며 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 윤리가 형성 되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칭찬을 받아 왔다. 특히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으로부터 이 최대의 찬사를 받아 왔던 것이다. 예를 잘 알고 잘 지키는 나라라 하는 것은 결국 겸양지심이 많다는 뜻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내가 받아서 기뻐한 것은 남에게 선듯 주는 항상 남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 삼한시대 때 이미 행자는 서로 길을 비키면서 먼저 가는 것을 권했다는 기록이 생생히 남아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도 예의를 밝히 알아서 행하는 나라라고 한 말이 결코 과장된 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예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행하여 지는 것인가.

이씨왕조때 가장 학문의 황금시대를 이루게 한 성리학의 골자인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잠깐 보면 사람은 인, 의, 예, 지가 근본으로 있어 이것이 외기에 접촉이 되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으로 발로되니 이것이 곧 희, 노, 애, 락, 애, 악, 욕의 칠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의 인, 의, 예, 지의 근본 착한 본연지체(本然之體)는 사람만이 소유한 가장 귀한 본성이라 했고 또한 사람은 그 본성에 어긋날 때 곧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자기를 억제하고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람은 본시 겸양심이 많았다. 거기다가 유교가 들어온 후로부터 천년 넘어 그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또 학자들은 몸소 실천해 왔다. 옳은 것을 볼 때 서슴지 않고 좇아하는 다시 말하면 취사선택(取舍選擇)에 있어서 과감하게 나가는 성격을 또한 우리는 가졌다. 아무리 이씨왕조 때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았으나 학자는 극히 제한된 수효만 있었고 거국적으로 민도가 낮았던 그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유교의 예법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산간벽지 불학무식한 백성들까지 미풍양속을 이루지 않았던 곳이 없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 왔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준다.

그런데 요새 와서 우리는 가끔「좀 이리저리 말았으면」하고 느끼는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어떻게면 나아질까? 나는 어느 날 아침 출근시간에 늦을까보아 갈팡질팡 하다가 시발택시를 하나 불러타게 되었다. 차에 막 오르려고 하니 한 신사가 옆에서 같이 좀 타게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서 내 대답도 들을 생각 않고 차안으로 들어와 앉아 버린다. 차는 급히 달렸다. 세종로에 오니 이 신사는 운전수 보고 내리겠다고 한다. 정거하자마자 그 사람은 어느 누구보고도 고맙다는 말 없이 그리고 물론 돈 좀내겠다고 말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참 딱했다. 그리고 한심스러웠다. 나중이라도 좀 무안이나 할 줄 알았으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중의 하나인 수치심은 아예 없는 것 같기만 하다.

한번은 시장을 갔다. 황홀하게 펼쳐진 포목들을 이리 저리 구경하고 있으려니까 서툰 한국말이 들린다. 고개를 길게 빼고 몇등을 넘어 보니 미국 젊은 부부인 듯한 외국인이 찬란하게 짜진 양단을 만지면서 그 값을 흥정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 들었어도 엄청난 호가다. 슬슬 나는 그 옆으로 갔다. 그리고 그 포목상 보고 왜 무엇 때문에 제값을 안 부르고 그렇게 비싸게 하느냐고 하고 그들을 도와서 비단을 사게 해 주었다. 그 외국 사람은 물론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 포목상하고 그 옆에 여인들은 나보고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아즈머니 팔아주어서 고맙긴 하지만 글썽 아즈머니 미국사람에게 비싸게 안 팔고 누구한테 팔겠어요, 돈 좀 많이 팔으려고 했더니……」나는 기가 막혀 그들을 보았다.「신용 있게 외국인을 대하세요 자꾸 팔릴 터이니……」 한 잘사는 친구 집에 가게 되었다. 누구의 생일인 듯 음식이 굉장히 나온다. 모두 맛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먹고 즐겼다. 후식을 더욱 맛나게 먹으면서 인제는 여러 가지 지난 이야기를 하며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대문안으로 누가 들어서는 것 같더니 곧 이어서 말을 옥신 각신 주고 받는 것이 들린다. 이 맥 안 주인이 화가 난 듯「다음에 오라는데 왜 지랄이야 지금 바쁘다니까」 알고 보니 신문배달꾼, 그 어린애는 지난달 신문 값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안주인은 돈 없을 뿐 아니라 바빠서 못 주겠다고 야단이다. 나는 승허물 없는 사이라 그이보고「이것보우, 날마다 아침 저녁 빠지는 일 없이 신문을 갖다주고 돈 달라는데 그 왜 안 주? 정말 돈이 없소? 시간이 없다니 그 야단법석하는 시간에 그 에 돈 갖다주면 안 되우? 줄 돈은 줍시다」 알 수 없는 일은 자기가 본 신문 그리고 내야 할 돈을 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면서 안 주는 건지 모르겠다. 돈이 정 없으면 신문은 못 볼 것 아닌가.

신문뿐만 아닌 듯, 더욱이 있는 이가 공연히 자기 낼 돈을 도리어 호령을 해 가면서 안 주는 일이 꽤 있는 듯싶다.

단 몇 사람으로 구성된 회합이었다. 시간은 오후 다섯시 구성된 회원은 매우 점잖은 분들이었다. 다섯시 오분전에가니 한 분이 한시간 이십분후에 다 왔지만 정작 사회할 회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속에서 불이 이는 듯했다. 언제까지 이렇게들 시간을 안 지킬 작정인가? 회장 한 시간 사십분 늦게 와 가지고 늦은 이유를 길게 설명 하고나니 더욱 시간 낭비, 어떻게면 우리에게도 시간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까?

택시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와 사람은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택시 속에 뒹든 우리들은 손에 땀을 쥐고 아 소리 질렀지만 운전수는 뛰어나가 자전거 탄 사람이 많이 상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 사람을 낙구쳐

이르켜 가지고「이 자식이 죽고 싶거든 어데가서 되지지 누구 못 할짓 시킬려고 차 앞에서 알진 거리는거나」 그리고는 이 뺨 저 뺨을 친다.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하겠다. 먼저 가서 아픈 것을 알다 묻고 부축해주고 위로 해 줄 것 같은데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때리고 욕하니 참말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해방 이후 이나라는 남의 손에서 두 동강이로 갈라 졌다. 그 탓에 우리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다. 부모형제를 이별한채 고향을 그리고 하면서 세월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보다도 더 절박한 것은 경제적 위협아래 절빈속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게 된 것이다. 이러기에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것처럼 겸양지심을 내버려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가나 매마른 성격에 부닥긴 거센 목소리! 싸움! 증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도지(道之) 이덕(梨德)하고 제지(齊之) 이체(以體)면 유치차격(有耻且格)이니라」덕으로써 가르치고 예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이 있고 격이 있게 되니 그 비심(非心)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공자의 말씀인「의식이 죽어야 예법을 안다」는 말이 천추의 진리인 듯 그렇게도 예절을 알았든 우리가 지금 같은 각박한 인심을 갖게 된 그 이면은 안정된 생활이 부족한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점점 잃어가는 책임감, 돈이 정말 없는데 돈에 대한 관념이 아직도 실제적이 못되는 것 그리고「남이 하면 나도 해야지」하고 유행에 쉽사리 감겨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의 대적으로 알고 과감히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은 지금의 20대에 있는 것이다. 20대 청년들의 결심은 곧 한국의 약속된 장래 기초가 될 것이다. 그 광명한 날을 담당해 나가 청년들은 분명히 인, 의, 예, 지에다 수치심을 간직해서 다시「동방예의의 나라」를 이룩해 놓으리라고 확신한다.

군인(軍人)과 공명심(功名心)

한학수(韓鶴洙)

<공군중위 군복>

1, 사람에게는 명예욕이 있다

명예욕은 인간의 삼대욕 중에 하나이다. 식욕, 성욕, 명예욕은 인간본능의 기본요소이다. 이 3대욕망의 파생으로 몰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기타 다른 욕망이 나온다. 욕망이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란 원래 하고 싶은 존재이다. 무엇을 하고 싶다. 프다의 존재이다. 사람은 하고픈 의욕이 없어질 때에는 인생자체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먹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고 높이 싶어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욕망덩이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람은 욕망의 화신이다. 살고픈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요, 절망에 빠진 자이다. 그러한 자에게는 희망이나 장래나 건설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그의 마음과 생활에는 자포자기와 비애와 무기력만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면서도 살고 싶어 한다.

3대 욕망중에 식욕이나 성욕은 자기보전과 자기번식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그러나 명예욕은 자기를 값있게 하고 높이려는 욕망이다. 자기의 생을 더욱 더 값있게 하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픈 욕망이 명예욕이다. 명예라는 말은 칭찬, 평판, 존경, 가치, 존엄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나』라는 대명사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명예욕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차 강력하게 되어 진다. 자아의의가 뚜렷해짐과 동시에 자기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마음은 더 강해진다. 자기라는 존재에 대하여 좋은 평판과 명성을 받기를 즐기게 된다. 명예는 인간의 도덕적 품위와 인격의 품위의 자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명예는 인간의 도덕적인 존엄성에 대한 자각, 인간만이 가진 윤리적 표준을 자각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좋은 평판이나 이름을 얻는 것이나 도덕적 품위와 인격의 고상함이 남에게 인정되어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명예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명예욕은 인격을 높여주는 추진력이 된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품위를 높이고 남의 존재를 높이고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욕망이 강력하게 작용할 때에 인간존재를 높게 되어 진다. 여기에는 인간 속에 있는 덕성과 자질을 발현하고 개탁하고 활용하여 보다 더 값있고 고매(高邁)한 인격을 만들려는 의욕이 강하게 작동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덕성과 자질을 잘 개발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인 과학자, 정치가, 도덕가, 종교가들에게 진정한 명예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욕이 과도해지면 공명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망치고 남을 망치고 국가민족을 망치고 온 인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된다. 명예욕이 과도해지면 자기승화 인간가치의 향상보다 자기확대를 일삼게 된다. 그래서 자기존재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되고 자신이 생겨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며 자기추구에 몰두하게 되며 자고(自高)하여 자만상태에 빠져 자궁(自矜)하게 되며 자기 안락과 자홀경(自惚境)에 들어가게 되어 진다.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움직이게 된다. 자기의 존재만 키지고 남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되어져서 남을 정복하기를 일삼게 된다. 이러한 자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이 되어 교만하며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게 된다. 자기주장과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며 조작된 칭찬과 명성으로 만족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의 교언령색(巧言令色)에 귀가 가려서 자기평가와 남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할 수 없게 되어진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자기변호에 충실하고 자기명예에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지 제겨, 훼방, 말살, 숙청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은 정치인이 되면 독재가 되고 종교인이면 독선자가 되고 경제인이라면 지독한「싸이록」이 되기 마련이다. 명예욕이 과도해지면 자기를 광대하여 절대화하게 된다. 이러한 형의 가장 전형적인 인간으로써「나폴레옹」이나「히틀러」나「스탈린」을 들 수 있다.

콜시카섬의 한미(寒微)한 가정에서 출생한 야심 많은 청년「나폴레옹」은 군인이 되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풍운아처럼 두각을 내밀게 되자 자기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 황제가 되고 그것도 만족치 못하여 황후 조세핀을 버리고 오스트리아 황녀를 취하여 자기가 황통인 것처럼 복장하고 나아가서는 유럽전체를 정복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다. 그 결과로 유럽 전체는 전쟁 속에 신음하였다. 그는 극히 교만하여져서 불가능이란 말을 사전에서 빼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은 그를 엄습(掩襲)하여 그로 하여금 고도(孤島)「센터 헤레나」섬의 이슬로 살아지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의 우수성에 대한 명예를 너무 강조한 결과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수천만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스탈린」은 자기의 주장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인의 숙청과 학살의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니 과도한 명예욕은 자기를 망치고 남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그러므로 명예욕에 대한 조절과 절제가 필요하다. 사람의 욕망에는 경향성이 있는 까닭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아주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자기 확대만 일삼게 되어지는 것이다.

2, 군인은 공명심에 사로잡히기 쉽다

군인은 국가의 명예를 걸머지고 나선 용사이다. 국가의 품위와 존엄성을 해치려는 자가 있을 때에 단호히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군인이다. 국가의 안전과 명예를 위하여 직분을 가진 군인은 인간자체의 권리와 존엄성과 품위를 수호하는 파수꾼이다. 전쟁명예수호를 위해서 싸운 것이다. 그러니 옛날에 영주나 제왕들은 대부분이 장군들이었다.

싸움에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에게 최대의 존경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직분은 명예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직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군인은 저마다 전공을 세우기를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 전체의 복지와 명예를 위하여 개인의 편익과 입장을 돌보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군인은 명예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 희생까지 즐겨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군대의 계급제도가 공명심을 자극하기 쉽다. 계급은 개인각자의 명예가 되는 까닭에 공을 많이 세워진 진급을 빨리하여 상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간혹 군무에는 충실치 못한 자가 상급자 개인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자가 있다. 아부나 아첨을 일삼고 농간을 부리는 자도 간혹 있다. 이러한 자는 대부분 실력이 없거나 무능자에 속하는 부류들이다.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그 집 문턱은 이런 부류들로 인하여 달코 더러워진다. 보상제도는

개인의 공명심을 자극하여 큰 효과를 노린 제도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 전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거나 표창을 받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다. 정당한 경쟁을 통한 승리 혹은 전공을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게 되어 분발케 하는 힘이 된다.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큰 효과를 가져온다.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만든 사람은「나폴레옹」이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쇠붙이를 달아줌으로써 공명심을 자극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었다. 대개보면 독재자들은 많은 훈장을 만들어서 명예심을 자극하여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창제도가 너무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높혀졌을 때 잘못된 경향이 나타난다. 남의 전공을 자기의 전공처럼 잡칭하는 일도 생기고 남의 공을 훼방하는 일도 생긴다. 그러한 전형적인 인물 가운데는 임진왜란시에 원군이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충무공의 전공을 자기의 전공인 것처럼 가장보고하기도 하고 또한 충무공을 훼방하기를 마치 아니 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전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시기심이 나오고 시기심이 강해지면 남을 훼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단결을 와해되고 군기는 문란해진다. 군인이라는 직분이나 계급제도이나 호상제도 까닭에 군인은 공명심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군인은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사람의 값은 공명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명예욕은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나 과도한 명예욕은 사사로운 공명심이 되어 자기확대만 일삼게 되는 것을 이미 말하였다. 정당한 명예는 공명심이 아니다. 공명심은 자기개인이 높아지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다. 정당한 명예란 객관화되어 남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 존경해주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사람은 큰 사람일수록 공명에 죄우되지 않는다. 민족적 영웅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전공을 명나라 척독(提督) 진린(陣麟)에게 돌려주었을 적에 명군은 이순신장군께 대하여 진린척독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예로 공경했으며 이에 경복한 진척독은 명제에게 상보한 바 황제는 충무공에게 명군 수군도독이라는 벼슬과 칼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명나라 수군도독이라는 이름을 자처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항상 충칭, 전라, 경상, 수군 통제사라는 직함을 썼다고 한다. 이와 같이 큰 인물은 공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소인들은 공명심이 강하다. 남을 물고 뜯으면서도 악착같이 올라가겠다고 날땀다. 사람의 값은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지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아의 자질을 발견하고 정당하게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데 자신을 제공함으로 값이 있다. 인간→자체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려는 일을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공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매장과 모욕을 당

(P27로 계속)

명예와 평판

성인기
 <한국일보부사장>

수은주가 93, 4도를 오르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중복허리에 「명예와 평판」이란 제목의 만필을 쓰자니 구슬땀을 뻘뻘 흘리고 앉은 필자의 모양이 만화거리가 될 것 같아 혼자서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명예와 평판」이란 얼핏보면 시원할 듯한 제목 같으나 명예를 얻고 좋은 평판을 듣자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참고 관용하고 있는 돈을 잘 쓸줄도 알아야 할 일이니 따지고 보면 어려운 얘지요, 무더운 얘기가 될밖에 없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필자 자신이 만필이나마 잘 썼다는 평판을 듣자면 더욱 땀을 안 뻘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명예란, ① 좋은 평판을 얻는 일, ② 세상에 들어난 좋은 이름, ③ 도덕적 존엄과 인격의 품위에 대한

자각이 남에게 승인되거나 존경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으며 평판이란, ①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하는 일, ② 세간의 비평 ③ 유명한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풀이 그것이 원말(原語)보다 도리어 어려워져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거니와 한말로 잘라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하면 명예도 깎이고 평판도 나빠진다고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의「뉴앙스」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양의 동서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볼 것이다.

명예나 평판은 물론 좋은 의미의 명예와 평판은 일부 특수한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나 얻고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원한다고 바란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약간의 명예를 얻고 좋은 평판을 듣는다하여도 거개는 그 자리서가 아니면 며칠이 못가서 잊어지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옛부터「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가하면「이름은 죽백에 드린다(명수죽백)」라고 하여 역사적 기록에 남긴다는 말도 있고 또 유방백세라고해서 명예와 평판이 기리 빛난다는 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역사에 올라 백년 천년 빛나는 예는 지극히 적은 것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부터는 아득해서 알길이 없지마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해서부터 5천여년만 보더라도 역사에 이름석자가 기록된 인간만 쳐도 성군을 비롯하여 현상, 명장, 충신, 열녀, 효자, 거부 예술가, 대 문장가, 학자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많은 사람중에서 아직도 세계의 인류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되고 숭배되는 인물이 얼마나 되는가 세어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낙양산 10리허 높고 낮은 저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누구누구. 우리도 죽어지면 저 모양 되리로다」하는 6자백이가 나옴직도 한 일이 아닌가.

몸은 비록 흙보탬이 되었으나 그의 정신과 주장이 많은 사람의 핏속에 맥맥히 살아있어서 숭배되고 존경되는 예를 들자면 아마도 공자, 석가무니, 예수, 「모하메트」등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공자의 가르침은 본시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을 중심으로 의, 예, 지, 신,을 논하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인격을 닦고 가정을 화목하고 질서있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길을 얘기하고 논한 것이매 이것은 교라고 할 수 없고 도라고 일컬어온 임금이 있나 해서 천하를 두루다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 사숙을 열고 모여드는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문하에 모였던 제자는 3천 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제자 일흔 두명이 있어서 공자의 유도를 전하고 부연 주석해서 이 유도는 동양 3국에 널리 퍼져 숭상되는 것이다. 지금 중국본토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이른바 가족생활까지 단란하게 못하게 하고 인민공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므로 공자의 가르친 길은 쇠퇴해 버렸으리라고 추측되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그의 가르침은 아직도 지켜오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명망은 높아지고 또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서 2천5백여 년 후인 지금까지 이른 것이다.

「석가무니」는 지금부터 2천5백여 년전「히말라야」산 남쪽에 있는 가비라성주 정반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궁사극치 남 부러울것이 없었으나 그는 생노병사의 4고를 구제하겠다는 생각에서(이십구 세때라함) 물래 궁전을 빠져나와 산에 들어가 고행하기 6년만에 정각을 해서 불법(佛法)을 퍼 넓힌 분이며,

예수는 유태(猶太)국에 나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여 인류를 영원히 구제하고자 설교를 하고 다니다가 마침내「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이며,

「모하메트」는 회회교의 개조로서 그는 지금부터 일천삼백여 년전 아랍민족의 종교와 사상 및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연구 끝에「아라」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 새로운 종교(회회교)를 펴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당시 지배자의 박해를 받아 지금의「메지나」라는 곳으로 쫓겨가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곳에서 교세를 확장해서「메카」를 뺏고 여러 종족을 정복하여「아라비아」전토를 휩쓸었던 인물이다.

이상에서 간추려 본 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사상가요, 종교가로서 그들의

주장과 목적이 작게는 민족, 넓게는 세계인류를 바로 살게 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점에서는 공통한 것이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고행을 한 사람이 수천년 동안에 어찌 이 몇 사람 뿐이리마요마는 위에 말한 몇 분의 사상과 주장은 아마도 사람의 심리를 끄는 점이 많았다고 할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것이 종교화하여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그들의 명예는 점점 기리 빛나간다고 볼 것이다.

이 다음으로 수천년동안 또는 수백년동안 명예가 전하는 유명한 인물이 많이 있다. 철학자,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군왕이나 충신이 있는가 하면 평판높은 미인으로 서시(西施) 양귀비며, 황진이같은 명기까지 있다.

그런가하면 살아있을 때는 상당한 명예를 지니고 또 좋은 평판을 받았던 인물들도 죽어짐에 따라 잊어버려 지거나 또는 도리어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때 명예와 평판은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인 동시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잘한데나 어떤 행동에 대한 명예와 좋은 평판은 비교적 얻기 쉬운 일이나 한 개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명예와 좋은 평판을 얻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 상 싶다.

이런 까닭에『사람의 평가는 관뚜껑을 덮어놓고서 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란 신이 아닌 이상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결점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점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 있어서 명예도 얻게 되고 좋은 평판도 듣게 되는 것이리라.

수많은 사람중에는 명예나 좋은 평판이니를 도외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모든 세상의 번거로운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고행을 하는가 하면 벼슬을 주어도 마다하고 초당에 누어 유유자적 자연을 벗삼아 삶을 즐기는 이도 있다. 임금이 되라는 권유를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하여 그 귀를 맑은 강물에 씻었다가는가 하면 그런 말을 듣고 그 강물을 송아지에게도 먹이지 않았다는 옛얘기는 결벽을 지나쳐 괴벽이라고나 하겠거니와 부귀와 영화 훼손포편(毀譽褒貶)을 마치 뜬구름같이 생각하여 은둔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은 허무주의자들이라고 웃어 버릴 일만도 아닌가한다.

어찌 그뿐이라. 산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인 것(生也一片浮雲起)이고 죽음이란 한조각 뜬구름이 없어진 것(死也一片浮雲滅)이라는 불교의 사상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명예와 평판을 도외시하는 것인 것이다.

어쨌든 먼저도 말했거니와 일반은 명예와 좋은 평판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서양사조에 휩쓸려드는 이제 와서는 전과 달라서 명예는 몰라도 좋은 평판은 얻기도 쉽고 잃기도 쉽다고 해서 잘못일까. 인기 노름인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문에서고 특출만하면 평판이 좋아지고 명예까지 얻기가 쉽다. 미인대회에 뽑히기만 해도 유행가 한 곡만 잘 불러도, 야구를 잘 해도 평판이고 이름이 드날리니 말이다.

일시적이니 명예나 평판은 그러해도 기리 빛나는 명예와 평판이란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순간적인 부나 귀나 권력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존경하고 숭배치 않을 수 없게 하는 데서 오는 까닭이다.

요컨대 많은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하면 명예와 평판은 저절로 얻어질 것이오 자기만 위해 권력을 탐하고 지위다툼만하고 부귀를 탐한다면 저절로 욕과 비난이 돌아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닐 것인가?

(P25에서 계속)

한 일들이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후세에 그들의 공덕이 인정되어 추모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사후에 명장군이라는 격언이 생겨나기까지 한 것이다. 인격의 가치는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 주는 것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군인은 공명에 좌우되어 천박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위하는 숭고한 희생할 입장에서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우리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없이 공명도 없이 자기전체를 제공하는 데 값이 있는 것이다.

무명용사의 비를 대할 때 우리는 옷깃을 여미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들의 공명이 들어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받쳤기 때문이다. 무명용사의 공덕을 높이 인정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자.

우리 말과 현대생활

정인승
<한글학자>



우리말과 우리글

1,

현대는 과학 경쟁의 시대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의 경쟁 시대이기도 하다. 물질면으로의 과학 경쟁과 정신면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의 경쟁, 이두 경쟁 관념이 씨가 되고 날이 되어서 움직이고 나가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 이러한 현대에 처한 우리의 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과학의 생활이어야 하며, 또한 민주주의의 생활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경쟁 생활이어야 한다. 그러함으로서만 시대가 발전되고 역사가 전진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바퀴는 거꾸로 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 사생활로부터 사회적 공생활의 각항 전반에 걸쳐 그러하지 않음이 없지마는, 특히 인류 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언어생활에 있어 과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쟁 생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글날을 맞이함에 즈음하여,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 과거의 언어생활이 어떠하였으며, 현대의 언어생활은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대강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말은 예로부터 원래 우리 겨레의 본질적인 우수성과 함께 또한 본질적으로 우수하였던 것이니, 그 음운의 풍부함과 형태 변화의 자유로움으로부터 그 표현력과 활용성이 매우 일찍부터 발달되었던 것이다. 이는 저 신라 때의 여러 가지 사뇌가(향가)들이 당시의 선진 문화국인 중국의 시문을 능가할 만큼 훌륭하였고, 또는 중국의 고전인 어려운 한적들을 중국말이 아닌 우리말을 가지고 자유롭게 풀이하여 자유롭게 습득함으로써 한문을 중국사람 이상으로 능숙하게 다루기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서

우리말 자체의 본질적인 우수성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봉건시대의 영토욕이 빚어낸 골육상쟁으로, 먼 당나라의 힘을 끌어들이어 서기 669년 삼국을 병합한 결과로는, 당나라 문화의 무조건 침입을 즐거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화 제도를 중국 식으로 고치기에 힘쓰게 됨으로 인하여, 이 땅은 글과 말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있어 중국 문화의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신라의 문화는 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쇠퇴의 일로를 밟게 되었으며, 따라서 고려의 예술도, 이조의 학술도 모두 한문화의 예속으로 자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3,

이조 초기의 재건 도상에서 우리겨레의 본질적인 우수성이 획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1446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인 것이니, 중국의 한문 글자는 우리 말과는 서로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 써야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우리말에 맞는 글자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확신하고서, 당시의 갖가지 곤난한 애로와 사대 사상에 사로잡힌 완강한 반대들에 흔들림 없이, 이 떳떳한 지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당시로서는 거의 무리에 가까운 실현을 강행하였고, 이어서 이 글로써 우리말을 표현하기를 적극 장려하였던 결과로, 우리말이 비로소 문화어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말은 제본질에 맞는 글자를 얻어서 바야흐로 우리 문화 향상에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뜻밖에 1504년 연산주의 발광적인 폭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의 유일한 지팡이가 되는 한글이 갑자기 된 벼락을 만나 빈사상태에 빠져 버렸으니, 길을 잃은 우리 말은 올바른 발전을 하지 못하여 날의 갈수록 한자 말에 밀리고 놀리어서 이후 약 4백 년 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은 한자어 전성 시대가 되고, 따라서 우리 문화는 한문화 일색으로 질게 물들어 버려서 우리 역사는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완전히 한문화의 식민지 역사가 되고 만 것이다.

4,

현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과거를 현대생활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실로 침통한 반성을 금할 수가 없다. 만일 연산의 폭정을 꺾은 당시의 우리 앞 사람들이 세종님의 한글 창제한 원대한 뜻을 능히 꽃피어 살리어서 이 글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그것으로 교육하고 모든 실제 생활을 그것으로써 영위하기에 힘썼더라면 우리의 전통적인 우수한 문화가 다만 역사책 속에 신라의 문화이니 고려의 예술이니 하는 빈 문구로만 남기고 그쳤을 것이 아니고, 우리겨레의 본질적인 우수한 사고력, 우수한 지능, 우수한 기술들이 그 표현력과 활용성의 풍부한 우리말 우리글을 통하여 자유롭게 발달되고 향상되어서 능히 세계를 지도해 나갈 수도 있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서글픈 느낌도 가지어 보게된다. 너무도 안타깝고 원망스럽기도 하다.

5,

민족의 흥망이 문화의 성쇠에 직결되고, 문화의 성쇠는 말과 글의 이용에 달린 것임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어 의식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겨우 이제로부터 약 70년 전인 갑오경장(1894) 때부터였으니, 이는 한문 한자의 본 고장인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과학전으로 패배한 사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일찍이 우리보다 뒤섰던 동서 여러나라들이 모두 과학 경쟁으로 우승열패하게 되는 실례들을 많이 보기도 듣기도 하는 동시에 과학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과 글의 과학화로부터 기초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시대이었다.

그러나, 속담에「입맛나자 장땀어진」격으로, 세상 물정을 겨우 알게 되자 나라힘은 이미 기울어져서, 당시 과학으로 한걸음 앞섰던 자에게 어느덧 무도한 약육강식을 당하게 된 것이 곧 우리 역사상 최대의 치욕인 한일합병(1910)인 것이었다. 이래 36년간 우리겨레는 음으로 양으로 온갖 기만농락과 갖은 압박 천대 속에서 빼앗길 것은 다 빼앗겼었으나, 오직 우리말 우리글 만은 그렇게 악착하게 빼앗아 없애려는 포악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 우수한 본질은 도리어 거센 바람에 억센 풀과도 같이 많은 시험과 단련을 거듭한 끝에 속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어 가지고 해방의 봄 바람을 맞이했던 것이다.

6,

이와 같이 과거의 우리 언어 생활은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느라고, 말과 글 자체의 발전에 몹시 많은 저해를 받아 왔고, 따라서 우리의 일반 생활이 거의 실속없는 무의미한 생활에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남 부끄러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곧, (1), 예로부터의 우수성을 가진 우리말은 신라의 통삼이후로 옛날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2), 이조 초기의 한글 창제는 연산 이후로 다시 참값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3) 갑오경장부터의 과학생활 기도는 한일합병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많은 충절을 겪어 오는 가운데에 한자어는 상히 천여 년을 통하여 꾸준히 우리말을 좀먹어 오고 필경에 우리말의 태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지난 36년동안 강제력으로 부과된 일본어가 가중되고, 최근에는 새로운 선진 문화의 수입에 편승하여 각종각양의 필요 이상의 외국어들이 시시각각으로 정신이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그 바람에 기성세력을 가진 한자어가 이런 서투른 외국어들에게 세력을 안 뺏기려는 듯이 더 한층 기세를 부리어 별의별별 새로운 형태로 도깨비처럼 나타나 날뛰는 판국을 이룬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거저 언어의「자유」라, 혹은「자연현상」이라고 간단히 또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보아 버릴 것인가? 더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언어 현상을「어휘의 풍부화」라,「문화의 발전상」이라고 변호 내지 장려할 만한 일인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심한 소화불량으로 고통하는 위장병환자에게 좋은 영양물이라고 그 위장에 맞거나 안맞거나 이것 저것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이는 것이 결코 그 병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 더욱더욱 소화불량을 악화시켜 위험한 결과를 짓게 함과 다름이 없기 따름이다.

7,

사실 우리의 현대생활은 필요 이상의 너무 과중한 각종 언어 부담 때문에 그것부터 소화하기 위한 에너르기의 막대한 소비로 말미암아 정말 현대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과학의 습득 연구에 대하여는, 언어생활을 능률적으로 영위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될 만한 에너르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과학 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민의 언어 부담부터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니, 이는 현대 후진 국가들의 공통된 노력은 물론이요, 선진국들도 역시 현대생활의 경쟁을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기 위하여 우선 한글 전용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의 에너르기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한자 학습의 강요를 지양함과 동시에 막중한 한자어의 부담 경감을 꾀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새로 수립되는 각종 외국어들도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힘써 지양하고 쉽게 통할 수 있는 우리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8,

이러한 일이 혹시나 언어의 자연현상을 무시하는 일인 것 같지마는, 언어에 있어서의 자연현상이란 것은 저 자연계의 자연현상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심리작용에 관련이 되는 인간 사회의 자연현상인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경제계의 물가 변동이나 정치계의 갖가지 사회상도 모두 사람의 심리작용이 그 근저가 되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 그것이 가령 과학 발전을 위하여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국민이 좋아하면 자연히 그리될 수 있는 것이요, 혹은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그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현재의 우리 언어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한자어거나 또는 어떠한 괴상한 외국어거나 말하는 이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것이 어떤 특수한 경우, 또는 혼자만의 개인 취미에 그치는 경우면 물론 자유일지라도, 일반 국민생활로의 언어로서는 만일 대중에게 이해가 곤란하고 혹은 오래를 일으키기 쉬운 말들은 사회에도 유해무익할 뿐 아니라, 말하는 이 자신에게도 도리어 손해가 될 따름이니,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사실상으로, 이미 한자어나 외국어들에 습관이 되어 온 기성 지식인들로서, 한글 전용이나 용어 평이 화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기에 다소 불편을 느끼게 됨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말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선 국민 대중의 급속한 민도 향상과, 아울러 새 세대의

주인인 후진 후손들의 과학 연구에의 충분한 에너지를 길러 주기 위하여 오늘의 개인적인 다소의 불편을 차라리 달게 여기는 아량을 가지고 현대 생활의 공동 영위에 적극 시범하는 것이 오늘날 기성세대의 책임이요 의무이며, 또한 당면한 현대 민주주의의 실천인 동시에 앞날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한국문학의 「멋」

<신라가요(新羅歌謠)의 문학적 우수성(優秀性)>

양주동(梁柱東)

<시인·문박>

「한국문학의 멋」의 일례로 내가 일찍 애써 고구(考究)한 신라고가의 멋진, 문학적 우수성을 흠뻑 강조·해설해 본다. 이러한 제 것의 예찬(禮讚)이 까딱하면 철늦은 국수적 누견(陋見)에 빠져 나의 희작「김치 송(頌)」(도홍경(陶弘景)의 시 개작)

(산) (령) (백운)

반중하소유(盤中何所有), 명상다김치(皿上多).

(군)

지가자이열(只可自怡悅), 불감지증니(不堪持贈你).

(「니(你)」는「외국인」)

로 되기가 일수요, 또한 요서사람들이 웃을「흰 돼지」가 뒤적도 하다. (「요동」사람이 치는 돼지가 흰 새끼를 낳았다. 천하의 귀물로 생각하여 임금께 진상코자 흰 돼지를 지고 만리길을 걸어 요서땅에 가 보매 그 고장의 돼지는 모두 흰지라「흰 돼지」를 던지고 돌아왔다는 고사.) 그러나「내 엄마」의 얼굴은 설령 약간의 마마자국이 있어도 생각할수록 일왕정심(一往情深)한 어여쁜 얼굴이거니, 남 대해 좀 자랑한들 어떠하리

*

내가 일찍 반생의 심혈을 경주하여 우리 선민이 남긴 문학 유산 중의 현존 최고작인 신라고가요(세속에 이를「향가」라 부르나,「향가」란「시골노래·쌍 노래」의 뜻으로 마치 한글을「언문」이라 이름과 같은 자기 폄시(貶視)의 못마땅한 이름이므로「필야정명(必也正名)」(공자)의 가르침에 의하여 나는 그 말을 일체 쓰지 않는다. 그 원칭인 본말은「처니 놀애」(사녀가)-「고가연구」서설, 제3장 참조)를 해독·주역하여 이를 공간할 때(조선 고가연구, 1942년) 그 독해와 어학적 증석(證釋)에 골몰하여 그「문학적 감상·비평 내지 문화사적 고찰은·이를 꺾약(闕略)(동서 범례)하였고, 이어 여대(麗代) 가요의 전주(箋註)에서도 동의의 이유에 의하여「그 의도와 성과는 순수한고어학적·고중학적 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재료의 음미나 평설-그 비판적인 견해·주장」같은 것엔 대개 언급이 없었다(「여요전주(麗謠箋注)서, 1947). 그러나 사실 고가요 연구에 있어서 전자는 오히려 후자를 위한 학적 준비와 토대라 이를 것이므로 고가의 문학적 사상적 연구가 더 근본적인 요청은 말할 것도 없는데, 비저(鄙著)가 모두 그것에 미치지 못했음은 한스러운 일이었다. 이래(爾來) 또 여간한 잡사에 휘몰려 겨우 여요(麗謠) 몇 편에 관한 희평(戲評)(「여요전주」부편「평설」2편) 외에 아직도 그 소위「제3권」(동서 서(序)에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한다. 어서 누구의 손으로라도 나·려 고가의 문학적 해석·비평, 더구나 그「이데올로기」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녀가의 문학적 탁월성·그야 현존 나가(나(羅)가(歌)) 14수가 모두 개개「결작」이라하는, 그중의 대부분은 확실히「명상의 김치」나「요동의 백돈」가 아닌, 문학적으로 극히 우수한 결작임이 사실이다. 우선 현존 사녀가의 제작된 연대로부터 보자. 최고 서동요가 서기 600년 이전, 최근「처용가」가 동 879년전의 소성(所成)인즉, 대략 6세기말로부터 9세기까지의 작들. 당시 서구엔 그리스·로마를 제하고는 이에 비의(比擬)할 시가가 짝조차 없던 시대이니, 우리의 고가는 연조(年條)로 보아 중국·인도·그리스 쯤을 제외한, 세계 시가상의 「넘버 4」위 쯤을 차지할만하다. 아깝게도 지금은 우리만이 외치는「독안의 자랑」일 뿐, 세계에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노포」라도 상품이 훌륭하여「큰어머니 떡도 크고 맛좋아야 사먹는다」하리라. 그러면 우리 고사의 질적 수준은? 나가(羅歌) 14수가 개개의 특질로 보아 어느 것이나

뜻 깊은 수작 아님이 아니라, 순연한 문학적 안목으로 보아, 모르긴 몰라도 그 약 반수는 참으로 뛰어난 경이로운 작품들이요, 개중에는 한국문학의 주요한 특질의 하나인「멋」을 진작 나타낸 멋진 걸작이 불소하다. 이를테면 연대순으로- 저 용천사(融天師)「혜성가」의 교묘한「메타포어」와 멋진 경쾌한「유모어」,「풍요」의「강남다연엽곡(江南多蓮葉曲)」을 무색케 할만한 그 소박·유원성(悠遠性)·일명노인(佚名老人)「헌화가」의 그 수사적인 기법과 어법을 통한 멋진「풍류」,월명사「제망매가」의 한·진 고시를 훨씬 능가하는 애절한 인생관과 그 깊디깊은 비상·충담사「찬기파랑가」의 저 벽공찬출(壁空撰出)의 고매한 멋진「탁의(託意)」와 희랍(希臘) 창극(唱劇)의 삼부악을 연상케 하는 그 탁월한「구성」, 그리고 또 저「처용가」의 그 기상천외의「이데」와 독특한 멋진 노래법 등등- 어느 것이 문학적으로 우수한 멋진「결작」 아님이 있는가? 이제 그 한 본보기로「찬기파랑가」 한 수만을 여기 잠깐 전시하여 보자.

「찬기파랑가」는 저 나대인(羅代人)의 정치적 이상을 노래한「안민가」와 함께 당대의 이증(異僧) 겸 명가인 충담사의 작-

경덕생 충담사

삼월삼일에 왕이 귀정문 누상에 남시와 좌우에게 이르되,『누가 도중에서「영복(榮服)」승(僧) 한분을 데려오료?』 그때에 마침 한 대덕이 말쑥한 위의(威儀)로 흥똥거리며 기는지라 좌우가 바라보고 인견하니, 왕이 가로되,『나의 소위「영(榮)」승(僧)이 아니로다. 물릴지어다.』 다시·한중이 누비옷을 입고 누간(樓簡)을 지고 남쪽으로 오거늘, 왕이 반가이 보고 누상에 불러다가 그 간(簡)속을 들여다보니 차구뿐이다.『네가 누구냐?』중이 가로되,『충담이로소이다.』『어데 갔다 오느뇨?』가로되,『제가 해마다 3월3일, 9월9일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님께 드리옵는데, 지금 바로 드리고 돌아오나이다.』왕이 가로되,『모인(募人)도 한병 차를 얻어 마실 연분이 있을 까?』중이 차를 다려 드리는데, 차의 풍미가 이상하고 병속의 향내가 코를 찌른다. 왕이 가로되,『짐(朕)이 일찍 들으니 사(師)가 지은「기파랑을 기리(찬)는 노래」가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하니, 과연인가?』『그러하오이다.』왕이 가로되,『그러면 짐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케 하는 노래」를 지으라.』중이 당장에 칙명(勅命)을 받들어 노래하여 바치니, 왕이 가극히 여겨 왕사를 봉하였으나 중이 재배(再拜)하며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삼국유사>권2

이 평가의 작자를 소개키 위하여 좀 긴 인용을 꺼리지 않았다. 사녀가 14수 중에서도 비견(鄙見)으로 최고의 「멋진 걸작」으로 생각되는 그의 작「찬기파랑가」를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약간 현대어로 고쳐 그 전수를 다음에 보인다.「기파」(「기보」,「장명남(長命男)의 뜻」란 젊은 화랑장은 달리 전(傳)과 소견이 없으나, 그의 화랑으로서의 높은 인품과 인격·지조를 찬양한 노래가 얼마나 기상천외의 멋진「아이디어」로 되었는가를 보라.

기파랑을 기리는 노래

『열치미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좇아 떠가는 것 아니야?』『새파란 나리[내]에 랑(郎)의 좃[모양]이 있어라! 이도 나리 조약(조석)에 랑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아져.』

아오, 갖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를 화반(화랑장)이여! 이 노래는 진작 그「높은 뜻」-고매한 시상으로 신라 당시에 국내에 원전(宣傳)되었던 평가, 그러기에 경덕왕의 말에도「짐상문사찬기파랑사녀가, 기의간심고(朕嘗聞師讚嚆波郎詞麗歌, 其意甚高)」운운이라 한 것이다.

우선 그 기상천외의 멋진 시법! 작자는「기파랑」이란 젊은 화랑장의 드높은「인격」과 이상·지조를 기림에 있어서 한마디도 그것에 직접 언급함이 없이 돌연히 벽공찬출의「달」과의 문답체를 빌어와 전8구에서 그것을 은연중 암유(暗喻)로 방서(傍叙)하고(얼마나 적합한「이미지」를 주는 효과적 수법인가!) 결2구에서「갖가지」를 빌어 그것을 정서(正叙)하였다. 그러나 우선 그「문답체」의「천의무봉」한 솜씨를 보라!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우 해시(解詩)에 내가 인용부를 사족으로 덧붙여 제13구가「달」에게 시문하는 사(辭), 제48구가 달의 의답(擬答)임을 보였으나, 원시엔 무론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고, 오로지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기다릴 뿐(이런 경우에 평명만을 위주(爲主)하는 서시(西詩)라면 필시「내가 달에게 묻되……」,「달이 대답하기를……」운운의 군소리를 붙여 시흥을 평판화할 것이다.)

전8구의 시와

『구름 장막을 핵 열어젖히매 동두뿔이 나타나는 다라, 너는 흰 구름을 좇아 서쪽으로 떠가는 것이 아니냐.』[달이 대답하되]

[열치미 흰 구름 조조 떠가나·나 안디하 자랑이 즈시 이슈라 랑이 디니다샤은 아오 갖가지 노파 나토얀 나·리 새파란 나리여히 이리도 나릿 저벽히 口·스빅 굵ㅎ·리 좃투아져 서리 묻누을 화반이여]

『나는 흰 구름을 쫓아감이 아니로세. 멀리 지상을 굽어보니, 새파란 알천(關川) 냇가에 기랑의 모양이 있어라! 이제로부터 냇가 모래밭 위에 랑의 가지고 있던 그「마음의 끝」을 쫓으며 하옵네.』

후 2구「난(亂)」[결사]에 가로되,

「아아, 잣 가지가 드높아 서리를 모를 화랑님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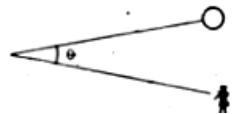
우선 그 문·답·결사로 된 3부체. 이는 위에 잠간 언급한 대로 저 희랍희곡의「남·여·합」창과 불기이동(不期而同)되는 희한한 기법이다. 또 그 시 벽두에 냇다던지는「열치매」라는「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이양의 수법. 내가 위에「구름 장막을 핵 열어젖히매」라는 구구한 보주(補註)를 더했으나, 그런 부질없는「객어(客語)」까지를 사족으로 덧붙임은 나같은, 흑인 서시 같은 용재(庸才)의 시법, 저 정송강의 네 장가(「관동별곡」)·「성산별곡」의 멋들어진 각 허두「강호에 병이 기퍼」,「이몸 삼기실 제」,「데가나·나 더 각시」,「엇던 디날 손이」등도 이에 비하면 당초부터 문제가 안되는 범용(凡庸)한 「발성법」이랄 수밖에.

그러나 이 노래의 최고의 묘기, 기절찬 멋진 시상은 물론 저 제8구의

『마음의 끝을 쫓과져』口·스비 굵ㅎ·리 쫓우아져』의「마음의 끝」이란 한구에 있다. 달이 서쪽으로 감은 거저 뜻없이 감이 아니라,『냇가 모래위에 기랑이 서서 지냈던「마음의 끝」을 쫓아감』이라고 달이 답하는 것이다. 이로써 천년 뒤에 나서 이 시를 읽은 독자 우리들은 눈만 감으면 문득, 천년 전 어느 달 밤 동방 신라 서울 알천 냇가 흰모래위에 홀로 우뚝, 혹은 고개를 약간 위로 젖힌채, 멀리 아득히 서전을 바라보며 무한한 동경과 머나먼 이상을 그곳에 부쳐보내며 외로이 섰던 젊은 화랑 기파의 그 드높은 포부와 교양과 인격이 눈앞에 역력히 나타날 인격이 눈앞에 역력히 나타날 만큼 그「이미지」가 실로 놀라게 선연하지 않은가! 하필「서방」은? 상필(想必)「부상」에의 동경·상념일시 분명하나, 구태여 불담에만 의지할 것도 아니다.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미지의, 불가견의, 영원한, 궁극적「괴안(彼岸)」의 세계. 하도 흥겨우니 한쪽의「기

하」도로 이를 표현·설명할 수밖에.

「기랑」의「마음의 끝」을쫓아 달은 서쪽으로 간다! 위의 그림 중의 $\wedge \theta$ 의 문제는 한갓 기랑의 고매한「정신」의 표시일 뿐 아니라, 실로 인류의 이상의 또한 시의, 문학의 영원한 문제.



결구「잣가지」 운운은 또 얼마나 힘찬, 기랑의 드높은 지조를 나타낸 정서법(正叙法)인가! 나의 역주에 덧붙였던 한역-

백지고혜부지상, 약유인혜후화랑!(栢枝高兮不知霜, 若有人兮後花郎)

이「찬기파랑가」 한편의 지묘한 멋진「소식」을 어찌 필설(筆舌)로 다하랴!「표현을 절(絶)」하던 말은 이런 작(作)을 두고 이름이겠다. 사늬가 14수 그중 절묘한 상기 6,7편만도 모조리 그 문학적 우수성을 상설(詳說)힐 겨를이 없기에, 이 한수만으로써 그「일반(一斑)」을 엿본 것이다.

*

이런 훌륭한 멋진 문학적 유산이 있어도,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문학적·고차적으로 해설·비평할 이가 없고, 더구나 대외적으로 이를 소개·선양할 기회와 노력이 지금껏 없었다. 아무리 희한한 고동(古董), 아니, 당당한 제품이라도 묵은 창고, 깊은 땅 밑에 잠겨있어서는 그 진가와 성가를 천하에 알릴 길이 없다. 어서 바빠 이들 고가에 대한 문학적·철학적, 내지사상적·이데올로기적 연구가 젊은 우수한 학도들에게서 나오고,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귀중한 우리 겨레의 멋진 걸작 고시가들을 여러 외국어로 번역·소개하여 그 진가를 세계에 묻고 외국에 선양함이다. 이 방면의 일- 통털어 우리 고전의 세계적인 소개와 번역에 젊은 유능한 학도·문인들의 분기(奮起)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런 실제적인 크낙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구구한 이런 만문(漫文) 따위는 그야말로 상기한 대로, 「독안의 외침」이나 「이불속의 춤」에 그칠 뿐이겠다.

부기. 저즈음 재구(在歐)의 한 젊은 학자 「이학수씨」가 비저를 초역하고 사늬가 14수를 모조리 영역하여 그에 관한 평설을 붙여 커다란 저서를 간행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Peter H. Lee, Studies in the saenora, 1959. Roma)

그의 사늬가 영역은 축자역·의역을 병행한 우수한 번역- 그 일반적으로 상술한 「찬기파랑가」의 역사(驛詞)를 다음에 보인다.

Ode to Knight Kilbo

(Pushing her way through the clouds,/the moon that appears,/is she not pursing white clouds? /In the blue sand-beach/Knight Kilbo's image is there./Hence forth in the pebbles of the stream/I shall seek the depth of his man,/that once the knight cher-

ished,/O to wering pine,/Knight of Knights, you do scorn forst.)

The moon that pushes her way

Through the thickets of clouds,

Is she not pursing

The white clouds?

Knight Kilbo once stood by the water

Reflecting his face in the blue:

Henceforth I shall seek and gather

In pebbles the depth of his minds.

Knight, you are the towering pine,

that scorn forst, ignores snows.

충실한 번역이나, 단 가장 중요한 6-8구의 원가의를 그릇 해석·번역하여 전수의 주안(上揭) 도설(圖說) 참조)을 틀리게 옮겼음이 유감이다.

우리 말과 영어(英語)



홍복유(洪福柔)

<이대 교수>

주어진 제목「우리말과 영어의 비교」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다룰 수 없는 것 같아서 사양하였다. 이것은 내가 하는 영문학과 관계있는 영어뿐 아니라 우리 국어에 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교양정도의 내용을 꼭 써달라는 부탁이기에 제목을「우리 말과 영어」라고 해서 제약을 좀 늦춰놓고 감히 붓을 들게 되었다. 이 점, 독자의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말과 영어라고 하면, 각각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연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각종 언어에 공통되는 일반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릇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류만이 가진 중요한 생활수단의 하나이다. 사람은 이것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발로(發露)할 뿐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고 지식과 사상을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사람의 지식이 발달되고 문화의 향상을 보게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정서면 등을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런고로 상대방을 철저히 이해 할려면 그 언어에 통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마주앉아 얘기를 해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런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말은 우리의 생활에서 울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람을 잘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이나 미국사람들의 생활에서 생성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자라 알게 되면 영미국민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연구해 보면 양국민 사이의 차이점과 유이점이 명백하여지며 자연히 이해증진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에 나타나는 상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 이라고 느껴진다. 우리말과 영어에는 각각 일정한 어순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늘어 놓을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방향을 가르키는데, 「동서」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다「동」을 먼저 내어 놓고「서」를 나중에 말해서 East and West라고 하지만, 「남북」이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는 North and south라고「북」을 먼저 말하여 우리말과는 반대이다. 또 사방향을 우리말에서는「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보통「북남동서」(North, South, East, West)라고 한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우리말과 영어가 상반하는 어순을 나타내고 있다. 좌우(Right and left), 음식(Eat and drink), 빈부(Rich and poor), 수륙(Land and water), 노소(Young and Old), 청우(Rain and shine) 여 기서 우리가 알 수있는 것은 영어를 말하는 민족이 우리보다 북방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요, 그저 마시는 것 보다는 진짜로 먹는 것을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을. 늙은 것보다는 젊은 것을 바다보다는 사람이 사는 육 지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해나는 날의 즐거움보다 비 오는 날의 걱정을 더 많이 해서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 것으로 미루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어가 같지 않은 탓으로 국민사이의 융합이 여의(如意)하지 못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고 이는 바이다. 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의 결과가 평화를 해치고, 전쟁으로 이끄는 일까지 있으니 인생의 불행으로 이 이상 가는 것도 없을 것이다. 만일 전 세계가 같은 언어를 쓴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소위 세계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견지에서 과거 수백 년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안출(案出)되어 왔던 것이다. 그 주요한 것으로는 Volapük, Esperanto, Ido, Occidental, Novial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에스페란토는 가장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각국어를 배격하고 세계를 통일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다. 원래 그것은 인조어이기 때문에 무미한 것이고 그 속에는 정서가 들어 있지 않으며, 그것으로 무슨 예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평하여 불규칙한 영어철자에 대한 발음기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역시 사람의 피가 통하는 산 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계에 허다한 국어 가운데서 영어가 지구상의 광대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 고래로 우수한 문예작품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이것을 가장 유력한 세계어의 후보자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우리말에 못지 않게 영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용어든 완전히 순수한 것은 없고, 다소의 외국어가 언제나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말에서나 영어에서나 같은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국민의 언어일수록 외국어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어에 차입되는 어휘는 모든 분야와 모든 국토에 걸쳐서 있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 국제관계의 긴밀화 등, 여러 사정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그 국민의 일반 문화에 대한 섭취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 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런 섭취력과 자유자재로운 조어력이 영어의 강점이다. 영미국민은 혼종민족이고 그 국어가 혼교어(混交語)라는데 영어발달의 근본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허식을 버리고 공통적인 실질을 살린다고 하는 국민성이 그 언어의 발달사상에 나타나 있다고 본다. 영어사는 굴절어미의 발기(發棄)를 위시하여 형식상으로는 모든 것이 간소화해 가는 진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표현능력과 표현효과는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말에 들어 온 외래어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라디오, 텔레비존, 파자마, 크레온, 밀크, 미싱, 펜, 잉크, 스케이트, 스키, 레코드, 미스터, 미쓰 등등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을 방문한 어느 미국부인이, 한국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영어의 단어를 듣고 나서, 한국말은 영어와 비슷하니 배울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한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우리말이 영어에 가까워 간다는 인상을 주는 것과 같은 비례로 영어는 우리말에 가까워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Kimchi, Chige, Shinsultro, Chaimi 등등 한국말이 영어에 그냥 침투해 드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또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의 교류가 심하게 되면서 각기 고유한 문법과 어순이 무너져 가는데 이것은 양자에서 서로 편리를 가져 오게 되어 있다. 우리의 표현을 거꾸로 하는 것이 영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점차로 영어의 표현이 우리말의 그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문법을 배운 학도들을 당황하게하는 표현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좋은 예로「US Education's No.1 Man(미국교육계의 제1인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비록 학교문법에는 상치되는 표현이지만 영어가 간소화되면서 그 어순이 우리말의 그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이 우리 생리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이것을 두손 들어 환영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이 접근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파격문법을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변하며 살아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고독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의 말도 고립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학문이나 예술이 국경을 초월해 있는 것처럼 낱말이 국제화해 가는 인류생활을 생각할 때 그 언어가 낱말이 국제화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향은 결국 인류의 공통점, 우리말과 영어의 최대공약수를 나타내는 썸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말의 운치

김민수(金敏洙)
<고대 교수>

1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종종 운치있는 말을 한다는 표현을 듣는다. 이 뜻은 흔히 뒤에 무엇인가를 남겨 놓는 여운이 있는 말씨라고 해석되는데, 이와 같은 『운치 있는 말』에 관한 일화는 오히려 외국의 예가 훨씬 많을는지 모른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다른나라 말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말의 독특한 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말의 재미로운 느낌을 찾아내 보려는 것이다.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듯이 언어도 제각기 구조 체계가 다르기 마련이다. 우선 서로 다른데, 그 장단을 비교하는 일은 얼마나 무모한가를 알아야 하겠다. 물론 어의와 어감이 거의 같은 어휘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다른나라 말을 옮기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각기 입장단이 있어,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가령, 『싱겁다』 『무미』라는 우리말을 다른나라 말로 어떻게 옮길까를 논의해 보라.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에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듯이, 반대로 어느 외국어의 빈약함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나 『심심하다』 『삼삼하다』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곤란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도 뉘앙스(Nuance)란 말을 곧잘 쓴다. 거의 같은 말 사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을 일컬은 말이라고 하겠다. 『심심하다』와 『삼삼하다』에서 각각 받는 우리의 느낌을 한마디로 다하지 못할 만큼, 섬세하고 재미롭다. 어느나라 말이든지 그 내용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이러한 재미로운 맛이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말의 이러한 맛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은 모어에 대한 인식을 깊이는 한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말의 뉘앙스는 우선 명암·경중·강약 등의 차에서 느낄 수 있다. 『염치(廉恥)』란 말에서 파생된 『얌치』의 어감이 주는 느낌은 긴 사실이 아니고서는 표현하지 못한다. 대굴대굴과 데굴데굴, 자글자글과 지글지글, 생글생글과 싱글싱글……등에서 묘한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팽팽 팽팽 팽팽 단단 단단 탄탄

등 세 쌍의 어세(語勢)에서도 느낄 수 있다. 유사어 또는 근사어라 이름만한 한 무더기를 이룬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말은 어느 나라말보다도 어감이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다. 다음 한 무더기의 말들을 되짚어 보라.

부수다·바수다 부스러지다·바스러지다
부스럭거리다·바스럭거리다 부스러기·바스라기
부스러뜨리다·바스라뜨리다 부스스·바스스

음상과 어려(語慮)의 차이를 뉘앙스라고 한다면, 우리말의 뉘앙스는 다른 묘미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태어나 의성어에 있어서는 다른나라 말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구물구물·꾸물꾸물 굴실굴실·곰실곰실
곰질곰질·곰질곰질 굴적굴적·곰적곰적
구무적 구무적·꾸무적 꾸무적 굴지력굴지력·곰지력곰지력
고물 고물·꼬물 꼬물 곰실 곰실·곰실 곰실
곰질 곰질·곰질 곰질 곰적 곰적·곰적 곰적
고무락 고무락·꼬무락 꼬무락 곰지락 곰지락·곰지락 곰지락

우리말의 뉘앙스가 색다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특징이 된다는 말이다. 특징과 자랑이란 것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색다른 점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고 적절히 활용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 질적인 다른 나라 말과의 대조에서 벗어난 고유색을 자랑으로 내세우자는 것은 잘못이다. 전통적인 계승과 사회적 습관으로 굳어진 고유색에 대한 특징은 역사의 천원(淺遠)을 넘어서 어디나 있는 사실이니 만큼, 언어풍속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등질이 아닌 이 특징에 대하여 우세를 논하는 태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3

우리말의 뉘앙스는 공대(恭待)의 차에서도 느낄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대자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격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하듯이,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어를 격식에 맞도록 써야 하게, 되어 있다. 이 격식은 그 사회의 역사적 습관에 따라 변천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무시해

버릴 수가 없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소간 경어가 없는 예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층층이 구분되어 있는 언어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 사실은 한편 어감의 세밀한 발달이나 예의바른 민족이란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말 대우는 격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 예의에 어긋나는 실례가 되어 버린다. 우리는 가끔 암항(闇港)·가두에서 『너가 무어야』 『왜 해라를 해』하는 등속의 이유를 들면서 싸움이 자못 격렬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말 대우에 신경이 날카로운 우리 사회의 언중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흔히 옛 이야기에 전하는 바로 『아버님 대갈님께 검불님이 붙으셨습니다』란 우수한 말이 있다. 누구나 이 짤막한 말에서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는 것을 잘 안다. 공손한 말씨에도 일정한 격식이 필요하며, 많이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터이다.

만일 나이 어린 손자라면, 할아버님의 엄을 붙잡고서 『털이 많이 낫어』라고 했을 때, 『오오, 털이 많이 낫다』라는 대답으로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진지 먹어라. 나이가 몇이십니까? 나의 춘부장이시다.

이러한 표현을 어떤 상대방에게서 들었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는 무엇일까? 욕하는 반면에 농담이나, 조롱인 반면에 친근함이나 그밖에 짧게 표현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음을 안다. 또, 우리말은 『이』에 대한 『치아』, 『나』에 대한 『연세 춘추』, 『머리』에 대해 『두상』……등 한자어가 우위에 서서 공대어가 되는 것이 상례이나, 그 족이 매우 크다. 각이 짝 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족이나 각이란 말이 그렇지는 않다. 위의 예와 비슷이 색다른 뉘앙스에 젖는다. 공대의 위치에서는 격식을 벗어난 비례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비례(非禮)를 시비하는 것으로 끝맺고 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파격이 주는 뉘앙스를 문제삼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어감이 우리말의 색다른 것이라고 하다면 사실을 이야기 해 보려는 심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답인 대인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예를 든 것이므로, 친소(親疏)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번져 버린다.

편지에 아버님 전(前) 어머님 앞 선생님 전 교수 앞전이나 앞을 마구 썼다고 하면 불손의 책망이나 무식의 나무람을 면하기 어렵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큰 논란에 당면할 것이다.

4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이 전한다. 떨리는 외지에서 모어의 정에 향수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까마귀는 서울 사는 시골사람이 제 고향의 방언에 정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런 모에서 소위 국어의 애호중중이란 핏줄기가 흐르는 모어에 근거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것이다.

모어의 운치는 이와 같은 향수에서 우리나라 흥치(興致)며 맞인 것이다. 그 뉘앙스에서 느껴진 것이라도 좋고, 재미로운 느낌이나 멋이라도 좋다. 만일 이러한 맛이나 멋이 싸일 수가 없다면,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폄시(貶視)만 일삼는 기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때로는 한문에만 능한 이가 한문의 운치에 매혹되어 우리말에서는 그런 것을 맞출 수 없다는 한탄하는 예를 본다. 또한, 일어교육만을 받은 이가 일어의 묘미에 영어에만 능한 이가 영어의 멋에 사로잡히기가 일수다. 이처럼 외국어에 도취된 경우는 우리나라사람이로되 외국인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외국인에 다를 바가 없다. 때로는 외국어의 그 묘미를 우리말로 옮겨 보고 나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말의 흥치가 없음을 간단히 논단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얕은 생각이다. 남의 것은 좋은 것만 보고, 내 것은 천한 것만 보고 스스로를 낮췄으니 말이다. 실상 사대사상에서 움뻐다고 해야 할지, 스스로 낮추기를 일삼는 이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맛이나 멋에 젖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말의 뉘앙스나 재미로운 느낌을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1962. 8. 28.)

이홍장(李鴻章)의 배짱

청나라 제일의 대정치가였던 이 홍장이 아직 소년시절 찰집에 일꾼으로 있을 때였다. 어느날 밤 뒷간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16, 7명의 강도가 둘러 싸더니, 『창고로 안내해라』하였다.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랄 줄 알았던 이 홍장은 뜻밖에도 침착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당신들은 등씨의 줄도입니까?』 강도들은 이 돌발적인 한 말에 아찔해 버렸다. 이 홍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빈틈을 찢어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은 등 두목님에게는 접매부터 말해 놓았으니까 자, 안내해 드리죠』 앞장서서 강도들을 창고에 안내하고는 쓸 만한 것을 모조리 들추어 꺼냈다. 이것을 보자 강도들은 좋아서 날뛰었다. 이틈에 이홍장은 몰래 바깥으로 나가기가 바쁘게 창고문을 짝 닫아버렸다. 『도둑이야! 도둑이야!』하고 그는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집안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도리어 그 강도들을 모조리 체포한 것은 물론이다.

소련(蘇聯)의 거부권(拒否權) 백회(百回)가 의미(依微)하는 것

김창순(金昌順)
〈내외문제연구소원〉



《그로미코》

지난 6월22일 소련은 카슈미르 분규의 해결책을 토의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규당사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양국간의 직접협상을 촉구하는 애란(愛蘭)의 결의안에 부표(否票)를 던지므로써 백회제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거부권행사의 직접적인 동기는 2개중대분의 MIG-21Z전투기의 매매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인 인도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었다.

모스렐렉이 우수한 카슈미르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는 인도는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해 왔으며, 6월15일에 안보이사회가 소집되기에 이르자 수개비상임국가에 대해 자국자체의 카슈미르 결의안을 수락하도록 운동하였다. 애란안이 제출되자 메는 인도국방상은 표결에 앞서 동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소련은 인도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어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5개상임이사국중 소련을 제외한 미영불국부의(美英佛國府)의 4개국의 거부권행사가 1946년3월의 안보이사회 의 첫소집 이래 전부해서 7회인데 비해 소련의 거부권행사회수가 백회에 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8년의 체코스로바키아의 공산쿠데타를 조사하려는 기도(企圖), 베르린 봉쇄에 중지부를 찍으려는 등의, 소련군에 의한 1956년 헝가리봉기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탄핵결의안 이런 것이 모두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매장되어 버렸다. 군축에 관한 결의안은 4회, 유자격 국가의 유엔가입천거(薦擧)는 51회가 같은 방법에 의해 억압되었다. 유엔의 감시하에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서 조직된 대한민국정부의 유엔가입뿐이 10여 년을 두고 실현을 보지 못한 것도 소련의 거부권행사에 연유한 것이다.

× × ×

국제안전의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안보이사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 거부권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안보이사회 의 결의사항은 실질사항과 절차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절차사항의 경우는 상임이사국(5개국), 비상임이사국(7개국)의 구별없이 7표의 찬성만 있으면 의결된다. 그러나 실질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7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다시 말하자면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1개국이 부표를 던져도 결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즉 거부권이다.

이렇게 5대국에게만 국가주권의 완전한 행사가 용허(容許)되고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그것이 거부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는 경우 유엔은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대국을 포함하는 비교적 소수의 국가로써 구성된 안보이사회에 평화유지의 주요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유엔헌장 제24조).

국제연합 헌장 초(秒)

○…우리들 연합국의 인민들을 말할 수 없는 인류의 비애를 우리 고대에 두 번이나 가져온 저 전쟁의 참화(慘禍)로부터 후대들을 모면케 하며 기본적 인권,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권과 대국소국의 동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가 유지되고 또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또 보다 큰 자유안에서 사회의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행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서로 평화에 공존하며 국제적인 평화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량을 규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무력을 행사치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모든 원칙을 수락하고 모든 원칙을 설정하며 전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이용할 것을 결의한 바 이 목표를 이용할 것을 결의한 바 이 목표를 달성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시키기로 결의하였다(전문에서).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적인 평화안전을 유지할 것을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제거하고 침략 기타 평화파괴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평화적 수단으로서 평화파괴의 염려있는 국제간의 분쟁 또는 국면을 조정처결 할 것.
- 2, 각인민의 동권과 자결과의 원칙

안보이사회에는 최후에 가서 평화유지를 피해 군사행사를 취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현장 제42조). 그런 경우 실력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은 강대국의 군사력이다. 따라서 평화유지의 구극적인 책임과 이러한 책임과 능력에 따라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현장 기초회의(1945년)에서 거부권제도가 제정된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4개국(미영불소)공동성명서의 다음과 같은 1항이 거부권설정의 의의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상임이사국아 제1의적인 책임을 생각할 때, 현세계 정세하에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같은 중대사항에 있어서 스스로 찬성하지 않은 결정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상임이사국이 부담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구절을 검토해 보면, 안보이사회의 결정과 행동은 그 결정과 행동을 발단으로 하는 연속적인 사건들(Chain of events)에 대해 안보이사회의 결정에 가서는 유엔현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상도(相對)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종착점에 강제조치를 두고 행동력 군사력을 보유하는 강대국가(상임이사국)가 스스로 찬성하지 않은 결의(종착점의 강제조치에 구속받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건연쇄의 전과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대사(待使)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권자체의 부정은 국제정치현실의 무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 ×

문제는 거부권제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에 있다고 하겠다. 거부권남용의 의미부터 정의해 보겠다. 거부권남용의 경우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제도설정의 취지에 반한 행사와 정치법래의 도구로서의 행사이다.

거부권제도설정의 취지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사적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강대국의 책임을 고려한 데 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4개국공동성명은 안보이사회의 어떠한 결정도 구극(究極)에 가서는 강제조치를 취하는가 않는가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러므로 분규처리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결정도 구극적 조치「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맡을 강대국에 전 원일치의 찬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써 거부권설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엔현장의 다수결정원칙에 있어서 하나의 예외를 이루는 이 제도가 안보이사회에 적용된 것은, 다수결제에 의해서, 군사력이 미약한 약소국가들의, 책임이 수반될 수 없는 결정에 강대국가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거부권은 안보이사회가 수에 지배되어「무례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 거부권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지는 않았다. 1946년 시리아·레바논문제에 있어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를 들어 보자.

이 사건에 있어서 영불양국군의 시리아 및 레바논 철수가 문제가 되었다. 시리아·레바논 양국은 영불군의 동시 즉시 철수를 요구했고, 영불은 철수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그 시기와 방법을 관계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외국군대가 시리아·레바논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철수할 것, 그것을 위해서 당사국이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것을 안보이사회는 확신하며 또 당사국이 그 교섭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표결에 있어 영불은 기권했으나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영국안은 부결되고 안보이사회는 동문제에 관해서 하등의 결의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 후 영불군은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철수했으나 양국이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던들 안보이사회는 그러한 사태에 관해서 방관하는 태도만을 지키고 있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소련의 거부권행사의 이유는 미국안의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거부권의 본래의 취지는 안보이사회가 무례도한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견제하려는 데 있다.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거부권의 남용이다.

만약 미국안이 영불군의 동시, 즉각 철수를 요구한 것이라면 영불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착점에 강제조치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나 하등의 강제조치를 상정하지 않은 결의안에 대해서

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제문제의 우호관계를 진전시키며 기타 적당한 변법(辨法)을 써서 전세계의 평화를 강화할 것.

3, 국제협조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가진 국제문제를 해결지를 것이며 인종, 성언어(性言語), 종교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격려할 것.

4, 이 공동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각국은 행동을 조화시키는 중추가 될 것(현장 제1조)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써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현장 제7조1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또 권고한다.

1, 정치적으로 있어서 국제협력력을 촉진할 것. 또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전형화를 장려할 것.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보편적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력을 촉진할 것. 아울러 인종, 성, 언어종교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실현을 원조할 것.(현장 제13조1항)

○…국제연합에 의한 신속 유효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가맹국은 국제평화안전유지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안전 보장이사회에 부과하며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책임에 의한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맹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데 동의한다. (현장 제24조1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거부권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61년12월 콩고의 루몽바수상이 체포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영은「국제적십자사에 진상조사를 의뢰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매장되었다. 이 역시 시리아·레바논 문제의 경우와 동일한 거부권의 남용이라 하겠다.

이 두 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부권의 행사는 이사국간에 최대공약수적인 결정의 성립을 저지하고 사태의 개선을 방해하고 이사회를 마비시키고 만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거부권을 이용하는 것도 거부권남용의 범주에 들것이나 거부권은 원래 다수의 폭거(暴擧)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강대국간의 정치적 거래에서 도구로써 이용되어 약소국가가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부권행사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유엔의 신규가맹 용인문제를 생각해보자. 소련의 1947년이래 가맹신청국의 일괄용인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유엔현장 제4조1항은「유엔에 있어서의 가맹국의 지위를 현장에 제시된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본「유엔」기구에 의해 이 의무를 수행할 능력 및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평화애호국에 대해서 개방된다」로 되어 있다. 이태리의 가맹문제가 제기되자 소련은 동국이 이 현장의 조항에 의해 가맹자격을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맹을 용인할 용의가 있으나 이태리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분란(芬蘭)등과 동시에 용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리하여 문제가 생기자 안보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듣기로 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개재한다. 하나는 현장 제4조 제1항의 가맹조건이 일반적이거나 또는 다른 가맹신청국의 용인을 조건으로써 첨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법재판소는 그 조건이 일반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어느 특정의 가맹신청국의 용인조건을 다른 가맹신청국의 용인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현장의 명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인데, 소련의 가맹국 일괄적 용인안은 분명히 현장의 규정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47년 이래 일괄용인을 주장하여 많은 국가의 가입을 방해해 왔다. 그것은 소련이 자국이 추천하는 신청국의 요인을 조건으로해서 자유진영 신청국을 용인하겠다고 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부권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되면서 많은 소국이 오랫동안 희생되어 왔다. 거부권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써 이용된 예는 소련에 의한 백련제의 거부권행사의 대상이 된 지난 6월의 애란안(사슈밀분규를 인도, 파키스탄 양국간에서 협의하라고 권유한)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련이 애란안을 거부한 이유는 인도를 환심을 사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협소한 정치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다시금 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다.

× × ×

소련은 유엔헌장의 정신과 안보이사회의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여 거부권을 남용, 유엔기능을 마비시키듯 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거부권제도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의당의 존재이유를 가진 것이니만큼 문제는 그 철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의 견제 즉 제한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샌프란시스코 4개국공동성명에 의하면 거부권제도의 근거는 사건연쇄론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다. 소련이 51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신규가맹신청국용인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아도 사건연속과는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충분한 논거(論據)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권고결의안에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부권을 설정한 근본이유에 위반된다. 이 근거이유는 강제조치에 있어서의 강대국의 군사책임에 직결되어 있다. 평화를 위한 권고적 성질의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면 직접강제조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도 거부권제도의 대의명분을 실수 있을 것 같다.

기타 거부제한의 분야와 명분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거부권의 제한을 위한 현장개정 의 움직임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여기에 벌써 거부권행사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연합가맹국은 이 현장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 및 이행함을 동의한다. (현장 제25조)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연합 11개 가맹국으로 구성한다. 중화민국, 불란서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대브리턴 급(及) 북부 아일랜드연합왕국 아메리카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된다. (현장 제23조1항)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각1표의 투표를 가진다. 의사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7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행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하는 7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행한다. (현장 205조)

○…어느 분쟁이나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여하한 분쟁이라도 조사할 수 있으며 또 국제적 알목을 유도하거나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사태라도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현장 제34조)

○…비록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라고 자국이 당사국이된 분쟁이면 여하한 것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단 이 당사국은 본현장이 규정된 바 평화해결을 위하여 미리 수락하여야 한다. (현장 제35조2항)



◇사진은 출격당시의 필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못이룬채「휴전」이라는 말뚝을 판문점에 세운 지 10여 년.....
 비록 우리의 귓전에 총격은 안들려 오나 사무치는 전쟁의 비애는 그 때를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애기(愛機)와 더불어 적진 깊숙이 날라 폭탄을 퍼붓던 출격의 감회를 잊을 수 없다.
 여기에 출격당시를 회고해 몇 토막의 출격기를 더듬어 본다.

나의 출격 회고

이호영(李豪英)
 <공군대령>

◇첫 출격전야

낮선 잠자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새없는 출격으로 곤히 잠든 선배들의 코고는「드르릉」 소리가 요란하다. 그들의 단꿈을 깨뜨릴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콘셋트」 마루바닥에 한발을 내려 디디니「뽀그득」 또 한 발자국 따라「뽀그득」..... 소리가 난다. 단잠을 깨치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가 알아듣지 못할 잠꼬대를 하며 잠자리를 돌아눕는 모양이다. 목침대가「덜컹덜컹」 사정도 두려움도 없이 소리를 낸다.

슬며시 침대맡을 어루만져 신발을 찾아신고 밖으로 나와 깊은 밤하늘을 쳐다본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다. 이슬이 축축한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사방을 돌아보니 모래밭위에「콘셋트」 몇 채가 나란히 우뚝 서있다.

바로 저곳에서 해질 무렵 출격에서 돌아온 조종사가 땀에 흠뻑 젖은채 피로도 잊고 적진이야기를 신나게 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자식들 1번기 쫓무니를 막 올려 쓰지않아..... 옛다 모르겠다 하고 한방 던지고 올려채며 보니 직통이지 뭐야』하며 환창 때리고 부시고 하는 시늉을 손 발짓 썩어가며 두공담을 피우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요하기 짝이 없다.

별빛아래 포근히 잠든「콘셋트」속에는 송고한 청춘의 산꿈이 있다. 생사를 초월한 삶의 가치란 흑백의 대조보다도 더욱 뚜렷이 비할바 없는「스릴」이 동반한다.

필자는 민간조종사출신으로 태평양전쟁에 중폭격기(탄룡(呑龍))를 조종, 해방 후 흥남공대서 물리학전공, 51년 공군에 입대, 52년 적진출격 100회 기록수립, 55년 도미, 미〇〇기지서 F86 「제트」전환교육수료, 57년 공군대학수료 동년 작전 국 평가연구과장, 58년 「전투조종사전술평가교범」편찬, 59년 제32전술 정찰대단장, 60년 1훈비단 작전처장, 현정보국 항공목표포장직에 있다.

수장(綬章)으로는▲을지무공훈장▲미국수훈비행십자훈장▲미국비행훈장(3회)▲대통령수장(綬章)(3회)▲공군참모총장 개인 표창장을 받았다.



◇적진으로 향하는「무스탕」전투기 편대의 용세

나는 지금까지 비행훈련에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겪었으나 그들의 활무대(活舞臺)와는 너무도 판이하게 느껴진다.

숫구치는 터전이 적의 상공이며 올라오는 것이 포화임에 빨간 마후라를 감은 파이롯트의 삶의 스타일은 너무나 다차원이다.

나의 머리에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은 우리민족이 역사와 더불어 지니고 있는 생활철리(哲理)의 일면이기도 하다. 가진 절망과 비애에 짓밟히고 흐느끼면서도 악착같은 삶의 길을 추구해 나가려는 역경에 대한 투지와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새롭고 신기할 뿐이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부리핑 실쪽에서 발걸음이 다가온다.

『누구십니까?』

『이소위입니다.』

『아! 이소위인가, 나 김소위인데 왜 안 자고 밖에 나와있지?』

『김소위, 이리와 여기앉아 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일이 많은가?』

『응, 이제야 부리핑준비를 끝마쳤어』

『아무쪼록 몸조심하여 잘하게.』

『그건 그렇고 잠을 안 자면 어떻게하지? 더욱이 내일은 첫출격인데..... 목표도 멀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야.』

『이소위,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이것 저것.....』

『김소위, 1·4후퇴때 남하한 내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고향땅을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정을 알겠나』

나의 머리에는 쓰라렸던 공산치하의 생활이던 생활에 분노가 북받친다.

『문제는 어떻게 싸워 내가 지닌 운명에 무게를 갖게하고 가치를 높이느냐하는 것 뿐이네.』

이 살풍경한 모래밭에 느껴보지 못한 정서가 잠겨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하던 일이다.

김소위가 말을 다시 잇는다.

『짐작은 할 수 있지. 나는 조종사가 못 되고 지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호흡만은 조종사 속에서 하고 있어 말만이라도 수개월되고 나니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아 잘 모르긴 하지만 말의 결론이 생과사의 거리란 거의 없다시피 되는데, 재! 벌써 두시간이네, 어서 들어가 자지.....』

제자리에 돌아와 잠을 청하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온정을 풍기는 전대장의 전입신고때 한 뜻밖의 훈시.....

『귀관들은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전우를 죽이지 말라, 선열의 유훈을 헛되게 하지 말라.』

몹시 딱딱하고 절박한 훈시다.

왜, 『귀관들은 죽지말고 잘 싸워서 공훈을 세워라.』하고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나의 무지와 타협 시키면서..... 단잠을 청했다.

◇출격 또 출격

오늘도 또 적진을 향해 조종간을 잡는다. 적진을 심수 회 오고 간 동안 출격에는 이젠 자신이 생긴 것 같다. 검은 구름속에 먼동이 튼다. 기지를 떠나 어느듯 한 시간이 지난 적지 3,000피트 저공의 새벽이다.

땀에 젖고 초조함에 묶여있던 긴장이 자기도 모르게 크고 긴 한숨속에 풀려나간다.

지금까지 필사적인 노력으로 구름을 헤쳐나와 목표상공에 도달한 희열의 순간이다.

좌우로 짙은 구름을 피해가며 공격방향을 택하던 편대장의 기수가 크게 좌로 돌더니 남서방향으로 정침(定針)한다.

기상장해로 공격기도를 단념하고 제2목표로 향하는 약속동작이다.

다행히도 하루의 수명을 연장받은 적구(赤狗)는 살기위한 투쟁의 포문을 드디어 열었다. 가는길 앞뒤에 포연만이 몽클 올라와 억센 바람결에 힘만이 몽클 올라와 억센 바람결에 힘없이 흩어진다. 나는 제3번 기의 뒤를 따라 속도를 증가하여 갈길로 정침하고 고도를 취하니 시간만이 묵묵히 흘러간다. 기동을 하며 편대대형을 유지하는 손발을 간단없는 반사적 조작에 쉴 사이없고 색적(索敵)에 피로한 눈동자는 나도 모르게 사방을 돌아보며 무엇인가를 찾는다.

이것도 저것도 호흡 없는 적막뿐이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적의 대공포화가 올라올지 모르는 위험속의 이 순간! 『나는 몽매에도 잊지 못할 원한에 사무친 북한상공을 날고 있구나!』

우리의 북한동포가 이 늑대한 편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할까. 아니 그보다도 인간의 존귀한



◇사진은 출격당시의 필자

필자는 남만주 태생으로 조국광복과 더불어 귀국, 52년 공군에 입대, 53년 1월 백회출격기록수립, 휴전 후 ○○기지서 제트기종전학교 육수로, 57년 10전비단 103비행대대장, 58년 도미하여 공지협동작전학교서 3개월 간교육, 59년 공군대학수로. 동년 10전비단 101비행대대장, 61년 감찰업무시찰차 도미, 현재 감찰감실 검열과장직에 있다. 훈장으로는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2회) ▲미주훈비행십자훈장 ▲미비행훈장 ▲대통령급장(3회) 등을 받았다.

나의 출격 회고

현창건(玄昌健)
〈공군대령〉

195×년 6월1일

북쪽하늘 멀리 지리산을 바라보며 철마다 피고지는 꽃송이와 제철을 알려주는 새소리가 설새없는 와룡산 기슭이에 자리잡고 있는 정든 땅 사천을 뒤에 두고 산철고 물설은 타향땅 100전대가 주둔하는 강릉으로 떠나게 되었다.

매일같이 내려다보는 사천땅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달리 다정스럽게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사천에서 지난 날의 회상에 잠기는 동안 어느새 대구를 지나 무수한 산천을 내려다 보며 험한 산과 산이 얽히고 첩첩이 쌓인 대관령을 지나 낯설은 강능비행장에 착륙한 것이 오후12시가 조금 지나서 였다. 전대장 김신중령을 비롯하여 많은 장병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전대장임 그리고 여러 전우장병들을 대하니 감개무량하였다. 모두들『왕서방』잘왔어, 비단이 팔아 오늘 한잔 마시자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상관들의 변함없는 농담에 부드럽고 반가웠다. 비행장에서 느껴지는 첫 인상은 오직 군인만이 맛 볼 수 있는 인간애였다.

숙소로 안내를 받았다. 며칠 전부터 “E” Class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고정편대가 짜여져 있었고, 내무반도 별도로 정하여져 있어서 우리들은 각자 정해진 칸막힌 자리에 들어갔다. 전투장임 이하 우리들까지 조종사는 불과 20명미만이다. 콘셋트 2동에 각 10명씩 들어 야전숙소로서는 손색이 없었다. 애기(愛機)의 시동소리와 함께, 날이 밝고 폭음 소리가 그침으로써 해가지는 사천 비행장에 비하면 조용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6월2일

우리 일행은 GMC 한 대에 타고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약15분 달리어 동해안에선 보기 드문 공군일색의 아늑한 고을에 다달았다. 이곳

감히 출격일기를 여러 전우앞에 내놓는다. 거의 10년 전에 써두었던 일기장 그대로다. 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본문중 계급은 당시계급

이 대관령밑에 자리잡고 있는 강릉색이다. 앞뒤가 산과 바다로서 가로막힌 이곳도 위치적으로 보나, 교통상으로 보나 크게 발전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느낀 첫 인상이다. 아직껏 시록 풍경이 다정스러워 과실이 무럭무럭 자라는 옥도와 무수히 많은 해삼과 전복 그리고 먹음직한 조개를 길러주는 바다와 정서적인 이름 모를 수목이 우거진 대관령은 누구에게나 매력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관령에서 하루를 즐겼다. 기상관측의 통계로 보나 지형으로 보아서 비행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강릉은 오늘날 우리 10전대가 자리 잡게된 이후 시내는 더욱 활기를 띄워 보잘 것 없는 초가창문에는 아담한 카아텐이 걸려지고 거무튀튀한 송판(松板)과 유리에는 새뜻한 페인트로 단장되고 양조장의 막걸리가 전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몹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6월3일

초 출격을 며칠 앞둔 나의 일과는 교육과 Briefing으로서 하루를 보내며 그리고 일과가 끝이 나면 틈틈이 극장을 출입하면서 비극배우들의 자미나는 장면을 곧잘 감상하였다. 강릉에서 출연되는 대부분의 극이란 삼류극에 처하는 극이지만 열심히 표현하는 배우들의 우스운 장면에는 군상들과 같이 웃어가며 하루를 즐기기도 하였다.

때로는 하늘을 동경하고 철없이 비행사를 좋아하는 강릉처녀에게 올바른 공군에 대한 인식과 때로는 유모어로서 웃기기도 하여 나도 제법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특히 이 부대에 와서 느낀 것은 전장병이 출격시간이 다가오면 모두 Line과 숙소 주변에 나와 출격조종사와 그의 얘기가 오늘의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잘 다녀 오라는 듯이 손을 흔드는 그들의 인사- 점차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은 마치 어린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장병들을 볼 때 나는 진심으로 만족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6월7일

오늘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적지초출격날이다. 공연히 아침 일찍부터 바빴다. 내가 초출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편대원은 작전실에 모여 작전과장으로부터 Briefing을 들었다. 특히 초출격하는 “E” Class는 폭탄맞출 생각보다, 장기 Miss를 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와 아울러 강력한 대공포화가 요소 요소에 있다는 Briefing이 있었다.

12시30분 장구준비를 갖추고 나의 애기 313호기로 갔다. 오늘의 무장은 2개의 5백천(斤)폭탄, 6문의 기관포 나는 비행기에 타기전에 애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습관이 학생시절 부터있어 탑승전에 경례를 하고 애기에 올라, 수신호와 더불어 시동을 마치고 이륙 전에 나온 최후비행 점검을 마친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륙하였다. 경포대를 내측으로 보면서 비행장을 한 바퀴 돌아 편대는 짜여졌다.

어느새 속초 상공을 지나, 「간성」 상공에 도달했다. 산짐승이 많다는 저 유명한 향로봉이며 피아간(彼我間)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진부령 저 북쪽으로는 월비산 해금강 서쪽으로는 장아사, 동해로 흘러 내리는 남강, 동해의 푸른바다가 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나는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편대장은 적지를 가르쳐준다. 그 말에 공연히 긴장이 된다. 긴장이라야 비겁이라던가 공포는 아니다. 다만 이때까지 배운 전법을 어떻게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초감과, 초출격을 어떻게 하면 더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 오는 긴장인 것이다. 약 5분후에 삼방리 목표상공에 도착하였다. 삼일포를 지나 약간 후에 삼방리 신고산을 한눈으로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멀리 북으로는 안변 원산의 연봉이 굽이쳐 있고 남으로는 평강 철원등이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조망되고 남북으로 줄그어진 국도들이 내려다 보인다. 거대한 산맥 울창한 수목 험준한 산길 아담한 계곡 무변대(無邊大)한 평원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 마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았다. 해발 1500m의 이 지대는 어디가 목표인지 알 수가 없었다.

편대장으로부터 공격준비 명령이 내리자 편대장기는 급강하돌입을 하여 산과 산사이에 계속으로 강하하여 내려간다. 나도 장기 뒤만 바짝 따라 붙었다. 장기는 급상승을 하여 목표를 내측으로 보면서 선회를 계속하여 전과를 확인한다.

약5분이 지나자 동해 푸른물과 암석이 일목에 들어온다. 저것이 조선팔경의 하나인 바로 외금강이다. 고지는 미군과 중공군이 대결하던 곳으로 낮과 밤을 따라서 주인이 몇십 번이나 갈렸고 무수한 포탄세례를 받은 곳으로 유명한 고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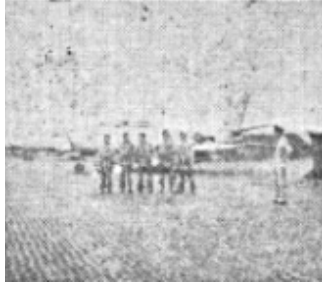
지금도 능선에는 하얗게 벗겨버린 별거숭이 그대로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해상에는 수많은 대소 선박들이 떠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속초를 지나 비행장상공에 도착하였다.

초출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침착하고 아무런 피해없이 귀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동해안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하다.

초출격을 마친 우리를 위하여 베푸는 전대장기의 파티는 성대하였으며 우리는 여기서 자기생명을 걸고 싸우는 출격에 대하여 자신과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영의 축배를 올려 주었다.



◇출격의 격려인사



◇애비(愛飛)와 나란히 선 전투 조종사들

8월2일

초출격을 마친 우리는 계속되는 출격에 상당히 바빴다. 저 유명한 내급강에 위치하는 장안사가 공격목표이다. 그 일대에는 무수한 자동화기진지가 있고 동부전선에 적의 보급집결지로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의 무장은 특수폭탄 및 보통폭탄으로 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편대장 전봉의 소령외에 3명은 보통폭탄을 달고 대지공격의 굴지의 맹장인 3번기 박두원중위는 특수폭탄(VT)을 달고 우렁찬 폭음 소리와 함께 1번기 2번기…… 계속해서 3번기 4번기가 이륙하여 동쪽바다 상공에 편대를 짓고 북쪽으로 향하였다. 기상이 좋지 않아 지시된 고도를 유지 못하고 4, 500 피트로 날았다. 운고(雲高)는 약 5,000피트에 걸리고 가랑비가 약간씩 내리는 악천후이지만 출격은 계속 되었다.

경포대와 주문진을 지나 속초상공 해상에 도달하였을 무렵이다. 바로 옆에서 비행기가 없어지면서 불덩어리가 번쩍 보이는 순간 특수폭탄을 적

제한 49호기는 공중폭발을 하였다. 애석하게도 박두원중위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해상에는 수쌍의 어선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 낙하산이 퍼지자 어선 수쌍은 낙하산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선수(船首)가 돌려진다. 우리는 폭탄을 해상에 투하하고 조종사 생사를 확인하려 저공으로 내려갔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내가 아는 박중위 생전의 성품은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인정이 많은 씩씩한 청년장교로서 항상 명랑한 얼굴로 날씬하게 날던 모습이며, 겸손한 인품에다 다정하고 인자스러운 호남자 특히 사천시절이나 강릉시절에 많은 장병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녀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오던 박중위였다.

내가 몽고 빠인부통에 있을 다아시 한 몽고인 친구가 나에게 한 말이 기억에 새롭다. 그것은『인생은 끝이 없는 여정이다.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을 헤매다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짧은 인생의 항로이다. 생명이 아침 이슬과도 같고, 저녁에 뜬 달과도 같은 존재이니 살아 생전에 뜻있고 값있게 살아야 된다』고 한 이야기가 그 당시는 허튼 소리 말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명언이라고 느껴지며 그 녀석이 영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죽음과 삶의 차이란 정말 백지 한 장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침에 같이 출격하면서 생긋 웃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이었던 박중위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러나 지금쯤은 유명(幽明)이 다른 세계에서 또 행복하고 명랑한 생활을 다시 영위하겠지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는 그다지 인연이 깊지 못하였던 친구, 뒤숭숭한 마음 형언할 길 없다.

고박두원중위는 조종사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대담하며 또 폭격의 정확성에는 누구나 비할 바 없는 존재였다. 박두원중위는 기록을 들춰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알지만 4285년6월18일 목표 LT6404, 6407 공격에서 적의 폭약 집결소에서 명중탄을 떨어뜨리어 2차 폭발을 시켜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한국동란에서 일찍이 볼수 없었던 전과를 거둔 사실이 미국방성에 알려져 미국방성으로부터 특별수훈장을 받은 일도 있다. 나는 박두원중위와 근 20회를 같은 편대 2번기로 출격을 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8월3일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박두원중위가 전사한 다음날인 오늘도 출격은 계속되었다. 목표가 내급강 장안사이다. 전봉희소령은 편대장으로 하는 Albe편대의 2번기이다. 해급강 남서쪽 깊숙이 자리잡은 장안사는 강원제일의 심산유곡(深山幽谷)이라 할만큼 폭이 넓다. 장안사 좌우에는 대소 무수하고 웅대한 암석이 급경사의 절벽을 이루고 남북으로는 수백 리를 굽이쳐 있는 길과 어디선지 흘러내리는 물웅산과 산 사이에 별세계 가을을 알려주는 각종 아름다운 수목하여튼 절경이라 아니 할수 없다.

조종사가 아니고는 맞볼 수 없는 장관, 새삼스럽게 형용할 수 없는 일종의 통쾌감을 의식하여 본다.

8월29일

평생에 잊지 못할 적도 평양 폭격의 기회가 왔다.

8월29일 오전 5시에 전원 기상명령이다. 전대장이 유달리 긴장된 Briefing을 마치자 작전과장으로부터 오늘의 임무는「평양공격」이란 Briefing을 한다.

기쁨과 감격이 얽혀 견잡을 수 없는 흥분상태였었다. 어느 때나 적도폭격의 명령이 내리나 무척 기다렸던 까닭이다. 신변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기들의 희생이 수차나 평양근방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첫 편대군조종사는 장구를 가지고 Line으로 나간다. 우리는『잘싸우시오』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평소 말이 많던 친구들도 말 한마디 없었다. 그 묵묵한 표정 이때까지 조종사 생활에서 처음보는 광경이다.

이륙선에 나아가 최후 점검을 마치고 한 대 한 대 뜨기 시작하여 전(全)기 무사히 이륙을 마치고 우렁찬 폭음소리를 내면서 기지상공을 선회한 다음 서북쪽으로 기체가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 까지 바라보았다. 이날 평양공격에 참가될 비행기대수는 1,200대, 우리 10전대는 3개편대군이 참가하게 되어 있다. 1개편대군이 12대 나는 2편대군 3편대군 2회 들어 있다. 전원 속속로 돌아와 신변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어느새 출격시간이 다가와 장구를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3편대 4번기다. 장기를 선두로 비행장을 중심으로 편대를 지어 적지로 향한다. 산과 들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산비탈에 용기종기 모여서는 초가집들 그리고 가도가도 첩첩이 쌓여있는 산과 골짜구니 뿐이고 모여사는 마을에는 불타버린 흔적만 남기고 있는 집터에는 그래도 살겠다고 흰옷을 입고 개미모양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황토하나 없고 산만이 서 있는 보잘 것 없는 산골짜기에도 살아보겠다고 움직이는 모습이 불쌍히 여겨진다. 어느 사이에 화천시가는 저수지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란때 불타고 다꺼어져 빈터만 남아 집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쓰러져있고 빈터에는 천막이 군데군데 세워져있는 것이 보인다.

화천저수지는 지금까지 본것중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진 호수이다. 산과 물이 서로 겨안고 자연과 인위가 한데 어울린 선경중의 선경이다. 호수 북쪽으로는 약 3000피트 높이의 산이 서에서 동북으로 뻗치고 남으로는 소양강지류에 합치는 원류가 흐르는 곳은 공중에서도 잠깐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곳이다. 또한 동북으로는 양구와 며칠전 우리 해병대가 중공군 대부대를 한놈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다는 유명한 란치불(蘭池)이 보이며 험준한 산악과 계곡으로 둘러쌓이고 전쟁에서 명성을 올리고 있는 유명한 산들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선간고지(鮮干高地) 크리스마스고지 M-고지 단장의 능선 김일성고지 등등 정상에는 나무 하나 없이 벌거숭이가 되어 서 있는 것을 볼 때 고지마다 능선마다 피아간의 치열한 격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 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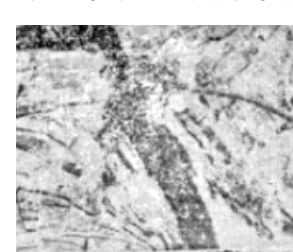
화천을 지나니 곧 철원 평야가 보인다.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적이요 남으로는 아군 진지가 있다. 거미줄처럼 신선했던 아군진지에 도로에는 수없는 군용차가 뺨안 먼지를 내면서 남으로 북으로 달리고 있다. 중동부전선에서 가장 고전을 치루었다는 이름있는 고지들이 좌우로 내려다보이며 길가에는 황무한 들판인데 인적 하나 없고 저 유명한 철의 삼각지라고 부르는 격전지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나 금화상공에 오긴 왔지만 어디가 금화인지 알 수가 없고 다만 큰길의 사방으로 나 있는 것이 보일 뿐이다.

어느 사이에 사리원과 황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상공에 도달했다. 공중에는 각종형(各種型)의 우군비행기가 제각기 대기지점에서 편대를 지어 장기를 선두로 T,O,T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마치 장날에 온 기분이다. 우리 상하방으로는 빈틈없이 미군기 영국기 함재기(艦載機)가 나르고 있다. 공중 충돌이라도 할까 봐 특별히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T,O,T시 3분전이다. 평야를 향하고 앞을 내려다 보니 첫 눈에 대동강이 띄고 남안의 신흥지대인 선교리가 눈에 띄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어디가 우리의 목표인지 지나쳐 버릴 만큼 몹시 파괴되어 있었다.

옛날 내가 보고 다니던 정은 시가와 산천이지만 몹시 변하여 옛 모습이리곤 찾아 볼 수 없었다. 공중에는 삼층으로 구름이 덮여 있는데 이것은 구름이 아니고 고사포가 터진 포연이 구름으로 변하여 버린 것이었다. 평양시가지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폭력을 받아 화연으로 덮여 있었으나 우리 목표는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병기를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사포는 올라온다.

내가 시인이나 문학가였었다면 더 굉장하게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이도 비행기를 조종하여 전투 밖에 모르는 나로서는 더 이상 형언 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이 당시 실황은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는 잘 이해가 아니 가고 언어에 의한 표현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키 어렵고 그저 굉장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황도 공포도 없었다.

단지 운명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야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무전장으로 올라오는 포탄은 피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무전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로 전병기가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는 목표상공에 도달하여 급강하 돌입을 감행하였다. 우리 목표도 명중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기상(機上)에서 본 폭파된 적교량

타기는 겸이포 상공에 도달하여 각기 편대장을 확인하느라고 야단법석이다. 우리 조종사는 미군 Pilot에 비해 유난히도 무전을 많이 쓰는 편이다. 나는 특히 더하다. 3편대장으로부터 4번기 Checkin한다. 이상없다고 보고와 겸해서 현재 위치도 보고하였다. 시어머니 역정에 개열구리 찬다는 격언과 같이 평양에서 혼 이난 나는 겸이포 상공에 와서 화풀이를 하게 되었다. 겸이포 공장지대에 대하여 기총소사(機銃掃射)를 수회하는 동안 편대군은 철원상공에 도달하여 12번기를 찾고 있는데 나는 듣고도 모르는 체 회신을 안 했다.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최대마력으로 편대군의 뒤를 따랐다. 평소 에 쏘아 올리지 않던 지점에서 혼자 나는 나를 발견하여 사방에서 고사포탄이 터진다. 동남쪽 방향에 11대의 3,000-4,000피트 정도된다.



북괴 비행사들의 훈련과 생활

정낙현
<공군대위>

북한 괴뢰 집단에서 자유 대만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오늘까지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지내온 것에 대하여 정부와 전체 국민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공산주의 자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반공 전선에서 싸울 것을 맹서한 만큼 나의 실력 배양과 근무 생활에 보다 충실 함으로써 이에 보답하려 한다.

5·16 혁명으로 제반 시책의 결과 중소 기업이 활발이 일어지고 있고 퇴폐한 사대주의 사상과 국산품을 천대시하는 일부 국민들의 낡은 사상관념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자립하여 남부럽지 않은 부강한 향토 건설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2년전 북한에서의 생활을 회고하여 감개 무량할 뿐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을 적극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주는 원칙하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산치하에서는 전연 다른 것이다. 북괴 공산당 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 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를 소위 당적 과업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이것은 얼른 생각 하기에는 현명한 생각같다. 그러나 그 배후의 내막과 괴뢰집단이 오랜 집권을 위해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볼 때 기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이후 회천과 강계등지에 군수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김일성이는 말하기를『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다.』라고 하면서 최종적 통일을 위하여 제철공업과 군수 공업을 병행하게 발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떠버리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또 말하기를『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공군력 강화에 필요

급작히 나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편대군장기를 따라 전기방향을 전환하였다. 내려가면 기합이나 받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르는체 하고 비행을 계속하였다. 편대군장이 나의 옆에 바짝 붙어서 33호기는 몇 번기인가 하기에 그때야 비로서 3편대 4번기라고 대답 하였다.

그때 지형을 보니 신막 동북방 이천과의 사이이다. 편대군장이 편대에 붙으라고 말할뿐 아무 다른 말이 없다. 나는 제위치에 들어갔다. 이때의 너그러운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크게 감명을 주었다. 일상생활은 물론 기거(起居)와 개인신상까지도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마음은 부모형제 그 누구에게도 비할 바가 아니다.

착륙을 했다. 전대장 이하 전 장병이 모여든다. 정비사는 정비를 한다. 무장사는 폭탄을 단다. 무장사는 속소에 들어갈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이번 편대군에는 같은 33호에 편대군의 2번기였다. 편대군장 오춘목 소령임의 부리평은 Line에서 간단히 있었다. 공격방향, 이륙방향, 공중대기지점 및 추락했을 때의 구조 절차 등 마지막으로 전대장 및 편대군장으로 부터 이번 공격이 오늘의 마지막이니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전기 명중탄을 던지고 오라고 간단한 말씀이었다. 30분후에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그렇게 쾌활하고 낭만적인 성격을 지닌 조종사가 말 한마디 없는 것을 보아서도 얼마나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인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륙 후 전기는 비행장 상공에서 완전히 편대가 짜여져서 화천 상공, 철원 상공, 백천 상공을 지나 사리원 상공에 도착하였다. 이번 공격에 참가하는 대수는 연400대이다. 우리 공군이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공격할 차례이다. 평양을 향하여 정침(定針)을 하여 목표상공에 와서도 고사포는 올라오지 않아 대부분의 대공화기가 파괴된 줄만 알고 있었다. 공격 직전 일제히 집중 사격을 개시하여 우리 주위는 화염으로 전번기 확인이 곤란할 정도로 쏘아 올린다. 우리 목표물은 많은 명중탄이 떨어져 있고 평양시가 도처에는 아직 연기가 나고 있다. 우리 목표 바로옆에 해군의(함재기) 목표는 우리 만큼 명중을 못한 것이 보인다. 급강하 공격이 시작되었다. 편대장기는 확실히 공격을 끝마쳤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나는 지상에서 받은 Briefing대로 좌측으로 이탈을 하여 공중 대기지점인 검이포 7,000피트에 도달하였으나 편대장기를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계속 좌측 선회를 하면서 검이포 공강일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기총소사를 하고 있었다. 나의 뒤에는 벌써 4대가 붙어 나를 따라 공격을 한다. 다음은 마차를 발견하여 공격을 마치고 고도를 취하면서 나는 군장기가 나타나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다른 비행기들은 내가 편대군장기인 줄 알고 아무말없이 내가 하는대로 따라 행동한다. 나도 야단 난 것이 나는 내대로 편대에 붙어야 하는데 뒤에 바짝 달라 붙은 비행기를 내 재간으로는 도저히 떼어 버릴 수가 없었다. 뒤에 붙은 비행기를 떼어버리기 위하여 급선회를 하였다. 임순혁 중위가 편대장임 전부 왔습니다.

하다면 자기의 바지라도 벗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군의 주력인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에기 반입에 바빴던 것이다. 북괴 공군은 조종사 대량 양성을 위하여 1954년부터는 고등학교 3년생이거나 졸업자들 중에서 엄격한 선발 심사를 거쳐 조종사 후보생을 공군군관학교 비행과에 다수 입학시켰다. 이들은 비행과에 입학한 이후 약 1년반 아니면 2년간 이론 교육을 간단히 마치고 비행 대대에 배치하여 야크-18과정을 6개월 가량 받게 하였다. 놈들은 비행술에 관계없이 사상 제일주의를 내걸고 비행 훈련을 끝마친 후에는 각종작업과 정치학습회 등을 조직한다. 이 부문에서 성적이 나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간신이 붙어 남은 학생들은 AK-2대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 비행대대에서 야크-18과정을 약간 반복하고 원프식 비행기로서 할 수 있는 전투 적용 훈련의 일종으로 기동 편대와 공중 사격훈련, 계기항법·비행등 초보적인 과정을 6개월간 마치고 미그-15비스 전투기 대대로 넘어간다. 제트기 대대에 배속되면 본인 신원에 대하여 재확정을 받고 비행훈련에 들어간다. 본대대서는 초보적인 이착륙 비행부터 시작하여 편대비행 기동 편대비행 공중사격 대지사격 공중전투 항법비행 등 초보적인 전투조종사로서 밑천을 마련해 준다.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졸업할 때는 쌍기로서 경한 전투입무를 수행할 정도이며 비행 시간은 120-130시간 밖에 안 된다. 북괴 공군은 전투조종사로서 1년 70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원북괴 공군군관학교 교육과정이 5년으로 되어있으나 대량양성을 위하여 2년반-3년반 동안에 졸업시킨 예가 허다한 것이다. 일단 졸업을 하게 되면 예하 각 전투사단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게 되는 바 기본적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들이 훈련과정을 보면 대부분 1년간은 전투입무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훈련시키며 대대, 편대 정도로 끝난다. 그 다음해부터는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진입한다. 주로 미지목 표 탐색 공격훈련, 해상 함정에 대한 공격, 레이더에 의한 공중전, 타비행장예의 불의습격훈련, 폭격기에 대한 공격훈련, 엄호받는 비행기에 대한 공격, 쌍기나 중대 동시적 대지공격폭격 등을 연마하게 된다. 이런 범위에서 훈련이 끝나면 3급 비행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만 3급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3년째 접어들면서 복잡한 기상조건하에서의 주간 훈련이 시작된다. 수많은 계기비행과 운중 비행에 중점을 두고 운중항법, 운중편대, 운상에서 공중전, 운상운하 면에서 공중전 연마와 레더에 의한 훈련이 어느 때보다 심해진다. 또 운하면에 있는 목표 탐색법 등을 연마하게 된다. 이것이 일단 끝나면 본격적인 야간행에 들어가게 된다. 상기와 같이 주간의 복잡한 기상 조건과 야간 비행에서 어떤 전투입무라도 개별행동이나 편대행동을 막론하고 완수할 능력을 가졌을 때 2급비행사의 자격을 주게된다. 1급비행사가 되려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어떤 기상조건을 막론하고 주저함이 없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정침을 하여 돌아 갑시다. 라고 한다(할 말이 수없이 많지만 생략). 편대는 사리원을 지나 마산리에 도달 하였다. 마산리 동내는 피아간의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렸지만 지난날 내가 월남 당시 하루를 지나던 골짜기 이기에 한번 바라 보았다.

귀로에 오른 편대는 전기 이상 없다.

공중에서 무전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전과 이야기도 하고 한참 신들이 났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무지무지한 전투에서 좋은 전과를 얻은 데다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기는 무사하니 이 이상 더 통쾌한 일은 없었다. 어떤 친구는 가거라 38선을 부른다.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통쾌하고 감개무량한 사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투조종사만이 맛볼 수 있는 일이다. 편대를 짓고 귀로에 오르는 것이 마치 개신 장군처럼 위대해진 것 같고 감개무량하였다. 어느새 선포리 상공에 왔다. 선포리에서 동북으로 2방리까지는 공중에서 보아서 약 100리 되는 긴 계곡이 보인다.

물은 흐르고 길은 있는데 움직이는 동물이란 하나 볼 수 없다. 금화 철원을 지나 왕대산의 험준한 산악과 계곡이 바로 눈아래 보인다. 산과 산으로 둘러쌓인 산간벽촌에도 긴기가 군데 군데 보이기도 한다. 사람사는 동네보다 전쟁하는 고지와 능선이 더 많은 이런 곳에 살아 보겠다고 애를 쓰는 농민들의 초라한 모습을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어느새 동해의 푸른물이 일몰에 들어오고 신작로가 꼬불 꼬불 보이는 대관령 상공에 도착하여 착륙준비에 들어 갔다. 비행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 나와 있다. 착륙하여 기념촬영을 마치자 제각기 명중했다고 입문을 여는 것이었다. 생사의 경지를 방황하다 돌아온 우리들이었지만 착륙 직후의 심정이란 그 누구에게도 비할 바 없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11월10일

어느새 겨울을 알려주는 서리가 내렸다. 사천에 비하면 근 한달이나 일찍 내리는 감이 든다. 대관령은 음력 11월말이면 눈이 내리고 쌓이는 눈은 양력 4월이나 되어야 녹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설 사이 없이 계속되는 출격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 하루 3회를 다녀 왔다.

오늘로서 78회의 출격기록을 세웠다. 오늘은 저 중공군들이 인해전술로서 전사상 희유(稀有)의 격전지였었다는 저격능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북방 ××을 공격하였고, 다음은 동해안에서 가장 열전지였던 육군제1군단15사단 정면에 위치하는 월비산의 근접지원 공격이었다. 저 유명한 월비산은 처음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진지였는데 인민군의 최후의 발악으로 매일 5·60발씩 포탄을 퍼부어 우리 진지를 먼지와 화염 속에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수류탄으로 백병전까지 감행하였다는 곳이다. 월비산은 적측고지로서는 동해안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중요하고 또 제일 높은 산으로 중요한 요새이다.

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에게 자격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급수를 얻기 위하여서는 첫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전 훈련과정을 통해 사고나 사고전제가 없는 자라야 한다. 둘째, 비행계통에 필요한 이론 시험에 합격 하여야만 된다. 셋째, 1분간 무전 통신을 40초 이상 받아야 한다. 넷째, 기계부분 취급에서 정비사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즉 임의의 시간에 단독 정비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상 그들이 훈련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실지 조종사들의 생활은 먹고 자고 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이다. 보통 부대에서 1주일에 훈련을 2-3회 조직하는 바 토요일은 군관 학습회시간으로 4시간을 배당한다. 보통 하루훈련준비를 위해 2주일간이란 시간을 허비하여야만 비행허가를 받는다. 하루 평균 출발전시간이 6시간 정도로 된다. 일단 하루훈련이 끝나면 비행 후 강평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새로운 과업을 받는다. 그다음부터는 자기과제연구보다 민청사업, 당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1주 회의는 거의 매일이며 그 외 개인이 맡은 선전 사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 부업정리를 위해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1주에 2회 정도의 예비적일과 1회 적일을 한번 정도 서야하는 형편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편이며 있다면 11시 이후에 좀 공간이 나기는 하나 군의관에게 들기면 다음날 비행중지를 당하게 된다. 아마 매일같이 띄우는 것이 그들의 습성화 되어 버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뿐이 아니라 군에게 야채등 부식 조달을 민간에서 조달지 못하게 되므로 부대자체로 채소와 육류를 해결할 방침을 세우고 채소 가꾸기가 훈련하기보다 더 힘든 과업의 하나다. 수많은 주둔하고 있는 부대주변에서 퇴비를 구한다는 문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장교 사병 할것없이 퇴비 훔치기 선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그곳에 쌍보초까지 세우는 희극이 한 두번 벌어지는 게 아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꾼을 양성하느냐고 정치부에 항의하자 정치적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씌워 조종사에서 제명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치부 연대장이란 자가 너희들이 이빠서 잘 맥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당의 품이며 당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동원될 준비가 완비되는 것은 물론, 당은 너희들이 기술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자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이 힘을 원하고 기계와 같이 마력을 위해서 조종사들을 키운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면 무식한 자들이 짓는 소리이니 스쳐지내 보내곤 하는 일도 많기는 하나 격양된 증오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가정 생활은 어떤가. 조종사들이 결혼을 하려면 정치부 사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여자의 자서전 이력서, 신원보증서 등과 해당 도당위원장 승낙을 얻어야 결혼을 하게 되며 그나마 평조종사는 결혼할 권한조차 주지 않는다. 즉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결혼 자격을 얻으려면 중대장 이상의 직위를 받아야 하며 2급비행사의 수준에 도달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그나마 결혼하게 되면 사택구역에서 집단적으로 살며 1주일 두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부대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자유 마저 뺏기고 만다. 즉 아침 5시에 출근하고 저녁10시에 집에 들어간다. 잠만 자고 나오는 하숙집이랄까? 하숙집에서는 삼시 식사나 하는 재미가 있을 터, 그러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집을 가리켜 어린이 생산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으로 유치한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활을 볼 때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 하루 일과만 끝나며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그러한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것과 국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행복, 그런 생활이 북한 조종사들에게도 올 날이 있을는지 막연한 일이다. 그들은 항상 불만 불평일 수밖에 없으며 기회를 노리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자유를 찾기 위해 제트기를 타고 월남하려다 미수에 그쳐 총살된 사람만 2명이며, 정역이 1명 원프식 비행기에서 제트기에 추격을 받아 강제 착륙한 것이 한 건이나 된다. 월남에 성공한 자와 미수에 그친자를 합하면 10여 명이 넘는다. 이외에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조종사들이 얼마있는지 모른다. 이것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하리라고 믿는다.

1월16일

머칠째 내리던 눈도 어느 듯 멎고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는 하나 내의를 뚫고 들어오는 찬 바람은 살을 오리는 듯 차다 멀리 보이는 대관령에는 흰 눈으로 덮여 지표와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쌓여있고 땅과 산의 구별도 정확치 않다. 날씨는 대단히 좋다. 오늘 14시에 장성태 대위, 박희곤 중위와 나는 백회출격 기록을 수립하는 중요한 날이다. 점심을 먹고 작전 실에 모여 목표에 대한 부리평을 들었다. 목표는 삼일포와 신고산 중간에서 북쪽에 있는 도로차단이다.

우리 집 드나들 듯 한 적지라 별로 이상한 감은 없지만 그래도 백회기록을 수립하는 날이고 보니 무언가 마음의 안정이 안 간다.

3개편대는 제각기 이륙을 마치고 항진대형으로 북쪽을 향하여 날아간다. 여기에는 믿음직한 GUASE 조종들이다. 목표에서 공격을 마치고 바다 쪽으로 나왔다. 교량이 파괴되고 도로가 수개처나 명중된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시민들과 친지들이 우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추운날인데도 나와 있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도 미안하기도 하였다.

1월18일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과 같이 겨우 정이 들게 되자 사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우리 3명은 후방근무를 명령받았다. 사천에 도착하니 전장병이 환영 나와 있다.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

박희규
 <공군대학·중령>

아름답고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한번 마음껏 날아 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제가 공군에 입대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이 큰 동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옛날 아직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 옛날부터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날아 보고자 하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꿈은 드디어 비행선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금일과 같은 항공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일의 항공을 개척하기 까지는 오랜 세월을 걸친 수 많은 선구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전에 「이태리」의 유명한 예술가요 과학자인「레오나드 다 빈치」는 새 날개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날렸다고 합니다. 약 160년 전인 1783년에「프랑스」의「몽골피어」형제가 기구를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인류를 공중에 상승시켰으며 1900년대에 독일의「젯페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비행선을 발명하여 제1차세계대전시에는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전인 1890년에 독일의「리리 엔타르」 라는 사람은 새날개와 같은「글라이더」 활공기를 만들어서 높은 언덕위에서 뛰어 내려 상승 기류를 타고 활공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때부터 금일의 항공기의 기술적인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인류가 새와 같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글라이더」의 활공 원리를 이용하여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03년에 미국에서 「라이트」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항공기를 만들어 비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라이트」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겨우 260M의 거리와 59초간의 비행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구미 각국에서는 연구를 거듭하여 1914년 세계1차대전이 발발하던 당시에는 시속 200Km, 거리 1,000Km를 날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군용기로서 전쟁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1차대전 4년간에 비행기는 눈부신 발달을 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1차대전후에 각국에서는 전쟁중에 많이 제작했던 군용기의 처리 방법으로서 이를 개조하여 민용 수송기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차차 수송기관으로서 항공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대전 후부터 제2차대전 전에 이르기까지 약20년 동안 항공기는 더욱더 발달을 거듭하여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항공기는 결정적인 무기로서 등장하였고 항공력의 우열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2차대전 말까지만 해도 가장 속도가 빠른 비행기가 겨우 7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디다. 마는 2차대전 후에 Jet Engine

이 항공기에 사용되고부터 항공사상에 일대 혁명을 가져 왔습니다.

1945년 9월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Jet항공기를 만들었으며 1950년에 한국동란이 일어나자 미국공군은 처음으로 Jet전투기를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사용 했던 F-80 Jet전투기는 음속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 후 F-86「제이버」 Jet기가 출현하면서부터 드디어 음속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현재 최신 Jet전투기인 F-100은 음속을 훨씬 넘는 시속 1,000마일의 속도와 고도 50,000「파트」의 상승률과 1,000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F-104는 음속의 약 2배가 되는 1,400마일의 시속과 91,000「파트」의 고도 1,000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년전만 해도「로켓트」나 인공위성은 항공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타고 나는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1957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소련의「스푸트닉」1호가 발사 되면서부터 미소 약국은 우주 개척의 선봉을 다투고 있습니다. 소련의「가가린」을 시초로하여 미국의「세파드」,「그립슨」,「글렌」중령,「카펜타」소령 등, 우주여행에 성공한 20세기의 영웅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얼마 전 7월 17일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로버트·하이트」소령이 소형「로켓트」실험용 비행기인 X-15를 타고 우주권내에 58마일이나 깊숙이 진입하므로써 날개 달린 항공기를 조종하여 우주여행에 성공한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었습니다.

『달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든 달아』하고 노래 하든 저 달도 이제는 꿈나라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힘으로 정복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는 저 달나라로 여행할 꿈을 실현 시키고저 하고있습니다. 금일의 항공은 우주를 향하여 다름칠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정복한 우리는 이제 우주를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항공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와같이 이야기하고 보면 내 자신이 마치 우주항공을 개척하고 있는 선구자와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항공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하늘을 날으고자 하는 꿈을 꾸고 하늘을 동경하는 시를 읊고 글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날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우리를 평하기를「우리 할아버지들은 남의 비행기를 타보기만 했지 제손으로 만들어 보지는 못했다」하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남이 하늘을 날으고저 애쓰고 있을 때 잠만 자고, 남이 하늘을 날을 때 우리는 꿈만 꾸고, 남이 우주비행을 할 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손뼉만 치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나라는 5·16군사혁명으로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과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부신 공업의 발달이 기대되고 있는 경제 5개년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항공도 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국민의 항공사상을 양양하고 항공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이 분야의 연구와 이나라 항공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도 우주를 날아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 각국이 오늘의 눈부신 우주항공과학을 이룩하기 까지는 오랜 세월을 걸친 노력과 수 많은 선구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나라 국민의 항공사상과 항공에 관한 지식 수준이 높았고 항공에 대한 열렬한 개척 정신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선진 각국은 지금도 모형 항공기 및「글라이더」등 항공「스포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항공 사상과 지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항공과학의 선진국인 미국, 소련, 영국, 독일, 불란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항공「스포츠」를 대단히 즐기고 널리 장려되고 있으며 모형항공기 및「글라이더」경기는 국제적「스포츠」

종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동경「올림픽」대회의 경기종목으로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스포츠」를 널리 장려하여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좋은 기록을 올리므로써 국위를 세계에 떨치고 나아가서 전 국민이 항공과학 발달과 우리의 항공 개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공군의 비약적인 발달을 보아 최신 항공기로서 무장 되어 북한 괴뢰의 침략 마수를 방위하고 있으나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모두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한 것이며 우리의 국력으로서의 아직 경비행기 한 대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군사적으로 국방에 여하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론을 요하지 않으며 민간용으로도 일국의 경제를 부강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의 민간 항공회사는 거대한 자본과 인력으로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국제민간항공에 진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작업용 항공기로서 어군탐색에 협조하여 어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용으로 종자, 비료 구충제, 살포등, 작업에 사용되어 농업을 진흥케 하며 해상감시 인명구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국가 경제를 부강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민간 항공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군사적으로도 공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항공은 아직 황무지와 같으며 우리의 공업력은 아직도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 5개년 계획의 진전에 따라 발달하는 공업력의 뒷받침을 받아 항공공업의 발달을 기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민간항공도 활발히 개척되어 선진 각국과 어깨를 겨누어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우리의 국가소득을 증진 시키므로써 우리나라도 부강하여지고 우리 국민도 잘살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공업력의 발달과 민간 항공력의 힘을 뒷받침 하여 군사적으로도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 각종 군용항공기로서 우리 공군을 무장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 그날에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성업도 쉽사리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는 약하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하고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발 밑만 내려다 보지 말고 머리를 쳐들어 저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 봅시다. 우리의 땅덩어리는 작지만 우리의 하늘은 광대합니다. 넓고 무한대의 저 하늘은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개척하는 자의 것입니다.

20세기의 하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저 하늘로 나아 갑시다. 무한대의 저 하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끝-

△대통령의 어머니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보올은 이 세계적 영웅을 낳는데 어울리는 현부였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고향인 마운트 버논으로 갔을 때였다.

어머니인 메리는 평소와 같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문 앞 울타리까지 마중을 나와 반가워하며, 『조지, 정말 잘 왔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지금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던 참이란다.』

하고 말하자 빵 가루 투성이의 손을 닦으며, 분주하게 다시 부엌 쪽으로 가버렸다. 워싱턴을 따라온 사자들은 이것이 대통령 각하의 모친인가 하고 놀랐으나, 그러나 장본인인 워싱턴은 더없이 기쁜 듯이 일동을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자를 만드는 솜씨가 좋았지요. 자, 사양말고 안에 들어가 같이 잡수어주소』

이윽고 일동이 자리에 앉았을 때, 워싱턴은『어머니, 일일이 직접 일하시면 큰일이니까 앞으로는 하인을 들여서 어머니는 그저 그것을 감독만 하시면 어떻습니까?』하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냐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이 나를 위해 폐를 입어서는 하나님께 면목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한 수입 중에서 돈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작정이다. 만약 끝끝내 네가 나에게 일하기를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 따위는 언제라도 사직하겠다.』

일동은 이 말을 듣고 누구나 다 그 기품 높은 정신에 감동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서구(西歐)의 방위세력(防衛勢力)

자유세계는 그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 전연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허세를 부릴 수 있고, 공갈 협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대량공격력을 개관해 본 다음의 글을 읽고 나면 누구든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로, 적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서방은 힘에 근거를 두고 협상을 전개할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리더스 · 다이제스트>에서-
봄 콘시딘



우리들은 여하한 위협에 처하더라도 이를 격파하여「후르시초프」와 그의 전 제국을 매장시킬 수 있다. 미국과 그 우방이 갖추고 있는 핵전쟁 준비에 관한 이와 같은 직접적인 보고의 발표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서방측은 수 시간으로, 소련의 전면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방측이 갖추고 있는 무기를 실제로 살피기 위해서 필자는「캘리포니아」주에 있는「반덴버그」공군기지의 군사 시설과, 「네브라스카」주의「오마하」에 있는 전략공군사령본부, 「컨네티컷」주의「그릿튼」에 있는「폴라리스」잠수함조선소, 그리고 영국공군의 유도탄기지, 「이태리」의 유도탄전술사령부, 불란서의「베르사이유」에 있는 구조연합군(歐洲聯合軍) 최고사령부, NATO 방위군의 심장부등을 두루 답사한 바 있다. 이 거대한 집체적 힘을 필설(筆舌)로 이루 표현할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르시초프」의 처세와 위협도 이 위력으로 볼 때 한갓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

영국만 하더라도, 「쏘어」중거리탄도유도탄의 첨단에 60개의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 「이태리」는 일단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메가톤」급 폭탄을 30개이상이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잘 훈련된 이태리인에 의해 주피터중거리유도탄으로 발사될 것이다.

약30메가톤의 파괴력을 각각 장비한 6쌍의「폴라리스」잠수함은, 해저를 누비면서, 북극에서「페르샤」만에 이르는 수중위치로부터 소련의 모든 핵심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

전술원자무기로 장비되어 있으며, 또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장비될 수 있는 NATO군 약 30개사단은「노르웨이」에서 토이기(土耳其)에 이르는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금월(7월)말까지 미국은 곳곳에다 99개의 대륙간유도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중 약간은 방어된

음폐소에 묻힌 것이지만, 거의 전부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도탄에는 일정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열핵탄두를 장비할 것이다.

지중해를 배회하면서 깊이 구석구석까지 정사(精査)하고 있는 미제7함대는, 비상경보만 나면 순식간에 항공모함으로부터 뜰 수 있는 초음속 항공기였다. 원자폭탄 기뢰 및 로켓탄을 적재하고 있다.

끝으로 가장 마음 든든한 일로서, 우리들은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의 유인폭격기를 갖고 있는데, 이 폭격기는 15년전 냉전이 시작된 이래 줄곧 소련의 영토팽창을 저지하는 주력으로서 활약하여 왔다. 공중발사용「스카이볼트」탄도유도탄의 일련의 조작으로서, 단 1대의 B-52는 목표지점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4개의 수소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공군은 630대의 B-52, 55대의 초음속 B-58, 그리고 100대의 B-47을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보가 발한 지 15분 이내에 공중에 뜰 수가 있는 것이다.

서방측은 또한 영국공군의 강력한 유인폭격기와 번개처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NATO군의 전투기와 전투폭격기를 갖고 있다.

NATO지상군은 가까운 장래에 오늘날 보다 25퍼센트나 강화될 것이며, 공군력은 그보다도 훨씬 더 증강될 것이다. 「타이탄」2호 대륙간유도탄은 저장용 연료를 갖게 되어서, 15층 깊이의 음폐소로부터 발사될 것이다.

기술적인 향상의 덕분에 그동안 유도탄제장의 능율은 현저하게 향상되어 왔다. 원자잠수함「에탄 알렌」호는 최근의 처녀 순항시에 수중에서 아무 장애없이 개량된 6개의「폴라리스」유도탄을 발사한바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미뉴트맨」대륙간탄도유도탄은 단추 하나를 누름으로써 발사대로부터 솟아 올라가는 그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수많은 이러한 신형유도탄이 곧 또 발사될 것이다.

최강의 무기

그러나 서방 병기창의 최강의 무기는 서방인 그 자신이다. 나는「캘리포니아」에서, 10층이나 높이 솟은「타이탄」유도탄과 씨름하고있는 서방인을 보았다. 나는 구조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15종류나 되는 다른 군복을 입고있는 서방인들을 보았으며 또「링컨사이어」의 영국공군 쏘어유도탄기지에서 휘몰아치는 진눈개비에 범벅이 된 서방인을 보았다.

나는「마드리드」근처의 장교구락부에서 자동판매기를 돌리고 있는 비행복차림의 서방인을 보았다. 나는「베로나」에서 흡사「이태리」인 같은데 영어강습을 받고 있는 서방인을 보았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강한 힘을 손에 갖고, 가슴에는 정열이 넘치는 이러한 서방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있다. 그는 평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간다면 필설로 이루 다 할수 없는 끔찍한 대학살이 초래될 일대반격의 수단과 용의과 그들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구조연합군최고사령부(베르사이유)

으르렁대는 큰곰(소련을 말함=역자주)으로부터 수천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미국이, 최근에 핵피난소에 관하여 논쟁을 벌리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상최강의 군사동맹체인 구조연합군사령부는 경악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들(미국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 합니까 피난소가? 있을 필요가 전연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기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안되죠』라고 한 미군대령은 나에게 설명하였다.

북대서양방위군은 북으로는「오슬로」, 중앙으로는「폰타이네블로우」, 남으로는「네이플」(나폴리) 그리고 동쪽으로는「탈타」와「터키」에 이르기까지 진을 치고 있다. 동방위군사단들은 2차대전당시의 전차대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방위군은 F-100 F-104 및 F-105기들은 15분 이내에 모두 출동할 수 있으며 초음속으로 철의 장막넘어로 전멸적인 메가톤급 폭탄을 퍼 부을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방위군의 제16함대는 그의 바다인 지중해로부터 거대한 포문을 열수가 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서구의 방위는 20개의 공군 및 공군기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200개의 기지로 증가되었다. 동 방위군은 또한「노웨이」에서 토이기까지 5200마일의 송유관을 설치하였으며, 유조선이 들어가서 송유관에 급유할수 있는 항구가 25개, 그리고 양유소(揚油所)가 250개나 된다. 지난 10년 동안에 동방위군의 전화회선수는 40에서 1600으로, 그리고 전사(電寫) 회선수는 25에서 1150으로 격증하였다. 이것은 1억5천만불짜리 전자두뇌로 운영되고 있다.

구조연합군최고사령부의 미국인, 영국인, 벨기인, 캐나다인, 덴마크인, 불란서인, 독일인, 희랍인, 아이스랜드인, 이태리인, 룩셈버크인, 노르웨이인, 화란인, 포르투갈인, 토이기인들은 10개국어를 말하지만 사무적으로는 영어와 불어 2개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든 산하의 사령부도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떠한 십자군도 NATO만큼 그 임무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며, 또한 NATO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방위한다.

만일 동방위군이 적의 침략을 받는다면, 그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와 병력을 총동원해서 맹반격을 가할 준비태세는 완벽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침략당하였을 때, 우리들의 주요 공격목표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물이 구주방위의 임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조준되어 있다」라고 최고사령관인「로리스 놀스타드」장군은 나에게 말하였다.

구주연합군최고사령부에 대한 말없는 신뢰가 두터워 가고 있다.

『저자(소련)들이 우리들의 방위선을 따라 공격하자면 모든 보급을 위성국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도로나 수송, 통신 기타 전쟁수행에 따르는 모든 것도 위성국가의 국민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파괴와 태만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들은 NATO로 단결되어 있으나 저자들은「와르스」조약이라 불리우는 한 장의 종이조각으로 묶여있을 뿐이다』라고 한 고위관계자는 말하였다.

연합군방위선은 서구, 영국의 제도, 폴리르 및 핵함대로 방위되고 있는 대서양을 거쳐 북미주의 중심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위선이 단절되거나 목적 의식의 필요에 따라 부식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다음은 여기에 공격력이 있다. 그것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장거리공격이다. 이것은 전쟁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소멸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어느「브리핑」장교는 설명하였다.

이 장교는『우리들은 방위와 공격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제3의 결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굴직하게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페이지」를 지적하였다.

공격방위력을 유지하며, 또 그힘을 NATO사회의 방위상의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하려는 NATO국민들의 개인적 집단적 의지와 결의. 이러한 결의는 구주연합군최고사령부의『경계는 자유의 대가이다』라는「못토」가운데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영국의「하이 위컴」

『당신이 서방측의 2대유도탄군중 그하 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거의 당신네(미국)만한 크기이다 태세는 더욱 완비되었다고 감시 말할 수 있습니다. 적과의 거리는 당신네보다 수천마일이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1차보복의 최대성과를 올릴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영국의 항공당국자는 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다.

이것은 만일 핵전쟁이 서구를 휩쓸었을 경우, 영국이 직접 참여할 능력과 결의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시초였다.

『우리들을 완전히 격퇴시킨다는 것은 군사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항공당국자는 말을 이어갔다.『핵전쟁이 발발해서 우리에게 무슨 사태가 일어나든지간에 우리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20개의「사이트」로부터 〇수의「쏘어」유도탄을 대피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저자들도 이것을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심각하게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들의 유인폭격기의 임무는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의 그것과는 상이합니다. 요는 지리상의 문제이죠. 우리의 폭격기들은 미국의 기준에서 볼 때 모두 중형이지만, 재빨리 이륙해서 급각도로 상승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네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공중에 떠야 하며 재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저자들의 공중방위는 우리에게 너무 접근 확장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초를 다룹니다. 우리들에게 허용될 4분이내에 각종 핵무기를 적재한 전전략폭탄기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무장된 어느 지하실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다른 한 장교가 구라과 지도를 가리키면서

『제1차 공격의 묘안이「쏘어」유도탄입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발전을 본 이 조직은 이곳에 있는 우리 우방군을 크게 감명시켰습니다.』

그는 소련을 짚으면서 말하였다.

『우리들의 기지로부터 이륙한지 16분이내에「쏘어」는 핵전쟁의 승부를 잘 가려낼 것입니다.』

영공군 쏘어기지(링컨사이어)

이 기지와「이스트 앵글리아」에 있는 이와 비슷한 19개의 기지에는 영국인이 건조하고 그들이 들어있는 건물에 각각 3개의「쏘어」중거리유도탄이 세워져 있거나 누어있다. 이 믿음직한 총60개의 유도탄은 모두「메가톤」급의 열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바, 이것들은 기지에 파견된 소수의 미공군에 의해서 지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각「쏘어」유도탄에는 유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소련의 북부에 있는「무르만스크」나 정유소로 유명한 남부의「바쿠」에 까지 멀리 목표물을 찾아 날아 갈수가 있다.

영공군의 한 고급장교는 우중(雨中)을 무릅쓰고 우리들을, 전「스펠화이어」및「허리케인」기지를 거쳐 16명의 남자와 두 마리의 독일「세파드」가 차렷자세로 서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그가 부드럽게「쉬어」하고 말하자 그들은 긴장을 풀었다. 개들은 앉았으나 그들의 눈은 연상 우리들 이상한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사령관은「미사일」시대에 맞는 묘한 용어와 등급별로 일동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칭호와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호명될 때 마다 차렷자세를 하였다.

『발사관제장교』

영공군의 한 조종사중위가 차렷하였다. 그의 목에는 한 개의 고리와 세 개의 열쇠가 달린 길고 가느다란 쇠줄이 걸려 있었다.

『확인장교』

한 미군중위가 몸을 세웠다. 그도 역시 고리와

열쇠가 달린 비슷한 쇠줄을 걸고 있었다.

그러자 3명의「유도탄(시설)준비인」, 3명의「동력생산인」, 4명의 헌병, 2명의「군견관리인」(군견과 사람들은 이 기지를 철야 순찰한다) 그리고 1명의 요리사가 왔다.

우리들은 작전지휘소의 중심부에 안내되었다. 그 내부의 대부분은 요란한 광선과 단추, 스위치미터기등으로 꽉 찼 세 개의 까치발 같은 것으로 차 있었다. 붉은 전화환대가 탁자위에 놓여 있었다. 동전화선은 북쪽, 남쪽으로「잉글랜드」「웨일즈」「아일랜드」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가「오마하」에 있는 지하전략공군사령부에 까지 뻗쳐 있다.「전쟁발발」의 신호는 실로 이 예쁜 기구(전화기=역자주)를 통해서 전해질수 있을 것이다.

작은 방에는 미공군장교인「루터 M. 호킨즈」가 있었는데 악수할 때, 당직확인장교임을 나타내는 그의 열쇠가 땡그렁거리며 부딪쳤다.

우리들은 가상보복공격이 전개되려고 할때「콘소울」로 자리를 옮겼다.「호킨즈」대위의 영공군상대방은 이미 풍금처럼 생긴 관계기구에 일렬로 떨어져 뚫은 열쇠구멍에다 세 개의 열쇠를 넣었다.

이제 일은 벌어지는 것이다. 강풍과 찬비가 휘몰아 치는 밖에서는, 큰 창고만한 크기의 격납고가 철로용 바퀴를 굴리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3개의「쏘어」탄을 뺄어 내 놓았다. 그러자 거대하고 긴 강철손들이 이 유도탄들을 조심스레 수직으로 세워 놓았다. 그것들은 희고 말쑥하고 그리고 6층건물만큼 높이 서 있었다. 그러자 받침대가 기울어 쓸어지고「쏘어」탄만 발사대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가상전쟁 신호가 울린지 15분 이내에 진행된 것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당신네들(미국을 말함=역자주)들이 점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동 장교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호킨즈」대위가 열쇠못치를 들고「콘소울」1호에 갔다. 영국 측 열쇠구멍 위에 나란히 뚫린 열쇠구멍에다 열쇠를 넣어서,「쏘어」탄에 장치된 15만2천「파운드」추진력「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뿐인 것이었다. 그의 열쇠는 영국의 구멍에는 맞지 않으며, 영국의 열쇠는 미국의 것에 맞지 않는다. 한나라만으로는 이 기지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니 유도탄의 발사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미국의 열쇠는 무용지물이요, 또 미국인이 점화를 하지 않으면 영국의 발사준비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호킨즈」대위는 그의 열쇠를 다시 군복주머니에 넣어 넣었다. 연습은 끝난 것이다.

남구특별혼성군 본부(이태리「베로나」)

남방측 핵방위에 대한 이태리의 지대한 기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태리정부는 자기들의 핵보유력 및 미육 공군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태리 공산당원은 170 만명으로 서구에서 제일 많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태업의 위협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도는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리는 현재 열핵탄두로 장비된 3개의 정예「슈퍼터」중거리 탄도 유도탄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3개의 이 유도탄은 사정거리 1720마일로서「나폴리」남방의 곳곳에 잘 보호되어 있다. 이나라는, 또한 유선형이며 맹렬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공군을 갖고 있다. 이태리육군은, 미육군이「어네스트 존·로켓트」로 제일 먼저 훈련시킨 외국군중의 하나다.

미국과 이태리를「슈퍼터」유도탄 작전으로 연결시키는 협약은 영국에 있어서의 영미「쏘어」유도탄의 그것과 비슷하다. 미공군장병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파견대가 이태리의 유도탄기지마다 주둔하고 있다. 미공군의 확인장교들은, 전쟁이 일어 날 경우「슈퍼터」유도탄을 목표로 향해 발사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태리 장교들은「슈퍼터」유도탄 발사준비를 가능케 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

미군의 제1급 유도탄 권위자의 1인인「윌슨 F. 카드웰」소장이 이 독특한 남구특별혼성군을 지휘하고 있다. 이 혼성군은 6년전, 미군이「오스트리아」로부터 철수한 뒤에 창설되었다. 이곳「카드웰」소장의 본부에는 12명의 이태리 장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11명은 2차대전시 연합군과 대항하여 싸운 경험이 있다.

『어느곳의 군대치고 이곳만큼 호우적인데는 없을 것입니다』라고「카드웰」장군은 말하였다.

남구특별혼성군(SETAF)은 공산주의침략에 대항해서 공동투쟁을 벌리고 있는 자유세계의 협조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 혼성군의 군인간에는 한때 서로 전투장에서 싸운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우로서의 그들은 그들을 노예화 하려는 적과 싸우 태세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광대하고 방어하기 힘든 소련땅내에는 사실상 연합군의 핵 공격력으로 명확히 조준폭격 될 수 없는, 제1 또는 제2의 목표는 없다. 전면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주공격목표계획이 밝혀질 것이다. 각 핵무기는 사실상 하나의 독특한 임무가 지정되어있다. 그것은 80「마일」을 비상한 뒤 외기권에 서 급사하는 거대한 열핵탄두로부터 포사수가 내쏘는 단거리 원자포탄에 이르는 모든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혼란이나 당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적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핵무기를 손안에 쥐고만 있는 것이다.

(김기태 역)

× ×

중공군(中共軍)의 파쟁(派爭)과 모순(矛盾)

중공군이라고 하면 인해전술과 피리소리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침략군을 완전타도하지 못한 지난 6·25를 상기하면 분격(憤激)의 주먹이 쥐어지기도 한다. 이 중공군이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그들이 대외적으로(당외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홍군(紅軍)-팔로군(八路軍)-인민해방군으로 성장한 취약성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작년도(10월에서 11월까지)에 있어 북경에서 전군정치공작회의를 가진바 있었다. 회의에는 모택동을 위시한 유(劉)·주(周)·주(朱)의 4씨가 참석했으며 그 밖에 각 군구·방면군의 청지부 주임 동위원 일부사단의 정치주임이 참집(參集)되었고 임표(林彪)국방부장 나단향(羅端鄉)총참모장, 소화(蕭華)총정치부원 등 현역군수뇌가 주재하여 지시·보고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임중에서 가장 역설된 것은 임표발언의「연(連)대건설과 개진방법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다만 소화의「4호연(連)대창설에 대하여」라는 것이 인민일보에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군사훈련보다는 전군의 정치사상교육에 있어 최하단위인 중대에 중점을 두고 4호중대 창설을 제창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중공발표에 의하면「4호」란 ①정치사상이 좋고 ②38작풍이 좋고, ③군사훈련이 좋고, ④생활관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데 그중「38」이란 말은 3대기울과 8항의 주의사항을 의미하며 3대기울은, ①모든 행동은 지휘명령에 따른다. ②바늘 한 개 실 한뼘도 민중에서 탈취 아니한다. ③전리품은 일절 상사에서 바쳐 공유로 한다. 로 되어 있고, 8개주의사항은, ①언어는 부드럽게, ②매매는 공정히, ③차물(借物)은 꼭 반환하고, ④파괴물은 변상하고, ⑤사람을 때리지 말고, ⑥농작물에 손대지 말고, ⑦부인에게 희롱하지 말고, ⑧포로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공군이 과거 얼마만큼 비인도적인 야만적 행동을 주로 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38이란 어구이다.

태평양지역(太平洋地域)의 공군력(空軍力)

TS 무어만
<미태평양공군 부사령관>



전 공산진영 공군력의 삼분지일이 붉은 대륙을 기지로 극동 및 동남아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에 대적하고 있는 태평양기지 자유진영 제국의 공군력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 미 공군 월간 Airman지 7월호에 실린 미태평양 공군 부사령관 T.S.무어만중장의 글을 옮겨 보기로 한다. (민철용역)

9월2일 공군본부로 장총장을 예방한「무」중장

동남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은 세계의 이목을 극동으로 집중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최근 10년간 공산주의자들은 중국대륙, 북한, 티베트 및 북베트남을 공산화 했으며 자유진영에서는 베트남의 분할을 계기로 동남아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붉은 대륙의 주위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등 인도지나 반도제국은 이른바「아세아의 제3전선」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과 자유중국을 철통같이 방위되는 휴전선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공산주의자들과 대적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에서 자유진영 각국의 공군들은 전공산진영 공군력의 삼분지일에 해당하는 공산군의 공군력과 대적하고 있다. 소련, 중공 및 북한의 공산진영 공군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대륙을 기지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동남아, 극동, 미국 등지까지 불과 몇 시간이면 도달되는 지점에 기지를 갖는 타공산국가공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유진영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에 대처하여 H.D.헬드 제독이 지휘하는 태평양지구사령부는 전자유세계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침략도 쳐부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평양지구사령부 예하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와 함께 태평양 공군이 있다. 태평양공군은 태평양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쳐부슬 수 있을 것이다.

이토록 광범위한 태평양공군을 지휘하는 E.오도넬대장은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 전술을 연마한 역전의 장군인 것이며 태평양지역 자유진영 공군력의 핵심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공군의 일선 부장들은 아세아의 여러 전초기지에 주둔하고 자유진영 각국의 공군과

최근 향항(香港)에 밀려드는 난민들은 3년내의 흉작으로 기아선상을 헤매이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이들 군인들의 악의에 찬 대민억압에 못 견디어 탈출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군 수뇌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비행은 날로 늘어가고 6·25이후 군 근대화 공작과정에서 생긴 당의 군 지배에 대한 회의사상과 군사훈련 때문에 본질적인 장해가 되는 생산·건설지원 운동에 대한 반대의식의 격화로 군내부는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정군(整軍)이란 이름아래 임표는 장문의 논문을 발표하고 팽덕회(彭德懷)를 거세시켜 놓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6년 9월이후인데 그 주요골자는 군대근대화의 과정에 있어 가장 중대한 것은 ①정치·사상공작의 입지 ②군의 장비가 경제건설과 대중운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③군대내부의 관계, 당의 군에 대한 지도강화를 들고 있으며,

또 군내부에「푸로레타리아트」와「불쥬아」사상의 투쟁이 존재해 있으며 구사회제도의 개조가 미완성으로 있으니「불쥬아」사상을 멸망시키는데는 항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공의 내부는 항시분규가 연달아 일어나고 민중의 반공사상은 날로 격화하여 무장군의 항거는 도처에서 꺾기(蹶起)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중공수뇌들은 작년 1주간에 있어서의 동향을 보면, 첫째, 전군적으로「억고사참(憶苦思慙)」교육이란 것을 강제 주입시키고 있는데 억고는 구사회의 봉건성의 압박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사참은 혁명 후 신생활은 행복하다고 하는 뜻이나, 이러한 말만으로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은 현실생활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대관리교육공작조례를 공포해서 간부와 사병의 융화 대내생활의 관리 등등을 들고 있으나「기점운동」이라고 해서 고급장교가 중대지도에 있어서 형식적인 순시 훈시로는 도저히 중대의 기율을 바로잡지 못하니 일정기간 중대에 주재하면서 지도해야 될 만큼 악의 고질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으며 아세아의 동맹국들과의 상호방위 동맹을 죽음으로써 지킬 결의를 굳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투기, 폭격기, 마시일은 한국, 일본, 비올빈, 자유중국, 태국, 호주 등 자유진영 각국공군들과 함께 긴밀한 협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평양공군의 대표적인 공군기지는 오키나와인 것이다. 오키나와에는 가테나와 나하의 두 개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이것은 지구표면의 4할을 방위하는 20개 태평양공군기지의 전형인 것이다. 중공의 상해에서 440마일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기지에는 F-100 및 기타의 전투부대들이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키나와의 F-100전투기는 전투태세의 강화를 위하여 금년내에 F-105로 대체될 것이다. 새로운 전폭격기 F-105는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재래식과 핵무기를 모두 장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일본, 비올빈 및 오키나와 기지의 태평양공군은 명령이 발하여지면 몇 시간내에 태평양지역의 어느 분쟁지점에라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태평양공군은 1958년에 있었던 대만해협의 위기를 통해서 그 신속성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오키나와기지의 출발명령을 받은 후 불과 일곱시간도 못되어 이미 대만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동공격군을 포함하는 태평양공군의 강력한 전투부대들은 중전보다 더욱 신속하게 작전할 수 있다. 일본 기지의 F-100도 대체될 예정으로 있는 F-105 전폭기는 F-100에 비해 항속 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를뿐 아니라 무장도 월등 강력한 것이다.

태평양공군이 계속하여 보유하는 F-10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중급유기 KB-50 외에도「요기(僚機)에 의한 공중급유」로서 공격을 위한 항속거리가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길어지고 있다. 요기에 의한 공중급유를 위하여 전투기를 급유기로 개조한 것이다. 이동공격군에는 정찰용의 F-101과 B-57폭격기 및 장거리 무인병기인 지대지의 메이스 B 미사일 등이 있다.

병력과 장비는 강력한 전력의 요체인 것이고 신속성 및 기동성은 절대로 요청되는 것이며 태평양공군에는 이에 필요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태평양공군예하에는 C-130기로서 장비한 315비행사단이 있으며 동사단의 작전부대는 오키나와 및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다. 315비행사단의 기동성은 태평양지역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자유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몇 시간내에 이에 대처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특히 동 사단에서 보유하는 C-130은 상승률이 높고 이륙시의 소요거리는 짧으므로 태평양지역에서 작전하기에 알맞은 것이다. 시설이 빈약한 일부 동남아시아의 기지는 이러한 항공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태평양공군은 공격력 만을 유지할 뿐 아니라 방공임무도 담당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지역의 방공망은 국제단위의 독자적 조직운용을 한다면 그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극동의 방공조직은 자유진영제국의 공동노력인 것이다. 협동하는 국제경보망은 자동보고 및 시험기구에 의하여 지원되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 능률적인 항공기 및 무기의 운용요소가 이룩되는 것이다. 방위를 위한 협동의 좋은 예로서는 전 일본에 걸쳐 미일공군이 운용하는 감시 및 요격조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미일 양국의 공군장병은 일본영공의 방위를 위하여 어깨를 나란히 근무하는 것이다.

일본의 가장 높은 사도시마의 레이더 기지로부터 중간관제소, 그리고 일선요격부대에 이르기까지 미일공군의 관제사, 지휘관 및 전투기

이 외에도「5다현상」의 감소등 각 방면으로 4호중대의 건설에 힘썼지만 군대내의 사상동향은 언제나 불안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회있는 대로 정군을 웨치고, 모택동의 저작물로 사병들을 교육시키려 했지만 현실정과는 동떨어진 공산주의이고 보니 이것은 구두탄에 지나지 못하여 드디어 전군정치공작회의란 명목으로 결의된 것이 중대공작4조례이다.

- 즉 중대정치지도원공작조례,
- 동 당지부공작조례,
- 동 공산주의청년단지부공작조례,
- 동 혁명군위원회공작조례,

의 4조례로서 중대정치지도원이 중대지휘관(중대장)에 속해 있던 것을 이 조례로서 병립존재로 만들어 정치력의 강화에만 열중하였으며 당지부위원은 중대의 중대문제를 결정하게끔 하였고 공산당청년지부는 당지부의 조수로서 단원 또는 일병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혁명군인위원회는 당지부·중대장·정치지도원의 삼자의 집중영도하에 두어 활동의 조직화를 꾀했지만 중대의 사상공작강화는 이들의 지배체계를 비웃는 듯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사실은 중공의 인민일보가 가장 잘 발표하고 있다. 그 사실에(금년 2월3일)「진정으로 공작방법(정치사상)을 연구 또는 개진(訓練)하라는 것이다.

당의 지도력을 강화할수록 그것이 군대내에서는 그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 당황하고 있는 수백여은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공산주의 그 자체의 허구성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위가 군을 통일지휘하기 위한 가진 공작도 중공의 약점인 당면한 농업문제의 실정과 더불어 이미 공산주의에 지친 민중들이 중공정치를 불신하는데서 오는 착잡한 문제의 해결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에서 더 심각하다. 공산정권으로서 군의 사상동향에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공의 뜨내기 군대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조종사들은 협동을 통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공동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실정은 같은 것이다. 한미공군은 철통같은 방공태세를 갖고 있다. 한미양국군이 보유하는 지대 공미사일, 로케트와 미사일을 장비하는 음속 및 초음속의 제트요격기, 대공포 등은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모든 병기가 종합적으로 사용되고 한미양국의 공군장병은 부단한 전투를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것이다.

비올빈의 녹색평원에서는 정다운 두 마리의 새처럼 나란히 하늘로 솟구치는 두 종류의 제트전투기가 있다.

이들 제트기가 바로 비올빈공군의 F-86전투기와 미공군의 F-102전투기들인 것이다. 두 나라의 공군기들은 기습에 대비하여 합동으로 초계비행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의 무수한 레이더기지 및 클라크 공군기지의 관제소에서 미비공군장병(美比空軍將兵)들이 비올빈 지역의 공중활동을 불철주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서부미국의 방위는 극동에서부터 시작된다」이것은 오도넬 장군의 말이다.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본토를 공격코자 하는 적기는 한국, 일본, 비올빈 및 오키나와의 방공망을 돌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을 돌파하기 전에 적공격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들 일선방공망을 돌파한 적기는 하와이방공군(HANG)에 포착될 것이다.

하와이는 미국방위에 중요할 뿐 아니라, 태평양방위망의 요체인 것이다.

진주만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하와이방공공군은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 부대인 것이다.

오늘날 하와이방공군의 F-102로 장비된 제199전투요격대대와 두 개의 항공기 관제정보대대는 미본토의 방위 임무를 불철주야 수행할 뿐 아니라 하와이와 본토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공중전도 전개할 것이다. 방공임무를 통해서 하와이방공군은 하와이 방공사단의 방공관제소와 긴밀한 협동을 유지한다.

전술 혹은 방위의 어느 것을 막론하고 태평양공군의 전력은 태평양지역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처함에 있어서 절대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태평양공군은 어떠한 침략이라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군장병의 임무는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력을 강화하고 불철주야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군대내의 정치부제도는 소위 이원통수제로서 지휘관과 대립하는 정치위원은 지휘관의 상위에 있을 정도이다. 당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군대가 지주이니 순군사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이러한 병립제도를 써서 중요명령은 양자의 연서가 있어야 발효케 되는 것이므로 군대내에서는 자연 이 제도에 반발하는 사상이 부절(不絶)히 군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불만에 찬 군인들을 중공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을 캐어들어 가자면 중공군이란 실태에 있어서 하나의 정규군이 아니고 오합지졸이기 때문이다.

중공은 건군이후 명색으로는 30여년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캐어보면 중공군은 홍군에서 팔로군 그리고 인민해방군으로 점차 근대의 군대 비슷이 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연 당군적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그것의 취약성은 말할 것도 없다.

홍군으로 또는 팔로군으로서 전쟁경험이란 주로「게릴라」전으로 시종했으니 군대로서의 훈련이란 있을 수도 없었다.

중국국민정부가 점차 부패해 갔을 때, 비로소 인민해방군이라 하여(장비도 가까스로 군대 비슷이 그것도 약탈물을 주로해서)국공의 내전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인민해방군의 실력이 증대되어서 거둔 승리가 아니고 정치정세의 격변과 국민정부군의 자괴작용에 의한 뜻밖의 소득이었다는 것이 당시 정세의 정확한 판단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의 장개석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본토제침공이 이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상기도 잃지 않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며 중공군내에는 허다한 반공군인이 형세의 불리로 그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6.25동란의 뼈저린 기억을 다시 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아무런 훈련 없는 군대를 전멸시키지 못했다는 것 뿐이다.

근대전이란 것의 경험이 거의 없는 오합지졸들이 다만 장기인 인헤전술로 대항했을 뿐인 것을 호되게 치지 못한 것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때의 실정이 국제적 제약과 특수한 환경 또 하나는 국연군(國聯軍)이란「헨디캡」이 없었더라면 피리부는 전세대적 중공군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알아차린 중공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군대조직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공감하기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내어건「근대국방국의 건설」이란 것은 순군사적 견지에 선 증전소장과와 홍군의 전통에 연연하는 노장파의 파쟁으로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나날이 이 대립은 격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덮치기로 중공은 그들의 중주로 믿었던 소련과 정책, 사상 양면으로 심각한 반목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중공의 발악은 점차 고조될 것이 예측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위에 근년에 이르러 폭로된 중공내 경제의 총파탄은 중공정권의 위기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면에서 작금의 정세는 미묘한 면이 많은데 이상 중공의 인민해방군의 정체를 우리는 무심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을 결언으로 한다. (김사천 역)



영화 지상 감상

THE LONGEST DAY
 <노르망디 상륙작전>

※※※※

영화 한편을 제작하는데 4명의 감독과 1억달러의 비용을 들였다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가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 “The longest day”라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1억불이면 「원」으로 310억원이며 환화로는 1300억이다. 우리 국산영화의 제작비를 평균 500만원으로 친다면 이 영화는 국산영화 2,600편을 제작할 수 있는 돈이며 우리 영화의 연평균 제작수가 150편으로 봐서 약 20년간이다. 문자 그대로 「지상최대의 대작」.

지금까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취급한 영화는 몇 개 있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나이멘」 미국의 「그날 그때」 「목시록의 4기사」 등. 그러나 「그날 그때」는 미국장교와 영국여성의 비련이 주제이고 그 크라이막스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끌고 간 것이고, 「목시록의 4기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서, 연합군측이 독일 기갑부대 본부를 폭격하는 정도였는데 정면으로 노르망디 상륙의 전모를 그려낸 것이 The longest day이다.

상륙작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된다. 1만척이나 되는 대소의 함선이 바닷가에 운집하고 병원, 기재, 전차등을 내린다. 철호의 폭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위험한 공격을 뚫고 상륙하려는 상륙용 함정은 연안포 기관총앞에 별거벗고 나선 사람과 같다. 그 위에 해안에 도달한 병사에게는 몸을 감출만한 곳이라고는 아주 없다. 그러니까 튼튼한 교두보를 만들 때까지는 상륙군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다름이 없다. 이 영화는 이러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실전을 그대로 재연해 보인다. 또 지금까지 몇 개 나왔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 측에서 보는 면만을 보였는데 이번 것은 양군측의 동향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연합군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멋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이므로 중요한 전투장면마다 한 사람씩의 감독이 담당했고 연합군측을 담당하는 것은 「벤·허」의 전차전쟁 장면으로 유명한 안돌·마이톤. 독일군측의 전투감독을 담당하는 것은 겔트·오스왈드.

이 영화는 물론 전기물이고 전기물에는 대개 전투장면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 이 영화의 전투씬은 3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상영시간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화에는 기계적인 전투보다 인간능력의 한계에 중점을 두는 인간 드라마이며 전체적인 연출에 있어서는 연합군 측을 영국의 켈·아킨 독일군 측을 명작 「다리」를 만든 벤룬하르트·빗키가 담당하고 있다.

의지나 준비에 있어서는 독일군이 더 우세했다고 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어떻게 해서 연합군이 것처럼 상공하였는가? 이 영화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전투의 진전을 기계적으로 추궁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 정신력등에 중점을 두어 그것을 그려내려 한데에 이작품의 가치가 있다.

즐거리를 훑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독일군 수뇌부는 연합군이 카레이 지방에 상륙할 것이라 믿고 있다. 영불 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이 도바→카레이 사이의 20마일. 독일의 룬트슈넛트 원수는 완전무결한 방어진지를 이 곳에 구축한다. 연합군측의 상륙군은 베르린이 그 진격의 목표일 것이므로 거리가 먼 노르망디에



제네랄과 제네럴 아이젠하워의 전군사

마린간의 사

로버트·참밋

페이비안

로버트·와그너

포클·안카



상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믿는데 이것이 독일식의 이론이었다. 독일군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되어 수일이 지나는데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양동작전이다. 그들의 상륙지는 카레이다. 이렇게 독일군은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BBC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부대에 보낸 상륙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잡았는데 룬트슈넛트 원수는 전군에 대해 경계배치를 명령하지 않았다. 독일군으로 하여금 이만치 믿게까지 하는 연합군의 작전은 면밀하고도 조심성있게 꾸며졌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밀이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카레이에 상륙하는 것으로 역 스파이에 정보를 주었다. 연합군은 카레이 지구에 면밀한 정찰 비행을 계속하면서 지상 스파이를 파견하여 그곳에 상륙하려는 듯 정보를 흘렸다. 한편으로는 켄트, 사섹스 지방 등 영국 본토 동남부 지방(카레이의 맞은편)에 대 부대를 집결시키기도 하고 함대를 모아 상륙작전의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카레이 전면에 있어서의 양동작전은 실제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부대가 노르망디 이틀 향해서 떠나고 난 뒤에도 더욱 그럴싸하게 계속되고 많은 석박(錫箔)을 뿌렸기 때문에 독일군의 레이더에는 마치 연합군의 대 부대가 카레이 지구에 움직이고 있는 양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도로써 독일군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만일, 연합군처럼 독일군도 영국본토를 정찰비행 했다면 연합군의 이 같은 양동작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군은 벌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군력을 상실 했던 것이다. 연합군은 이 지구에 2,0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독일군은 전 공군이 400대 밖에는 없었다. 그것도 연일 계속되는 연합군 공군부대의 비행장 폭격을 피해서 국경지구의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 그 위에 공군 사령관인 케링 원수조차도 연합군의 그와 같은 허위작전에 걸려들고 만다. 그는 작전본부에서 「그것은 양동작전이다. 우리가 그 작전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중요하게 써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독일군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을 결정적으로 용이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준다. 노르망디 상륙의 제1보가 총통의 총 작전본부에 날라들었을 때 히틀러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히틀러 직속의 정예 전차사단 3개 사단을 빨리 출동시켜달라는 작전본부의 요구가 있는데도 히틀러의 부관은 총통을 잠에서 깨우기를 거부한다. 그러한 양동작전에서 떠들썩 할 필요는 없다는 눈치다. 히틀러가 일어난 것은 점심때였는데 이로서 연합군에 가장 치명적인 강타를 가해야 할 시기를 놓쳤고 전차사단이 출동한 것은 하루가 늦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상륙군은 위기를 면해서 거의 완전한 전투태세의 전부가 갖추어진다. 다음, 독일의 전차사단의 공격이 전개된다. 그러나 상륙군에 의해서 괴멸되고 만다.

그러나 이 영화의 초점은 이런 것, 즉 모략작전에 의해서 상륙이 성공되었다고 하는데 있지 않다. 가장 중대한 것은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단안하였으며 연합군은 어떻게 해서 이 날을 택해서 용감하게 작전을 단행했는가? 이 차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극적인 차(差)라기 보다는 오히려 운명적인 차로 크로즈업 된다. 즉 양군의 천기예보가 6월 6일 아침의 기상을 제 각기 다르게 판단한데에 있다. 독일군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폭풍우가 당분간 계속한다고

보아왔고 연합군은 5일 하오부터 개어서 6일 아침에 일단 회복되었다가 7일부터 다시 폭풍우가 계속된다는 예보였다. 독일은 그린-랜드, 북해에 측후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규모의 상륙작전이 폭풍우 속에서는 감행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룬토슈레트 원수도 게링도 그리고 히틀러의 부관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양동작전으로 보고 대부대는 카레이에 상륙한다는 생각에서 카레이 지구의 방어에만 주력하였고 노르만디 지구의 사령관인 룬델원수도 부인의 생일잔치를 치를 겸 히틀러를 만나기 위해서 베르린에 돌아가 있는 참이다. 또 영·불 해협을 수색하던 정찰기와 고속정도 폭풍우를 피해서 놀고 있는 파이다.

양군의 장병270만-의 운명 나아가서는 연합국과 독일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 인간으로서의 병사의 우열이나 군대의 준비, 기술, 투지가 아니었고 조그마한 한 개의 천기 데-타에 있었다고 본다면-하는 익살을 보여 주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종래의 전쟁영화와는 관점을 달리해 본데에 이 영화의 주제가 들어 있기도 하다.

원작은 그 당시의 중군기자 코레리우스·라이안이 저술한 베스트셀러「최초의 24시간은 어느편이 이기겠는지 전연 짐작이 가지 않았다. 피차가 전투에 참가한 사람치고 이처럼 긴 하루는 없었다」고 탄식한 말을 따서 책 이름을 삼았는데 영화 타이틀도 책이름 그대로다.

간단히 해설한다면 이 영화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정부의 전면적 협력을 얻어서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들었다.

전투장면에서 가장 불만한 씬은 오마하·비치의 주력부대의 상륙, 낙하산부대의 전투, 레인자부대, 오르느강 교량의 그라이다부대, 그리고 뿌르프·안·베산의 자유 프랑스·레지스탕스 부대의 전투 등이다.

출연배우는 모두가 세계적인 톱스타급이며 주연급 배우 27명. 미국준·웨인, 헨리·폰다, 윌리엄 홀덴, 로버트·데이라, 제프리·한타를 비롯해서 레인자 부대원으로 보브와그너, 포울·안카, 페비안, 토미이산즈등 젊은 층이 등장하였고 오르느전투에는 피-타아·로오포드, 리차드 토티, 프랑스·크리스찬 마르칸, 줄즈·리베엘, 존·루이·로바, 아르렛티이, 후란소와즈·로제, 크루트·울젠즈 독일배우.

1944년, 6월 6일, 뜻밖에도 날씨가 좋아 독일군 들은 놀란다. 갑자기 노르만디 해상에는 연합군 함대가 침입하기 시작한다. 연안 포대에서 발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산만하다. 연합군의 상륙은 성공, 진격도 순조롭다. 미국 제5군단이 진격한 오마하·비치에서만이 격전이 계속되어 이튿날 7일, 이 부대도 진격이 계속된다. 보급은 2개소에 만든 인공 항구와 이발을 통해서 순조롭다. 독일군은 하나도 선수를 칠 겨를이 없다. 용감하고 완강한 저항을 계속했으나 전선은 후퇴뿐 연합군은 시시각각으로 독일 국경에 가까워진다.

세계문학기초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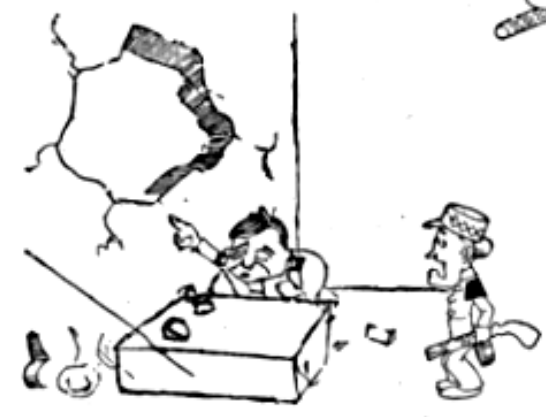
18세기 이전 호머「일리아드」「오딧시」구약 신약 성경 당시전 웨익스피어 희곡 「햄릿」「오셀로」「막베스」「라이왕」기타 쏘넬트 세르반테스「돈·키호테」괴테「파우스트」몰리에르「수전노」「인간중요자」볼테르「칸디드」

19세기 이후 소설 스탕달「적과혹」「파르마의 승원」발작「고리오영감님」혹은「우게니·그랑데」푸로베르「보바리부인」「감정교육」줄라「제르미나르」톨스토이「부활」「안나케레니나」또는「전쟁과 평화」도스토예프스키「죄와벌」혹은「카라마조프형제」또는「악령」뽀루게네프「처녀지」꼬리끼「어머니」토마쎌·만「마의 산」푸루우스트「이렇진 때를 찾아서」제임스·조이스「율리씨즈」지드「전원교향악」파류우드「썩클레아·루이쓰「큰거리」드라이저「아메리카의 비극」헤밍웨이「무기여 잘 있거라」쇼르호프「고야한 돈하」도스·패소수「U.S.A.」카롯사「전쟁일기」노신「아Q정전」시뽀들레르「악의꽃」베를레르「시집」말라르메「시집」헛트멘「풀잎」칼·셴드빅「전집」예츠「전집」타골「기탄자리」발래리「해변의 묘지」릴케「시집」파운드「시전집」엘리어드「황무지」오든「시선집」희곡 헵벨「유딧트」입센「인형의 집」「바다의 부인」체호프「앵화원」「삼인의 자매」호프만스탈「엘렉트라」하우트만「일출전」「쌍바다로가는 기수」꼬리끼「밤주먹」톨스토이「어둠의 힘」쇼「무기와 인간」골쓰위디「은상자」유진·오닐「동쪽카디프로」「황제 존즈」엘마·라이쓰「거리의 풍경」(김규동저「무엇을 어떻게 읽을가」에서)



「이크! 국군이다」

「해해해 M-G가 나케이거 였다」



「후르시초프! 이놈 손들었!」

김일성「말마라!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다!」



「나는 아주 여기서 살아야 겠다」

그후(後)의 생활(生活)



「아리랑」지(紙)의 박희주(朴喜柱) 편집장
(민재익기(閔載翼記))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거친 세계는 오늘날 인간이 만든 기계로 충만되고 있으며 거대한 기계문명의 진전템포는 날을 거듭할수록 빨라지지만 하고 인간의 잠재의식 지배기 위한 라디오, 신문, 텔레비, 잡지등 온갖「매스 미디어」가 우리의 정신생활을 지배하는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매스 미디어」중에서 잡지는 다른「매스 미디어」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낯은 특성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발행의 시간적인 간격과 이로 인한 전달내용의 차이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라디오, 텔레비, 신문등과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잡지란 문자, 사진, 만화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오락, 정치, 아동등 한정된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잡지는 1665년 구주(歐洲)에서 창간된 <Journal des scanvans>이며 우리나라에서 잡지가 처음으로 창간된 것은 1879년의 조양보(朝陽報), 수리보(數理報), 야녀(夜雷), 서구등이다. 그 후 1908년에 최남선씨가 <소년>을 창간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대중지, 고급지, 전문지등의 수요가 수십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대중오락지로서는 아리랑, 사랑, 야담과 실화, 소설계, 명랑등이 있다. 미사일에 연계되고 있는「그후의 생활」의 이번호는 공군에서 전역 후 아리랑지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삼중당의 박희주편집장을 찾기로 하였다.

아리랑지는 1954년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성침체의 한국출판계에서 8년의 성장과정을 거쳐 독보적인 기반을 닦아 왔으며 오늘날 대중오락지중에서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박편집장의 지난날을 더듬어 엮은 것이다.

한반도와 만주벌판을 가르며 흐르는 한반도의 북단, 압록강안의 만포진에 이르는 만포선에 몸을 싣고 평양에서 순천, 군우리, 희천을 거쳐 산간을 꿰뚫는 철로를 따라 가노라면 강계에 이른다. 강계는 만포선의 중요 역일뿐 아니라 장진호에 닿는 철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대륙기후의 영향으로 기온의 한서의 차가 심하나 동부에 낭림산맥을 끼고 북동부에서 남서부로 뻗은 강남산맥을 안은 강계는 산천이 수려하고 풍광이 명미(明媚)하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민족자주독립의 부르짖음인 3·1독립운동이 있은지 만17년 되던 해인 1937년의 3월1일이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낮이면 수려한 산천을 배경으로 마음껏 놀고 밤이면 화롯가에서 산삼캐던 어른들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강계는 자고로 산삼의 산지로 유석(有石)한 곳이며 현존하는 「속대전」이나「목민심서」등에도 명백한 바와 같이 예전에는 강계산삼이 정부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모양이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삼을 캐기 위해 입산할 때 3,4인 혹은 6,7인이 단체가 되면 그러한 단체에는 계급이 있고 규율은 군대 이상으로 엄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강계에는 밤이 많이 나므로 과실의 다산을 비는「기과(祈果)」, 농사의 풍년을 비는「기농(祈農)」, 그리고 신방옛보기 등 특이한 풍습이 많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방옛보기는 남한에도 있는 풍습이기는 하지만 그곳의 풍습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그곳에서는 살짝 옛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치를 찢고 신방을 거진 한테와 같이 만든 후에 긴장대로의 이불을 헤치로 베개를 흔들기도 한다. 그러면 신랑신부(물론 신부야 그렇지 않지만)가 고춧가루와 물로 웅전하며 유소한 신랑은 대항하다가 울기도 한다.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던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압제의 굴레를 벗던해인 1945년도 저물어가던 11월, 의과학교도이시던 아버님을 따라 가족과 함께, 단풍으로 붉게 물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야만적인「로스키」들의 약탈광경을 뒤로하며 38선을 넘었던 것이다.

붉은 탱크의 육중한 소리가 서울거리에 울려 퍼지던 1950년 6월, 나는 경기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적지하 3개년을 통해서 월남피난민으로 낙인을 찍힌 우리가족은 여러차례의 박해를 받았으며 불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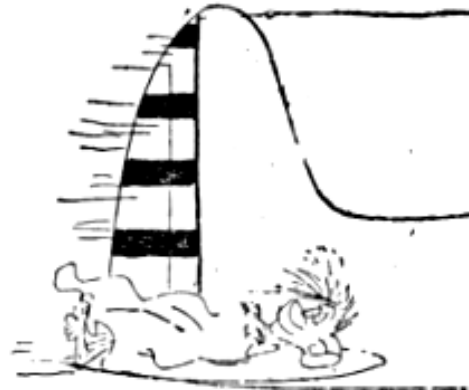
자넨 또 '얼얼' 을 어따 두고 수박을 쓰고 왔나?



어느 난봉꾼(?)의 낙하산



「문타리스·미사일」의 첫 희생자



무나 뉘나 해도 여기가 세간 시진하거든!



두줄 먹으 셋 지각만 바쳐 4지단 밀야



◇박희주씨

공포는 온가족의 정신생활을 위축시켰다. 불안과 공포의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책과 친하는 것이었다. 그저 닳아지는데로 집안에 있는 책들은 집어들었다. 그때 읽은 것으로서 인상적이었던 것으로는 이광수씨의「흙」,이무영씨의「흙의 노예」,심훈씨의「상록수」등이 있으며 그밖에 박영준 최인옥씨(崔仁旭諸氏)의 주로 농촌을 무대로 한 농촌계몽 혹은 반도시적인 농민 문학작품등 전원적인 것을 즐겨 읽었다. 그러한 작품들은 아마도 내가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애뜻한 향수를 어루만져 주기때문에 내가 심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후 고교 시절에는 고독한 목상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암흑면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섬세하게 심리를 해부하는「나타니엘 호오튼」의「The scarlet letter」 「The house of seven gables」이태리전선에서 부상을 당하고 스페인 내란에 종군하는 등 풍부한 생활경험을 가진「어네스트 헤밍웨이」의「A farwell to arms」 「For whom the bell tolls」 「The oldman and the sea」 그리고 자유주의 적인 이상으로 유색인종의 정치, 경제적 평등을 부르짖은「필·벅」의「The good earth」, 「The mother」, 「The sons」 등 주로 미국의 문학 작품등을 탐독했다. 학교를 쉬는날이면 의례히 책을 들고 산으로 가곤 했다. 산은 고요하며 책을 읽기에 좋을 뿐 아니라 고독에 대한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1955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의학박사이신 아버님의 의학을 택하라는 말씀을 무릅쓰고 연세대학교의 영문학과에 들어갔다. 대학에서는 정열적인 시인「Byron」 「Bronwing」, 자연애호의 전원시인「Wordsworth」 등 영국시인들의 작품강의를 기다리며 들곤했다. 그러던중 1955년 8월 마산결핵요양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시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화려한 고독만을 찾던 나에게 아버님의 별세는 커다란 속크를 주었다.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밖에 느껴지지 아니하던 인생이, 삶이, 죽음, 가까이, 왜죽느냐 하는 등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활은 얼마동안 계속되었다. 대학2학년을 마치고 1957년에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학교를 중퇴한 다음 생활인으로서의 경험을 찾아 군문(軍門)을 두드렸다. 공군항공병학교에 입대했던 것이다. 항공병학교에서의 신병훈련과정 3개월은 지금도 나를 추억에 젖게 한다. 그만큼 그 당시의 나에게 새롭고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매일매일, 고단한 하루의 훈련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들기가 무섭게 잠들곤 했다. 딱 짜여진 일과는 부질없는 잡념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조금도 허하지 않았으며 훈련과정이 절반쯤 지나면서 부터는 나는 어느새 주저와 회의에 앞서 행동하는 행동적인 생활인이 되었다. 밤이면 내무반에서 불침번도 켜고 들판에서 외곽선보초도 켜다. 야간에 불침번이나 보초를 서는 시간이 유일한 사색의 시간이었다. 이때에는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고 향수에 젖기도 하며 닳아 올린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마음 조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물론 처음 입교하면서는 급작스러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에 고심하기도 했지만 날이 감에 따라 차츰차츰 명령과 규정을 지상의 생활 규범으로 하는 군대생활에도 익숙해 졌으며 처음 각양각색의 성격을 지녔던 후보생들이 훈련을 통해 점차적으로 군대라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획일화되면서는 공통적인 감정을 갖고 호흡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융화(P71로)



<세계경이순례(世界驚異巡禮)>

-부라질의 수도(首都)-
리오데 자네이로

리차드·하리톤

만약 세계의 도시가 미의 경연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여왕으로 뽑힐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아마도 파리는 즉석에서 다른 많은 도시들을 비웃는 눈초리로 여왕에 뽑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등 도시는 미국인의 표를 많이 얻을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윈을, 헝가리 사람들은 부다베스트를 오스트라리아 사람들은 시드니를 이태리 사람들은 나폴리나 베네찌아를 지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도시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여왕으로 부라질의 수도 레오데자네이로를 고를 것이 틀림없다.

그들의 의견-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의 의견-으로는 리오야말로 아름다운 점에 있어서 감히 다른 도시가 비교가 안 될 만한 도시다. 이 지구상에서 리오데자네이로 만큼 깨끗한 항구, 아름다운 거리와 건물, 그리고 산과 바다가 풍광명미(風光明媚)한 곳은 없을 것이다.

만약 리오데자네이로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세계의 어떠한 경이를 다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도시는「정월의 강」이라는 묘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폴투겔의 항해가 콘사로·코에료가 1531년 1월1일 이곳에 정박하였을 때 큰 강의 하구로 오인 하여「리오·데·자네이로」즉「정월의 강」이라고 이름을 부쳤던 것이다.

이 도시의 멋진 풍광은 이내 구라파 전역에 알려져서 1620년에는 그 해안에 도시가 건설되고 스페인이나 폴투겔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1660년에는 부유를 자랑하는 항구가 되었으며 부라질의 수도가 되었다. 더욱이 그 당시 뉴욕은 뉴·암스텔담이라고 불리우던 때로서 200명 가량의 화란 사람들이 수심호춤 되는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는데 불과하였다.

우리들은 이구아스의 폭포로부터 리오·데자네이로를 가기 위해서 파라나강을 알젠친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내려가 거기서 대양을 향해하는 기선을 타고 부라질의 남쪽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녘에는 폭이 몇키로나 되는 리오만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항구가 잘 보인다. 마제란이 인솔하는 소함대가 최초의 세계일주 항해를 시도하였을 때 이 항구에 2주일동안 정박하였다. 마제란은 이 황홀한 광경에 눈이 부실정도였는데 우리도 또한 같은 느낌인 것이다. 주위 3방은 밀림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들로 둘러 쌓여있고 그 정상은 수면에서 1.6키로의 높이로 솟아 있다.

물은 깊을 대로 깊고, 맑고, 푸르르며 배후의 절벽을 이룬 산꼭대기의 산림은 자색빛깔이고 폴투겔식의 집들이 울긋불긋 언덕 경사면에 점재해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위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서 전광경은 내려 비치는 열대의 태양으로 희게 빛나고 있다.

나는 처음에 리오·데·자네이로를 거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다 보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원숭이를 놀리는 광대생활을 한참 할때였다.

이것은 거짓말 아닌 참말이다. 나는 한달 동안 손퐁금을 켜으며 원숭이의 이름은 니노라고 불렀다. 니노와 나는 잔돈퐁을 찾아 슈로라고 불리우는 곳의 가로수 우거진 길을 아코디온을 키면서 라·파로마라던가 바렌치아 같은 알젠친·탱고를 불으면서 방랑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름답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해수욕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쾅무니를 슬슬 따라 다녔다. 니노는 부라질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도 또한 니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동전을 던져 주었다. 그러면 원숭이는 그것을 나에게 갖다 주었다.

어느 날 우리들은 케이블·카로 항구에 보초병처럼 솟아있는 400미터 가량의 암산 폰·데·아숫칼·사탕 몽둥이라는 뜻을 올라갔다. 이것은 요세미트의 반원봉만큼이나 험준하여 미끈미끈하며 몇해전만 해도 절대로 정상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아침이 산 봉오리에 영국의 국기가 아침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대체 누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것이며 어떻게 그곳에 깃대를 세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관(國家觀)의 오류(誤謬)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세미나〉
김낙봉

우리들은 전체주의 국가관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똑같이 국가로 불리워도 민주주의국가와 전체주의적 또는 독재적 국가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가 전혀 틀리는 사실을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이 그들에 대신해서 국가를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을 자유로 임면(任免)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국민들 자신 또는 그 파반수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 자신의 것이다. 국가의 의지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다. 국가의 강제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자기들 스스로 부과한 강제이며 이것에의 복종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자율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전체라는 것은 국민 자신의 것이 아니고 흔히 국가권력의 영속을 꾀하는 어느 특수층 사람들의 것이다. 나치스·독일은 히틀러와 그 일당의 것이었으며 소련은 오늘날 후르시초프와 그 일당의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 국가 또는 전체의 의지라는 것은 국민일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들만의 의지이며 국가의 강제라는 것은 실에 있어서 그들의 지령이다. 국민은 오직 여기에 복종하는 노예의 자유가 있을 뿐으로 국가를 좌우할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론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국가(또는 사회) 유기체설이다. 전체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생물·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그 어떠한 부분에도 또는 부분의 단순한 총화(總和)가운데서도 찾아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유기체는 인체 그 밖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전체로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고 각 부분 또는 각 기관에 침투하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부분 또는 각 기관에 침투하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체적 생명은 유기체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도 부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기체가 아주 일체로서 갖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부분은 전체에서 잘라서 나간다고 하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부분이 상실되어도 전체의 생명이 상실된다면 모든 부분의 생명은 사멸한다. 따라서 그 가치에 있어서 전체적 생명은 필연적으로 부분적 생명에 우선하며 부분은 전체에 봉사하고 전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회 또는 그 일종인 국가도 바로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서 각개인은 전체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만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고 전체주의자들은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점은 사회는 유기체적 일지 모르지만 유기체 그 자체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스펜서나 그밖에 사람들이 주창한 사회 유기체설은 인간의 사회관계는 유기체의 부분간의 관계에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일종의 비론이나 의제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를 지적하는 것은 극단의 개인주의적 주장을 억제하고 사회의 공동적 상호부조적인 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유기체설은 일종의 비론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옳지만 사회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유기체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논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다. 유기체라면 생물이다. 그리고 생물이라면 동식물이다. 사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동물과도 식물과도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틀리는 것은 여기서 구지 입증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회 또는 국가가 생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첫째로 사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떠한 의미에서 유기체적인가? 둘째로 어떠한 의미에서 유기체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해서 바로 전체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는 전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그것보다도 다른 독자의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결론을

한 씩씩한 젊은 영국사람이 한 것이었다. 그는 리오(부라질에서는 흔히 이렇게 부른다.)의 전시민들이 노여움에 차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이 외국기를 끄집어 내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잠시 동안 자취를 감추었었다. 저 깡아 세운 듯 한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산꼭대기의 영국기를 올려다 보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흥분이 극에 달하였을 때 깃발은 돌연 온데간데 없어졌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국사람이 다시 올라가 그것을 끄집어 내렸던 것이다.

한번 정복된 폰·데·아스칼은 얼마 안가 아주 좋은 유원지가 되었다.

오늘날 산꼭대기까지는 공중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서 흡사히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항구, 무성한 푸른 산봉, 300이 넘는 보석을 깔아 놓은 듯한 섬들, 그리고 망망한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그러나 더 한층 경이적인 것은 폼푸산이라고 불리우는 코루코바드산에서의 전망이다. 이 산은 해발 660미터로서 정상에서부터 깡아세운 듯 한 단애가 바다속에 까지 잠겨 있으며 산마루에는 30미터나 되는 세계 최고의 콘크리트제 크리스트상이 세워져서 그가 벌린 양쪽 손은 눈아래 행복한 이 도시를 감싸주시고 있는 것 같다. 이 동상은 시가나 항구 어느 장소에서도 바라다 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밤이 되면 각방면에서 썬치라이트를 함박 받아 서로 영킨 별세계 사이에 떠올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들은 폰·데·아스칼(사탕몽둥이의 산)이나 만내의 섬들로 가서 가로수 우거진 큰 길을 걷고 해안에서 수영을 하던지 한다음 코루코바드 산을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급경사의 길을 아프트식 케이블·카를 타고 들꽃이나 넝쿨풀로 빛나는 정원이나 별장 사이를 빠져 나가 산마루를 찾아 올라간다.

눈앞에는 크리스토의상이 탐처럼 서 있다. 우리들은 대석주위를 거닐고 그 변두리에 서서 하계를 내려다 본다.

그랜드·캐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들은 이 웅대한 전망에 완전히 압도되어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가운데 멍하니 정신 빠진 사람처럼 서 있게 마련이다.

날카롭게 뾰족한 산이나 봉우리가 꾸불꾸불한 해안을 둘러싸서 고층건물과 나무들이 들어차 있는 시가지를 장식하고 있다. 질게 푸른 해변에는 뚫단배가 여기저기 한가로히 떠 있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출입하는 몇십척이나 되는 기선은 짓빛갈의 항을 이곳 저곳에 남기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물과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가물거린다.

일몰과 더불어 새로운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눈부시게 빛나는 만내는 타는 듯 한 저녁 노을로 잠시 동안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두어져 폰·데·아스칼산의 산정 반원봉만이 태양의 마지막 빛을 반영하고 있다. 태양광선이 하늘에서 아주 사라져 버린 순간이야 말로 가장 매혹적이다. 거의 몇만인지도 헤아릴 수 없는 불은 800미터 직하에 춤추며 빛나 흡사히 손짓하는 양 명멸하기 시작한다. 항구를 둘러진 산보 넓은 길 주위를 비추는 것도 있는가하면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산마루에 한 덩어리가 되어 번쩍이는 것도 있다.

또한 극장이나 카페 같은 유흥장이 있는 곳에는 유난히 불빛이 찬란하여 대서양 연안에 걸쳐 둘러쳐진 불빛은 수 만대의 자동차가 일시에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 모든 흔들리는 불빛이 드리운 바다를 내려다 보는 우리들 머리 위에는 희게 빛나는 크리스토의 거상이 양손을 벌려 만과 산과 자연과 사람들이 잘 융합이 되어 있는 어미의 천국 리오데자네이로의 거상이외에도 안데스산맥의 치리, 알첸킨국경, 해발4천미터 지점에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는 십자가를 손에 든 크리스토의 거상이 서있다.

리오데자네이로는 인구 2백50만 부라질의 수도인데 나포리, 시드니와 더불어 세계3대 미항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주 역>

× × ×

(P69에서)

되어 갔다. 각 개인이 갖는 사회적 조건의 제약은 받음이 없이 그야말로 평등한 인간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후보생 생활인 것이다.

신병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배속된 곳이 106헌병대대 경비중대였다. 그것에서는 보초를 서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때로는 시내순찰도 나갔다. 그 후 나는 국방부 병무국에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1960년 7월 전역하기 1개월전 공군본부에 원대복귀 될 때까지 근무했던 것이다.

1960년 8월에 만3년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공군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나는 학창으로 돌아가는니 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택했으며 삼중 당에 입사하여 잡지편집에 종사해 왔다.

× × ×

현재 아리랑지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박편집장은 한미재단에 근무하는 여의사이신 누님과 함께 홀어머님을 모시고 바쁜 저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등산과 명상을 즐긴다는 씨는 전역후 얼마 안되는 기간에 펍벽여사의「모란꽃」과 케네디 대통령의「용감한 사람들」을 번역출판한 정력가로서 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화사업에 종사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끝)

추출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 가령 사회가 어떠한 의미에서 전체로서의 독자적 목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사실로서 개인은 자기목적을 이루지 않고 전체적 사회가 목적이 되고 개인은 전혀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궁극적 결론이 생겨날 것인가? 다음에 이와 같은 점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회가 유기체적 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가 유기체인 부분-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가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가리켜 유기체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물의 관계에는 대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기적, 내적 혹은 본질적 관계 따위로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기적, 외적, 기계적 또는 우연적 관계 같은 것으로 불리는 것이다. 비유기적 관계라고 하면 예컨대 기와지붕의 하나하나의 돌사이의 관계처럼 떼어놓거나 쌓아 올리거나 간에 개개의 기와장이며 돌이라는 본질이나 기능에 하등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기적 관계란 전체에서 부분 또는 부분 상호간의 관계를 절단하면 떼어낸 부분에 변질을 일으켜 본래와는 다른 물체로 화(化)하는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가령 귀를 인체에서 절단하면 그것은 이미 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런 따위의 관계는 가장 현저하게 유기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사회관계가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 의미가 아니고 정신적 인격적 의미에서다.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사회인으로서만 즉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항상 그 어떠한 사회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출생이래 일체의 인간적 자극에 접촉시키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서 성장한 인간을 상정할 수가 있다.

가령 지금 그와같은 인간을 고독인이라고 부른다면 고독인은 생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순연(純然)한 동물적 욕망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인과 하등 다른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는 이와 같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이 틀림없다. 우선 그는 말을 절대로 해득(解得)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언어의 능력은 전혀 사회적 환경에서 획득된다. 언어는 이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가 없는 그의 이성은 거의 또는 전혀 발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이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아들이고, 형제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친구고, 동포이며, 적과 같은 따위의 사회감정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격의 정수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형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인격이 없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안전하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즉 사람은 육체적 구성에 있어서는 개별적 존재지만 인격적으로는 다른 개인과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며 사회관계 없이는 인격은 발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사회관계가 크거나 적거나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에 따라 인간의 사회관계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관계는 다만 이상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만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와서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미 없이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유기적 관계라는 사실로서 사회는 전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목적의 총화와 다르며 더욱이 총화보다도 더한층 훌륭한 독자의 사치를 갖는다고 하는 결론이 생겨날 것인가?

민주주의는 앞에서 말한 의미의 사회 유기체설을 충분히 승인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이 이론은 민주주의 이론과 아주 일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설에서 전체주의자의 결론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나의 인격은 남편이며 아버지라는 사실에 의해서, 나의 아내의 인격은 나의 아내이며 또한 같은 아버지라는 사실에 의해서, 다시 아이들의 그것은 우리들의 자식이며 형제들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제각기 중대한 영을 받고 있다. 즉 가족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나의 가족이 복지나 목적이라고 하면 가족 각원의 복지나 목적의 총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이밖에 가족전체로서 한층 중한 가치를 갖는 독자의 복지나 목적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아무 증명을 요하지 않는 자명의 문제이며 직관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별개의 전체적 생명이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를 위한 경강 부회의 설이라고 할 밖에는 없다. 예를 최소단위의 사회인 가족을 들었지만 전술한바와 같이 앞에 말한 진리는 이 단위가 국가 또는 민족으로 확대 되어도 하등 본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자의 결론은 다만 국가 또는 민족을 가지고 유기체 그 자체라고 하는 아주 그릇된 전체에 설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갈 때 나치스적 전체주의의 국가관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전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순전히 국가 또는 민족의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의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것은 실에 있어서는 전술한바

와 같은 권력을 잡은 지도자 자신의 야심 또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전체주의자들의 국가관이 아주 오류라는 것은 명백히 되었다. 전체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개인주의적 국가관을 개인이 사회 또는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도 좋은 이기주의적 국가관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맞지 않는 것은 개인주의를 가지고 이기주의라고 망단하는 것과 같다. 참된 민주주의 정신이 이성과 동정성에 입각하는 이상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국가 또는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서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윤리와 완전히 일치된다. 모름지기 이기주의만큼 민주주의 정신에 아주 배치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국가라는 것은 다른 개인의 전체 또는 다수이지 그이외의 것은 아니다. 어떠한 개인의 복지도 함부로 희생하지 않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함부로 희생하지 않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그러나 소수의 복지 보다도 다수의 복지가 더한층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그것과 충돌할 경우에는 소수의 이익은 합리적인 선까지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개인을 위해서지 전체주의자들이 국가 또는 전체라고 부르는 가공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국가를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도구로 보는 공산주의의 국가관에 관해서 한마디 해 두고자 한다. 공산주의 국가관의 오류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풀이되지 않겠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국가관이 보편타당적인 진리가 아님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 그 자체가 사실로서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론으로서 대략 명백해졌기 때문에 중언이 필요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머무르는한 무계급사회로 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일부 사람들에게 한정 되었었던 부르주아 사회를 경과한지 얼마 안되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계급이것도 정의를 요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이라는 것이 존속하고 따라서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계급이 다른 어떠한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이것을 자기의 도구화하고 있는 것일까. 공산주의자는 그들의 계급 국가론의 공식에 따라서 공산주의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이 푸로레타리아를 억압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적 평등이 실현된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국민다수의 신뢰를 확보한 정당이 부르주아거나 푸로레타리아거나 그런것에 구애됨이 없이 정권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점에서만 말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공식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현대의 각민주주의국가는 부르주아지와 푸로레타리아트와의 이대계급으로 확실하고도 고정적으로 분리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사회는 보다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계급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재확인

개인 존엄의 실재를 무시하는 전체주의 국가관의 오류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이 기계시대에 있어서 현대 산업사회의 하나의 현저한 사실에 입각한 강한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저한 사실이란 앞에서도 지적한바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산업화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점점 사회화되고 개인 그 자체는 사회전체에 점점 흡수 통합되어 후자는 전자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 결과 산업화된 오늘날 사회에서는 결정적으로 개인의 복지는 전체의 복지에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전체의 번영이나 복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공공의 복지를 무시하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라 할지라도 금방 사회전체에 크거나 작거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통제하고 지배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한 자유주의시대의 낡은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자기파괴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이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전체사회에 대한 명백한 책임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사회 그 자체의 성격을 잘 자각하여 그 도덕법에 자율적으로 복종함과 동시에 이것을 그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사회 존속의 절대요건은 기본적 자유권을 도덕법으로서 보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도덕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함과 동시에 이 도덕법을 깨뜨릴려고 하는 민주주의사회의 반역자에 대하여 과감히 싸운다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 부여된 우리들의 첫째 의무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끝)



화폐(貨幣)의 형태(形態)와 그 제도(制度)

생활경제(生活經濟) A·B·C ⑥

최호진(崔虎鎭)

<경제학박사>

여기서는 화폐의 제형태와 근대적 화폐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그레샴의 법칙』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불안전하나마 화폐이론을 끝맺기도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화폐는 일종의 특수상품이다. 그러나 화폐는 그 기능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 많은 화폐의 종류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화폐가 각각 그 기능을 담당하고 서로 보완하여서 화폐의 전 기능을 발휘하자면 그것이 상호관계를 맺고 한 개의 확실한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이른바 화폐제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중세봉건시대에 있어서의 화폐제도는 당시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었던 영주에 의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또 화폐주조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제가 확립됨에 따라 그것은 국가의 임무로서 독점 또는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화의 통일, 신용의 유지, 수량의 제한, 기타 정치상의 필요와 편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에 화폐의 형태와 그 제도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1, 금속화폐

①분위화폐-첫째의 화폐종류는 금속화폐다. 처음에는 지금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주고받을 때마다 일어나는 기술적 곤란을 없애기 위하여 점차 주조 화폐로 발전되었다. 즉 국가가 지금에 일정한 형태로 각인을 하여 그 품위와 양목(量目)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일국가의 화폐제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금속 화폐를 분위화폐라고 한다.

즉 분위화폐라는 것은 화폐의 분위 혹은 가치의 단위인 금속을 소재로 하는 화폐이며 여기에는 자유주조제와 자유처분제가 인정되어 있어서 지금은 언제든지 분위화폐가 되며 또 분위화폐는 언제든지 지금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분위화폐는 지금과 그 가치를 서로 같이하는 화폐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제한의 법화(法貨)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모든 종류의 화폐는 궁극에 가서는 이와 같은 분위화폐에 귀일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조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분위화폐의 지금을 조폐국에 수납하면 수수료 없이 또는 근소한 수수료로써 이것을 분위화폐로 주조하여 주는 제도이며 자유 처분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유로 분위화폐를 용해하여 지금으로 하고 또 분위화폐나 지금을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으므로 화폐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와 서로 보전될 뿐만 아니라 화폐의 수량을 자연적으로 사회의 수요에 적합 시키며, 다시 화폐의 대외가치 즉 환시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위화폐 또는 화폐의 분위 혹은 가격의 단위인 금속의 선정에 의하여 분위제도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분위제도에는 여러 종류의 제도가 있다. 그것은 단채위제도와 복분위제도로 나뉘어진다. 단분위제도는 분위화폐 또는 화폐의 분위인 금속을 한 종류의 금속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금분위와 은분위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분위이다.

금분위라는 것은 유통화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으로 금에 연결되는 것이 금화분위이고 간접으로 금에 연결되는 것이 금핵분위이며 또 유통화폐가 금지금으로써 태환(兌換)되느냐 혹은 금환으로써 태환되느냐에 따라서 금괴분위와 금환분위로 구분된다. 그런데 실지로 유통하는 화폐를 보면 금분위는 반드시 금화의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핵분위인 때에는 금화는 조금도 유통하지 않는다.

금분위는 종래 대개는 금화분위였으나 그 후 금괴분위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지금을 매입시키고, 또 통화의 태환은 금지금으로써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일차세계대전 후 1925년으로부터 31년까지 영란은행(英蘭銀行)이 채용한 것이다. 금환분위는 국내에 유통하여 금을 은화 또는 지폐만이 유통하여 금을 재외정화(在外正貨)로서 보유하고, 정부는 금화불의 환을 매각하여 대외지불을 하는 상인의 수요에 응하여서 외국에 있어서 금화분위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초로 이 제도를 채용한 나라는 인도다. 즉 인도는 1893년 은화의

자유주조를 정지하고 주요한 채권국인 영국과의 지불관계상 이 금환분위제를 시행하여 1920년에 이르렀다. 복분위제도는 두 종류 이상의 금속 대개는 금과 은을 동시에 분위화로 하는 제도다. 금과 은을 분위화로 하는 양분위 제도에 있어서는 한편의 분위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한편의 분위화폐의 가치가 등귀함으로써 화폐가치의 변동이 항상 적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때 많은 국가에서 채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은의 가치저락이 심하게 되어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은화의 자유주조를 금지하고 금화의 자유주조만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은행분위제라고 한다.

국민 각국에 있어서의 화폐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816년에 영국이 금분위제를 채용하였고 다음에는 1875년 보불전쟁 이후에 독일이 이것을 모방하자 국제무역의 편의상 다른 나라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프랑스는 1852년에 금은양분위제를 채용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은가치의 전락으로 말미암아 파행분위제를 시행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북미합중국은 1792년에 양분위제도를 채용하였으나 1900년에 이르러 금분위제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제일차 세계대전의 직전까지는 구미의 주요국가가 거의 모두 금분위제를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차 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금분위제는 정지되었다. 그리하여 제일차 대전 후 영국은 1952년에 금괴분위제의 형태로 금분위제에 다시 돌아갔으나 그 후 세계공황으로 말미암아 1931년에 이르러 다시 분위제도를 정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화폐는 직접으로 금과 관련을 갖지 않게 되고 이른바 관리통화제도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관리통화제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그와 같은 통화제도가 있다는 것만을 소개한다.)

②보조화폐-제이의 금속화폐에는 보조 화폐라는 것이 있다. 즉 보조화폐라는 것은 분위화폐의 유통을 보조하는 뜻에서 출현한 화폐이다. 보조화폐는 원래 소액의 거래를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소액화폐이며 따라서 그 법화인 금액에도 제한이 있고, 또 수출과 용해를 막기 위하여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보다도 훨씬 크게 하여 둔다. 따라서 자유주조도 허용되지 않는다. 통화개혁(6·10통화개혁)전의 10환짜리 동전은 보조화폐의 일종이다.

2, 불환지폐

제2의 화폐종류는 불환지폐이다. 이 불환지폐에는 정부가 처음부터 불환 지폐로서 발행하는 것과 태환지폐의 태환을 정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지폐는 모두 분위화폐와 같이 교환수단이다. 그러나 지폐는 국가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불환지폐가 무제한 법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는 소이다. 불환지폐는 보통 외국무역의 부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정화가 유출하거나 혹은 전쟁 및 사변등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자금을 필요로 하여 분위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행하는 것이며, 각국의 역사상 물가등기, 대외환의 폭락, 정화의 사장 등 여러 가지의 피해를 가져온 예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해는 결코 지폐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발행유통수량의 과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혁명 당시의 프랑스 남북전쟁 당시의 북방정부 제일차대전 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등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폐발행은 금속화폐와 같이 자연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치력으로써 이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한 재정곤란과 더불어 남발에 빠지기 쉬우며 따라서 여러 가지의 해독을 가져 온다.

그러므로 불환지폐는 그 남발을 극력방지며 동시에 그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정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정리방법에는 대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즉 하나는 신화폐제도를 수립하여 종래의 지폐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소련 혁명정부가 채용한 것이다. 또 하나는 태환을 재개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는 1925년 영국이 채용한 것과 구화폐분위 또는 가격단위로 그 태환을 재개하는 소위 구평가 복구방법이 있다. 이같이 하기 위하여 증세등을 단행하는 한편, 통화수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물가가 폭락하고 산업계를 혼란케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화폐분위 또는 가격단위를 절하시켜 그 태환의 재개를 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벨기와 프랑스등에서 채용한 것으로 이른바 평가절하의 방법이다.

3, 탈환지폐-은행권

태환지폐는 신용화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발행자가 그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분위화폐로 바꿔줄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 발행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관상으로는 불환지폐와 같으나 실질상으로는 그것과 매우 다르다. 태환지폐에는 정부발행의 것도 있으나 정부지폐는 예외이고 보통은 은행권이다. 정부지폐는 정부가 여러 종류의 지불을 하기 위하여 발행하면 그 소유자가 특히 태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조세지불 공채의 응모등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회수될수 없다. 그러나 은행권은 은행의 보통 업무인 할인대부에 의하여 발행되므로 대부금의 반료, 할인어음의 만기와 더불어 스스로 은행에 회수되는 것이다. 또 은행권은 경제계에 있어서 자금수요-투자가 증가하면 대부할인의 요구가 감소하여 그 발행액도 감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권을 발행 할때에는 상당한 상품 또는 증권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교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이와 같으므로 은행권은 정부지폐에 비교하여 볼 때 경제계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은행권의 발행에는 적당한 통제와 태환준비를 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의 실제를 보면 법률로써 은행권의 발행을 제한하고 우선 이것을 중앙은행에 집중하는 제도를 취하고 적당한 금리정책에 의하여 발행액을 조절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각국은 모두 태환준비 제도를 정하였다. 그것을 대별하여 보면 보증준비 제한법과 비례표준제한법이 있다. 전자는 정화준비와 같은 액까지는 무제한으로 은행권의 발행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경제계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까지 공채증서 사업 어음등을 보증으로 하고 은행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제일차 세계대전 전의 영란은행과 같이 보증준비의 한도 이상은 절대로 은행권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직접제한법과, 1875년에 제정된 독일의 제도와 같이 경제계의 사정에 따라 한도 이상의 발행을 허용하는 소위 굴신제한법의 두 종류가 있다. 다음에 후자 즉 비례준비 제한법이라는 것은 은행권의 발행총액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의 정화준비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단 그 비율은 국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며 독일은 3할, 북미는 4할, 또 프랑스는 은행권과 당좌예금의 3할 5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환준비 제도와 그것에 기인하는 통화는 세계공황에 의한 제국가의 금본위 정지,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하여 일대 변화를 보게 되었다. 제2차 대전 중, 독일은 완전히 발행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탈리아도 발권준비에 관한 규정을 정지하였던 것이다. 일본도 중·일 전쟁때까지 굴신제한법을 채용하였으나 그 후 한외발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 대전 직전에 있어서는 소위 최고액제한법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까지 전술한바 있는 관리 통화제를 취하게 되었다. 즉 금과 통화와의 필연적 관계를 정식으로 부정하는 관리 통화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4. 예금화폐

신용화폐의 일종으로 예금 화폐가 있다. 예금화폐라는 것은 지불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당좌예금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은행에 예금한 것, 혹은 대부 할인에 의하여 얻은 것을 예금계정에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당좌예금은 그것을 처분하는 사람이 발행한 수표에 의하여 지불 수단인 기능을 하지만 은행이 갖는 지불준비액 이외에는 그것에 상당한 금액이 없다. 이것은 마치 은행권이 태환준비액을 넘어서 발행 유통하는 것과 같다.

5. 그레삼법칙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가 교환수단 및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자, 정상적인 경제계의 한 화폐는 그것이 완전한 가치를 지니는 본위화폐이거나 혹은 그것이 마손되어서 불완전한 것이거나 또는 보조화폐이거나 혹은 지폐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한 가치로서 통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란 등에 있어서 가치를 저장하며 기구 및 기타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용해하거나 혹은 지금으로서 수출하려는 것과 같은 화폐의 실질가치가 중요시 될때는 누구든지 통용가치는 같다 하여도 실질가치가 우수한 것을 선택하여 이것에 충당하려고 한다. 그 결과 실질가치가 우수한 것은 유통계에서 자태를 감추고 열등한 것만이 유통계에 남게된다. 이것이『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법칙(Gresham's law)이다. 이것은 제16세기에 영국 사람 토마스·그레삼(Thomas gresham)이 비로소 주장한 것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여기서 양화·악화라는 것은 명목가치는 서로 같고 그 실질가치가 뛰어난 것을 양화라 하고 낮은 것을 악화라 한다. 그리하여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기 보다 오히려 양화 스스로가 그 자태를 감추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레삼법칙은 통화의 유통과정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레삼법칙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용어로서 통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화의 유통과정에서 그레삼 법칙이 적용될 때, 그 경제계의 건전한 발전이 방해되는 것과 같이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곳에 그레삼 법칙이 작용한다면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끝)

웃음의 종류

우리는 한말로 웃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웃음의 종류는 꺾이나 많다.「상긱」「벉긱」「벉긱」「깔깔」「겹겹」「호호」「해해」「히히」... 아이크의 백만팔라의 웃음, 다빈치의「모나리자의 미소」등은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웃음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웃음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웃음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어디 한번 알아 볼까요.

- ①눈 웃음, 함소 미소 벉그레 웃는 웃음, 살며시 나오는 웃음, ②사랑스러운 웃음. ③미소, 교소. ④환소, 기쁜 웃음, 싱글벉글 웃음. ⑤쾌활한 웃음, 호걸스러운 웃음. ⑥미안스런 웃음, 부끄러운 웃음. ⑦서글픈 웃음, 어이없는 웃음. 쓴웃음. ⑧코웃음, 실소, 하시하는 웃음, 떨시하는 웃음, 매소 냉소, 가소, 조롱하는 웃음, 조소, 치소. ⑨자조하는 웃음, 헛웃음, 허파에 바람 든 웃음, 망소 ⑩추중웃음, 작소 강소 억지 웃음, 철소 ⑪회심의 웃음. ⑫공소, 대소, 가가대소, 양천대소, 폭소, 정구죽천, 요절할 웃음, 떠들어대는 웃음, 너털웃음.



공산주의(共産主義)와 간접침략(間接侵略)

<공산주의(共産主義) 세미나>

이동현(李東賢)

(1)

오늘날 자유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적화의 필연성을 맹신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2차세계 대전이후 동구의 공산화와 중국대륙의 석권 등으로 그들의 제국주의 침략근성이 전 세계에 여지없이 폭로되고 이로 말미암아 단결된 자유세계의 반격을 받게되자 무력적 직접침략의 수단으로는 그들의 야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단계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해야할 민주주의 국가들이 멸망하기는커녕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본 공산주의자들은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직면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최후수단이며 장기인 간접침략에 의한 공산화라는 방향으로 그들의 적화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간접침략에 의한 적화공작은 오늘에 이르러 시작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교설에는 어디나 적이 자기네들보다 강할 때는 반드시 전략적인 후퇴를 감행함으로써 가장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속에서 내로는 군비확장에 의한 전력 증강을 도모하고 외로는 선전, 음모, 모략 등의 수단으로 적 내부의 단결을 파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간접침략의 수단은 적의 전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부의 전력증강에 못지 않은 비중을 갖게 된다.

더구나「사상전」「총력전」이라고 하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은 한나라의 힘의 크기가 국민 전체의 정신적 사상적 무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간접침략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적대 계급들의 역량이 충분히 혼란하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충분히 파열되었고 그들이 힘에 넘치는 상호 투쟁으로 인하여 충분히 무력하게 되었다면…… 혁명은 성숙된 것이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간접침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적어도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진영에 대한 간접침략에서 노리고 있는 당면 목표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자유진영과의 대결에서 균형을 얻을 수 있는 동조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중동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묘한 침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이(亞阿)블럭을 중심한 중립진영이 현대정치에서 그 비중을 더 해가게 되자 이들을 유혹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둘째는 자유진영 내부의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자유국가 상호간에 있을 수 있는 이해와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적대국가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화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끊임없는 위기의 조성과 혼란상태의 연속이야 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사회에서 아직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한 역사가 없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기 위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접침략의 구체적 전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정치적 조작과 선전선동

합법적으로 공산당이 활약할 수 없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곳이라도 공산당의 핵심분자는 언제나 배후에 숨어 활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은「노동조합」이나「사회계몽단체」같은 것을 앞세우는 시대의 변천과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공작을 그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음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유언비어 등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바

①여당의 실정을 최대한으로 과장하여 대정부 불신감을 극대화 한다.

②정부와 여당내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정당간의 상호 협조를 방해하여 국내의 통일된 질서를 파괴한다.

③권력만능과 금전만능의 기풍을 조장하여 정부의 부패를 촉진하고,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한다.

④건실한 인물의 의회진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매표 근성을 조정하며 선거자금을 조작하여 경제적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의회를 무력하고 무자격한 것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킨다.

⑤의회에서 군사 예산을 감축하기 위하여 평화주의자들을 선동하여 입력을 가한다. 이는 물론 수준 이하로 적대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⑥의회내에 공산주의자들을 투입시켜 국가기밀을 탐지한다. 이러한 전술은 주로 대상 국가의 정국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때 이용되는 것으로 그들의 본격적인 조직과 전술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①제3세력을 등장시켜 과격한 선동 구호를 슬로건으로 한 정당을 만든다.

②많은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비난하고 불평을 확대시켜 노동자 또는 일반서민 계급의 인기를 얻으려 한다.

③의회내의 의원들을 매수하여 반공 정책의 수립을 방해한다.

④극단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여「통일전선」이니「연합전선」이니 하는 용공세력내지 동조 세력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고립시킨다.

2. 경제적 조직과 선전선동

경제적측면에서의 간접침략은 정치적인 것이 권력의 쟁탈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입에 비해 한층 음성적이며 악질적이다.

①자본주의와 노동자간의 대립을 과장 선전하여 계급 의식과 적대관념을 조장한다.

②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등을 선동하여 고의적인 태업을 일삼게 한다.

③선외의 외국 원조를 경제적 침략이라 선전하여 이의 효과적인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④모조상품이나 외국상품의 밀수를 장려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며

⑤모조상품이나 외국상품의 밀수를 장려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며

⑥자본주의 국가간의 판로 경쟁을 경제적 식민지 쟁탈전이라 의곡 선전한다.

이러한 여러 술책들은 모두 사회생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경제계를 혼란케하고 이의 발전을 지지하여 민심을 동요케하고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치적 투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3. 사회의 불안을 위한 책략

이와같은 정치적 경제적 간접 침략행위 이외에 그들은 안으로 사회심리적인 교묘한 술책으로

①세대적 반목을 조장하여 존경과 신애로서 이루어져야 할 세대간의 정신적 유대를 단절시켜 사회의 불

안을 증진시킨다.

②어느 젊은 세대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이용하여 현실사회의 모순성을 과장 선전함으로써 막연하나마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후진사회에서 더욱 혹심한 것으로서 급속한 근대화에서의 촉진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문화적 선전 및 선동

공산주의자들은 문화활동까지도 그들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산국가에서 파견되는 예술, 문화사절단은 단순히 예술이나 문화의 교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연중 상대국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산주의 선전을 감행한다.

그리고 적성국가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가산주의적 기풍을 일으킴으로서 퇴폐주의에 흐르게 하여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한 대중을 만든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군사적 제동,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국가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하기 위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즉

①국민간에 지나간 염전사상을 불어 넣으므로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케하고

②폐전의식을 만연시켜 군의 사기를 저상시키고

③군의 고급지휘관의 비행을 날조내지 확대 선전하여 상명하복의 균기율을 문란케 하며

④군민간의 유대를 파괴하며 그 결속을 와해시키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책동은 모두 군대의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오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기본적 전술로 우리를 침략해 오는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은 5·16혁명이후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즉 5·16혁명으로 그들의 이용물내지 조종물이었던 용공세력이 일소되고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국가 재건과업에 매진하고 있는 정세에 당면하여 침략행위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①용공 및 반혁명 세력을 규합하여 정치 혁명 세력에 대항할 실력을 기르며,

②혁명정부의 무위 무능을 조작선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혁명정부를 고립시킨다.

③혁명 지도부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혁명세력의 분열을 도모한다.

④군내부의 갈등을 조성하여 군의 위신을 실추시킨다.

⑤군정예의 협조를 방해하고 혁명 과업을 방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선전한다.

⑥평화통일을 강조하고

⑦북한 실정에 대한 허위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공태세를 약화시킨다.

⑧경제계를 교란함으로써 5개년 계획 완수를 방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증진시킨다 등등이다.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은 우리의 허를 찌르기 위해 이순간에도 암약하고 있다.

김치와 비타민

<생활과학>



최영복(崔榮福)

<문교부 편수관>

여름철이나 겨울철 할 것없이 1년내 우리 식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즐겨먹는 것은 김치일 것이다. 그러나 만치 김치를 잘 담고 못 담고, 또 영양가를 높이 유지시키며 오래 먹는 것은 일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겨레의 큰 관심사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은 하루의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욕을 돋우어 밥 한 사발을 먹는데 김치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불고기를 먹는데 온갖 양념을 배합한 김치를 즐겨먹는다. 우리들이 빈부를 가리지 않고 또 노유(老幼)할 것 없이 즐겨먹는 것이 이 김치다.

김치의 고마움은 외국에 가서 뼈저리게 느낀다. 지난 겨울 미국에 시찰 갔을 때의 일인데, 채 보름도 못 되어, 일행이 모두 식탁에 앉을 때마다 김치 타령이었다. 한국에서의 식사에 비하면, 매일 육류를 주로 하여 잘 먹는 편이었지만 식사한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곳의 동포의 초대를 받을 때에는 우리들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서인지 으레 김치를 맘껏 먹게 해주며, 또 우리도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 들었다.

와싱턴 시내에 제니(Jenny restaurant)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안주인이 한국인이고, 서양요리는 물론 일본요리, 한국요리 어느 것이나 다 갖추어져 있다기에 여행의 심심풀이 겸, 한국사람을 만나 미국생활이야기나 듣자는 호기심에 들렀었다. 김치며 두부찌개며 주문하는 대로 갔다 주어서 모처럼 배불리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밥에 그냥 딸려오는 김치도 그곳에서는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였다.

동경에서는 요즘도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 겨울 한국음식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좌(銀座) 한복판에서 한국음식점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찾아와 불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였다. 동경의 한국음식점은 서울의 그것도 별다른 것이 없었다. 김치며, 국밥이며, 동태국까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 한국에서 살다 돌아온 일본인까지도 해마다 김장을 담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치는 이와 같이 우리 겨레 간에 가장 보편적이고, 이것으로 국민성이 가꾸어져 서로 통할 수 있으며 맛이 독특하여 외국인들 까지도 그 장점을 인정하여 맛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김치로써 민족 체질을 형성해왔으며 과학적으로 영양가치가 구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맞게 만들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급해왔다. 그러나 복잡해진 현대문명은 보다 강화된 식품을 요구하며 또 잘살고 오래 살기 위하여는 식품의 개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김치를 고찰하고 우리들의 식품개량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김치란?

김치는 보통 한글사전에 있듯이, 무, 배추, 오이들을 소금에 절인 뒤, 또는 그대로 고추, 파, 마늘, 생강들의 고명을 한데 버무려서 담근 반찬이다. 그리고 담그는 채소와 양념의 종류, 그 시기에 따라 열무김치, 미나리김치, 갓김치, 나막김치, 오이김치, 호박김치, 가지김치, 토마토김치, 박김치, 보쌈김치, 절국지, 썬박지, 비늘김치, 깍두기, 통김치, 동치미, 찐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품미라든지 영양가가 각기 다르다. 대체로 봄에서 여름철에 담그는 풋김치(햇김치)와 월동용으로 담그는 김장김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식물로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전통적인 일종의 보존식품이다.

2. 김치가 익는 과정

식성에 따라 생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치를 익어야만 제대로의 맛이 난다. 물론 너무 익어서 시어빠진 것은 영양분으로 소실되어 좋지 않다.

채소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세포의 집합체이다. 세포는 외부에 세포막이 있고, 그 속에 원형질이 있고 원형질의 주변에는 원형질막이 있다. 세포막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형질막은 반투명하여 물은 통과되나, 염액, 당액, 기타는 통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물세포를 물에 담가도 내용물이 녹아 나오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생물에게는 매우 편리한 현상이다. 만일 죽은 세포처럼 내용물이 마음대로 원형질막을 출입할 수 있다면 논밭에 있는 곡식이나 채소류가 비만 한번 맞으면, 내용물이 모두 녹아나와 가을철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채소는 씹아 다듬은 채로는 아직 세포가 살아있으므로 여러 가지 양념이 삼투하지 못한다. 염액, 유기산, 건조, 가열 등에 의하여 세포가 죽으면, 각 성분의 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소금이나 기타 양념 성분이 삼투한다. 김치국물이 진하면, 세포내에서 물이 스며나와 세포내의 수분이 감소된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죽게 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종성분이 세포내외를 자유로이 출입하여 김치거리 속에 양념이 들어가 맛이 들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김치가 익었다. 또는 김치가 맛이 들었다고 한다. 김치가 빨리 익고 늦게 익고는 소금의 농도, 그때의 온도등에 관계한다. 세포내외의 농도차가 클수록 김치는 빨리 익는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김치가 빨리 익는다. 하루 밤사이엔 넉넉히 잘 익는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또 세균류의 번식이 빨라 국물 속의 산이 속히 증가되기 때문에 식물세포가 빨리 죽는 까닭이다.

김치가 익는 과정은 철저하게 구멍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①단순히 위에서 설명한 성분의 교환작용 즉 채소의 성분의 일부분이 침출하고, 그대신 양념 성분이 삼입(滲入)하는 작용과 ②채소내의 효소작용 또는 미생물의 발효작용에 의하여 채소세포 내외에 향기와 맛을 이루는 성분이 생기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김치네는 이 두 작용이 모두 일어난다.

김치를 담근 초기에는 교환작용만이 일어나겠지만 며칠 지나는 동안에 유산균 기타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 합성, 산화, 환원등의 복잡한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식물섬유도 연화된다.

김치로 말하면, 이때가 가장 맛있는 때이고 영양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다. 이때를 지나면 유산, 기타의 산이 많아져, 유산균외의 다른 균이 번식하게 되어 맛도 감소되고 영양분으로서 가장 가치있는 비타민등도 소실되기 시작한다.

김치는 겨울철과 같이 채소가 부족할 때, 보존했다가 먹는데도 의의가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가장 작용도중에 있는 식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치는 적은 분량의 소금과 양념으로 맛있게 담고, 또 영양소를 소실함이 없이 오래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큰 연구과제다.

3. 김치의 영양가치

국립 화학연구소에서 몇가지 김치류와 채소를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김치류 분석표(1959년)

영양소 종류	수분 (g)	단백 질(g)	지방 질(g)	탄수 화물 (g)	열량 (cal)	무기 질(g)	칼슘 (mg)	비타민 A(IU)	비타민 B1(r)	비타민 B2(r)	비타민 C(mg)	나이 아신 (mg)
통김치	878	17	.07	13	18	0.5	2282	569	264	564	129	21
깍두기	862	23	0.7	29	27	0.7	29	1,075	302	71.1	94	53
동치미	939	0.6	0.2	10	8	0.2	12	0	7.8	230	82	0.9
무청김치	87.7	28	0.8	20.	26	0.5	21	1,505	30.7	67.1	158	26

채소류의 분석표(1960년)

영양소 종류	수분 (g)	단백 질(g)	지방 질(g)	탄수 화물 (g)	열량 (cal)	무기 질(g)	칼슘 (mg)	비타민 A(IU)	비타민 B1(r)	비타민 B2(r)	비타민 C(mg)	나이 아신 (mg)
무(뿌리)	90.3	2.3	0.1	6.5	31	0.6	62	0	0.01	0.03	44	3.9
무(청)	83.7	3.0	0.5	10.6	55	1.3	22.9	8,710	0.06	0.09	50	10.0
배추	94.9	1.3	0.2	3.4	17	0.5	70	255	0.06	0.09	28	0.4
양배추	94.3	1.5	0.6	5.1	29	0.5	18	43	0.12	0.43	27	0.2
시금치	93.7	2.6	0.7	4.9	34	1.1	36	8,320	0.12	0.38	64	0.7
마늘	60.4	3.0	0.5	32.8	145	1.3	32	0	0.33	0.53	7	0.1
풋고추	83.2	2.4	0.5	14.1	20	0.8	15.3	13,500	0.20	0.34	0	1.2

위의 분석표는, 재료, 품종의 차이 산지 및 시기적인 차이 저장방법 및 기타 조거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표만으로는 김치에는 칼로리가 적고 특별한 영양분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체생리에 불가결한 소금을 비롯하여, 소화효소 무기질, 유산균, 비타민 등의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외에 독특한 풍미로써 식욕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능이 현저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김치가 익는데는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재료, 담그는 법, 양념, 감무리법등에 따라 영양가가 몹시 달라진다. 우리들은 채소나 양념의 영양분을 소실함이 없이 그리고 김치의 효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겠다. 특히 최근 고추 마늘, 파, 양파 등에는 위의 영양소외에 우리들의 몸에 대단히 이로운 무엇인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그것을 되도록 파괴함이 없이 먹으면 날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김장이라는 좋은 갈무리 법을 더욱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식품을 만들어야겠다.

4. 비타민과 식품개발

요즘 우리들은 미소의 우주경쟁을 보고서 급속한 과학의 발달에 놀라고 있으며 열강국이 하나씩 하나씩 원자탄을 갖게 됨을 보고 인류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과학의 발달은 이 두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눈부신 정도로 경쟁하며 발달되고 있다.

비타민도 그 어느 과학에 못지않게 발달되고 있는 분야다.

1920년 Drummond에 의하여 Vitamin이라고 명명된 이래 불과 40년 동안에 다수의 비타민이 대부분 결정상태로 유출되어, 구조식까지 결정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대다수는 이미 합성품으로서 시장에 나와 있다. 우리들은 발병하여야 비로소 비타민을 찾지만 선진국가에서는 평소의 영양부족을 이것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일본만 하더라도 쌀이나 그 밖의 식품에 비타민을 보충하여 강화미 또는 강화식품이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권장하고 있다. 비타민이 건강생활에 절대 필요함은 재언을 요치 않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티민류가 뇌의 건전한 작용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바티민하더라도 일찍부터 알려진 A, B1, B2, C, D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바티민B류의 일정량이 뇌의 건전한 활동에 절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뇌의 흥분제지 작용에 이것이 관여하는 기구까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생활이 복잡해져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것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우유나 버터를 잘 먹지 않는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바티민과 무기염류를 대부분 채소류에서 공급받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김치가 이것들의 공급원이다. 그런데 성인이 1일에 필요로 하는 바티민 B1의 양은 보통 1.2mg라고 하는데, 김치만으로 이것을 공급한다면 하루에 김치 1.75kg을 필요로 한다. 암만 김치가 맛있다 하여도 하루에 이렇게 먹지는 않으므로 다른 식품으로서 바티민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쌀눈에 바티민 B류가 많이 들어 있지만 백미로 만들 때 대부분이 껍질에 달아난다. 그래서 7분도미, 현미등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 말은 배아가 내부에 있어서 외부로 도정하여도 내부의 바티민류는 소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티민류를 포함한 밀가루로 빵을 구면, 특히 바티민B류는 열에 강함으로 충분히 바티민 B류를 갖고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해가는 사회 환경은 부득불(不得不) 식생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식생활을 개선할 때는 왔다.

선견지명

세조때에 윤필상이 형방승지로 입직하였을 때의 일이다. 그 날 밤은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방에 앉아 있어도 한기가 살을 에이는 듯 하였다. <날씨가 갑자기 이토록 추우니 필시 임금님께서 죄수들을 돌보라는 분부가 계시게다.>

그 때 임금의 물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외 죄수들의 죄의 중경을 살펴서 소책자에 적어두었다. 밤이 이슬하자 과연 내관이 나와서 전하기를, 임금께서 부르시니 곧 입시(入侍)하라는 것이었다. 필상은 황급히 의관을 갖추고 죄수의 일을 기록한 소책자를 껌매개 넣고 들어갔다. 내관은 필상을 인도하여 침전 밖 마루에 앉드렸다. 그러자 임금이 창안에서 말씀하기를

『오늘 밤은 날씨가 유달리 차 더운 방에다 털옷으로도 건디기 어렵거늘 하물며 옥중에든 죄수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이 심한 추위에 혹시 얼어서 죽는 자가 생길 염려가 없지 않으니 면에는 하는 수 없거니와 경외의 죄수만이라도 돌아 보아야 겠다. 경외에 지금 갇힌 죄수들의 죄의 경중과 수효를 속히 기록하여 들이다.』 이에 필상은『신은 지금 형방 일을 맡아보고 있오며 형옥에 관한 일이란 다 신의 직분이오라 할사 유념하고 있어야 그 수효를 낱날이 적어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즉시 소매에 넣어 무었던 소책자를 꺼내 보면서 일일이 아뢰었다. 임금은 크게 놀랐다. 필상이 채말도 마치기 전에 창을 열고 침전안으로 필상을 불러 들였다. 필상은 황공하여 등에 땀이 흐를 지경이었다. 그야 죄수들에 관한 것을 미리 적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임금한테서 칭찬을 받으리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침전안에 들어오라는 말까지 들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상은 고개를 숙이고 기는 듯이 침전안으로 들어 갔다. 임금은 술잔을 주고 손수 따라 주시며 안을 향해, 『이 사람은 내 보배로운 신하요.』하고 말을 건넨다.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왕후가 있었던 것이다. 필상은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낯이 없었다. 괜찮다는 임금의 말을 뿌리치듯 하며 밖으로 나와 버렸다. 이로부터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 필상은 관직이 나날이 올라 나중에는 영의정까지 지냈다.

흘러간「창공(蒼空)」의 낙수(落穗)들

창공구락부회상(蒼空俱樂部回想)



마해송(馬海松)
〈아동문학가〉

슬하에 자그마치 16남매를 둔 73세의 할아버지와 72세의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1962.7.27) 각 신문에 굵게 보도 되었고 장안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다.

이혼할 이유가 성립 된다는 판결이 내린 모양이니 72세의 할머니는 위자료 15만원은 받게 되겠지만 50년을 동고동락해온 역사는 지울 수 없을 것이요 더욱이 열여섯명이나 되는 아들 딸과 그들에서 난 손주들까지 치면 적지 않은 자손들과의 인연이 끊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를 창공 구락부 열 여섯명이 공군의 깃발 아래 지낸 전후 3년의 인연을 그에 비길 바는 아니겠으나 해방한지 벌써 10년에 가깝지만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괴롭던 일조차 즐겁게만 회상되고 향수와 같은 아련한 달가움이 떠도는 것이다.

해방은 했지만 그 후에도 매주 수요일 마다 모이기를 1년 이상 했었고 모이지 않고 뿔뿔이 모두가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어쩌다 만나게 되면 창공 구락부로 해서 이루어 졌던 정이 새로워지며 화제 또한 공군에 미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제가승 절에 있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줄 법을 닦는 사람을 제가승이라고 한다니 우리들은 군에 복무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우리 공군-제가 공군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공군에 영광이 있으면 집에서 기뻐했고 만나서 축하를 들었고 불상사가 생기면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문단 친구들도 연습기 추락사고 라든지 불시착 사고 같은 일이 보도된 경우면 으레 한마디의 인사를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러면 또 죄나 지은 것 같이 민망해 하며 의적이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도록 깊어진 인연의 실마리는 1·4후퇴 대구에서 었다.

당시 총참모장 김정렬 장군, 보좌관 김창규 장군의 창업이었는데 정훈감 김기완 당시 중령이었던 가의 기업을 두 분이 받아 들였음이었는지는 소상치 않으나 3월9일 정훈감의 안내로 총참모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두 김장군이 환영하여 중군문인단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었던 것이다.

더욱이 총참모장은『중군문인단이란 딱딱한 이름보다 좀 더 부드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어요?』그런 말까지 해서『창공구락부』라는 이름을 짜내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날 6월9일이 공군 중군 문인단 창공 구락부 발족의 날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김기완 정훈감의 극진한 호의와 알선으로 단원16명 한결같이 형제와 같은 우의(友誼)를 지속하며 공군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단의 행적

3월9일에 결성된 공군 중군 문인단(창공구락부)은

일반대중의 항공사상을 고무진작하고 고갈되기 쉬운 군장병의 정신생활을 함양하는데 활동을 전개하여온 바 있거니와 아직도 우리 공군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일이 허용하므로 본단의 성격을 소명히 하는 동시에 이후 결성 2년유여(年有餘)의 활동을 개략 소개하는 것이다.

1, 설립 취지

중군 태무상태(殆無狀態)이던 항공사상 보급과 아울러 군·민융화를 문학을 통하여 수행한다는 취지아래서 시인, 소설가, 문필인 등이 이를 구성하였다.

2, 활동상황

결성이래 중군을 통하여 얻은 자료로써 시, 소설, 가사, 중군기 및 신문 잡지에의 기사제공, 번역소개, 연극, 강연회, 작품, 낭독회포스터, 전단, 표어 그리고 군·민에 대한 문예작품 모집등의 방법으로 군내부적으로는 사기양양(士氣昂揚),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대외로는 항공사상을 광범하게 보급시키고 있다.

3, 명칭과 단원

정식 명칭은 공군 중군문인단이되 대내외 통상명칭으로는「창공구락부」라 호칭하고 있으며 현재 16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단장 마해송 부단장 김동성 조지훈 단원 최인욱 유주현 이상로 방기환 박두진 최정희 박목월 황순원 이한직 곽하신 김윤성 전숙희 박훈산

4, 활동개요

1, 항공사상 보급 연극대회「날개춘향전」(최인훈작) 어대구문화극장(1952.6.6.3일간) 2, 항공기헌납운동전개(기도(企圖))(자(自)1951.7.15. 지(至)1951.8.31.)

3, 조종사대문인합석좌담회 어(於) 여의도(1951.5.29.)조지훈, 최인욱 어(於) 대구(1953.5.27.)마해송외 4, 문화인 시국강연대회 어(於) 대구문화극장(1951.12.15.) 연사 마해송 조지훈

5, 작품낭독회(3회) 어 대구상록차방(1951.12.9., 1951.2.20.) 6, 항공사상 고취에 관한 작문, 그림등 현상모집, 응모작품 985점(1951.8)

7, 건군기념예술제 찬조출연(어 대구자유극장 1952.1.15., 3일간) 극연출에 최정희, 최인욱, 곽하신, 유주현, 전숙희, 이상로, 박훈산, 방기환. 시낭독에 박목월, 이상로, 이한직, 박두진, 조지훈.

8, 3·1절기념예술제(어 부산극장 1952.3.1., 2일간)출연자전동 9, 기관지「창공」발행 10, 공군기관지「공군순보」편집(후에 코메트로 개제) 담당 이상노, 방기환 11, 국방부 기관지「국방」편집 곽하신, 박두진, 유주현

5, 단원의 지지중군

1, 여의도기지 조지훈, 최인욱(1951.5.25.) 2, 부산경유제주기지 마해송, 조지훈, 최인욱, 이한직(1951.5.29.)

3, 사천기지 박두진, 유주현(1951.8) 4, 강릉기지 마해송(1952.5)

5, 진해사천기지 유주현(1952.5) 6, 항공기헌납강연차 부산출장도중 교통사고로 마해송, 김기원 부상(1951.8.7.)

7, 사천기지 이상로(1951.10.1) 8, 대전기지 마해송(1952.10.17.) 9, 강릉기지 최인욱(1953.3.6)

6, 보도선전

1, 항공사상강조(신문사설) 총8인 2, 항공사상강조(신문기사) 총50회 3, 공군중군기(신문·잡지) 총20회 4, 외국기사번역(잡지) 총8회

7, 항공에 관련성을 둔 작품활동

1, 소설 22편(신문발표, 8, 잡지에 14) 2, 시 23편(신문발표 12, 잡지에 11) 3, 가사 9편(공군에 제공)

4, 희곡 1편「날개춘향전」대구, 대전등지에서 공연 5, 수필 12편(신문 9, 잡지 4) 6, 항공인인물소개 6편

7, 전사항공인추도기 5편 8, 항공포스터 발행 1편 9, 항공사상강조표어 6종 10, 항공사상강조전단 2종

11, 육군중군작가단주최「문학의 밤」에 찬조출연(전원)하였음.

이상은 1953년 3월21 대구 국립극장에서 열렸던「창공문학의 밤」푸로그램에 실려있는 것을 게재한 것이다. 실로 호화한 푸로그램에는 그 밤에 낭독한 시작품이 전문 그대로 실려 있었고 단원 16명이 사진과 약력까지 있었다.

활동의 편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해 가을 환도를 앞두고는 정든 대구와 대구의 인사들에게 석별의 좌석을 마련했었으니 그 청첩은 아래와 같다.

삼가 아뢰웁니다.

무더운 날씨에 귀하신 몸 안녕하십니까 비웁니다. 우리들 공군 중군 문인단(창공 구락부)은 근30년 동안 대구를 본거지로 하여 각계인사의 다대한 원조와 편달을 힘입어 왔삽던바 이제 환도의 날을 앞에 두음에 새삼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웁니다. 일일이 나아가 뵈옵지 못함이 한스럽기에 오는 17일은 귀하를 모시고 일석의 환담을 함께 즐기고자 하오니 다망하신 중이라도 왕림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8월 17일 하오6시→9시(수시) 장소 공군장교집회소(봉산동) 간단한 주효의 준비가 있습니다.

단기 4286년8월 일 창공구락부(19명 연명)

육군의 이종찬장군도 참석한 맥주와 막걸리의 피아티는 호뜻하고도 깨끗한 좌석이었다.

이만큼 깨끗이 전진을 썼고 환도했으나 세월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의 소임도

끝나지는 않았고 더욱이 작품활동에 있어서는 그 후에 오히려 불만한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10월28일에는 서울시공관에서 다시 한번「창공문학」의 밤이 있었으니 군의 요청으로 전투조종사들을 시민으로 하여금 환영하게 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양정고교, 진명고교의 출연도 있었고 조지훈, 최인옥, 사회로 전단원의 작품이 낭독되었다.

그 후에도 단원은 서로 연락을 갖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이기를 즐겼고 1955년 4월1일에는 갑자기 소집이 있었으니「창공구락부」에게 새삼스레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것이었다.

남산동 분실에서 장덕창차장(당시)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이것으로 공군 중군 문인단 창공구락부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해마다 5월5일「어린이날」에 공군이 협력해준 일이다.

창공구락부의「죽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실은 자칫하면 잊어버리기까지 할뿐 했던 우리나라의 자랑인「어린이날」을 잊지 않게 했고 지켜내려 오는데 단 하나의 큰 힘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1956년 5월5일 제31회 어린이날에는 서임수정훈감의 진력으로 대구, 부산 등지에 빠라를 뿌려주었다.

1955년에는 이종승정훈감이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천해 주었다.

5월5일 어린이날에 비행기로 빠라를 뿌리는데 빠라에 상타기 문제(항공기이를 알아맞히기)를 내걸어 알아맞힌 어린이를 비행기에 태워준다는 것이었다.

5월25일 여의도는 알아맞히고 뿔한 남녀 어린이들과 그 부형들과 초등학교장, 선생들로 꽃밭을 이루었고 어린이 35명을 수차에 걸쳐 비행기에 태워 주었던 것이다.

장덕창소장(당시)이 시상하고 김신준장(당시)은 순수 조종하여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1957년「어린이날」은 제35회 어린이날 이기도 했지만「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공포되는 날이었다.

이종승정훈감은 이계환인쇄소장과 협력해서「어린이헌장」전문을 빠라로 제작할 것을 약속해 주었고 김신장군, 장성환장군은 서울, 대구, 부산에 비행기를 움직일 것을 승낙해 주었다.

5월5일이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이었다.

5월5일 부(付) 석간(4일저녁 발매)에 비로소 4부장관 명의로 공포된「어린이헌장」전문을 인쇄한 빠라를 공군은 5월5일 이른아침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서 전국에 뿌려주었던 것이다.

지방 신문은 공군빠라로 비로소「어린이헌장」전문을 알게 된 곳도 있었다고 한다.

모든 빠라에는 공군의 표식과 더불어 창공구락부 결성당시 박두진시인의 고안으로 되어 있어 공군본부의 승인을 받은 단의 표식 마아가 언제나 뚜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1953년 어린이날에 대한공군의 표식과 창공구락부의 마아가 뚜렷한 어린이날 빠라를 읽고 반긴 어린이가 국민학교 학생이었다면 오늘 1962년에는 벌써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요. 혹은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행사가 그 후 해마다 있으니 국가사회에의 끼침도 적지 않았으려니와 다음 세대가 공군에 느끼는 정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단원 16명이 공군중군 문인이 되었던 것은 극히 우연한 일이었으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회상은 즐겁기만 하고 공군에 대한 정은 깊어만 가는 것 같다.

◇시간은 금이다

피뢰침을 발명한 과학자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유명한 미국의 벤자민 프랑클린이 인쇄소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신사 한 사람이 상점에 들어와 책 한 권을 골라 들더니 『이것을 얼마지요?』 『1달러입니다.』 『얼마 깎아주지 않겠습니까? 기분이니까요.』 『그렇다면 1달러 25센트로 하지요.』 『뭐라구요? 그런 농담은 말고 정말 얼마에 팔렸습니까?』 『그럼 1달러 50센트에 드리지요.』 『이 친구 사람을 놀릴 작정인가 시간마다 비싸진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희롱도 작작하게!』 그 신사는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지금 1달러 50센트에 파는 것보다는 맨처음 정가대로 1달러에 파는 편이 이득입니다.』 신사는 비로소 <시간은 금이다>하는 말의 뜻을 알고 1달러 50센트로 사가지고 돌아갔다.

◇추리소설과 해고

에드거·윌레스는 유명한 추리소설의 작가다.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호소하였다. 「윌레스 씨, 나는 얼마 전에 당신의 최근 소설을 읽었습니다. 어찌도 재미있는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사무실에 나가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덕분에 나는 해고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쩌면 나는 좋겠습니까?』 『그건 참 안되었습니다. 아! 참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것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해고된 것조차 잊고 말 것입니다.』



인간위성에 대한 의견은 구구하다. 혹자는 이것을 인간의 과학기술이 낳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고 인간의 우주여행에 무한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며 또 혹자는「스프트니크」에 뒤따른 소련과학의 큰 승리로서 미·소의「스페이스·랩」심지어는「미사일·랩」이 더욱 버려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각양의 의견 중에서도 한 가지 의견만은 일치되고 있으며 그것은 원자력의 해방에서부터 인공위성, 인간위성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의 위대한 진보가 전쟁에 직결되는 일이 없기를……하는 원망(願望)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위성의 성공을 둘러싼 소련의 움직임은 이 원망에 조금도 반응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최소한 냉전의 유력한 무기로서 이용할 의도가 충분히 느껴진다.「가가린」소령을 환영하는「모스크바」의 축하회에서「후르시초프」는 이제『소련의 군사력은 세계최강이다.』라고 장담하고 있으며 또한「보스토크」3·4호의 성공을 배경으로「후르시초프」는 9월중순에 있을 제7차「유엔」총회에 나타나 어떠한 정치「썬커스」를 부릴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중량이나 정확도로써 본 인공위성의 급진적인 발달은 그러한 냉전의 무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결을 더 나가서 직접적인 공격무기로서 등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는 점을 우리들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60년대 초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공격무기는 유인폭격기에서부터 ICBM으로 변했다. ICBM은 수천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 정확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무서운 공격무기이다. 이것을 요격하고 격파 하는 데는 최대 60분이상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CBM은 여러 가지의 외기권 및 재돌입 유인장치를 갖고 있어 그 단두는 비교적 파괴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ICBM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문제가 실로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10년동안 이 ICBM만이 유일의 강력한 무기체제는 아닐 것이다.

광범한 위성계획에 의한 것 같으면 인공위성 자체에 수폭탄두를 장비하고 어떠한 시기에 목표지점을 향하여 위성자체가 강하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위성이든가 혹은 재돌입무기(일종의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것)로 장비된 우주미사일기지 위성이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는 명령만 있으면 지구상 어느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궤도에 올랐다가 예정된 착륙 지점에서 큰 오차없이 착륙한 최근의 유인위성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우주기지위성에서 발사되는 재돌입 무기를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일까지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궤도는 정확하며 인공위성을 기점으로 함으로서 명중률이 낮아질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나머지 문제는 재돌입무기의 기술이 그 정확도를 좌우할 뿐이다. 가령 우주미사일기지위성의 높이가 100km 이라고 하고「미사일」의 정확도를 전사정의 천분의일 이라고 본다면(분사종료까지 정확한 유도를 함으로서 미사일의 오차를 전사정의 천분의일 이내안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200km의 천분의 일은 200m가 된다. 즉, ICBM이나 IRBM은 지상에서 발사하여 지상목표에 명중시킴으로 긴 사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 사정의 천분의 일이라는 것은 사정이 5,000km때는 5,000m가 된다. 200m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나 명중정도가 나쁘다. 5km 범위의 오차란 작은 목표물은 ICBM의 목표로서 부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m로 그 오차가 줄어들면 공격목표는 대폭 증가될 수 있다.

공간 200km의 높이에서부터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즉 기지를 목표에 대해서 200km의 거리까지 가깝게 전진시켰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공격용무기가 존재하는 장소와 그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점과의 거리는 전략·전법상의 큰 요소가 된다. 여기에 기지문제 등이 생기는 원인이 있는 것이며 인공위성이 지구상

의 여하한 지점의 상공에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략·전법상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재돌입무기를 목표지점에 강하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속도(우주기지위성의 속도와 같음)를 감속시켜주면 됨으로 일단미사일이 될 것이다. 원폭재료 10kg, 「탐바」의 무게 6kg 외각 기타의 무게를 14kg라고 보고공기층에서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50kg의 중량이 필요하다고하면 탄두는 모두 80kg가 되며 일단 로켓트를 포함한 재돌입무기의 총중량은 약 4톤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노미날」원폭정도의 탄두를 가진 재돌입무기는 무게 약 4톤이 된다는 것이다. 소련이 1961년 2월4일에 발사한「이스포린」위성의 중량이 약 6.5톤이였으며 또 미국이 앞으로 1964년까지 완성예정인 C-2형「세탄·로켓트」가 무게 20.25톤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무게 약 4톤의 재돌입무기와 이를 발사하기 위한 전자장치를 실은 우주미사일 기지위성을 궤도에 올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주량테뷰방법에 의해서 수차에 걸쳐 발사된 이들 재돌입무기와 전자발사장치를 우주에서 조립한 거대한 우주미사일이기가 탄생할 수 있으며 이는 62년 8월11일과 12일에 연속발사된「보스토크」3·4호의 우주량테뷰와 미국의 우주급유방법에 의하여 월세계를 정복할「세탄」계획 등이 더욱 이 가능성을 확증해 주고 있다.

원자과학자들은 최근의 핵융합반응의 기술진보에 따라 가장 작은 수폭의 크기가 현재의「노미날」원폭정도로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작은 수폭의 위력이「노미날」원폭의 100배라고 하면 폭압으로서의 그 위력 반경은「노미날」원폭의 4·5배가 된다.「노미날」원폭의 폭압공(爆壓孔)의 반경이 150m임으로 이 수폭의 폭발공의 반경은 약 700m가 되며 700m의 폭압공이 된다는 것은 200m의 명중사정을 가진 재돌입무기는 90%의 파괴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노미날」원폭 폭압효과:65% 공중폭발:600m고공때 반경 450m 내가 최소 2kg/an2 이상(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압력) 지상폭발 :17m상공 때 폭발공부의 반경은 150m이며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은 파괴(공크리트포함) 열효과:30% 방사선:15%

우주미사일이기위성은 또한 군사목표를 지상에서부터 우주공간으로 속개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그 가치는 매우 큰 것이다. 앞으로 대적상황에 있어서의 최대의 위협은 적의 군사력과 무기이다. 미공군 아서 C 에이간2세는 말하기를「제2차대전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때에는 전쟁기술의 상태로 보아 적의 생산 및 보급의 근원을 분쇄하는 전략을 쓰게끔 되어있었다. 그 당시의 고성능폭탄이라도 파괴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군사력을 대규모적으로 즉시에 파괴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그때 가능했던 일은 전투에 얽매어 있는 적으로 하여금 전투수행상 필요한 군수지원을 못하게끔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원자탄이 출현하여 군사력을 대규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자 전투부대에 전쟁물자를 보급하고 그 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이란 핵전쟁 발발 초기부터의 공격목표로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침략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군사력이다. 따라서 적이 우리를 침략할 경우 우리가 파괴하고 무력화 시켜야 할 것은 그의 군사력과 무기이다.」라고 하고 있다. 즉 적의 제1차적인 공격목표를 지상에서부터 우주공간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공격을 받았을 때 지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움직이는 우주기지는 또한 가장 격파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여하한 기지라도 초음속도로 움직이는 이 우주기지에 비교하면 확실히 공격하기 쉬운 목표임에 틀림없다. 소련의「보스토크」3·4호의 우주량테뷰가 미국의「스파이」위성「마이다스」·「사오스」를 격추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으로서 시험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또한 앞으로 탄생할 우주미사일이기위성공격을 전제로 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량테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위성의 궤도의 적도에 대한 경사각이 동일해야 하며 또한 그 궤도는 위상차가 없는 같은 궤도라야 한다는 것이며 각각 상이한 지점에서 발사된 두 위성의「량테뷰」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다. 만약 이러한「량테뷰」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위성의 기지로서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시키기 위하여서는 공격용위성은 약1km이내까지 다가서야 하며 둘 사이의 속도차가 매초 1m이내라는 조건에 이르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더욱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주기지는 예비로켓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만약 추격용 위성이 접근하는 것을 탐지하면 이 예비 로켓트를 분사시켜 그 궤도를 바꿈으로서 추격용 위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미사일이기위성은 목표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게끔 목표기지의 거리를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지공격을 곤란 케하고 나아가서는 지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 줄 것이다.

앞으로 공격기지는 점차 우주공간으로 옮겨 질 것이며 이동된 우주미사일이기는 개전초의 제1차적인 군사 목표로서 그 격파방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한 편 이러한 우주기지 공격용위성으로 부터의 기지보호문제도 병행강구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장은 지상에서 우주로 옮겨지고 이러한 우주기지의 결정적인 파괴수단이 탄생되지 않는 한 지상의 전면전쟁은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끝)

× × ×

중공의 중대한 식량위기를 배경으로 하여「후르시초프」는 국민의 이해를 바라면서도 그 심각한 불만을 각오하고 식육「빠타아」등 고급식량의 대폭가격인상의 공지에 빠진 것을 축심(軸心)으로 하여 공산권전체의 농업관란은 최근 국제적 각광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의 이행기 즉 공산주의정권 치하에 있어서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의 결정적 요인이 농업인 것 같이 사회주의 건설기의「아키레스」건도 농업이다. 농업은 공산권국민에의 식량 공급원일 뿐 아니라 경공업생산에의 원료공급원인데 화공업 부문의 발전이 뒤떨어진 공산권에서는 농업의 부진은 결정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공산권전체의 식량사정 악화는 필연적으로 경공업소비재의 생산과 소비의 부진에 달려 들어가고 있다.

이 사례를「체코」의 실태에서 보기로 한다.

〈스타린의 그림자〉

「체코」정권에서 고 90「피이트」중량 1만8천톤의 거대한「스타아린」상을 철거할 것을 작년 10월 소련공산당제20차 대회에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이 있는 지 7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냥 엄연한 자태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체코」국민의 퇴영적(退嬰的)이며 무사주의 회피주의와 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코」국민이긴 하지만 1953년 5월1일부터 6일까지 다른 공산권국가보다 먼저 반「스타린」주의 폭동을 일으킨 역사가 있다.

또 금년 5월1일「푸라그」대학생들은「메이데이」의『파레이드』를 이용해서「노보트누이」현정부에 반대하는「데모」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것은 과란을 제외한 동구소련위성국의 최초의 반 정권시위운동이었다. 그뿐 아니라 금년에 들어서서는 수년이래「체코」에서는 처음으로 식량의 행렬구매가 각 도시에서 보게 된 실사이다.

이것은 마치 가두의 정치 토론회 같은 것으로 현정 권에 대한 비판성이 높아지고 5월말에는 최소한 3개도시에서 식량구매행렬이 소규모의 식량폭동으로 전화했다고 한다.

「노보트누이」정권의 보안경찰은「체코」의 쌀 소동을 가차 없이 탄압한 것이나 식량행렬구매에 있어서의 정권비판의「세론」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탄압한다면 폭동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체코」에서는 아직 중대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파동이 높아져 국민 간에「스타린」주의정권에 대해 불만과 동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 정치적 불온상태가 폭발되어「체코」와 소련의 전사에 의한 유행의 진압을 필요로 하는 사태로 고조될 것인가는 예측불허상태이다. 그러나 파도 소리가 소연(飄然)한 공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엄연한 것이다.

〈겨우 1%의 농업성장률〉

「체코」의 식량부족은 고급식량 그중에도 식육의 부족이 막심하다.

1961년 1월의 농업 생산계획 성장율은 7%였으나 정부공표의 총계숫자(「루우데푸·라우오」지 2월2일자)에 의하면 실적은 1%였다. 이것은 60년을 하회하는 것이며 전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도 평가되고 있다.

이 원인은 1960년 이래 농업의 공영화에 최후의「드라이브」를 건 것이라고 본다.「체코」의 경작 면적으로본 농업 공영화 율은 1948년 6.3% 55년 42.6% 58년 77.5% 59년 84.4% 61년 90.4%인데 농업성장률일 1%였다는 데 대해「노보트누이」정권은 동계가 이상하게 길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화의 추진으로 사료작물 증산과 가축증산의 자극이 감퇴했기 때문 이라고도 보고 있으며 이것은「체코」정권도 심본 시인하고 있다.

체코와 동독(東獨)의

식 량 위 기



▲「소 스타린」「울부리히트」와 「코몰카」

<밤중에도 장사진>

「책코」에서 돈육의 부족은 심각하며 우육도 부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도「책코」의 명물 장사진으로 행렬은 밤중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도는「책코」의 현정권으로서는 불가능으로 보고 있다. 금년 제1·4분기 농업생산에 대한 공식보고에 의하면 도살용 가축 우유계란의 정부조달은 계획을 대폭 하회시키고 있다.

「책코」는 동독과 같이 식량생산의 절대량으로서는 국민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금년에 들어서 특히 고급식량의 공급부족은 타 식량부족과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공산권전체의 식량위기는 동독과 나란히 심각화하여「책코」의 식량난은 서방제국과 공산권제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동구라과농업제국의 식량수출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문에「책코」의 식량수입은 목표량이 격증되고 있으며 무역적자로 외자는 부족하여 전도가 암담하다는 것이다. 이위에 청년남녀의 이농경향이 집중하여「뉴욕·타임즈」6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책코」의 농민평균연령이 1955년에 40세였는데 현재는 50세이고「스르바키아」는 55세이다.「책코」의 5명의 농부중 3명은 45세 이상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농업생산이 중노동인 반면 보수가 적은 때문에 이농자가 속출하여「책코」정부에서는 학생의 강제농업동원으로 20만명을 농촌에 방출시켰다고 한다.(「푸리아그」6월17일자)

이 밖에 철강생산도 저락(低落)되고 있으며 기능수출도 무역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격감상태이다 한다. 반면 군사비는 61년이래 급속히 증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백립위기」등에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

<흔들리는 소스타린 정권>

동독사회주의통일(공산) 당기관지「노이에스·도이트취란트」는 6월13일 독일인으로 드물게 보는 솔직한 보도로「울부리히트」정권이 동독의 식량부족을 고백하고 있다.

동독정권이 종래부분적 식량할당배급제에서 전면할당배급으로 전환하게끔 절박한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울부리히트」기관지도 이것을 시인하여

- 1, 금년 5월이래 식육 우유·낙농품「소세지」난류의 공급부족
- 1, 지불을 위한 수출물자부족으로 식량수입재개불능
- 1, 농민은 가축증산에 힘쓸 것

- 1, 일반시민도 채원(菜園)도 만들고 가축을 사육하여 식량난극복에 협력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53년 이래 최악의 위기>

영국의「월드·투데이」지가 1961년도의 동독 농업생산은 53년이래 최악의 기록을 시현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울부리히트」정권도 최근 농업생산에 관한 숫자는 물론 거의 모든 정보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흘러나온 단편적보도는 많다. 3월9일부터 11일까지의 마구데블그의 제9회 농민대회 보고에 의하면 61년의 동독곡물 및 소채(蔬菜)의 생산은 60년의 15% 하회를 시현하고 있으며 파종면적도 감소되었다. 감자(甘藷)는 60년 1482톤인데 61년은 4만톤에도 미급이라고 보고 있다. 곡물도 600만톤 생산으로 총생산량은 200만톤이 부족으로 동독의 곡물부족은 61년에 배증했으니 이것은 중대한 위기가 아니할 수 없다.(「노이에스·도이트취란트」지 4월1일자) 또한 사료농업생산도 저하되어 가축의 조기도살이 성행되고 있으니 동독의 위기는「책코」의 유(類)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능과 태업속출>

동독의 식량위기는 지금 시작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59년부터「울부리히트」정권이 농업공영화의 강행에 의하여 농민이 토지를 포기하고 도회로 유출하거나 낙원으로 보이는 서독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농업생산도 동력이 격감된 것과 농업생산협조의 생산성이 저하된 것이다.

참고로 한다면 동독의 전국농지중에서 농업생산협조가 접하는 비중은 1952년에 3.3% 55년에 19.7% 57년 25.2% 58년 37.0% 59년 45.1% 60년 84.1%이며 협동조합과 국영농장의 양자를 합한 농지전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화의 비중은 1950년 6.0% 59년 48.1% 60년 92.0%로 동독에 있어서 농업생산협조의 제3형(최고도로 공산화된 것)의 수는 6357개 처로「울부리히트」제1서기는 제7회농민대회에서의 연설에 이상의 것에서 채산(採算)이 맞지 않는 것이 반수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적자의 공동경영에 대한 정부의 조합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여 증산을 명령했지만 농민의 공영화에 대한 반감은 태업으로 저항하고 있다.

동독에 있어서 청년의 이농경향은 현저하여 1955년도 농립업 및 어업자 총수 174만명이 59년에는 145만 60년에는 136만이었는 데 그 이후는 숫자발표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서독지에 의하면 동독 농업생산협조의 농민의 연령은 40세 이상이고 56.7% 50세에서 60세까지가 40%선이라고 한다.

<공업생산과 차관>

이상의 농업생산과 비슷하게 공업생산도 저하일로이니 1959년 13% 60년 8% 61년 6%(계획목표 7%) 이렇게 총계숫자가 제시하고 있다.

채식주의자 버나드·쇼

버나드·쇼는 1881년부터 단연코 채식주의자였다.『그렇게 고기를 안 먹으면 그 원인으로 빨리 죽게 될 것일세』 그의 친구들이 충고하자 쇼는 이렇게 말했다.『그것도 좋지. 죽으면 관 뒤 행렬에 내가 잡아 먹지 않은 동물들을 전부 참가 시키지. 사람들이 따라서는 것 보다 더 훌륭한 것일세.』

공동의 제전이 없어지자 대신 단오절이 등장하여 고대의 제명과 유속(遺俗)이 여기에 합치어 진 것 같다. 「수리」는 흔히 한자로 차의(車衣) 혹은 수의(戍衣)라고 서칭하나 이는 모두「수리」의 음훈역에 불과함으로(한자자체) 방어(邦語)의 원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수리」란 말은 우리 고어에 상·고·산·신등을 의미하는 말로 그 어원을 캐어보면「숯」모두「소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10월을「상달」혹은「상월」이라고 하는 것은 즉「수릿달」의 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그러면 오월오제(단오)을「수릿달」이라고 하면서 십월제절만은 왜 하필「상달」이라고 하였는가의 의심이 생긴다. 이것을 결국 양자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요컨대 여기의「수리」는 천신·상신(고등신)의 뜻으로 그를 맞이하여 제전을 거행하는 것으로 해서「수릿날」(신일),「상(수릿)날」(신월)이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연등대회와 팔관대회도 고대사회의 춘추이기(春秋二期)의 공동체에 연원을 가진 것으로 특히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연등·팔관의 2회는 고려일대를 통하여 기리 행한 국가의 중요한 제전이요 연중행사이었는데, 연등은 춘기(정월), 팔관은 중동(11월)에 거행하는 것으로 토속신(천명·오악·명산·대천·용신등)에 관한 제전이라고 구별하였으나 양자의 의식을 통하여 보면 그다지 다름이 없고 어느 음악과 무도와 기타 온갖 백희(百戲)를 아뢰며 군신이 함께 동락하는 동시에 소위천지신명을 즐겁

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행복을 기원하는데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그중에도 팔관회는 연등회보다도 더 중시한 듯하여 그 의식도 일층복잡하였으니 이때에는 특히 각지방장관이 글월을 올리어 하례(축하)하고 송상·왜상·동변(동여진) 서번(서여진) 및 탐라(제주도)의 사절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하례를 올렸다.

이 두 국가적 대제전은 확실히 고대사회의 공동대제인 5월제·10월제의 일변형으로 보아야하며 민간의「수릿날」과「상달」의 행사는 역시 5월제·10월제의 유풍잔속(遺風殘俗)으로 보아야 하겠다.

근조선 즉 이씨조선시대에 이르러는 유교입국의 정신적 지주에 의하여 고려시대의 연등팔관과 같은 토속신에 대한 국가적 대제전을 그 차취를 잃고 아직 민간의 유속인「수릿날」「상달」의 행사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다가 최근세 갑오경장 이후로 민족의식 민족정신이 앙양됨에 따라 대중교라는 단군숭배의 종교가 새로 생기고 거기서 특히 10월 절의 고속을 갱생시키어 이로써 단군입국의 개천절을 삼은 것은 오랜 전통에 기인한 역사적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기수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는 흔히 음력10월 초생에 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대중교에서는 10월(음)3일로써 개천절을 삼게 되었다.

일제의 멍에를 벗고 해방이 되자 그해로부터 대중교에서 시작한 개천절을 우리의 전민족적 국경일로 삼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행하여 오다가 정부 수립후에는 양10월3일로써 정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10월「상달」제의 국가적 의의는 이에 이르러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겠다.

한편 자본건설성장률도 연년 저하하고 있으니 59년(실적) 16%인데 60년 8% 61년 계획이 9%인데 실적은 3%이다. 이밖에 소매상업의 성장률을 본다면 59년 10.1% 60년 7.0% 61년 6.0%로 계획숫자에 미달하는 숫자이다. 그리고 무역편을 보면 59년 15% 60년 6% 61년 6%이다.

탈락되어있는 동독의 실정을 보다 못해 소련은 단기채무가 10억불 그밖에 작년5월「크레디트」5억불등 동독을 카바하고 있지만 이것은 홍로점설격(紅露點雪格)으로 위기는 시시각각 심화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동독은 이러한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그것은 생산의 저하란 근본원인뿐만 아니고 백립정세에 의한 정치적 긴박상태가 군사비증가를 하지않을 수 없게 하여 정치위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순사비의 대폭증가는 국민소비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작년도부터의 징병제 실시 및 동독주제 20개사단의 소련군은 동독의 뿌리부터 파먹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 말할 것 같이「책코」와 동독을 공산권의 한 예로 제시했을 뿐 언제나 폭발의 우려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공산권의 경제적 흔들림은 그것이 정치적 불안으로 반발되고 있다.

「책코」나 동독에는 정치적 위기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라는 말의 의미의 심도이다.

말하자면 이 위기의 뜻은 공산정권의 도괴(倒壞)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십월(十月)「상달」의 금석(今昔)

이병도(李丙濤)
<문학박사>

계절(Season)과 농업과의 관계가 밀접한 까닭에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자연 계절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절을 따라 부락공동체의 종교적 대제례가 행하여 신인공락(神人共樂)의 놀이를 하는 것이 통례이었다. 이것을 계절제(Season festival)라고 하는데, 계절 중에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낙종(落種)(하종)기와 추수기로서 이 양기의 제축이 성대하였던 것이다. 대개 낙종기는 농사가 시작되는 때임으로 이때의 제례는 즉 신에게 연사의 풍등을 기원하는 것이고 추수기는 백곡을 걷어들일 때 입으로 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위신(禱新)(신곡을 신에게 바치는 것)의 의를 행하기 위한 제축인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 양기 제전중에도 추수기의 제전의 의식은 더 성대하였으니, 그것은 이때 신곡이 걸우어져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일년 중의 모든 노고를 이때에 풀고 쉬고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구미 각국에서 추수감사제(Thanks giving)라 하는 것도 이러한 유의 제전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국고전(위지 등)에 의하면, 옛날 우리 삼한의 하나인 마한에서는 낙종기의 제전을 5월에, 추수기의 그것은 10월에 행하였는데, 군중이 한대 모이어(부락공동으로) 귀신(농신)에게 제사하고 가무와 음주로써 주야를 쉬지않고 즐겁게 놀았다 한다. 그리고 그 춤의 방식은 십수인이 함께 일어나 서로 뒤를 따르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손과 발이 서로 맞는 등, 그 절주방식이 마치 중국의 탁무(鐸舞)와 같았다 한다. 오늘날 전라도지방에서 행하

는「강강수월래」와 같은 것이 그 무도의 유풍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낙종기제와 추수제는 실상 마한에서 뿐만 아니라 삼한 전체, 또는 북방제사회(부여·고구려·옥저·예맥)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단 북방사회에서는 낙종기제전보다 추수기제전의 의식이 더 성대하였던 모양으로 중국고전에는 특히 거기에 관한 기사만을 보이고 있다. 즉 부여에서는 추수기제전을「영고(迎鼓)」라하여 은력정월(구력11월)에 국인이 대회(공동)하여 천신에게 제사하고 즐겁게 놀았다 하니, 영고는 즉 신을 맞이하는 「마지굿」(영신제)의 역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추수기간제전은 10월에 행하였는데, 이를「동맹(東盟)」이라 하고 동예에서도 10월에 행하였는데 이를「무천(舞天)」이라하였다 한다. 동맹은 즉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주몽)을 지칭한 것임으로, 특히 이때에는 천신화하였다고 하는 시조신을 제사하였던 모양이며 무천은 천신을 맞이하여 그 앞에서 가무를 연주하였던 까닭으로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러나 낙종기의 제전이고 추수기의 제전을 막론하고 이러한 제사의 원대상자의 방명(邦名)은「수리」라고 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후세에 5월단오 절을「수릿날」이라하여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조상에서 다례를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놀이(추천(鞦韆)·씨름·석전등)를 하며 10월을「상달」(상월)이라하여 초생에 집집이 신에게 고사하고 선조 무덤에 지체를 지내는 풍속이 있으니 이야말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5월제(하종기제) 10월제(추수제)의 유풍잔속이라고 보아야 하겠다.(단오는 본래 중국의 명절이요 우리의 그것이 아니었으므로 우리 고대사회의 5월제는 반드시 이날과 일치 하였으리라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후세에이 부락

동구파리위성국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동독의「올부리히트」제1서기이며 그 다음이「첵코」의 노부트누이 제1서기와 그 일당이라고 보겠으니 일당의 정권유지는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자면「항가리」의「마치아스·라코시」나「에리네·게레」가 추방당하고「야노시·카달」이 교체하든「노보트누이」나「올부리히트」가 추방되고 상대적으로 온화화 되거나 자유화된 정책을 쓰는 공산정책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 단계 동구공산권의 정치위기 판단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중주국인 소련에 식량위기로 인한 폭동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들은 총검의 탄압으로 강압정책만을 농사로 하고 있으니 이들 위성국에서 견디다 못하면 어떠한 사태의 반발이 야기될 것인지는 예측이 불허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 식량마저 궁지의 극지에 이르렀으니 앞으로의 정세를 주시해 보기로 하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입전된 통신에 의하면 동독에서는 식량난이 극도에 달하여 참다못한 동독군인 500여명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공산동독이 국민에게 가하는 폭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굶어서 죽으나 폭정에 의한 형벌을 받는 것이나 같으니 최후를 각오하고 일어났다는 것은 소련내의 식량폭동과 더욱 절박한 위치에 돌입할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소비에트」연방(聯邦)의「매스·미디어」

<신문(新聞)·방송(放送)·영화(映畫)>



김기점(金基漸)
<공본공보과장·공군중령>

「매스·컴퓨터이슈」가 대중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란, 그 구조와 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인 제안건(諸案件)과 지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노정(露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구민주주의제국과 그 야야상을 달리하고 있는 소련의「매스·컴퓨터이슈」는 소련사회를 구성한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에 적합되도록 조직과 기능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소련에 있어서 모든 권력과 정치활동의 근원은 정부가 아니고「소비에트」(Soviet) 공산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매스·컴퓨터이슈」에 관해서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소련의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 모든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어떻게 계획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코자 한다.

1. 「소비에트」연방의 신문

우선 신문의 발행부수를 보건데 소연방에서는 그 숫자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그러면 국제연합 통계에 의하면 1954년「소비에트」연방에는 약 8,000종의 신문이 있어 총 발행부수는 4,400만 부에 달하여 인구 1,000명당 발행부수는 205부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개개 신문의 발행부수는 확실한 숫자의 여부는 언급을 피하고 소련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다는「푸라우다」지는 소비에트 공산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확실치는 않으나 약 600만부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용어인 노서어어외의 약 80개어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으며 1947년의 집계를 보면 약 1,900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 서구민주주의제국과 비교할 수 없으니 만큼 소련의 신문은 현저한 발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나 혁명전에 비한다면 그나마 공산당과 소련정부의 이중삼중의 통제감시와 검열을 받으며 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종류와 발행부수가 그들의 수단으로서 발달해온 것도 묵과할 수 없는 것 같다.

고도로 계획적이며 조직화된 소련신문은 소련의 사회체제와 대응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해 온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아 신문의 사기업으로서의 운영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모든 운영은 공산당조직과 정부기관, 노동단체, 학술, 부녀, 청년단체와 군대조직 등 소위 근로자의 조직체에 의해 그 기관지로서 만이 운영 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업경영의 신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공산당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여하튼 소련의 신문은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고도로 교묘한 구조로서 전문화되고 분화된 양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신문은 수평적 구조로는 당과 정부의 행정적「웨달키」에 대응해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정점에 위치한「푸라우다」, 「이즈베스치아」, 「트르드」등의 전연방지가 있으며 그 밑에 공화국과 각주를 대상으로 한 지역지가 있고 지역지 다음에 지방, 도시, 공장, 농장등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이와 같은 통상적인 신문의 하부에는 전 구조에 걸친 일종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는 수십만에 달하는「벽신문(壁新聞)」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수평적 구조와 구분을 비등하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소련의 신문에 수직적으로 전문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당, 정부, 노동단체, 군대등의 기관지나 농공지, 청년지, 부녀지와 같은 직업별, 연령별, 성별등에 근거해서 특수한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있으며, 이것 역시 수평적 구분으로 단계적인 기능이 세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련의 신문이란 일반지는 존재 못하며 다만 기관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특수한 범위의 독자를 대상으로서 계획적으로 일반대중의 진정한 여론여하를 고사하고 당과 정부의 통제와 감시하에 국유화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기관지를 든다면 공산당중앙위원회의「푸라우다」지 소련방정부의「이즈베스치야」지 노동조합중앙 평의회의「트르드」지 같은 것이 있거나 이밖에 모든 소련의 신문은 당과 정부, 그리고 외곽, 산하기관과 단체등에 종속되어 기관지로서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 소련의 이러한 신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특징으로서 앞에 말 한 벽신문에 관해 잠깐 고찰한다면 일반적으로 서구의 그것과 판이한 양상으로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벽신문만은 대단한 발달을 해 온 것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 벽신문이라는 것은 소련방의 각 공장, 농장, 사무소, 학교, 군대 등의 단위로서 발행되고 있는 통상적인 신문인쇄의 연장으로서 타자(打字)(Typewriting paper) 벽지와 같은 것으로서 신문역할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 기능상으로는 신문보다도 더욱 당의 통제가 침투되어 있어「볼셰비키」(Volshebiki)의 선동자와 같이 그 영향범위로서는 대단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벽신문은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신문은 타의「매스·미디어」의 경우와 같이 공산당방침에 인한 선전자로서 또한 선동자로서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구제국의 신문내용과는 달리 소련의 신문내용을 본다면 정계동향 기타 정치활동 기사가 태무(殆無)하며 간혹 당이나 정부의 중요회의결의사항을 상보한다든가 할 뿐「스포츠」오락기사가 적은 편이고 보면 소련의 신문은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는, 상상기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련의 신문은 공산당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있으며 그 중심은 선전선동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누어본다면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즉,

첫째, 편집자들의 선택과 훈련교육

둘째, 모든 신문에 대해 혹은 특정한 신문의 집단에 대해서 내용과 운영을 통제하는 광범한 지령을 내리는 것.

셋째, 정규 감독기관을 이용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보면 소련에도 신문은 있으나 소련에 여론이란 것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든 소련의 신문은 그 면밀하고도 강력한 계획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공산당의 완전통제하 감시와 독려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뿐이고 한낱 국가기관에 의해 지명되고 선임된 편집자 그리고 검열반 고, 감독반고, 지시받는 지면구성만이 있을 따름이다.

2, 「소비에트」연방의 라디오와 TV

「소비에트」연방의「라디오」방송은 면밀한 계획 하에 공산당의 엄중한 통제로서 다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신문의 경우와 조교도 다를 것이 없다. 소련의「라디오」방송의 발자취를 잠깐 더듬어 보면 1922년 처음으로 12KW의 방송을 개시하였으며 세계2차 대전종전 이후에 비로소 많은 방송국의 설립을 보았고, 제5차 5개년 계획에 의해 1950년 이후에는 100개국을 넘직한 방송국이 세워졌다고 하며 1955년에는 소련의 수신기총수는 약 2,520만대에 달하고 있으나, 인구대 보급률은 12.82%이고보면 서구제국과 비해서 결코 발달의 진도가 신통치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잉케레스」(Inkeles, Alex)씨가 소련의 신문을 그 기능에 비추어 선전자이고 선동자이며, 또한 조직자로서 규정짓고 있다 싶이 이 점은 소련방의 방송에 대하여 적용한다하여도 실언은 아닌 상 싶다.

소련의 라디오방송의 구조를 보면 대체로 신문의 경우와 같이 3단계으로 구별 할 수 있다.

그 제1단계는 막부의 중앙방송이며, 제2단계는 각 공화국이나 주단위의 지방방송 그리고 제3단계로 하급방송이라고 불리우는 유선중계조직인 유선 중계방송소가 있다.

소련공산당의 라디오방송에 대한 사고방식은 그 구조나 조직에서만이 아니라 운영과 푸로 편성에 이르기 까지 뚜렷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라디오방송책임자에게 민중을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의 지지획득에 결과시키고 대중에게 정치정보와 정치지식의 과장증대 강인, 경제적 문화적 사회주의건설의욕고무의 수단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부과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이거 역시 서구민주주의 제국과 아주 대조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라디오」방송의 계획, 조직 그리고 운영상의 지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1933년 공산정부기관으로서 설립을 본「소비에트」전연방「라디오」방송위원회이다.

이 중앙방송위원회는 각료회의 밑에 있어 막부의 중앙방송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편 지방방송의 운영기관으로서 설립되어 있는「라디오」위원회를 하부조직으로서 이를 통제 감독하고 있다.

물론 하급방송에 대해서도 전 연방「라디오」방송위원회는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라디오」에 관한 한 이「라디오」위원회에 그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라디오」방송에 대해서도 당의 선전선동 국이 각기 단계에 대응하여 통제를 가하고 감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막부의 중앙방송의 내용을 본다면 정치방송이 20%, 음악 60%, 문예푸로 8%, 아동푸로 8%, 기타 4%의 비율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음악방송이고 다음에 정치관계 푸로의 방송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방송에 있어서는 각기「라디오」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그 방송내용의 중계방송이며 다만 극히 짧은 시간범위내에서 지방의 특수한 문제만이 자주 푸로로서 방송이 허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련의「라디오」방송에 있어서 주목할만 한 것은 역시 하급방송일 것이다.

즉 하부구조의 유선방송중계망은 소련의 독자적인 방송조직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라디오」위원회가 아니고「소비에트」연방통신성을 위시한 기타 각종 기관이며, 1947년의 상황을 보면 전유선수신기의 80%이상을 점하는 5,700의 중계서가 연방통신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전연방노동조합 중앙평의회도 많은 중계소를 갖고 있는 형편이며 기타 농업성이나 국영농장성 등도 그 중요한 운영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중계소에는 대도시에 있는 큰 규모의 것으로는 몇 개의 부중계소를 갖고 있다하며 보통 중계소는 수천대의 수신기가 있으며 적은 것으로는 100대정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소련의「라디오」방송이내「라디오」수신기의 수효(數交)를 보드라도 서구제국과 비할 때 빈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나 하급방송의 유선중계망은 대단한 발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모든 유선방송은 태반의 푸로가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의 단순한 중계이고 자주적인 방송푸로의 허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역시 부자유한 것이며 특히 청취자의 푸로선택의 자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소련의「라디오」방송이 다른「매스·미디어」와 같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가 쉬히 짐작 된다.

요약하건데, 이러한 유선중계망은 주체로 하는 소련의「라디오」방송은 그 수신이 집단청취체계인 것은 물론 청취의 지산과 장소까지도 제약을 하여 청취자의 푸로선택을 고려치 않고 있어 공산당이나, 정부기관의 선전 통제의 적당성을 이룩하도록 특수 방송푸로로서 궁국의「소비에트」체제 그자체에 적합한 일면을 점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은「라디오」방송과 관계해서 소련의「텔레비존」방송에 관하여 부언코져 한다.

우선 소련의「텔레비존」방송국의 수효를 보면 1961년도에 75국인 것을 5년후인 1966년대에는 중계국 300까지 합해서 400국여의 확장연차계획은 하고 있다는 점은 소련이 다른「매스·미디어」에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즉「텔레비존」이「라디오」보다 7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1961년도의 수상기수는 400만대인 것을 5년후인 1966에는 2,500만대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그리고 이것은「모스크」,「레닌그라드」,「기에프」,「해리코프」,「가리닌」을 중심해서 많이 시청되고 있다고 하며 계속 시설확장망을 넓이고 있는 형편인 것 같다.

「텔레비존」방송국의 규모는 대체로 일본대판(大阪)의 각「텔레비」국과 흡사하다고 보겠으며 다만 국토가 넓고 인구의 편재, 시차, 언어의 상이가 심한「소비에트」연방의 제조건으로 볼 때 일본같은 나라와는 달리 그리 간단치 못하며 미국보다 많은 난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도 말해 두고져 한다.

소련의「텔레비존」방송 역시 국가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막부의 중앙방송위원회가 있어 이 위원회가 최고기관으로서「라디오」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기구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소비에트」체제하에 있어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막부의 국내 국외방송과「라디오」의 국내 국외방송과「텔레비존」방송의 각종양편성국이 있으며 이「텔레비존」중앙편성국은 푸로편성과 정치푸로를 위시해서 각종음악연예푸로까지 전혀 7개부분의 푸로편성제작과 방송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런 흑백「텔레비존」방송에 뒤이어 소련의「칼라·텔레비존」은 1955년 그 실험의 성공을 보아 방송을 개시하였으나 1957년에는 일단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이「칼라·텔레비존」방송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금의 실정이고 보면 그나마 실험방송영역을 완전히 벗어 났다고 보기 힘들며, 물론 일반 가정에는 없고 공중집합장소와 가동용시설로서 나타날 정도인 극히 적은「칼라」수상기가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러므로「텔레비존」방송 역시 엄격한 중앙의 국가통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서구민주주의제국에 비한다면 그리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련의「텔레비존」방송도 한낱 당이나 정부의 정치 도구나 수단으로서 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둔다.

3, 「소비에트」연방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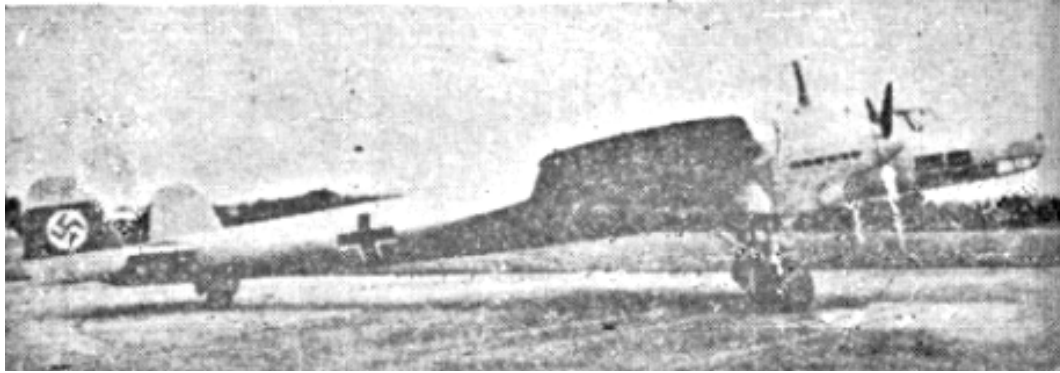
영화도 극히 중요한「매스·컴뮤니케이션」의 모체의 하나이며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존재인 이상「소비에트」연방에 있어서 타의「매스·미디어」와 동등한 비중을 갖고 있음은 물론 선전선동국을 중심해서 공산당의 엄한 통제밑에 놓여있다는 것쯤은 쉬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 한해서 그 예술적성격과 제작 및 상영시설의 발달이 불충분한 관계인지 신문이나 방송같은「미디어」와 특이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소련에서의 영화제작 및 상영을 전부 연방영화성과 그 하부조직인 각공화국 영화성관할하에 있으며, 영화성에 방치되어 있는 특별예술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타의「미디어」와 달리 완전한 국유화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기업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은 소련이 1919년 영화산업의 국유화로서 강한 반항에 직면하여 영화산업의 기한 쇠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몇해 후 국유와 협동제작조직의 설비에 얼마간의 사적자본에 의한「스타디오」(Studio)가 허가되어 어느 정도 영화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보게 된 것이라 하지만 반면 당과 정부에 의한 통제에는 금이 갔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소련이 영화제작 및 상영에 대한 국가의 충분하고도 강력한 규제와 검열은 역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영화상영시설을 보면 일반시중의 영화극장은 그리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다만 이의 보족책으로 각종「크라부」의 상영시설과 이동시설 즉, 순회영화반 조직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의「필립」제작(주료 16m/m)이 대부분이고 이 영화「필립」(98로 계속)



나치스 · 독일의「돌니에」폭격기

<항공발달사>

제이차(第二次) 대전(大戦)과 항공기(航空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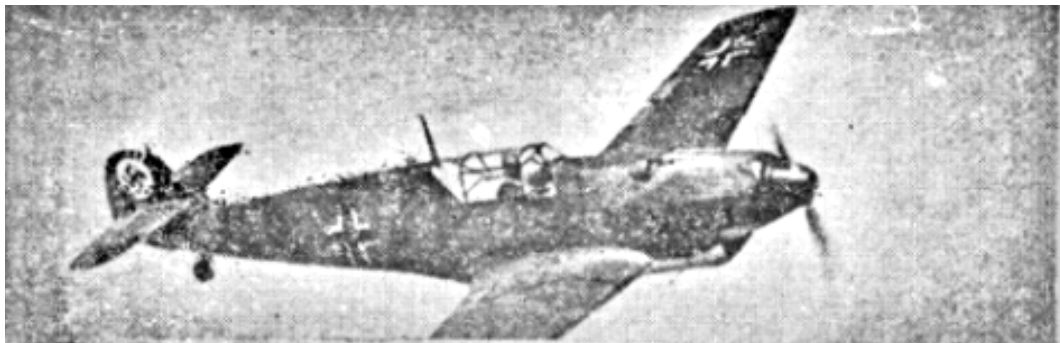
K.나이트

1930년대 말경부터 수년동안에 일반 사람들이나 학자들의 사고방식에 적어도 두 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 첫째는 1930년경서부터 항공기가 세계를 좁히고 있음을 지각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그것은 여객기가 대륙횡단의 소요시간이 5일이나 걸렸던 것을 24시간미만으로 단축해서 뉴욕에서 런던이나 파리까지 하루에 비행하게 되어 지구상 어디거나 60시간 이내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항공의 발달이 지리적 조건을 사실상 일변시킨 것이다. 그때까지 항해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간편한 멜카톨식 투영지도가 일반적으로 세계지도의 표준으로 되어 있었다. 선박이나 육상교통기관으로 남북양극을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극지를 횡단하였을 경우의 대륙간의 거리를 그다지 관계가 없고 이런 따위의 지도로도 불편을 느끼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거기에다 항공기에는 장애가 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면 산악이나 해양이나 극지의 항원에 관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날아간다. 이와 같은 요소 때문에 남북 양극을 중심으로 한 세계항공도가 새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형이나 해양은 이제까지의 지도와 상당히 다른 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멜카톨식 지도는 지도가 구상임에도 평면지표로서 표시하여 거기서는 실제로는 한 점에 불과한 양극이 적도와 같은 길이의 직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실로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이 지도는 이렇게 무리한 표현 때문에 반대측의 반구에 있는 지점과의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다. 극지 중심의 투영지도는 지구의 본모습인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지구 반대쪽의 두 개의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극지를 횡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가



나치스 독일이 자랑하던「멧사스미트」

북극지대의 횡단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측정법의 가치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 각처간의 거리를 이 지도로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극지중심의 투영식 지도에 의하면 소련의 영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북아메리카에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소련의 M.부로모프대령이 1937년에 극지대상공을 경유하여 모스크바에서 캘리포니아주 샌·제인트까지 무착륙비행에서 실제로 날은 것은 미국 동서간의 거리의 약 2배였던 것이다.

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리적인 개념은 삼시간에 근대 군사작전상에도 적합한 것이 되어 상식으로 되어 버렸다. 드디어 전란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해서 장거리 폭격기의 필요를 느꼈다. 폭격기는 탑재중량이 크고 긴 항속거리를 필요로 하여 여기에 수반해서 호위전투기도 같은 장거리 성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대한 물자나 인원을 지구상 각지에 수송하는 것도 중요한 작전의 하나로 되었다.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미국 항공부대의 수뇌부는 충분히 토의한 끝에 4발의 B-17폭격기(하늘의 요새) 13대를 발주하였으나 의회에서 예산의 삭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완성이 늦어져 1938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보다 더 제작비가 싼 중거리용중형 폭격기로 충분히 작전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그 당시 상당히 세계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기왕에 바링 6발 폭격기가 장거리 작전용으로 설계되어서 하롤드·하리스 중위가 시험비행을 하였는데 고가한 실패작임을 다음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되어 언제던지 예산삭감의 구실에 이용되었다.

관·아메리칸 항공회사는 1939년 봄부터 대서양 횡간의 여객기는 4발 시콜스키제였는데 항속거리가 이보다 길고 보다 대형이고 튼튼한 보잉기를 여섯 대 발주하고 있었다. 제2차대전 중 이들 민간항공용 수송기는 군에 징용되어 미국과 그밖에 연합국 고관 수송에 사용되었다. 그중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각료의 여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해군은 최초의 항공모함 랑그레이호 얼마간의 성공을 거둔 다음 전투기나 폭격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하여 열심히 항공모함 건조를 사두르고 있었다.

영국은 자국의 본토방위가 가능한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처럼 전쟁 이전에는 장거리 폭격기를 발전시키는데 그다지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1939년에 들어서기전에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독일이 공군력을 과도히 증강하고 있는데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독일공군은 급속히 강화되어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군기가 대량생산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독일은 구원한다는 구실



항공기의 발달로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로서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멧사슈미트 ME-109행기를 비롯하여 약간의 폭격기가 실전에 나타나 그 우수함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여러나라가 깜짝 놀랐다. 이와 같은 전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항공장교들은 독일공군이 독일군의 포랜드 진격과 더불어 인간의 재주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독일공군의 급강하폭격기는 피난민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도로 상공에 규칙적으로 나타나 급강하를 해서는 모든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하였고 또한 와루소 지구에 소위 용단폭격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철저한 공격을 받고 포랜드 공군은 거의 폭파되었으며 나머지 항공기도 연료부족 때문에 작전불능상태에 빠져 포랜드는 한 달도 못가서 항복하였다. 불란서도 항공기 준비가 충분치 못한 채 참전 하였다. 포랜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는 난공불락을 자랑한 마지노선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게으름을 떨었지 독일공군의 위협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해 이른 봄에 덴마크에 독일군이 침입하였는데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해서 여객기를 개조한 독일의 JU52 수송기의 대편대가 노웨이에 쇄도해서 다수의 무장부대를 강하시켰다.

숨들릴 사이도 없이 화란에도 독일군이 공중에서 강하하여 포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습전을 되풀이함으로써 총 폭격으로 룩셈담시는 잿더미가 되었다.

영국은 불리한 전황에 놀라면서도 불란서군 원조를 위해서 과견할 수 있는 것은 하리케인 전투기로

편성된 몇몇 중대 밖에는 없었다. 불란서로부터 많은 원군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영국은 영국 본토 상공의 방위와 영국연안지역에 밤이면 몰래 날아와서 기뢰를 투하하는 독일공군기를 막기에도 벅찰 뿐 아니라 언제 자기 본토에 독일군이 상륙할지 모르는 위협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란서에 원군을 보낼만한 여유는 조금도 없었다.

1940년 5월10일 히틀러와 문헌회담에서 교섭을 타결시킨 첼발렌이 사임하고 윈스턴·처칠이 새로 영국수상에 취임하였다. 취임한지 불과 이틀째 되는날 처칠수상은 독일군의 전차부대가 불란서 국내로 침입을 개시한다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이제까지의 침공의 수법과 마찬가지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탱크떼들 그리고 그 상공에는 독일공군기의 대편대가 차례차례로 강하해서 좁은 길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피난민들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독일군 자신의 이 가공한 전술을 전격전신의 이 가공한 전술을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술어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불란서 북단의 당켈크로 쫓겨가 있던 영국군 부대는 영불해협으로 굴러 떨어질 직전에 있어서 본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무망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영국공군은 약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이 철수를 엄호하여 이들 인양부대와 주정에 공격을 가하려는 독일군 전투기를 구축하였다. 잔존부대는 참담한 형편에 있어 불란서군 병사들과 더불어 영국으로 상륙하였다.

전국은 거의 절망적이었다. 구라파의 전 해안지대는 거의 독일군의 제압하에 들어가 영국은 북부 뉴웨이에 서 스페인 국경에 이르는 선까지 포위되어 공군과 그리고 거의 상처를 입지않은 육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그 동맹국 이태리의 위협을 직접 받게 된 것이다.

1940년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영국은 육군병력의 재편성에 온갖 힘을 기울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본토 방위는 해군과 공군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었다. 8월8일 대낮에 독일공군의 폭격기와 전투기의 대편대는 영국본토를 과상적으로 공격하여 앞으로 있을 영국 상륙작전에 대한 반격태세를 미리파괴하는 작전으로 나왔다. 히틀러와 헤루만·페링 공군상은 독일공군 부대가 최종적인 타격을 주어 전쟁을 일거에 종결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여 점령하게 있는 불란서 해안에 서서 영불해협의 피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열세한 영국공군이 독일공군으로서의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그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의 공군원수 휴·도우 딩 경은 굉장히 침착하고 조용한 인물로서 전투기부대의 사령관이었는데 스피드화이가 및 하리케인의 두 전투기와 비밀리에 쳐놓은 레이더 경계망이나 지상감시초등으로 오랫동안 걸쳐 영국 본토의 방위태세를 견고히 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완전한 훈련을 받은 젊은 조종사들의 비할 데 없는 용기를 신뢰하고 있었다. 실제 이 청년 조종사들은 꾸불꾸불한 구능이나 도바해협 단애상공 35000피트로부터 40,000피트 고도에서 수십주간 동안 우세한 독일공군과 장렬한 공중전을 해치워서 그러한 신뢰에 부응하였던 것이다.

얼마 후 독일공군은 너무나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주간공격을 단념하고 저녁때 이후의 야간공습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이더망의 경계와 영국공군의 대활약에도 불구하고 나치스·독일은 영국본토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처음에는 영불해협의 피호위선단이나 남해안의 전투기 기지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이어서 코벤티리, 푸리마스, 포츠마스, 그밖에 중요한 군수공업지대의 도시나 해군기지에 대하여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1941년 5월 독일군은 전력을 기우려 런던에 집중공격을 개시하여 동월 11일 런던은 소이탄공격을 받고 도시의 대부분이 타버린 최악의 한 밤을 세웠다. 그 밤에 연속 과상공격이 날이 밝을 무렵까지 계속되어 1, 436명이나 죽었다. 11월29일 두 번째 공습으로 성 폴 대사원은 대파되고 시내의 허다한 지역이 화염에 쌓였다.

이「영국 방위선」은 연 84일간이나 지속되었고 그동안 함께 2,375기에 달하는 독일공군기가 격파 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초기의 주간공습때 격추되었다. 영국공군의 손해도 733대나 있었는데 조종사들 대부분은 낙하산으로 무사히 강하하였다.

페링원수는 영국의 항공세력을 절멸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포랜드 그밖에 구라파 공군들처럼 일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공중의 손해가 심대하였기 때문에 독일군은 용감한 영국공군이 본토 제공권을 잡고있는 동안은 구태어 활동을 하지 않았다.

독일공군이 구라파에서 것처럼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영국본토 상공에서 참담한 패배를 맞본 것은 무슨 까닭이 었을까? 그 원인은 크게 보아서 두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포랜드·스칸디나비아 제국(단전(端典), 놀웨이, 덴마크)이나 네테루랜드는 내분 때문에 효과적인 방위태세를 펼 시기를 놓치고 불란서도 내정이 흐트러져 있었던 결과 페링의 전격작전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독일공군이 영국을 공격하려 들 때 비로소 스피드화이어나 하리케인 같은 영국전투기가 훌륭한 무장을 갖추고 탑승원의 방어가 철통같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영국 전투기는 날개 전연에 발사속도가 기가 막히게 우수한 기관총 8정을 장비하고 조종간앞에 있는 스위치 하나로 한꺼번에 발사되는 것이었다. 또한 영국항공기는 좌석 하부와 배후를 장갑판으로 방비하였으며 두께가 1인치나 되는 방탄유리가 풍방에 쓰러지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은 독일항공기인에 장갑이나 공격력을 희생해서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싸이렌을 불면서 급강하 폭격의 위력을 과시해서 것처럼 구라파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JU87 급강하 폭격기도 무장이라고는 전방에 2정, 후부좌석에 1정, 이렇게 불과 합계 3정의 기관총 밖에는 장비하고 있지 않았으니 8정이나 장비한 스피드화이어나 하리케인에 대하여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독일군의 4인승 쌍발기 JU88도 비슷한 무장으로서 기총 3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영국폭격에 사용된 하잉켈3형이나 도루니에7형의 두 폭격기는 고속을 자랑하였지만 폭탄 적재량이나 무장이 불충분하여 방어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항공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있었다. 항공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영국이 1939년까지 자국의 방위에 충분한 비행기나 조종사를 양성하여 완전한 방공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실책이었다. 영국공군은 다행히도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공군자체는 물론 일반사람들 까지도 커다란 희생을 지불 하였던 것이다.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자기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군비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국민, 그것은 영국 사람들 뿐이라고 만은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자 전투병기를 이처럼 효과적으로 사용한 몇있는 국민은 달리 없었다.

공군 중에서도 그 위대한 공헌은 거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으나 다음 두 개의 부문은 특히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특수한 기지에서 활약한 항공관제장교들이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독일공군의 내습을 탐지하여 레이더·스크린을 긴장된 눈초리로 추적한 끝에 스피드화이어나 하리케인에게 요격을 위한 이륙을 명령하고 시시각각 무선으로 적기의 상황을 전하여 요격에 적합한 곳까지 우군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 장교들 가운데는 왕왕 광범한 전투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제1차 대전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공군의 정찰부대가 가져온 항공사진을 상세히 조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복잡한 사진 가운데서 영국폭격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은폐하고 있는 군사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 사진 해독하는 일은 공군의 여군부대원들이 맡아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관독을 해치워 그녀들의 덕택으로 가장 두려워를 하던 페네펀데의 독일군 유도탄 제조의 비밀공장이나 시험장은 이내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영국본국의 사랑하는 가정이나 역사적 교회, 기념비나 건물들도 차례차례로 사정없이 파괴되고 그 위에도 막대한 인명의 손실을 받으면서도 영국국민들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갔다. 공장노동자들은 군수자재나 비행기 생산을 위해서 방공호에 퇴피하는 것도 한창 공습이 심할 때 뿐이고 경보해제 싸이렌과 더불어 뛰엄박질로 기계로 돌아와 국가방위를 위해서 힘을 다 하였다.(미국은 이동안 멀리 바다를 격(隔)해서 긴장된 가운데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단 하나밖에 없는 유품이 위기에 빠져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영감들이 있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고 하니 그릇된 설명으로 해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랑그레이기가 세계최초의 항공기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골치가 아팠던 오빌·라이트가 1903년에 키티·호크에서 날른 실물 라이트기를 1925년 쉐진톤의 영국과학박물관에다 기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전쟁 중 안전한 장소에 옮겨져서 보존되었다. 그리고 후일 무사히 워싱턴의 유서깊은 장소로 도로 가져왔다.

영국본토 폭격의 위협은 대전이 끝날 때 까지 계속되어 공포의 유도탄 V-1호와 V-2호가 런던과 그 주변지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라왔던 것인데 독일의 공격력은 현저히 감퇴되어갔다. (P54에서)

이 많이 복사되고 있는 경향을 보면 제작중력의 부족과 빈약함은 물론 아직도 외국영화나 케케묵은 현 영화「필립」이 많이 상영되고 있다는 것이 짐작이 간다.

여하간에 이러한 일바의 통상적인 영화관외에 집체설비나 순회영화반이 극히 발달하고 있다는 현실은 역시 소련의「매스·컴뮤니케이션」의 공통적인 특색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에 말한 벽신문이나 유선 중계방송망의 현저한 발달과 같이 빈약한 자원으로서는 당활동에 적응화 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영화에 대해서 공산당과 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물론 당은 선전선동국의 영화부의 치밀한 조직과 교묘한 당 요원의 배치로서 이를 중시하여 여러 가지 지령을 내리고 있으며 영화노동자회의소집 등을 가지므로서 영화의 공산주의사상과 이념의 정확성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므로서 제작되는 영화의 내용도 구체적으로「소비에트」사회체제하에서 당의 기본방침에 적합한 것이어야 존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묘하고도 계획적인 조직으로 당정책에 충실토록 그 기능이 이루어져 있는「소비에트」연방의「매스·미디어」는 놀랄만한 구두선전과 선동의 조직과 더불어 당의 목적에 따라 대중실득의 상재력이 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통제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인간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다만「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전제하고 그 원천으로 한「소비에트」사회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 할 것이다. (끝)

나를 움직인 책들



4. 최태호(崔台鎬)
5. 박목월(朴木月)
6. 백대현(白大鉉)
7. 서정주(徐廷柱)

선인의(春園)의 작품(作品)도
언젠가의 내역(內歷)도

〈국립도서관장〉
최태호(崔台鎬)



나는 대수롭지 않은 독서생활과 꽤 오랜 교직생활을 통한 경험에서 하나의 지론을 가지고 있다. 곧 사람에게서는 학생에게나 성인에게나 일생을 통한 독서지도 내지 적절한 안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의 인쇄문화는 날로 발전하고 언론의 자유는 오히려 독자의 선택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한우충동(汗牛充棟)으로 표현하던 서적의 수량은 벌써 옛말이요, 박람강기(博覽強記) 가지고는 도저히 출판서적에 대한 해결방도가 되지 않는다.

서적이란 원래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선인의 경험을 섭취하는 일종의 참고이다. 예전처럼 만인이 인정하는 경서와 명문만이 서사나 판본으로 극소수참고로 공여되던 시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국내저작물과 외국원작번역이 속출하고 거기에 출판이 상행위가 되어서 선전으로 판매되는 때에는 어느 참고에서 무엇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문제가 되고 만 것이다.

제목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것은 다름 아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독서지도를 받지 못하고 실로 남독(濫讀)에 그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남독이

그릇된 일이 아니고 누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적으로 자기를 탐구하는 의미에서 한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며, 서적 자체가 결코 만인에게 공통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길잡이 없이 일생을 남독으로 그치는 것은 인생의 낭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나의 독서생활은 벽지보통학교에서 간신이 얻은 잡지 <어린이>나 신소설 고담종류부터 시작되었으나 역시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은 중학시절에 읽은 것들이다. 이제 <나를 움직인 책들>을 회고해 볼 때 이렇다 하게 집어낸 책들만 책을 선뜻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막연한 남독의 탓이리라. 언젠가 나는 <밤 새워 읽은 책>이란 제목으로 글을 쓴 기억이 있지만 밤새워 읽은 책과 나를 움직인 책과는 반드시 같지 않다. 밤새워 읽은 만한 책은 무엇보다도 흥미와 욕구충족의 쾌감이 선행하지마는 나를 움직인 책이라 하면 오랜 시일을 두고 나를 잠재적으로 인도할 만한 영향의 결과를 가져다 준 책일 것이다.

나는 동년배의 분들은 짐작하겠지만 내가 중학 1년때가 바로 왜정(倭政) 소화(昭和) 2년인데 그 즈음 일본은 자유주의와 신시대에 대한 동경이 출판문화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을 때이다. 소위 보통선거가 처음 시행되고 따라서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봉건사회타파의 사상이 여러모로 나타나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까지도 양성화하여 활동하던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의 지금의 인생관이랄까 어느 고착된 생각을 형성시킨 책을 살펴본다면 먼저 나는 학견옹보(鶴見雄輔)의 화려한 소론이 생각난다. 그의 <소위영웅대망론(所謂英雄大望論)>은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리던 판이라 나는 그 덕택에 평소에 즐겨서 탐독하던 소설류를 집어치우고 위인전기를 손에 닥치는대로 읽고 웅변집을 뒤졌었다. 그러나 하천풍인(賀川豊彦)의 <사선을 넘어서>라는 자전 비슷한 소설을 읽고는 내가 찾는 바로 그것이라고 기뻐하였다. 그 책은 3부작으로서 대학을 중퇴한 주인공이 빈민굴에 들어가서 기독교사상을 사회봉사에 행동화하는 것인데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희열과 사회의 모순등이 상당히 감명 깊게 묘사(描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때는 이미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회의가 싹트고 있었던지 민족과 사회의 불안이 어느 모습으로나 구체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굳세지 않은 인도주의에 심취할 수가 있었다.

한편 나는 우연히 주천백촌(蔚川白村)의 저 <근대연애관>을 읽을 기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책명에 매력을 느끼고 손에 든 것이 그것은 결코 연애이상주의를 구가(謳歌)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해방, 봉건사회의 타파를 부르짖고 일본의 우열한 번벌정치(藩閥整治)와 군국주의의 진부(陳腐)를 통매(痛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의 <십자가로를 가다>와 그의 전집을 뒤지게 되었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베벨 저 <부인론>을 읽었는데 정작하게 말해서 베벨이 무엇을 썼는지 그의 유물사관적인 소론에 도무지 공감할 수가 없었다.

인도주의사상 자유사상에의 금단 과실을 맛본 나는 춘원의 소설이란 모조리 읽고, 톨스토이의 작품도 의식적으로 독파하려 하였다. 그 때는 일본에서도 깐디의 무저항주의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그의 소개가 여럿 출판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상이 아니 남는 것은 나에게 그를 이해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

나의 독서생애에서 큰 충격을 준 것은 신문에 연재되었던 <단종애사>와 <이순신>이었다. 그것은 우리 국사에 실재한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민족의식의 입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 저것 생각하며 책을 읽고 차츰 건방진 비평안이 생기자 춘원의 사상에는 어딘가 얇고 웅졸한 티가 눈에 띄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유려한 문장에는 매혹되면서도 어딘가 가식된 성자와 같은 태도가 불만이었으며 그것은 소설 <사랑>에서 결정적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한 생각은 동계의 사상이라고 보면서 톨스토이의 작품들과 언제나 비교되었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거창한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니나> 또는 희곡 <어둠의 힘>같은 거작보다도 그의 단편 <코오카사스의 죄인>나 민화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이반의 바보>등의 민화가 가장 인상 깊다. 더욱이 그가 단편에 쓴 어린이 상대의 이야기·동화뿐 아니라 과학이야기들은 나의 교직생활의 자세에 있어서도 미친 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동화 이야기가 나온 기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동화가 끼친 마음의 파동처럼 깊은 것은 없다. 그 동화의 문학적 가치가 어떠한보다도 어린 감수성이 맞이한 충격은 좀체로 가셔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화를 일부러 읽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뒤져 본 것은 톨스토이의 동화에 감명된 후이었는데 안델센의 주옥 같은 작품들과 아미치이스의 <구오레>는 교사가 될 무렵의 나에게 어떤 의지까지도 부여하여 주었다.

소화 7년(1930년)쯤은 국내에서 소위 무산계급을 위한 문학의 태동이 꽤 활발하였을 때인데 나는 그들의 작품이나 비평에서 유치한 조잡을 느꼈고 사상적으로는 반일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민족적이라거나 범인간적인 점의 공감을 갖지 못하였다. 이것은 톨스토이와 같은 준열한 인도주의사상에 몰두해서인지 모르나 여하간 안델센의 청순한 인간성·동심을 탐구하는 태도가 훨씬 구미에 당겼던 것 같다. 안델센은 간난한 빈민굴에서 태어나 판잣집 2층 같은데서 살았지만 언제나 꽃과 꽃의 요정이 함께 살아서 <사랑>을 작품과 생애에 담았지 계급문학자들처럼 웅졸하게 수탈과 착취와 중오와 갈등을 척출하여 노호(怒號)하지 않았다. 그의 <미운 오리새끼>는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희망을 주어서 일제 시대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 하는 계 시까지도 준 느낌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국내 동화지에 어느 실명씨의 작품중에 계모가 의붓자식을 확대하여 즐거운 소풍도시락에 더러운 것을 담아주었다는 것을 읽고 이것이 이른바 계급문학인가 의분(義憤)을 느낀 일도 있다.

해방 이전에 나는 국사를 권덕규선생의 교과서용 밖에 읽을 수가 없었고, 야담이나 역사소설에 나타난 사실로만 짐작할 정도이었는데 덕부소봉(德富蘇峯)의 일본 국민사속에서 충무공에 관한 사실·그것은 일본문헌에 나타난 것을 집성한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열독한 일이 있다. 청류남명(靑柳南冥)의 책에는 자아독종류의 조잡한 기술이었는데 역시 일본 역사의 대가인지라 면밀한 기록이 충무공의 편모를 나타내어서 통쾌하였다. 해방이 되자 국사를 마음대로 읽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노산(鷲山)이나 소오(小悟)의 충무공에 관한 저서를 읽고서도 그 전에 덕부가 쓴 책을 되돌아 생각해 본 것이었다. 나는 아산 뱀발 현충사를 왜정때 찾은 일이 있고 해방이듬해 다시 찾았는데 이도 독서의 여덕이 아닌가 한다.

해방이 되자 한국의 출판계는 일변하였다. 우선 국어가 해방이 되고 <한글>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국어와 한글에 관해서는 왜정때 눈여겨 익혀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의 그 두꺼운 책을 재독하여야 했고 국어에 관한 서적은 나오는대로 좌우에 두었는데 이런 전문적인 도서 이외에 지금까지 가장 인상깊은 것은 임정환국과 함께 돌아오신 백범 김구선생의 <백범일지>이었다. 자칭 리베라리즘을 신봉하던 나는 해방후

급작히 쏟아져나온 애국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냉소하는 편에 있어서 정치와는 짐짓 다른 방향에 눈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백범일지>에 나타난 선생의 소박하고도 신념에 가득찬 인간면에 단번에 반해 버렸다. 그리고 그는 결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인이라고 독단을 내려서 그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었다. 선생이 흥탄(興彈)에 돌아가셔서 그의 유구(遺稿)가 거리를 지날때는 일생에 처음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생각해 보면 <책>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백범선생을 뵈옵지는 없지만 저서를 통한 나의 감명은 아직도 생생하다. 죽기 전에 사회와 국가에 큰 공을 세울 야심보다도 그와 같은 순직한 신념 만이라도 본받고 싶다.

예로부터 독서는 꼭 권장할만한 미덕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독서가 단지 지식의 충족수단으로서 권장되어야 한다면 이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독서백편의자통(讀書百遍意自通)이라고 하지만 서적은 그 책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귀한 것이요, 또 아무리 책을 만든 사람이 귀한 정신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값어치는 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의 실천에 옮기는 일과 사색비판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안다. 그래서 책을 모두 믿는다면 책을 안읽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나왔겠고 그러므로 써 독서지도의 과정이 청소년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 아무런 의도없이 남독에서 남독으로 시종한 나머지 이제 <나를 움직인 책들>을 회고하고 보니 낫뜨거운 것이 이만 저만 아니다.



나를 움직인 책-그것은 허다하다. 어느 의미에서는 내가 읽은 모든 책이다. 내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며, 그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란 선택하기가 주저될 뿐만 아니라,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이 영향>이라는 것이 깊은 감명을 준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한 두 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책의 영향력을 측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한 권의 소설을 읽었다 하자. 읽는 당시에는 별반을 읽었다 하자. 읽는 당시에는 별반 큰 감명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체험으로서 의식하에 잠재했다가, 어느 경우에 갑자기 고개를 들고 진면목을 나타내어 우리를 가슴에 엄청난 진리를 속삭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면목을 나타낼 때까지, 무엇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는지 우리 자신도 짐작조차 못하는 것이다.

혹은 그것과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읽는 당시에는 무척 큰 감명을 받은 책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인생에 대한 체험을 쌓게 되고, 우리의 눈이떠가는 동안에 수정되어져, 끝내는 시시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그 환멸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귀한 보물을 잃어버린 서운한 느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이야기는 약간 엇길로 나가지만, 소위 양서라는 것도, 실로 막연한 개념이다. 누구에게나 합당한 좋은 책이란 좀처럼 있을 수 없다.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내게 감명을 배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참된 뜻에서 자기에게 절실한 좋은 책이란 자기가 발견해야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전신주에 이마를 부딪치는 우연한 사고 비슷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길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전신주가 병렬되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마를 부딪치게 되면 비로소 전신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나는 독서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가졌다.

자기의 전공부문이 확실히 잡히고,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規準)이 설 때까지 남독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이 또한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문학청년시절에 나는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대로 책을 읽었다.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독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안목도 없었다. 그러므로, 문학서적외에도 무엇이든 입수 되는대로 마구 읽었다.

나는 이런 남독벽을 내가 전공하려는 <시>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시간낭비>라고 스스로 반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대학강단에 서게 되니 그때의 <시간낭비>라고 여긴 <남독의 지식>이 시론을 구의(購義)함에 요긴하게 원용(援用)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체득하고 시의 세계의 심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완전히 무익한 책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은, 우리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지.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 이것은 극히 평범한 사실이면서 흔히 많은 독서가가 착각하기 쉬운 일이다. 책이란 우리가 갈구하고 모색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방심적 상태일 때는 좀처럼 <결정적>인 감동을 배풀기 어려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는 성인의 말씀이지만, 책도 <구하면 주는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을 발견했을 때의 그 가마동은 성실히 독서하는 자라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격일 것이다.

그런 책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모든 사물이 새로운 광채를 띠게되고, 내면에서

뻗쳐오는 눈부신 광명 속에 스스로 황홀해질 것이다.

× × ×

나를 크게 움직인 책 중에서 무엇보다 <아라비안·나이트>(Arabian nights)를 들어야 할 것이다. 내용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것. 셰헤라자드 왕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왕비의 사심을 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우리에게도 모든 사물의 참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풀어주었으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계에서 한량없이 <살아있는 싱싱한 세계>로 눈을 열리게한 것이다. 아라딘(Aladdin)의 마력을 가진 램프의 이상한 불빛은 그 매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의 참된 존재를 비추어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나는 이 환상을 읽음으로 <나무>는 <나무>가 아니요,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이야기를 걸 수 있는 <말하는 나무>로 화(化)한 것이다. <나무>라는 것의 영혼을 발견하고 그의 언어를 들을 수 있으며, 나는 굳어버린 모든 사물에서 그들의 생생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세계를 마련해 준 것이 <아라비안·나이트>의 영향력이었다.

즉후에 내가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상력-창조력의 신장을 나는 <아라비안·나이트>에 뿌리를 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 보다 나의 환상세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서정시인으로의 순쇄성(純碎性)을 기우어준 것이며, 그 바탕을 이루어준 것이 <아라딘의 싱한 램프>의 불빛이나, <아리바바의 40인의 도둑>이나, <신드바드의 항해>같은 동화의 세계일 것이다.

어떻든 아무리 웅색한 현실속에서도 그것을 비상할 수 있는 꿈의 날개를 붙여준 것이 <아라비안·나이트>요, 그 후로 <안데르센>의 동화들이다. 어릴 때, 동화를 탐독하고, 그것에 감명을 받은 자는 자유로운 자기의 영토를 가진,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6·9세때, 내가 감명을 받은 책은 신조사 세계문학전집에 나오는 <북구삼인집>이다. 그중에서도 <뵈르손>(B. Björnson)의 <아르네>, <신니베·솔바겐>에 심취했었다. 1832년에 태어나, 1910년에 세상을 떠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한 노르웨이의 국민작가로서 <뵈르손>의 작품은 <청춘과 연애의 묘사>는 세계문학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창조요, 뵈르손만큼 순결한 처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자는 없다.

-노르웨이의 산골짜기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녘까지 햇별이 쬐이는, 사방으로 티어있는 언덕을 간혹 보게 된다. 웅달에 사는, 햇별을 못보는 사람들은 그런 땅을 <솔바겐>(양지언덕)이라 불렀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려는 처녀도 그런 <솔바겐>에 사는, 농장도 자연히 그대로 부르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가을에는 가장 늦게 눈이 내렸고, 봄에는 가장 빠르게 눈이 녹았다.

이것은 <신니베 솔바겐>의 첫머리 대목이지만, <햇별이 쬐이는 언덕이 간혹 볼 수 있는>, 우아한 산악지방을 무대로하고, 노르웨이 농민들의 과묵한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은-끝없이 순직한 소년과 햇빛처럼 순결한 소녀의 사랑을 부각시켜 놓은 것이다.

즉, 그들의 단순하고 강묵(強默)하고 순결한 사랑은 <혼돈한 청춘감정>으로 빈민하던 내게, 하나의 구체적 인 사랑의 이상형을 보여 주었으며, 그것으로 내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깊은 감화력을 배풀었던 것이다.

20대 초기<지이드>의 말을 빌리려는 <인생의 약속기>에 들어서자 나는 <신니베·솔바겐>같은 소년 소녀들의 <정결한 꿈>으로서 막아낼 수 없는 회의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 무렵에 몇 개의 철학서적을 읽고 그것대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철학서적은 내가 터취할 것이 아니다. 그 무렵에 릴케(R.M. Rilke)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릴케가 물론 내게 편지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릴케의 충고같았다).

-당신은 지금 외부만 바라보고 계시지만 안 될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시를 꼭 써야할 깊은 목소리의 근거를 추구하십시오. 깊은 밤 조용한 시간에 내가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 속을 캐보아, 깊은 대답을 찾으려 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답이 그것을 긍정하고 <나는 쓰지 않고는 못 참겠다>라는 강하고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며는, 당신은 비로소 자기생활을 이 필연성에 따라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이야말로 아무리 하잘것없이 사소한 순간일지라도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의 표시가 되고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릴케의 말이다. 시에 뜻을 둔 내게 너무나 엄청난 성실을 요구하는-문학하는 태도에 대한 준엄한 책적이었다.

-시간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몇해 쯤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목처럼 성숙시키십시오. 수목이란 무리하게 수액을 밀어내는 일이 없이 태연자약하게 봄에 몰아치는 폭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쓸데없는 근심에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은 흡사 영원을 눈 앞에 바라보고 있듯 아무런 현념(懸念)도 없이 늠름하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한 자에게만 옵니다. 괴로워 하면서 배우고 그 괴로움에 감사합니다. 즉 인내가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릴케는 타이르면서, 그것을 다른 시편에서는 <쉬면서 성숙>하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였다. 이것은 이상한 공명과 허영에 들떠, 삶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정대던 나에게는 릴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드릴 도리 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을 어설프게 이치를 따지려 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감동을 망쳐버리기가 일수이다. <말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는 감동을 주는 위대한 말을

릴케의 편지
박목월(朴木月)
(시인)

우리에게 소화되어지는 면에서 나대로 영양을 섭취하면 된다. 이론적 체계를 세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우리는 생동하는 삶의 맥박을 우리 안에 느끼면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나의 생각이었다.

-자연 가운데 모든 것은 자기류로 성장하고 자기를 지켜서 그것만의 특수한 것들입니다. 자기만의 특수한 것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특수한 것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곤란한 것 편이 되어야 함은 확실한 일로서 우리가 자기만의 특수한 것이 되려면 곤란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참 좋은 것입니다. 고독은 곤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곤란하다 함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서게 됩니다.

릴케의 말이다. <젊은 시인에게>라는 어느 군인에게 준 릴케의 몇 장의 편지를 모은 이 책만큼, 젊은 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내게 준 책은 없다. <쉬면서 성숙하자>함은, 이 책에서 얻은 감동을 한마디로 표현한 나의 생활언조였다.

감격과 흥분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절은 이제는 나에게서 영원히 가버렸다. 틈나는대로 책을 읽기는 하나 그것은 거의 습관적이거나 하나의 향수로서 동작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책 그것 보다(책을 읽어야 하는 머릿속을) 사업과 세상사가 더 많이 접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누가 나에게 가장 좋았던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옛날 소년 청년시절에 읽었던 감동있던 책의 일들을 더듬을 수 밖에 없다.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나의 소년기도 다감하였었다. 때문에 아직도 그때의 감격스러웠던 일들이 좀체로 잊히지 않는다.

내가 점차로 커가면서 구체적으로 책속의 어떤 사항대로 행동하였다던지 그대로 모방한 뚜렷한 기억은 없으나 적어도 중대한 판단과 나의 인생의 기로에서 책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태도며 사고방식 영향 받은 것이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러한 판단과 결심의 순간은 지극히 공교롭게 마련이며 그때는 나의 마음이 약한 때여서 이때 나는 불현 듯 책에서 읽은 불사신적인 그런 주인공들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견디기 힘든 노력을 상기하고 나의 일에서 후퇴않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런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감한 시절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덕택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아직도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 책들이 있다. 요즈음에는 읽을 책도 많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으나 그때만 하여도 그렇지는 못하여 대개 좋다는 책을 돌려 읽게 마련이었다.

「암굴왕」(원형 몬테·크리스트백작)도 그때의 읽은 책들의 하나이다. 요즈음 애들의 책장에도 이 책이 꽂혀 있어서 옛날의 감회에 사로 잡히곤 하지만 여하튼 이 책의 재미는 거의 무한하였다.

「에드몬·탄테스」……이 젊은 주인공인 선원의 어굴함과 비운이 꼭 나의 그때의 감정과 결부되었던 것, 그리고 그가 무서운 고비를 이겨 넘어서 감옥을 뛰쳐나와 통쾌하게 적을 복수하고 행복하게 된 것……이렇게 나이를 먹은 오늘에도 그때 소년시절 그 책을 읽던 흥분과 의협심 같은 것은 그대로 되살아 온다. 말 하자면 그 후 나의 생활의 이상이 더러는 그「몬테크리스트백작」형과 같은 낭만적인 것을 띄게 되었다면 이 때문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는 때도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천성 낭만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런 것이 꿈 꾸지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이 요즈음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부류의 책에 속하는지 그 문학적 가치는 내가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젊은 선원의 굳은 의지, 빈틈없는 계산된 지혜, 그리고 넓은 인간성, 이것이 지금 오늘의 나에게 크게 작용하였을 것 같다.

나는 결코 특출한 재질을 갖고 태어나지 못해서 한 평생 노력만을 유일의 자산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 까닭에 내가 읽은 많은 위인전기, 입지출세전같은 것이 모두 나로 하여금「노력하라!」고 일러주었던 것 같은 기억뿐이다.

특히 재미있고 후일 나의 인생태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카네기」의 전기나「에디슨」의 이야기는 하지만 「나폴레옹」전기도 또한 읽을 수 없는 책의 하나이다. 그것은 기회와 행운과 시대가 젊은 천재를 후세의 명인 위인으로 모셔 올리는 하였으나 그때 당시 구라과 귀족들의 야유처럼 당대 갑작스럽게 이룬 명이나 권세는 오래 누릴 수 없다는 예언-그래서 사실 그들의 말 그대로 그는 그렇게 힘들여 얻은 권세를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센트·헤레나」고도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말았다. 해방 후 하룻밤 사이에 위대해진 거물 재인등에 내가 크게 존경의 염(念)을 갖지 않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젊어서 책에서 얻은 이러한 깊은 교훈의 힘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은 나폴레옹 전기속에 원 줄거리는 아니다. 「위털루」전장에서 패한 뽀나팔트 나폴레옹이 영국군 함선속에서 배신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며칠 지내다가 그 군함이 런던 템스강에 기항했을 때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배 갑판위에 나왔다. 이때 런던 시민들은 잡혀온 나폴레옹을 구경하기 위하여 항구에 꽂 차 있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갑판위에 나서자 그 많은 시민들이 일제히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목례를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첫째 런던 시민의 교양의 높이를 말해 주는 것이면서 나폴레옹의 위엄을 말해 주는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포로로 잡은 적장 앞에 순간 수많은 시민이 숨을 죽이고 경의를 표할 줄 아는 힘, 그것이 곧 대영제국의 저력이다. 내가 영국의 힘에 대한 첫 인식같은 것은 이런데서 엮을 것이다. 그보다도 이제는 한갓 나락한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하여도 어느 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존경을 받을 광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진정코 바라고 원하는 인생 목적은 여기에 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요 권세를 누리는 것도 물론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에 있어서 설혹 그것이 결과적으로 찬란한 빛을 나타내지 못했을 지라도 후일의 그 누가 그것이 후 친구든 나의 자식이든 간에 높고 깊은 해안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발견돼 주면 그것에 더한 나의 행복은 없는 것이다. 열성을 내어 한일은 설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성화에 그려져 있는 성인들의 후광처럼 어떤 형태로나도 그 인생위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지자면 모두 내가 독서에서 얻은 자본일 것이다.

나는 다른 책보다 비교적 전기같은 것을 많이 독(讀)하였던 것 같다. 여기서 내가 결론적으로 얻은 지식은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 탐험가, 사상가라고 하여도 지극히 적은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 위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습관으로는 사내가 적은 일까지 간섭하면 자랑부니 계집애같다느니 하는 이상한 일종의 대국풍의 반동심리가 있으나 전기에 나타나는 위인 호걸은 위대해진 후에도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복에 뚫린 구멍을 꿰맬 줄 아는 그런 세심성의 위인들이었다는 사실들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적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철칙 나는 이것을 책에서 배웠다.

내가 과거에 읽은 소설책 중에서 아직도 제일로 감명깊은 것은 괴에테의「벌헬름·마이스터」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편력시대」이다.

이 경전에 가까운 소설은 서양소설의 여러 풍토에 있어 왕이라면 왕이요, 이해라면 또 제일의 이해일 것이다. 동시에 괴에테정신의 모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도 바로 이 책이다.

로망·롤랑이 쓴 베토벤전을 보면 과격아(過激兒) 베토벤은 괴에테의 원만에 대해 이해를 잘 할 수 없었다 하거나 이런 베토벤적인 사람들은 이「벌헬름·마이스터」를 정독함으로써 능히 그 견해를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괴에테의 「벌헬름·마이스터」

이 책을 읽으면 서양문학사상의 시인 작가중 괴에테는 불가불 인생의 최고의 이해자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20세기시인 가운데서 우리는 라이너·마리아·릴케를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한 시인으로 말하고 또 그의「말테의 수기」를 예로 들지만, 이「말테의 수기」는「벌헬름·마이스터」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첫째 그 광폭에 있어「벌헬름·마이스터」를 따르지 못한다. 릴케를 좋아하는 우리로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느낌이다. 「벌헬름·마이스터」는 독립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은, 주인공「벌헬름·마이스터」의 수업과 편력의 영역 안에 담은 장편소설이다.

그럼 인제부터 이 책을 부분적으로 망정 맛보기 위해 거기 담긴 몇 개의 안 잊히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다.

× × ×

「마카리에」할머니는 머리가 원통이 하이얏고, 힘은 늙었어도 넉넉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통 없고, 누구의 속사정이든 누구보담도 잘 이해하는 할머니로서, 그 빙그레 웃는 웃음 앞에 오면 누구나 다 안심되며, 무슨 속사정이나 숨기지않고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된다.

그래 이 할머니를 존경해 사는 많은 남녀들은 이분을 그들의 모든 인생문제의 마지막 해결자로서 우러르고 추대(推戴)하고 지냈다. 그러나 누구나 다아 무슨 문제나 가지고 이분한테 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예워싸고 살고 있는 집단엔 한 규칙이 있었다.「마카리에」할머니 아래에는 몇 단계의 소중의 해답자들이 또 소속되어 있어「마카리에」할머니한테까지 안 가지고 와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이 소중의 해답자들을 통해 해결을 보고, 이 할머니를 빼놓고는 영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이 할머니한테 가지고 오는 규칙이 그것이다.

어린 소년소녀들의 일로부터, 노장년들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 이 집단은 해결해 갔는데, 어느 문제건 마지막「마카리에」할머니에게 오면 빛을 안 보는 문제라곤 없었다.

그런데 섬섬하게도 정말로 섬섬하게도 이 할머니는 한 뭇의 목숨을 다하고 이승을 떠서,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 있던 때를 무척 그리게 한다.

그래 이 할머니를 무척 그리던 청년 하나이, 그 그리던 나머지 에 어느밤「마카리에」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살아있을 때, 이 청년의 난문제를 어머니가

나옹전기(奈翁傳記)

백대현(白大鉉)
유한양행 사장



나옹

옷에 대리미질을 해주시듯 말척이 피우며, 늘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은채로「마카리에」할머니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더니 찬란히 빛나는 문 별들의 한가운데가 자리잡고, 땅에 육신있을 때 가졌던 지위 그대로 윈 성좌의 여왕이 되는 꿈이었다.

꿈에서 본 감동 때문에 청년은 꿈에서 바로 깨어나자, 그 꿈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 유리창가로 달려 가 하늘의 성좌들속에「마카리에」의 별의 있는 곳을 찾았다.

이 청년이 전이라고 무심결에 밤하늘의 별들을 우러러 본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마카리에승천」과 그 성좌속의 왕좌확득에 감동한 눈에 비치는 성좌들보담은 그 전에 본 것은 어느때의 것도 무의미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렇게 해 비로소, 청년의「마카리에」에 대한 경애는 성좌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한다.

× × ×

또한 이 이야기는 아마도 모든 소설책들 중에서 제일 그리운 여자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저「순례의 처녀」의 이야기다. 이 참으로 그리운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처녀는 영원을 그리웁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별로 길 것도 없는 문장으로도 이만큼큰 큰 한전형을 만들 수 있구나 감탄되는 이야기이다.

성명미상의 이 처녀는 처음, 한낮이 겨운 뒤에 어느 지방토호(地方土豪)의 장원의 수풀속의 어느 큰 나무그늘에서, 머언 도보의 노정을, 거처온 듯한 신발끝의 흙먼지를 보이며 누워 쉬고 있다.

장원의 주인이 산책을 나갔다가 발견한 이 여인은 일어나는걸 보니, 기이하게도 세상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 귀한 얼굴, 귀한 모습이었다.

주인은 여인에게 말을 걸어, 그가 정처없이 흐르는 순례자인걸 알고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한다.

이 부유한 주인으로 말하면 홀애비로서 이 넓은 장원에선 그의 누이 하나와 아직 결혼전의 아들 하나를 가족으로 해 살고 있었는데, 이 순례의 여인을 초대해 들이곤 점심을 초대한다.

여인은 한끼니의 점심점대를 유쾌하게 맛있게 받는다. 그러고선 그의 독특한 규율을 말하고, 접대에 보답할 수 있는 무슨 일을 시켜주기를 간청한다. 진 일, 마른 일, 가정에서 흔히 하는 일의 가짓수들을 주저 세며, 여인은「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대강 할 수는 있어요」한다.

그러나 주인으로서, 각박하게 밥값의 치를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 이상하게는 귀히 이뿐 순례자를 두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족한 일이었으므로「별 말씀은 다 하신다. 그만 두고 쉬시오 쉬시오」한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냥 그 값없이 남의 밥을 먹은 일은 없어, 자수나 뭐 그런 것도 없다면,「피아노」라도 한곡 쳐서 이 가족의 여흥이라도 되게 해 달라 해서, 불가불 주인의 승낙을 얻는다.

여인은 자기의 신세와는 아주 반대로 경쾌하고도 고풍한 유포어조 섞인 곡조를 쳐서 이 가족들에게 밝고도 아름다운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서러움도 웃음으로 다시 밝혀내는 곡조를 이 가족의 누구도 흉내도 못낼 만큼 능하니 능한 솜씨로 쳐서…….

그래 가족들은 다시 한결 그의 매력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며칠만 계셔 달라고 졸라대, 여인의 승낙을 마침내 얻는다. 여인은 이렇게 해 얼마동안 이 자원에 있게됐던 것인데, 그는 어찌도 일들을 시원스럽게 잘 하고, 또 언어행동을 시원스럽게 하는지, 이 집안은 이 여인이 온뒤 전례없이 잘 다스려지고 빛났다.

그런데 여기 이 집안으로선 큰 문제 하나가 일크러지고 만다. 이 집 홀애비 주인과 총각 외아들이 둘 다 이 손님을 두고 짝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

부자는 마침내는 추하게까지 대립하게 되었다.

순례의 여인은 가웃등 머리를 기울여 생각해 봤다. 그래 한 띠를 생각해 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 다음에 와 또 결혼을 즐랐을 땐 그 자신의 배를 손가락질 해 가르치며 머리를 가로 저으면서 빙그레 미소해 보였다.

이 행동은 물론「이 뱃속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닌 당신 아들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하는 뜻으로서, 아들과 치열히 대립해 있는 아버지엔겐 보면 곧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 아버지는 비로소 깜짝 놀래어, 이 자리를 영원히 비껴어 갔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연극의 거짓짓인 것이 오래잖아 알려졌다. 왜냐면, 이 미소의 연극을 이 가족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로 하고, 여인은 이튿날 날이 밝아보니 자취도 없이 살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마주 대해 서로 물어보고, 비로소 여인이 그의 친「피아노」의 유포어조와 같은 연극을 한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알게 되었다.

그래 그들의 비극은 순식간에 해소되고,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이 천사와이 천사의 영역에 대한 향수만이 우리 독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부자의 주위에 번진다.

필자 이야기, 주변도 없는데다가 또 이런 글은 경계(梗概)만으론 안되는 것이고 해서 그 진의의 일부분도 전하지 못하건 유감이었어니와, 참, 그리웁기야 그리운 여인은 이 여인이다.

피에테의「별헤를 ·마이스터」를 생각하니,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것들이어서, 두 개 생각나는 대로 적었거나와 그의 이 책은, 우리 인생의 만단사설(萬端事說)을 두고 혼자 물올데 없이 외로운 이들에게는 제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책중의 하나다.

부디 아직 안 보신 이는 읽어보시기 바란다.

방에 책이 없는 것은 몸에 정신이 없는 것과 같다.

-키케로-

장병(將兵) 페이지



제일훈비편(第一訓飛篇)

비행기와 나

〈유대정비대대〉
병장 김기용

나는 올해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 동촌 비행장에 살고 있는 맴미입니다. 우리들의 수명은 그저 여름 한철에 불과함으로 짧은 시간을 최대 한도로 엔조이(Enjoy) 해 보자는 것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관이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껏 먹고 놀고 그리고 노래부르곤하여 다른 족속들이 부러워 하면서도 심한 눈총을 받아움이 곧 우리 신세지만 하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동족뿐 아니라 또는 다른 족속들 보다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마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고 또 여기서 일생을 받쳐서라라 오늘이 바로 말복이고 보면 벌써 나의 생명도 반세기를 지나게됨에 한탄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비행기와 가까이 있는 어느 나뭇가지에 옮겨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예상 했던바 그곳에는 각 출입문마다「II급 제한구역」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가 하면 어깨에 총을 멘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각종 비행기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수많은 정비사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비행안전의 성업에 여념이 없는바 매일 안락만을 즐기는 우리들과는 달리 더위를 무릅쓰고 각자 맡은 비행기들을 닦고 기름주는 그들의 고귀한 모습을 볼 때 순간 자신 부끄러움을 금

치 못하였습니다.

우선 울렁 거리는 가슴을 안정시킨 다음에 먼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달콤한 노래 한곡을 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같으면 우리들 노래 소리만 들으면 불헛듯이 뛰어와 우리들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일이 허다한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래 소리를 듣는중 마는중 자기들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디서 다가왔는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과 같은 괴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내가 붙은 비행기위에 올라 앉드니 괴상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리는 모양이다. 어찌나 괴상한 일인지 나는 발광증이 나서 한자리에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몸을 옮겨 비행기 주위로 빙빙 돌아 보았습니다.

먼저 비행기 뒤로 돌아가니 뜨거운 불길의 광채를 내면서 길게 폼을 내고 있으며 다시 앞으로 돌아가니 마치 고래 아궁이와 같은 큰구멍에 손살같은 바람을 집어 당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 무시 무시한 죽음의 구멍속으로 팔려들어 갈려는 찰라 어느 정비사가 불현 듯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어찌나 불의 아찔하게 정신을 잃었으며 하마터면 오늘로써 내 생명을 다 할 뻔 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몇사람의 정비사들이 둘러 앉은 한 가운데 나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습니다. 잡아다 자기방에 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프 오 디(F.O.D)로 간주하여 죽여 내버리자는 말을 할때는 정말 아찔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드니 비록 F.O.D이긴 하나 이 맴미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 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날라 와서 노래까지 불러 주지 않았던가?

비록 말은 없으나 생의 애착심은 우리들과 똑같으므로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세계로 날려 보내 주는 사람의 의견에 모두들 공감한 나머지 나를 잠시 어루 만진뒤 여름의 푸른하늘 위로 날려 보내 주십니다. 이것도 한갓 안전이 아닐는지 맴땀…….

반만 열린 창문에 기대여 밖을 내다보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되풀이 하는지 모른다. 그때 투명되는 창으로 내 앞에 전개되는 경지에서 이 세상의 한가닥 사연을 풀기도 하고 비스듬히 기대어 한가한 일요일을 즐긴다.

오늘도 창가에 기대어 높은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 뭉게 이는 것을 바라보며 고향 한 명상에 잠긴다.

창은 신의 눈동자.

창은 생활의 넋.

작년에 심어둔 무궁화, 국화……

연료를 더한 화초들이 반쯤 열려진 창으로 호미이 넘겨주는 화원의 향기에 도쳐된다.

창(窓)

병장 맴미
〈군수처〉

봄이면 사뿐이 내려 앉았던 겨울의 사자 백설들이 녹아나며 춘풍에 못이 기는 듯 개나리 가지에는 얇은 경련을 일으키고 단춧던 창을 열 때 뭉그레 김이 오르는 창들을 굽어보며 한줄기 내리운 봄의 서정을 볼수 있었고 비가 내리고 여름의 폭열에 숨막히던 때 시원한 바람을 안겨주는 창.

가을이면 황혼이 어슬퍼 내리는 붉은 노을을 중시 이 창에서 바라 보았던 것이다. 더구나 백설이 천지를 엮고 건곤이 일색일 때 찬바람에 휩쓸린 설편들이 창에 부딪칠 때 이불 밑에 쭈그린 나 온종일 그대로 있고 싶지 않았는가?

진정 창은 내 마음의 길이다.

나 같이 가난한 삶에 한 가닥 여백의 경지를 주는 것이 이 창이며 내 마음 꿈결 따라 갈 곳도 이 투명한 창이다. 방직공장의 검은 연기가 나르고 우렁찬 생의 행진곡을 울리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젊은이의 대군…… 삶의 함성이 울리고 오색기를 단 생의 거센은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질투하는데 소녀의 낭낭한 독서의 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백은이 흐르는 곳 여기가 창의 세계인 것이다.

가을이면 코스모스 한 잎을 꺾어 창틀이 앉은 여인의 미소는 신경의 그리움을 질게 하리. 겨울이면 창에 서린 얼음을 바라보며『오늘은 좀 춥겠어요』라는 다정스러운 아침의 이야기도 이 창변에 흐르는 정일 것이다. 연분홍 커튼을 내리우고 숨결도 들리지 않게 익어가는『신혼』부부의 원앙꿈을 지켜주는 이 고마운 창.

창은 집의 눈.

창이 놓여진 집. 이집은 풍만한 집 동경을 가득실은 인생의 편주 붉게 물들어져 가는 창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서를 가득 실은 시나 읽었으면……

내 삶, 또 무엇을 바라졌는가?

항구(港口)의 추억(追憶)

〈부대정비대장 박용〉

벌써 떠난지 오랜 항구. 그러나 휴가때면 으레 서먹서먹한 새집보다 나의 소년시절의 꿈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이 항구를 찾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자. 떠리미, 떠리미, 막, 판다. 다섯 마리 십원!」이름도 모를 고기를 몇 마리 거꾸로 치켜들고 흔들며 대는 나이 많은 할머니 고기장수.

어쩌면 그게 생애의 악착한 품부림인줄 알면서도 그 아우성이 그림고 보고 싶었던 건 불철주야 끊이지 않는 바다의 철렁임 미미한 간 내음, 그리고 내 콧속으로 배어드는 짠 비말이 흥건하게도 정이 들어 그런가 보다.

「오시느라 수고 했습니다.」「필요, 좋아 오는건데!」「바다 구경은 했습니까?」「이제 가야죠」 탐착치 않은 도전조의 굵직한 소녀의 말이지만 그래도 그속에 도사린 포근한 동향의 정취가 있어, 그저 그렇게 무딘 언어와 불협성없는 표정이지만 통하는데가 있다.

(송도)로 넘어가는 고개에서의 ××항의 야경은 삼년전의 포구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다른 국제항으로 단장변모 되었는데는 저절로 혀가 내둘러진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뱀처럼 기인 방파제가 끼어떻게 바다속을 기어가듯 놓여있었다.

「며칠전에 Simon한테서 편지가 왔어요!」「더워서 고생이 심할텐데.」「그래도 여태 기피했던 자신이 저주스러워 독하게 일한대요!」「……………」

언젠가 영남 각대학 국문학회가「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있었을 때의 얘기다. 생전 처음 와 본다는「대구」라면서. 역구에서 멀건히 그러면서도 초초히 서있는 꺾듯이

해변 소녀가 그때처럼 반가운데 없었다.

〈부산 처이!! 말도 마이소, 우리 대구 여자들은 앙그렁쿠메〉

지독한 애항가(?)가 반박하던 말이다. 〈남자나 여자나 나처럼 건장미가 있어야 돼, 먼지만 조금 일어도 손수건을 코에 갔다대는 그런 사람들은 난 질색이니까, 저봐 치마를 등등건어 올리고 일하는 저 여자들〉

듣기에 거부했던 말이나마 꼭 참고 있다가 언젠가 모내기를 도우러 나갔을 때, 햇볕에 끄으른 얼굴이며 부젓쟁이처럼 새까맣게 타고 뺨뺨한 다리를 그나마 무눈에 버티고 었디어 열심히 모를 심고있던 어떤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귀뜸 해준 말이다.

밤이 꽤 이숙한(송도)는 새로 지은 몇층짜리 접객건물들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으나 어제까지 비가 왔던 마약 개인 일기라 찾아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철썩 짜르르, 철썩 짜르르〉 하는 파도 소리만 드높이 들렸다.

모퉁이를 돌아가려는데 길아래에서 누가 소리를 친다. 돌아보니 길아래로 바짝 불혀둔 뱀 사공이다. 배에는 수십축 전광 못지않은 가스등이 켜인 아래로 넓직한 돛자리가 깔려있다.

「“여정”이란 영화 보셨어요?」「안 봤습니다!」

그러다면 얘기가 별로 통할 것 같진 않았지만 꼭『콘도라』를 본 기분이었다. 어둑하고 시커먼 바다위에는 몇개의 가스등이 가를대고 있는걸 보아 누군가 흥얼롭게 노닥거리는 모양이었다. 여름 한철 이렇게 밤이 오길 기다려 배를 띄우고 자기 배를 타줄 손님을 앙달히 기다리는 그들 사공에게는 솟제 말못한(스탈)도 묵비해야하는 재미있는 비밀도 있었겠다.

샤르르 밀려든 물이 발끝을 간질며 스쳐간다. 그 꺾듯이 해변 소녀는 암말없이 모래바닥에 의미없는 선들을 긋고 있었다. Simon이 휴가라도 오길 바라는 거지……. 나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총총한 별과 굵실거리는 바다의 냄새. 그리고 철렁이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항구의 정과 그 소녀의 말없는 호흡에 동조되어 가슴이 빼게질것만 같았다.「어디서 환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인어의 합창 같은!」나는 소녀의 손을 잡아 나누었다.

끝-

수필

라디오

성경인(成慶麟)
〈국립국악원장〉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방송가는 인연이 깊다. 전날 아악부는 매달 한 회 정례방송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방송국에 나가는게 아니요 아악부에 앉아서 직접 중계를 하던 체제이었다.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40년으로 잡는대도 나도 비교적 그 초창기에 여기 참여한 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야 아악방송에 일익을 당하는데 불과하고 그것도 몇 달에 한번 차례가 오는 것이지만 그때 아악부에서 방송연주에 참여하면 사례중에서 50전씩을 내주었다.

방송에 끼어서 좋은 성과를 올리겠다는 특한 마음보다도 50전의 용돈이 생기는 재미가 더 끌리던 당시를 회상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에 비하면 선생 선배들이 조락한 뒤 우리들이 제법 아악부를 우이하게 만든 일제 말기, 나는 방송연주를 책임맡고 아악지휘자로 등

장한 것이니 큰 출세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1941년 여름 아악부의 부서가 개편되는 기회에 나는 방송 그밖에 꽤 여러 가지 임무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비록 창씨명이긴 하지만 달에 한번 나가는 아악방송은 이왕직아악부원주에 나의 지휘인 것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없는 지휘자는 집에 라디오가 없었다. 그러니 방송은 얻어 듣는 것보다 못들어 보는 방송이 더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럴무렵의 일을 해방후에 방송국극으로 한편 꾸민 게 있었다.

자서전같은 줄거리로 주인공이 남의 집 골뚱 뒤에서 그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악방송을 엿듣는 대목이 있다. 그 방송극에 수고하신 복혜숙여사는 그 뒤에 더러 지금도 골뚱 뒤에서 방송을 엿듣느냐고 웃음말을 하였다. 8·15 해방되고 라디오 한 대를 손에 넣었다.

일본 사람이 물리고 간 허술한 것이었으나 좋은 전기사정에 낮이나 밤, 라디오가 뽕뽕대니 초라한 집이건만 분위기만은 부자처럼 형그로웠다. 나는 또 나대로 아악해설자로 라디오에 서는 기회가 많게 되었다. 성 아무개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때 방송의 혜택이었다. 대담하다면 대담한 짓이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나와 같은 소심한 위인이 그런 막중한 임무를 선선히 맡을 수 있었던가 의아하고 있다.

주에 두 차례니 벽차기도 하였다. 지금과 같이 변방한 일과였다면 감히 말지도 못했거니와 이렇듯저렇 꾸러나 갔대도 첫째 세평이 어떠하였을까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때는 그 점은 조건이 무척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아악부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양성하던 아악생 25명이 모두 다 가 버렸고 천행으로 아악부를 사수하여 온 동료들도 구왕궁의 소극적인 경영에 회의를 품고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덩그런 아악부청사에 가구라야 고작 스톨 내외였으니 얼마나 한산하였는가를 짐작할만 하다.그런데 그것도 하루 한 차례 무슨 소식이나 없나 궁금해 내왕하는 정도요 지털나게 근무라는 성질의 본연한 것이 못되었으니 더욱 한심하다. 이런 곤고한 시기에 나는 온종일 아악부를 지키는 외로운 수위이었다.

아악해설 뒤에 몰라도 아악의 이야기만은 그것이 처음이요 나도 그중 물에 배인 이야기에서 별로 반향이 높았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해설원고를 올면서 초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과거는 과거대로 시산하고 현재는 현재대로 답답한 당시의 설음을 나는 그 해설에서 올면서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자는게 이 글의 주안이 아니었는데 탄전을 피웠다. 1·4후퇴때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도 적신으로 부산에 피난하였다. 라디오가 없기로 불편한 경황도 아니었는데 인편에 집에 남기고 온 라디오가 부산에 당도하였다.

내가 돈이 아쉬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무슨 곡절로든 나의 고물 라디오는 국악원에 놓게되고 나는 그 댓가로 얼마의 돈을 가용에 보탬 것만을 알고 있다.

환도가 되었다. 라디오를 장만할 처지가 아니다. 이주환원장이 부산에서 매상한 나의 라디오를 나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로 부족한 고마운 마음, 그뒤 이 라디오는 이내 고장이 생겨 듣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글 모두에 직책이 직책인만큼 방송과는 인연이 깊다고 하였다. 악사장인 나의 직책은 라디오를 다니듣고는 올바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방송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꼭 국악원 연주의 방송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국악방송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양악까지도 들어서 비교하고 분석하므로 국악발전 에 크게 자피하여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라디오없이 몇해를 지냈으니 충실한 직무는 아니었대도 나는 대답이 없다.

이번에도 이주환원장이 트란지스타 한 대를 특별히 구입하여 악사장전용으로 할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국악관계의 제반방송을 들으라는 특별한 배려에서인 것이다. 지금 나는 공보부에서 제창하고 있는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참으로 뜻깊은 국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나대로 감심하고 있다. 가난을 일시에 극복할 수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농, 어민에게 내일의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또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게 바로 이 라디오인 것이다. 라디오 한 대가 설마 무엇이냐고 웃는 사람은 라디오의 위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국민 모두가 즐겁고 명량한 삶을 위하여 라디오의 혜택을 가져야겠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여유있는 사람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농, 어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장만하는 장기연부판매제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이 라디오가 있어야 하겠으면서도 그것이 없어서 뜻을 잃었던 나같은 사람은 더욱 이번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느끼고 있다. 온국민의 노력으로 사랑의 라디오가 궁벽의 농어촌을 달리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무한(無限)에의 도전(挑戰) -우주인(宇宙人)의 대화(對話)-

임인수(任仁洙)
<아동문학가>

하늘과 땅이 맞부딪는 자리에 무엇인가를 위치시켜 놓고 보면 우리의 시야가 머뜨르는건 아마득한 우주의 공막감(空寞感)이다.

이러한 공막가운데 휩쓸린 때, 자기 홀로 눈 떠있는 고독을 어찌 모를 것인가. 깊은 산 어둔 골짜기에서 고요 속에 짐승들이 울거나, 사나운 바람 휘몰아치는 낭떠렁에서 이제는 발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고 포효하는 바다를 향하고 서서 처량하게 울부짖는 맹수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

<무한한 공간의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빠스칼의 발언은 시인 바레리가 한 마디 빌려 논급(論及)한 일도 있어 흥미 있거나와 실상, 무한과 영원의 영상으로 비춰진 이 침묵한 공간의 진의란 얼핏 인간의 지혜로써 속단을 내기리에는 매우 주저로웁다.

언제보나 싫지가 않은 하늘. 하루만 못 보아도 갑갑하고 그리워지는 하늘. 아무 말 한 마디 던져 주는건 없어도 생명의 원천인양 맑은 바람과 순색의 광채를 발하여 매마른 가슴에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득하게 멀리 바라보는 하늘 끝, 그곳에는 또 아득하게 어리는 푸른 산맥이 가로 놓인다.

인간의 항수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게 마련이고 또한 그지없이 동경을 품게도 하는 것이다. 알피니스트의 동경, 그것은 영원 절정의 항수라고나 할까? 파이로트의 심경도 뜻이 이 무한한 창공에의 동경이나 항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인간이 제약한 스페이스를 보담 더 확장시켜보려는 의지는 이런 자유로운 해방감에서 얻어 보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처음 내면세계로 발버둥치며 탐구를 거듭해 오던 인간은 다시 한번 외계로 눈을 돌려, 인지는 과학의 기능을 힘입어 생생한 현실세계의 절대경을 추구한다. 이것은 얼핏 양립시킬 수 있는 세계관은 못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무한에의 도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양극을 상징시킨다.

인간은 그 중간상태에서 언제나 머뭇거리고 있다. 내적으로는 심연에의 발굴을 탐색하고 외적으로는 절정에의 무한상승을 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발굴과 상승과의 성취란 미지수의 세계니 만치 반드시 일정한 코오스에 의해 기약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언제나 변화 있는 생활을 바라는 인간은 그저 순종의 자식이기 보다는 반항의 자세로서 수수께끼와 같이 풀길없는 우주의 신비에 대하여 도전하기를 즐긴다.

인간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절정에 오르려하고 심연에 파로 들리는 그 사실 자체가 불안하고 모험스러운 일이다. 신도 악마도 아닌 인간. 그런 인간이 신이, 되려하고 짐짓 악마가 되려할 때, 거기 인간과탄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선의의 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죽음과 부활은 곧 그것을 말하고 있다.

영원 신비의 생명력을 통하여 무제한 참 자유에의 길을 넓혀본 것이다. 가능의 세계에 생각이 미칠 때 우리 인간은 체력이상, 지능이상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상기하게 된다.

이리하여 지혜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인간은, 사람이면서 때로 악마도 되고 신도 되어 보려는 오만을 떨치려 한다. 격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문제삼지 않고 그저 자궁하여 보는 것이다.

이런 모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기전에 인간은 행동을 취한다. 악마가 되어보려다 자멸을 취하고, 신의 영역에 침범하려다 실낙원의 천사로 추락되기가 일수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육방인 바에야 어찌 할 수 있으랴만 우리는 그런 오만의 자리에 서기전에 지혜를 지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즉, 진리로서 조화된 창조적인 과업을 위해 아낌없이 몸을 던지자는 말이다.

지금, 시대는 전쟁을 부르고 있다. 아니 평화를 부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록

그가 자유진영아닌 다른 시계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분명 평화를 갈구하며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그가 인간이 아닌 악마라면 몰라도 그도 결국 인간인 이상 전쟁을 위한 도전만이 행위 될 수는 없다.

일찍이 축복받은 지상에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 그러지 않고서 어찌 우주에서의 대화를 바랄 수 있을 것일까. 우주인의 대화라면 요즘 신문지상에 나타난 보스토크 3호, 4호에서의 소련 두 우주인간의 대화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두어 마디의 아침인가 저녁인사의 교환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세계는 운동 통신망을 펼쳐고 이 사건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게 되었는가? 적으나마 인류사상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리라. 신기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인간, 일상의 혼해빠진 이 대화가 대기권외의 우주선상에서 있어 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세계의 이목은 그 한 초점을 향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생전 알지도 못하던 니콜라이에프와 포포비치가 떠러친 이 각광. 현대인간의 신화가 여기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아니 결코, 아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달나라에 상륙을 하고 급성에 도달한다 치드라도 그것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증명하는 것일뿐, 아직도 영원 미지수의 세계는 무한 확대 될 것이다.

도전해보라. 인간이여! 네 몸이 상하지 않는 이상, 너는 너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기에 그다지 심심치는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한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인 이상 너는 또한 상상이외로 너희 내면세계의 심연을 향해, 존재의 구극을 탐색하기에 그 위대한 노력을 저바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향해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광희에 넘쳐 날뛰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무한에의 도전은 각기 제자리에서 저마다 시도되고 있다.

그 실 엄청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것 마저 없다면 인간은 그 생존의 의의를 잃고 마는 셈이다. 모두가 엄연한 현실속에 생명이 깃들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쯤, 나에게는 다시 더 설명할 언어를 잇는다. 인간의 허영이 반드시 무용하다고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땅위의 사실들마저 그 구경(究竟)의 의미를 캐내서 밝히지 못하는 인간이건만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다시 저 새파란 하늘, 무한대의 공간속에 비상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키웠다. 지상에서 이루어 보지 못한 인간대화를 우주에서 가져보자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헛일이다. 영똥하게도 능력의 한계를 저바린 인간이 무한에의 도전을 일삼아 얻어지는 우주대화. 그것은 결국 인간의 상식적인 회화에 그치고 말지 않았는가. 그들은 다시 땅위에 돌아와 비로소 안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처자와 이웃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의 체력이나 기체의 힘이 대기권밖에서 얼마나 감내할 수 있었다는 정보로써 영웅이라는 칭호에 보답한다.

그러나 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인지와 우주질서에의 융합이라 할 것이다. 어떠한 우주인도 그 배후자들도 질서에 대한 반항이나 배리(背理)란 있을 수 없다. 그때에는 벌써 그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일밖에 없을 테니까.



고요

한승오
<동성고교교사>

변덕스러운 소나기가 가쁜 숨을 거두어 산등성이를 넘어 자취를 감추었다. 바람이 인다. 여원 가지에 제법 올라갈 줄 알 때를 익힌 어린 복숭아나무를 모질게 휘갈긴다. 한참은 냇을 잃고 몸부림만 치더니 참다못해 그렇게도 아끼던 푸른 옷을 벗어 제치고 붉게 상기된 냇을 번쩍 들어 바람이란 놈의 동가슴을 냅다 후려친다. 한번……, 두 번……。 드디어 바람이 잔다. 바르르……, 경련이 인다. 쪼개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노한 듯……。 나무라듯……。 얼른 푸른 배일 속으로 복숭아는 몸을 감춘다. 하나……, 둘……。 잎이 떨어져 이미 싸늘해진 아들들의 주검을 고히 덮어준다. 눈도 감고 입도 다문채 다소곳이 고래 숙여 동기들의 명복만을 빌며 복숭아는 아무 말이 없다.

얇은 뜰부기의 구성진 소리를 들으면서 붉게 붉게 속삭이 익어만 갔다. 한 뺨 남짓한 스탠드에 흐르는 전류를 온몸에 느끼며, 웬 일인지 팔목시계의 소리가 자꾸만 유난스러워질 때면 나는 그리운 손님을 맞는다. 삼라 만상이 고이 잠들고 귀뚜라미란 놈이 첫 선을 보일 때 나는 천하의 왕자가 된다. 그리하여 바람을 미워하고 복숭아를 가궁히 여기는 재판관 पो셔(Poşo)도 되어보고 서가에서 고이 잠자고 있는「페스타로찌나 사르프르」도 되어 본다. 그뿐이랴? 화성의 우주인도,「임격정」도 다 내 차지다.

고요! 고요는 정녕 황금이다. 이 고요속에 인생이 있고, 우주가 있고, 또 철학이 있고, 생명이 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고요는 야삼경 깊은 밤에 달 보고 흘리는 눈물도 아니요. 외로운 잠자리에서 홀로 날리는 한숨도 아니다. 그것은 정녕 깊은 바닷밑에서, 또 웅달샘 속에서, 드리워진 황금 동아줄을 타고 올라온 만세의 기쁨이다.

사람은 살다가 죽고야 마는 것이 숙명이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움직여야 하고, 죽어 가며는 모든 활동이 끝장이 난다. 느닷없이 뛰어들 불나방이란 놈이 한참 수선을 떨더니, 죽은 듯이 붙어 있다. 정녕 동은 정에 이르는 푸설길인가 보다. 못사람이 들끓는 홀에서 가만히 앉아 이 푸설길을 헤치노라면 호숫가 오두막 집에서 피아노의 건반을 두들기는 베토벤의

가쁜 숨소리도 들을 것이며 또 폭음이 고막을 찢는 비행기 속에서도 지상 200마일의 어둠속을 나르는 그렌 중령과 말을 건넌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이라? 못 인간이 입의 거미줄을 걸으려고, 또한 좀더 자기의 코를 높여 보려고 갖은 악을 쓰는 가운데 필경에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허공에 뜬 먹구름마냥 상쾌를 벗어나 때아닌 소니가와 바람을 일으켜서 죄 없는 복숭아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일도 어지간히 많다. 「고요」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준다. 내가 나를 못 볼 때 나는 참된 나의 나가 아니요, 그것은 오직 육고간의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인생을 통찰하고 관조함이 없이 맥진하는 야간 열차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보고, 어엿한 정치인이 그 눈속에서 산천만의 그림자들이 용암되어 가는 가운데 자기의 배만 채우는 현명을 가져 보기도 한다. 아무튼, 인간 세상에는 참됨을 바라고 아름다움을 기리며, 착함을 동경하는 나머지 그래서 안될 줄을 판연히 알면서도 생색과 위선이 너무나도 많다. 탈을 쓴 인생, 아니 나를 저 흰 벽에 가만히 붙여 엮어 인간을 관조하고 있는 고요속에서 불나방이란 놈이 얼마나 비웃고 있으랴? 이따금 느닷없이 날아들어 뺨을 치는 것이 인간을 응징하는 분노의 철퇴인지도 모른다. 뜰안 여원 코스모스 숲속에서 여치가 운다. 그 오묘한 소리도 나에게 어쩐지 두렵기만 하다. 가을을 불러 오는 그 소리건만, 또 고요의 웅달냄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어여쁜 여신의 따사로운 손길이라면 웬일인지 자꾸만 발길이 무거워만 진다.

꽃 향기 그윽한 봄 아침에, 또는 뺨꾸새 우는 여름밤에, 고요가 내 창문을 찾지않는 일 없건만, 가는 여름 설다고 모기 소리 가늘꺾만 가고, 귀뚜라미 푹소리가 산들바람을 불러 올 때면 나는 유달리 고요를 벗삼아 일빠진 사람마냥 테라스 벤치에 앉아 마음에 이슬을 땀뭍 땀뭍하기를 즐긴다. 겨울과 같은 달을 쫓아 향아(姮娥)와 더불어 훨훨 티없는 세계를 날아도 보고, 풀살에 맺힌 영롱한 이슬에 스며 아리따운 별래의 노래소리에 취하여도보고, 은하에 배 띄워 견우과 직녀의 안타가운 하소연을 들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깨끗한 대지 위에 던져진 추한 내 그림자에 놀라 얼른 방안으로 숨어 자리에 누운채 또 상념에 잠겨곤 한다. 정녕, 고요는 나를 위해서만 있고, 또 나는 고요속에만 사는가보다. 끝없는 번추의 바다에 파도가 인다. 산산히 부서어진 상념의 조각을, 아니 내 몸뚱어리의 잔해를 긁어모아 자리를 차고 창을 연다. 고요하다. 달도 진 어둠속에 북극성이 빛난다.

가을의 장(章)



김정철
〈학생〉

무언가 그리워지고 무언가 아쉬워지는 계절. 가난한 방랑자의 마음을 안고 달리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보내노라면 한때 피약뿔 밑에서 휘저든 못 군상들의 발자취가 무질서하게 흩어진 모래사장이며 갈적의 단풍의 잎새가 가을의 묘미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흙내와 풀내가 얽혀진 시골 내음새를 맡으면서 낙엽더미를 긁어모아 불을 붙여놓고 푸식 폭식 타는 낙엽 연기속에 젖어 있노라면 낙엽의 매카한 내음새 속에 즐거웠던 추억이랑 한아름의 환상이 질펀하게 떠 오르는 것이다. 섬돌 밑에서 울어대는 가을의 전령사는 언제 뜨거운 햇빛에 시달렸든가 싶게 반갑고 가을이거나 하는 느낌을 던져준다.

모든 사람들은 좀 덜만진 화폭처럼 애뜻하고도 가슴을 서먹 서먹하게 해주는 이 계절을 더없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기다린다. 화가에게는 시상이 잘 떠올라 좋을게고 식도락자에게는 먹을 게 많아 좋을게고 아베크 중독자에게는 서늘해서 좋을게고……. 등등을 나는 멋대로 생각해 본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좀 덜 알려진 물건 좀 덜 익은 과일처럼 가을은 인간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일년 사계절중 가을을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한다. 계절마다 저대로의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풍이 뒤덮인 잔디위에 누워서 옥처럼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한히 깊은 것 같으면서도 알아보이는 파아란 화면에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보고 또 먼일을 그려보는 것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진미요. 언제나 향수에 젖게하는 청포도며 인생의 허무 그대로를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산물이라. 그뿐인가 풀밭에 누워 땀구는 송아지가 어쩐지 서글픔을 일으켜주고 푸근히 적셔주는 창가에서 빗방울을 헤노라면 속세를 떠난 심원한 범탈경속에 빠져 들어가 나만의 세계에 도취할 수도 있고 밤부터 새벽까지 피나게 울어대는 귀뚜라미는 돌같이 무감각한 사람에게 게도 감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게다. 길가에 땀구는 가로수있는 어떤 짐승의 시체처럼 느껴지고 말없이 선 가로수 마저 무언가 서글픔에 잠겨 있는 듯하다.

기차를 타고 멀리 하늘끝까지 달리고 싶다. 아니 기차가 아니라도 좋다. 멀리 그저 끝이 없으면서도 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 저편까지 달리고 싶다. 모든 관계와 모든 그림자로부터 떨어져서 말이다.

마음이 슬퍼서일가. 가을은 분명 슬픈 음악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연의 서정곡이다. 나는 언젠가 통계학적으로 이 계절에 더 많은 자살자가 생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의식주가 떠난 계절에 비해 더 풍부한 이 계절에 왜 그럴까? 이것은 정녕 인간의 마음속으로 감상을 붙여 넣어 주기 때문이라.

춧불을 꺼라. 달은 소름이 끼치도록 파랗게 창을 비쳐 올리고 나는 또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되리라. 담배를 힘껏 빨자 저 달처럼 환하게 말이다. 청포도 알을 세어본다. 애인의 얼굴같은 포도 알을……. 알알이 깨물어 보자. 시뻘건 피가 탁. 튀어나오게 말이다. 가을밤이 깊어가면 호둑 호둑 흐느끼는 여인의 마음으로 나는 이리 저리 잠을 뒤척인다. 그리고 감상에 젖어서 박찰 수 없이 용감성이 없는 마음으로 외로움을 구가하는 것이다. 석양이 질어 가는 황혼녘에 호숫가 옆을 거닐어 보라. 붉은 노을이 되비치는 거울 속에서 인생의 고독을 맛볼 수 있고 고공을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는 앓는 애인의 신음소리보다 더 깊게 폐를 찌를 것이다. 어둑어둑 젖어드는 땅거미 속을 그저 묵묵히 거닐고 있노라면 생의 허무를 느끼면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허전함을 창자가 녹는 듯한 아쉬움을 느끼리라.

비에 젖어 메시꺼운 냄새가 나는 낙엽더미 위에 누워서 모래알을 헤라리는 소녀가 되자. 추억에서 가정이 환상을 불러 일으켜 드디어는 부서져서 찌그러지고 말라 뒤뜰어진 낙엽잎에 일으르기까지. 가을비가 조용히 창을 때리는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있을 때면 나의 마음은 뿌듯하게 그리워지는 또 후회해지는 것으로 짝 차곤 한다. 내가 자란 시골은 평안도 두메다. 그러니까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인가보다 앞집 순이는 노상 나를 어린애처럼 엮고 다녔고 나는 엄마의 품속처럼 그녀의 젖가슴을 파고들어 호뭇하게 안겨 놀든 때이다. 험한 앞산으로 우리는 줄곧 올라 다니곤 했다. 그날로 나는 무리하게 높은 바위에서 자라는 빼알장게 물든 단풍잎이 고와서 순이에게 따달라고 졸랐다. 바위가 험하고 마침 비가 온이라 단풍잎을 따러 올라 가든 순인 그 만 미끌어 떨어져서 영영 한발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 그저 무서워서 울기만 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채로 흘러 다만 전설처럼 기억속에 새겨여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후회와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철이 바뀌어 빼알간 단풍잎이 새겨 날때엔 북스럽게 느껴지든 순인의 얼굴을 잎 위에다 그려보는 것이다.

낙엽이 흩어진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헐 벗는다. 이제 이 계절이 가버리면 벽찬 생활의욕이 전신을 엄습하는 것이다. 이처럼 울고 싶으면서도 울지 못하고 무언가 이야기 하고 싶으면서도 목메어 말이 안나오는 경지. 아마도 이러한 매력이 인간의 심리로 하여금 기다려 지게 하나 보다. 베일을 쓴 반나체의 여인처럼 가을은 진정 인간의 마음을 더없이 서글프게 하고 야릇한 감상에 젖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활의욕에 벽차 안정을 요할 때 까지는 말이다.

× × ×

동서일화 죄수선(罪囚船)

이탈리아 나폴리의 명 총독으로서 유명한 오스오나가 어느 때 파르세로나의 죄수선을 순시한 일이 있었다. 총독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냥하게 물었다.

『너는 어찌해서 이러한 곳에 오게 되었는지 숨기지 말고 말해 봐』이 말을 듣자, 어느 죄수 할 것 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에 총독에게 매달려 죄의 용서를 받고자 제각기 제멋대로 진상을 말하였다. 무고를 당했다느니, 재판을 잘못받아 이렇게 됐다느니, 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눈물로 총독의 동정에 호소했다. 총독은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머리를 끄떡이면서, 『응 잘 알았다. 그러면 죄수선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 뿐이란 말이지?』하고 재차 물었다.

『네, 내, 그렇구 말구요』일동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그때, 총독은 단 한 사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흐느껴 울고 있는 죄수를 발견하였다. 『응, 너는 또 어떻게 된거냐?』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정말 제가 범한 죄 때문에 이러한 곳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될 몸입니다』그 죄수는 기운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래, 어떤 죄를 범했느냐?』네, 사실은 작년에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세 끼의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인 저는 이력저력 참을수도 있었지만, 매일 굶주림에 우는 처자의 얼굴을 보다 못하여 나쁜 줄은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 그것으로 한 때의 주림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노여움은 무서운 것으로 얼마 안가서 이 사실이 탄로가 되어 드디어 이런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마음을 세계 가지고 있었더라면 무서운 도둑질을 안해도 되었을 것을 하고, 지금 총독님이 상냥한 말씀 듣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은 죄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들고있던 스틱으로 그의 잔등을 후려 갈았다.

『이 밭살스러운 놈 같으니! 지금듣자니 여기있는 사람은 모두 무실의 죄인만 있는데 너 한놈만이 진짜 죄인이구나. 고약한 놈, 너같은 놈을 만 무실의 죄인과 같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송한 일이다. 당장에 이 자리에서 꺼져라』하고 스스로 쇠사슬을 풀어주고 당장에 그를 배 밖으로 추방하였다. 총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우며 죄수들의 앞을 떠났다. 그 곳에 있던 죄수들의 불에는 어느새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 생애(生涯)

글·그림 박내현

연료를 헤아릴 수 없는 등나무 한그루가 뜰복판에 기묘한 자세로 서있다. 꽃은 기대조차 할 수없이 수척해 지고 하루 하루 서 있는 것만도 대견하게만 보이는 노목. 때로 거치른 피부에 손을 살며시 대면 마치 숨가빠 하는 노모의 가슴 언자리를 더듬는 듯 헤아릴 수 없는 심정이다.

반쯤이나 께어나가버린 나무밑 돌레 속에는 암채없는 개미족이 집을 짓기 좋아하고 낙원이라도 발견한 듯 돌레에 담을 쌓고 가족을 늘이는데 여념이 없다. 오랜 동며에서 벗어나 다사로운 봄빛의 문안을 받으면 백록빛 움이 뽕족 뽕족 움트기 시작한다.

은근히 가져온 동절의 근심도 점차로 풀리우고 아직 살아 있다는 기쁨을 마치 먼 길에서 돌아 온 내 가족을 반기는 듯 가슴이 흐뭇해진다.

그 강인한 생명력-

몸이 으스러져도 새 싹을 위해 살아야하는 산모와도 같이 위대한 의지력이 여기에도 있는 상 싶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력을 보고 있다. 축복속에 태어난 생명력이 불행속에 살아야하는 생애와, 저주스럽게 태어난 생명이 만복을 누리는 모순말이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면 그럼 생명이란 어디로 부터와서 어디로 가는것일까? 이러한 커다란 의문속에서 한 생애는 마치 수많은 나뭇잎 모양 오고 또 간다. 얼마 되지 않아 무성한 등잎은 간곳이 없을 것이고 또 어느 새 생애가 남 모르는 체내에서 태동을 할 것이 아닌 가? 옆천에 시달린 엽록소의 퇴색이 날로 눈에 띄인다. 그러나 조물주의 다채로운 여기는 그들에게 또 한번의 편의를 확장했다. 한 생애의 마지막 단장을 등황(橙黃)으로 장식하는 계절의 향연 회상의 환희와 동면의 불안속에 떨며 저버려야 하는 황색의 비밀은 계절중의 그 어떤 것보다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단편소설(短篇小說)

갱생(更生)

홍성유(洪性裕)
그림 이순재(李舜在)

경식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흰구름이 떠도는 하늘은 가을하늘처럼 티없이 맑았다.

그는 그 푸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대견해서 커다랗게 심호흡을 했다. 폐통 깊숙이 들어 마신 공기속에 꽃향기라도 묻어 있는 것만 같아 가슴속이 뿌듯했다.

경식은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 그대로 두 주먹을 꼬옥 움켜 쥐었다. 저 푸른 하늘과 이 맑은 공기에서, 경식은 되찾은 자유를 만끽하고,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눈길을 하늘에서 내려, 곧장 뺨은 대로를 바리보자, 그는 다시금 암담한 심경에 젖어버리는 것이다.

어디로 갈까? 미상불 그것이 문제였다. 막막했던, 너무나도 막막했던 삼년 칠개월의 공백, 공백이라기보다는 공백으로 돌리고 싶은 그 삼년 칠개월이, 그의 과거의 일체의 인연을 단절해 놓은 것만 같았다.

고향은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연 없었다. 아니, 고향이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곤 사람이 있었다. 옥이었다. 그러나 옥이인들 그대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리 만무했다. 아니, 그녀가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밖에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지만, 하나치고 찾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그저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막하고 긴 삼년 칠 개월, 그동안 경식은 하루치고 오늘의 감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때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이 날을 닥치고 보니, 희망보다도 절망감이 보다 무거운 중압으로 경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다.

경식은 지금 삼년 칠개월 동안 마포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5·16혁명

일주년 기념 특사로 막 풀려 나온 길인 것이다. 자유를 찾은 기쁨과 함께, 이 자유의 첫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 막막해서 그저 유두망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경식의 어깨를 툭 치는 손이 있었다. 범수였다. 같은 감방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 온 전과 3범이라는 모사였다. 범수는 경식의 어깨를 툭 건드려 놓고는 씩, 웃었다. 「하늘만 쳐나보면 먹을 것이 떨어진다던?」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는 중야?」경식은 덤덤한 얼굴로 대답했다.

「어디루가, 어디루 가긴! 갈길은 뻐한 거야... 결국 이리로 또 찾아오게 마련이지...」범수는 교도소의 붉은 돌담을 가리켰다. 순간, 경식은 떨시라도 당한 것처럼 눈길을 고추세우며, 범수를 노려보았다.

「왜, 내 말이 틀릴 줄 알아? 넌 이 넓은 세상에 나와서도 모범수 행세를 하려 드나? 그것으로 이 세상이 통할 줄 알구? 어렵도 없어...」범수는 마른 침을 짖 내뱉으면서 응수했다. 그의 말에는 단호한 신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강렬하기조차 했다.

「넌 아직도 이 감옥속이 진저리가 나지 않니? 그래, 또 할 작정야?」경식은 좀 떨시 어린 어투로 힐난하듯 말했다.

「하지 않고는 못견디는거지... 배가 고파지니까...」그렇게 대답하는 범수의 입가에 냉소가 한층 짙었다.

「그런 짓을 하지 않고도 창자를 메울수 있는 길을 나는 찾을테야... 찾고 말테야...」경식은 결연히 말했다.

「한번 콩밥을 먹어 본 뜻대기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었겠지... 그렇지만 세상이란 나쁜 짓을 하기보다 좋은 일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거든... 결국은 여기 신세를 지게 마련이지...」범수는 천천히 발을 옮기면서 말했다. 경식도 나란히 발길을 옮기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묵묵한 속에서도, 범수의 말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거부의 힘이 뱃속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 로오타리에서, 경식은 굳이 범수와 헤어졌다. 그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다. 그와 흥계라도 같이 꾸미는 것만 같아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봐...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선불리 털지 말고 내게 찾아 오란말야... 난 결국 양동 뒷골목이 내 무대가 될거니까...」범수는 넓적한 손을 내밀면서 경식의 손을 잡고 이죽거렸다.

「너도 좋은 일을 찾아봐.」경식은 진정에서 그렇게 말했다.

「물론 찾지. 그렇지만 난 간땀이 나 처럼 세지 못해서, 보석상을 털 용기는 없단 말야...」범수의 비양거리는 듯한 말에, 경식은 힘없이 잡았던 손을 놓고야 말았다. 그 한마디가, 예리하게 그의 가슴을 찌서 놓는 것과 함께, 삼년 칠개월여전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눈가루가 흘날리는 초겨울이었다. 경식은 고향에서 올라온 준섭과 종로 뒷골목에서 많지 않은 술을 마셨다. 준섭이 전해주는 고향소식은 모두가 반가웠으나, 특히 옥이의 소식은 경식을 즐겁게 해주었다. 옥이는 요즘 결혼준비로 혼수를 장만하고 직접 바느질을 해 가며, 경식이 돈을 벌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출하면서도 탐스러운 옥이, 언제보아도 말이 없으나, 조용한 눈매에 다정한 인정이 서려 있는 옥이. 경식은 정말 옥이가 그리웠다. 술집에서 나온 둘은 종로 네거리로 빠졌다. 밤이 꽤 이슬렸는지, 폐점을 서두르는 가게가 하나 둘 눈에 띄었다. 두 사나이는 아직 문을 닫고 있지 않은 이곳 저곳의 진열장을 들여다 보았다. 경식은 본시 진열장을 들여다 보는데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준섭이 들여다 보는데로 그저 넘겨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보물상 앞에 서었다. 무심히 진열장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경식에게 준섭이 나직히 물었다.

「너 분이에게 반지 사다 주었?」경식은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여자에게는 반지가 제일야... 그렇지만 우리 같은 놈은 턱도 없지... 저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뭔지 알아? 다이아야... 요놈이 알렉기산더, 요건 흑진주... 이것이야...」준섭은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지 열심히 보석의 이름을 외고 있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경식은 막연하게, 저 반지들을 옥이의 손가락에 끼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놈의 유리창을 깨고, 살짝 걸어 갔음 좋겠네.」경식은 무심히 중얼거렸다.

「한번 해 보자우?」경식의 독백과 같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고 준섭이 번뜩거리는 눈으로 물었다. 경식은 마른침을 꿀켜 삼켰다.

「알지? 내게는 이 놈이 있어...」준섭은 허리춤을 마저 보게 했다. 무겁고 딱딱한 물체였다. 권총, 권총... 경식인 이유없는 전율을 느꼈다. 때마침 보석상에서 폐점을 서두르며, 철문을 두르려거리며 내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힐끗 쳐다보니 가게 안에는 안주인 듯 싶은 부인이 혼자 앉아 있고, 철문을 내리는 것은 부리는 아이인 듯 싶은 중학생 티의 소년이었다. 경식과 준섭은 얼굴을 마주쳐다 보았다. 오고 가는 두 시선에 번뜩 거린 불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중의 합의이며, 신호등이기도 했다. 주위를 살폈다. 공교롭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인적이 없었다. 그러자 지체없이 날센 몸가짐으로 준섭이 먼저 점내로 뛰어 들었다. 점내로 뛰어드는 준섭을 보고 경식은 알 수 없는 흥분상태를 느꼈다. 그리고 그 흥분은 그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뛰미쳐 그의 뒤를 따랐다. 준섭은 벌써 권총을 뽑아 들고 있었다.

「빨리 철문을 내리고, 그리구 꼼짝도 하지 말란 말야... 알지?」준섭은 몹시 침착하였다. 총구의 위협 앞에 두 사람은 그저 오돌오돌 떨고만 있었다. 경식은 만사가 이처럼 순조롭고 간단한데에, 스스로 감탄을 했다. 두 사나이의 기습은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준섭의 하숙집에서 경식은 S 보석상의 강도 기사를 읽으며, 또다시 간밤에 보석상에 뛰어들기 직전에 느꼈던 흥분과 같은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용기 대신 양심의 가책과 불안의 빛이 더욱 짙은 것이었다. 그리고 경식의 불안은 적중하고 만 것이다. 이 무계획적인 강도행위는 불과 하루만에 드러나,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만 것이다. 경식은 그 보석반지로 옥이를 기쁘게해 줄 수 없는 것이 그저 서운할 뿐 이었다. 교도소에서 풀려 나온지 일주일, 경식은 세종로 극장 앞에 쭈구리고 앉아서,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바라보는 시선에 맥이 없었다. 지금 경식은 완전히 지쳐 있는 것이었다. 혼자 힘으로 갱생해 보겠다는 것은 그저 모범수의 독백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이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한 것이거든...」

「하지 않고는 못견디는거지... 배가 고파지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봐...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선불리 털지 말고 내게 찾아 오란말야...」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그렇게나 자신있게 말하던 범수의 말이 눈앞을 오락가락했다. 저 많은 사람의 물결...; 오월의 향연속에 젖은 희망어린 사람들의 맑은 얼굴...; 저 무수한 맑은 표정 속에 왜 경식은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갱생하려는 자기의 진심조차, 병균처럼 두려워만 하는 것일까?(결국, 또 찾아가야 할 곳은 그 지긋지긋한 교도소 밖에 없단 말인가?) 경식은 어이없는 고소를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 아래가 맥이 없었다. 띄엄띄엄 옮기는 걸음거리가 디축디축 무너질 것만 같았다. 경식은 지금 두끼를 굶고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나온지 불과 일주일, 일주일만에 벌써 끼니를 굶어야 하는 자기의 인생이 죽고 싶도록 서글퍼지는 것이다.

「난... 결국 양동 뒷골목이 내 무대가 될거니까...」마지막 일러놓고 돌아섰던 범수의 얼굴이 자꾸자꾸 떠올랐다.(결국은, 결국은 그의 말이 옳았나 보다) 경식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의 앞으로 다가서는 하얀 물체, 하얀 물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두사람이 다가서고 있었다.

「어구메... 이거, 경식이가 아이가...」

「그리게... 이게 어찌된 일여?」향토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말에, 경식은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 앉을뻔 했다. 바로 고향의 같은 마을에 사는 권참봉과 김서방이었다. 경식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꼬박 고향에서 나서 고향밖에는 모르는 그들이었다. 언제나 흙투성이의 배잠방이를 입고, 지계를 메고 다니던 그들을, 이 넓은 서울바닥에서 만나 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이게 웬일들이죠?」경식은 뒷걸음치듯 했다.

「이게 참말 경식이 아이가... 감옥소에서 나온다카는 말은 들었지, 으째 이러구 있데여...」권참봉은 경식의 손목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어떻게, 어떻게 서울에 오셨어요?」경식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지지러진 목소리였다.

「생전 처음 서울 구경 왔재... 박람회 구경 안 왔나...」김서방도 물색없이 커다란 입을 활짝 드러내놓고, 싱글거렸다.

「마, 마침 잘 안됐나? 서울길을 몰라서 혼이 났는데...; 함께 서울구경 하자구...; 그리구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자구...」권참봉은 잔뜩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다.

「고향에?」

「암마! 이제 농촌도 살게 안됐나... 이제 다들 일할 보람을 찾았거든...」

「왜, 우리 마을에 늪이 있지 않아? 메기꼴 늪 말이여... 그 늪을 지난 겨울 내내 메워 개간했지... 이제 그 늪이 됐거든...; 우리 마을사람들끼여...; 경식의 뚫도 옥이 앞으로 달아 놔 있재... 이제 곧 돌아오면 알뜰한 살림을 꾸밀끼라구, 춘 겨울에도 앞장 서 개간 안했나...」김서방이 득의에 찬 얼굴로 설명했다.

「우리 후박 구경허구 빨리 가자구...」권참봉이 힘있게 경식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것 보라지... 참 서울구경 잘 왔지... 이렇게 경식이기도 만나고...」경식은 두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눈앞이 아물거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퉁이 터진 것처럼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이었다. (끝)

간첩(間諜)666(Three six)호(號)

유기영(柳起英)
그림...이순재(李舜在)

완전히 죽어서 시체해부까지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
물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했다 하더라도 해부까지 한 사람이 되살아나다니?

어쨌든 내가 알기에는 그 아름답고 젊은 여대생이라는 김희자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내 눈앞에 엄연히 나타났으니까 말이다. 그는 지난 여름방학때 경주시 어느 사과밭에서 누구인가에 살해당했었다. 내가 왜 이 사건을 잘 아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도 내가 그를 죽인 유력한 용의자의 한사람으로 지목되어 당시 경찰에 구금까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당시 나는 경찰관에 끌려 현장을 보았다. 거적대기로 덮여둔 그 여자의 죽은 얼굴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S대학에 시간 강사를 맡고있는 나는 경찰에서 석방되자 즉시 상경하여 집에서 하루를 쉬고 이튿날 해질 무렵때 시내에서 모교수를 방문하고 그 길로 학교에 나가기 위해서 동화백화점 앞에서 합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이다. 이때 바로 옆에 서 있는 어여쁜 젊은 여자

앗!

경주의 그 사과밭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그 김희자가 아니가! 나는 침 내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여자였다.

그는 나를 못 보았는지 보고도 모른체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재빨리 올라탔다. 그리고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나를 바라보는 상긋 웃지 않는가. 그는 내가 나타나자 나임을 알면서도 모른체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그는 차가 떠나자 나를 보고 살인적인 그 미소를 던진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그가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저렇게…….

2

나는 먼저 그 기괴한 경주 살인사건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나는 경주관광 호텔에 들어 있었다. 대학의 시간강사를 맡고 있는 나 따위가 하루에 3만환식이 달아나는 고급호텔에 들 팔자가 못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마는 내가 그 호텔에 들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 달전에 정부당국으로부터 경제정책의 입안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작성을 의뢰받고 그 원고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거기 나타나는 자료는 비밀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당국에서는 여름방학 동안에 완결할 것을 요구하며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니 경주 관광호텔에서 일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고급호텔에서 난생 처음으로 호강을 해보는 팔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 호텔에는 하루에 5만환짜리 방도 여러 개 있었다. 이것은 특호실이고 내가 들어있는 방은 1등 5호실이었었는데 바로 옆방인 6호실에 그 문제의 여자 김희자가 들어 있었다. 특호실에는 1호실에 프랑스의 항공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 있었고 5호실에는 미국인 목사, 9호실에도 미국인이 들어 있었다. 이 9호실의 미국인은 나이가 젊고 미남자이며 샌프란시스코에 본점을 가진 모 무역회사의 한국 주재원이었다.

내가 그 문제의 여대생 김희자를 처음 본 것은 내가 호텔에 투숙하던 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갔을 때 그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안락의자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그 첫 인상이 나로 하여금 감탄사를 나오게 하였다는 것은, 세상에는 물론 미인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 하는 감탄사다. 예쁘다는 것도 그 유형이 여러 가지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용모가 요부처럼 생긴 얼굴, 무식하게 생긴 얼굴, 마음이 히프게 생긴 타입, 어딘가 가까이 할 수 없고 가시를 품은 듯한 얼굴, 이밖에도 많다. 아무리 얼굴이 미인으로 생겨도 그 여자가 지닌 지식, 덕성, 교양등 정신적으로 요소가 구비되어 그것이 그 얼굴과 융합되 기란 극히 어렵고 사실상 그러한 여성이란 산신이 일부러 견본삼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없을 것이다. 현대 이 여대생은 산신이 견본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미인이었다. 그는「라이프」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못생기기로 이름이 높은 내 시선이 자꾸만 그 여자에게로 쏠리니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다. 이같은 나의 시선을 글여자가 모를 리 없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자가 나를 보고 상긋 웃었다.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없는 것 같은 그 매혹적인 미소! 그러면서도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 인제라도 친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근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 웃었다.

내 나이는 이제 서른 다섯이지만 이마는 대머리고 코는 매코가 되다가 만 넘적코이고 턱은 얼굴만치나 길고 거기에 수염이 밀집해서 나를 좋다고 생각할 여자란 매춘가에도 없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 터인지가 그가 나를 보고 웃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내 자신 끌려 썩어 웃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그처럼 그는 매력적이면서도 그처럼 그는 남에게 친근감을 주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교양이며 덕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튿날 남하에서 서루 지나칠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단정한 자세로 서서 고래리 까딱하고 인사를 했다. 뜻밖의 일이라 이때 나의 당황함이란 누가 보았으면 웃음꺼리였을 것이다. 『선생님, 저 S대학에 나가시는 박우중 선생님 이시죠. 전, R대학 영문과예요』여자는 인사를 한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가 대학생이라는 말에 나는 더한층 친근감을 느꼈다.

『저를 아시오?』

『네, 침 뱉지만 잘 알고 있어요. 저 김희자예요』그리고 그는 바로 내 옆방인 6호실에 들어있었다는 것과 아버지가 서울에서 알만한 큰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도 말했다. 4, 5일이 지나자 나는 김희자를「미스김」부르게 될 만큼 친밀해 졌다. 함께 식사도 하고 시내다방이며 고적을 산책하기도 하고 단 둘이서 사과밭을 거닐기도 했다.

『선생님, 중요한 글을 쓰시는데 방해가 되겠어요』그는 내 방에 들어올 때면 내가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태우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말했다. 한번은

『아니, 이렇게 누어 있는데』하고 내가 일어나니까 그는

『주무세요 가겠어요』하며 나가다가 나는 돌아보고는

『허지만 자꾸 선생님 방에 오구파서』하고는 불이나케 나가버렸다. 나는 멍하니 그가 나가버린 도어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해질 무렵 사과밭을 들어서 산책할 때였다.

『선생님, 아직 젊으신데 머리가』하고 내 머리를 쳐다 보았다.

『젊다뇨, 내 나이가 사십이 훨씬 넘었는데』실상 누구라도 나를 그렇게 보는 터이다.

『거짓말, 방년 35세』하고 미스 김은 상긋 웃었다. 아니, 이 여자가 남의 나이를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따치는가? 여자란 남자를 보는 눈이 따로 있는가? 어쨌든 내 나이를 사실대로 젊게 봐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다.

『미스 김은 학교를 마치면?』

『여자는 결혼을 해야죠』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역시 윗게 된 여자다라는 만족감에서 였다.

『어떤 행운아일까 미스 김의 남편이 되는 남자는』그런데 내가 약간 놀란 것은 그의 표정이 매우 쓸쓸해 졌다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풀이 죽은 듯 잠잠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상긋 웃으면서,

『선생님 같은 남성을 찾아야겠어요. 꼭 선생님과 같은』

하고는 또 샅긋 웃어 보였다. 이때 만일 내가 대머리에 넓적코에 바소구리 입에 털보 못나기로 자부하는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닳자긋 그를 힘껏 껴안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나는 오히려 그의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약간 불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미스김, 나는 추남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놀려먹어서야 되겠소?』 그런데 화를 낸 것은 내가 아니고 도리어 미스 김이었다. 그는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얼굴이나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줄 아세요. 오해예요. 여자는 예뻐야 할지 모르지만 남자는 미남자는 실은 남성적이지 아니구 어느 편이고하면 여성적이에요. 전, 선생님의 성격이 좋아요. 정말 선생님은 신사예요. 정말 정말……』이쯤되면 내 몸 둘 바가 곤란하다.

『이렇게 칭찬을 듣구 가만 있을 수 없죠. 내가 한턱 내야겠습니다.』 나는 엄버우려 웃어넘기며 재빨리 걸어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대로 마주 보고 섰다가는 이 못난 사내가 그를 덮석 껴안고 키스라고 할 위험한 고비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 김은 어느 새 친했는지 9호실의「존·존슨」이라는 그 미국인과의 때때로 농을 하면서 정답게 지내고 있었다. 「존슨」은 정말 미남이고 젊고 유쾌하고 명량한 농도 잘하는 남자였다. 그도 미스 김을 좋아하는지 곧잘 미스 김의 도어를 노크하는 것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가자졌다. 소곤대는 말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미스 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야 그들이 웃어대건 소곤대건 내가 알바 아닌 일이다. 현대도 나의 마음에 언짢은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히 내가 적어도 가벼운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미스 김이 나에게 대해주는 태도란 꼭 애인만 같으니 그 질투심을 내 자신이 그처럼 의식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힘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나는 미스 김과 지내고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서울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아내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약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이날은 아마 금년 들어 최고의 더위였을지도 모른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원 숲 속에서 미스 김과 존슨이 나란히 앉아서 그것도 미스 김이 존슨의 손을 잡고 무엇인가 소곤대고 있는 광경이 내 눈에 띠었다. 이때 내가 놀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정감게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전신을 휘감는 불덩이 같은 내 질투심이었다. 내가 여자로서 인해서 이처럼 질투심을 느껴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미스 김은 나를 보고도 못본 체 얼굴을 돌리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이날 오후 정말 죽을듯한 고통을 겪었고 그 이튿날 밤엔 그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3

이날, 호텔 안은 냉방장치의 덕분으로 오히려 추울 지경이지만 바깥은 화씨 79.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온 천지가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들끓고 있는 열두시경- 나는 마지막 대목의 원고를 쓰다가 말고 김희자라는 여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풀이하고 있노라니까?

『선생님?』 하고 미스 김이 노크를 했다. 어쨌든 반갑기 그지 없다.

나는 얼른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조금전에 이발을 했기 때문에 대머리는 도리가 없었지만 수염은 말쑥이 깎아서 샷과판 자욱이 마치 막 순을 내뿜은 모자리터처럼 시선한 맛이 있다. 이렇게 이발을 하고보니 자부할 정도로 못생긴 얼굴은 아닌상 싶다. 혹은 미스 김이 사과밭에서 했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어를 살머시 열고 샷분 들어서는 미스 김! 아아 하나님 맏소서. 말끔한 수영복 차림의 그의 요염한 자태! 나는 여기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매혹적인 육체를 묘사하는 것을 단념하겠노라. 단지 바라는 것은 당장 이 방에서 물러나 달라고 웨치고 싶을 뿐이다.

『선생님, 이 수영복 어울려요?』 어울리느냐고? 누구를 어쩌자는 것이냐? 사람이란 누구나 대개가 그렇거니와 나도 못난 내 자신을 그래도 점잖은 체 해야만 했다.

『나이스, 천하의 미인입니다.』

『어머나.』

『바닷가에라도 가야겠군요.』

『네, 지금 곧 가요. 포항에 가겠어요. 선생님 안가시겠어요. 전 함께 가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가는 분? 내가 아니고……. 막, 이때 존슨이라고 그 미국인이 문밖에 나타나서 나에게 목례를 하고

『미스 김』하고 불렀다.

『그럼, 선생님 다녀 오겠어요.』 미스 김이 총총걸음으로 나가자 2,3분도 못되어 옷을 갈아 입은 미스 김과 존슨이 간단한 차림으로 나를 보라 합시는 듯 내 방 문앞을 나란히 지나간다. 나는 이끌려 그들이 나서는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존슨이 운전하는 세단형 고급차 운전대에 나란히 앉아 차가 미끌어지는데 존슨을 바라보며 멋있게 웃어주는 미스 김의 얼굴이 똑똑히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마치 혼을 빼인 사람처럼 떨끔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야 미칠듯한 질투심에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쥘다. 나는 이날, 한줄의 글도 쓰지 못했다. 또 이날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포항을 간 그들은 밤 늦게야 돌아왔다. 6호실에서 처음은 소곤대던 미스 김과 존슨의 대화가 어떻게 된 셈인지 점점 큰 소리로 변하더니 마침내 성을 낸 미스 김의 말소리가 내방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영문은 알 수 없으나 싸움에는 틀림이 없었다. 이또한 어떻게 된 셈인가?

어쨌든 내가 관여할 꺼리는 아니다. 내가 확신을 얻게 된 것은 여기서의 내가 방금 하고있는 중요한 일, 정 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료작성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날이 썰 무렵에야 스스로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열두시나 되어서 간신히 잠이 깨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나는 보이를 불러서 서울에 전보를 치게 했다.

『명26일 하오2시 서울도착』 그리고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간밤에 나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 이 호텔에서 부질없는 짓을 그만두기로. 짐을 꾸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짐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추렁크 한 개에 옷 가지를 챙겨넣고 원고봉치를 간주려 넣으면 된다. 추렁크를 챙기는 것을 본 미스 김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보였다.

『선새님, 떠나세요.』

『네.』

『갑자기 떠나시는군요. 무슨 일이라두 생겼어요?』

『아뇨. 예정대로 가는거죠.』 내 말소리는 좀 통명스러웠다.

『저두 2,3일 내루 떠나겠어요. 어쩌면 저두 내일 떠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는 미스 김이 떠나게 되리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실컷 놀다가 가시지. 좋은 친구두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존슨을 두고 빈정대는 말이었다.

『존슨 말씀이죠?』 턱없이 강짜부리 짚아요. 정말 더 상중하다간 살인이라두 날것 같아요. 죽기 전에 가야겠어요.』 마침 옆에있던 보이가 이 얘기를 듣고 싱그레 웃었다. 아마 강짜가 대단했는지는 모르나 그만큼 강짜부릴 이유가 있겠지. 나는 내일 아침차로 이곳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유쾌해졌다. 어디 오늘 하오에는 해방된 기분으로 시내나 한바퀴 둘러봐. 나는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시내로 나갔다. 어쩌면 외국에 온 기분으로 다방 구석자리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노라니까 뜻밖에도 미스 김과 존슨이 썩 들어섰다. 나는 얼른 돌아 앉았다. 두 사람이 정답게 얘기하는 꼴을 보라는 것은 나에게 질투심에 불타서 그 불에 그대로 화장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노릇이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저 꼴을 안봐두 된다…….

『미스터 존슨, 사과밭으로 산책 안가겠어요?』

『 좋습니다.』 아이스 물을 마시관 두 사람은 재빨리 일어섰다. 나는 시내를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었다. 고적도 둘러보았다. 모르는 낯선 밤거리를 거닌다는 것은 어딘가 이국정서가 깃들여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호텔에 돌아온 것은 열한시 무렵이었을까. 그런데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양 놀라운 일에 부딪혔다. 김희자가 조금 전에 사과밭에서 무참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호텔내에는 사람들이 법썩대고 어느새 몇 사람의 경관이 나를 포위했다. 경관은 내가 1등실 5호실에 있는 박우종이라는 인증을 확인한 다음 먼저 시체확인을 위해서 호텔 지배인과 함께 현장에 가자는 것이다. 사과밭은 호텔에서 1기로 쭈 되는 거리다. 경찰 쫓차 속에서 나는 내가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의 한사람이 되어 있음을 경관의 말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다. 현장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한무테기의 인근 주민들이 먼 곳에서 구경을 하고 저어쪽 사과밭 뚝에 4, 5명의 경찰관이 손 전등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내가 현장에 도착하자 나보다 먼저 존슨이 와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점잖게 서 있었다.

『얼굴을 확인해 주시오.』 하며 경위가 거적대기를 쳐들고 전등을 비친다. 나는 성큼 물러섰다. 분명히 김희자다. 그 예쁜 미스 김이다. 지금 그 얼굴에는 피에 영크리진 머리카락이 뒤얽여 고담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 그대로이다. 경위는 거적대리를 덮고 물었다.

『6호실에 들어있던 김희자에 분명합니까?』 경위는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틀림없습니다.』 순경 한명이 현장 사진을 찍고 또 한명의 경관은 현장의 도본을 뜨고 있었다. 경위는 등쪽의 거적대기를 쳐들고 전등을 비쳤다. 나에게 보라는 뜻이다. 바로 등 오른쪽 쪽에 예리한 단도를 깊숙이 찔린 상처가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자, 이제 시체를 병원으로 운반하시오. 시체해부를 합니다.』

서장으로 보이는 키가 후리후리한 나이 든 경관이 다른 경관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 경위과 서장과 그리고 형사로 보이는 젊고 몸집이 건장한 평복 한 사람과 나와 존슨과 김희자에 관한 상세한 조사였을 것이다.

호텔 사무실에서 예비신문이 시작되었다. 경찰당국은 존슨과 나와 두 사람중의 한 사람을 거의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이상야릇한 공기는 존슨과 나와 관계였다. 두 사람의 증언은 서루가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추리로 전개 되었던 것이다. 존슨은 내가 피해자와 더 친밀했었고 오늘 갑자기 상경한다는 점을 쳐들어 심히 수상하다는 것과 자기는 오늘 처음 사과밭을 갔지만 나는 수차례 걸쳐서 피해자를 사과밭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는 그가 어제 단둘이서 포항에 해수욕을 갔다는 것, 돌아와서 밤중에 언성을 높여 싸웠다는 것, 그리고 오늘,

피해자가 당신의 강짜가 심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살인이 날지도 모르니 금명간 경주를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언은 그중에서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범행은 열시 30분 전후로 밝혀지고 존슨과 나의 아리바이가 추궁되었다. 내가 호텔을 나가서 호텔에 돌아올 때 까지의 아리바이는 대단히 불리했다. 혼자서만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존슨은 9시 반경 김회자와 사과밭을 떠나 시내로 나가서 거기서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후 존슨은 다른 호텔에 들어있는 미국 대사관 서기관 모쉴을 찾아가서 용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 온 것이 열시 40분 경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은 그가 만났다는 미국 대사관 모쉴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이때 서장이 포켓에서 신분지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퍼놓았다. 앗! 그것은 피묻은 단도였다.

『이 단도를는 현장에서 2백미터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이 단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외국제 단도입니다.』서장은 나와 존슨을 번갈아 보았다.

『이 단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서장은 또 한번 나와 존슨을 번갈아 보았다. 나와 존슨은 서로가 서로를 범임으로 단정하면서 매서운 눈초리를 교환하였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한결같이 천만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존슨은 천연하고 태연하였다.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연할 수 있겠지만 존슨은 어째서 저렇게 태연하단 말인가? 살인범 치고는 너무나 천연하다.

『이것은 외국제입니다.』하고 서장은 존슨을 쏘아보며 강조했다. 존슨은 그렇다는 양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약간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가우뚱하고는 말했다.

『중대한 문제다.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라면.』하는 것이다. 서장은 이 말의 뜻을 얼른 알아채지 못했음인지 어리둥절 했다. 내가 그 뜻을 말했다더니 서장은 깜짝놀랐다.

『나는 두 분을 구속해야겠소.』

나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범인이 짐작될 때 까지 구속당할지도 모른다고 예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슨은 필쩍 뛰며 놀랐다. 아무런 증거없이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오히려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때 정복한 경관 두명과 아까 그 형사가 들어와서 서장에게 귀속말로 무엇을 보고하고 나갔다.

『두 분은 잠깐 경찰서까지 함께 가주십시오.』하고 서장은 일어섰다. 경관들이 나와 존슨을 옹위하는 바람에 존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에 가보니 어느새 내 추령크가 나보다 앞서 운반되어 있다. 다른 추령크가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을 본 존슨은 거의 자동적으로 뛰어가서 그 추령크의 하나를 덤썩 끼안았다.

『왜 남의 물건을 승낙도 없이 가져왔소.』하고 존슨은 소리쳤다. 경관들은 존슨의 항의를 못들음체 목살하고 있었다. 나와 존슨은 격리되었다. 순경 두명이 나를 숙직실로 안내하고는 한숨 자도 좋다고 말했다. 나는 지쳐서 아무렇게나 뒹굴어졌다. 그리고 잠이 들까말까 하는데 깨우더니 서장실로 데리고 갔다. 이미 날이 샅 무렵이었다.

『어디 좀 주무셨습니까?』서장은 펍 부드러운 말씨로 대해준다.

『자백했습니다. 그 미국인이 여자를 살해했습니다.』나는 순간 잠이 활짝 깨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봤지요. 그렇지만 자백하기 전까지는 선생두 유력한 용의자 였거던요.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길게 숨을 내 쉬었다.

『그럼 곧 상경하시죠. 자백하기 전까지의 사건이 오늘 조간에 보도 될 것입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대단할 것이니까요.』나는 호텔에 들러서 불일을 보고 아침차를 예정대로 탈 수가 있었다. 사실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구태어 호텔을 떠날 필요는 없어 졌지만 전보도 쳐두었고 그 보다는 사건이 조간신문에 보도 될 것이 라니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대구에서 갈아타고 죽은 듯 한숨 자고나니 서울역에 도착 맥없이 흔들흔들 피로한 몸을 끌고 집찰구를 나서니 어떤 여인이 우루루 달겨들어 허리를 덮석 끼안지 않는가. 아내였다…….

『범인이 나타났어. 미국인야.』아내는 또 한번 나를 힘껏 껴 안았다.

4

이제 얘기를 처음으로 돌리자. 시체를 해부했던 어쨌던 김회자는 이제 내 눈앞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 그것 두 그 살인적이고 매혹적인 미소를 남기고…….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나는 정말 꿈속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한테 홀리고 있는가. 나는 학교에 와서도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실은 도서관에 책을 찾으러 왔지만 김회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전화가 왔다. 급사가 전화를 받더니 부산에 갔던 민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나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민씨란 나의 중학 동창생이며 나와 출판을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차 며칠전에 부산에 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내가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던인데 어떻게 전화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잡으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루 학교 앞에 있는 다방인데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매담의 전화였다. 민씨가 매담을 시켜 전화를 건 것이다. 막, 다방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막아 서더니

『실례합니다. 박우중선생님이죠.』하고는 신분증을 쏘내밀지 않는가. 그는 치안국에 있는 형사였다.

『전화는 제가 걸었습니다. 잠깐 저와 함께 치안국까지 가 주십시오.』한다. 과장이 찾는다는 것이며 이유는 자기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으며 무슨 상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고 짐작 된다는 것이다. 나는 어쩔지 불안했다.

『아아니, 왜 그러는지요. 경주 사건이라면 진 범인이 체포됐구, 아니, 그건 그렇구 죽었던 여자가 살아 있잖소 어떻게 된거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하고 형사는 도리어 반문한다.

『당신은 치안국에 있으면서 경주사건을 모르시오?』

『압니다. 물론 범인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살아 있다뇨? 그는 시체를 해부하고 대구에서 화장했습니다. 데마겠죠.』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데마? 아니오. 조금 전에 내가 그 여자를 만났단 말이오.』형사는 껄껄 웃으며 착각이라고 일소에 부치고 만다. 이때 나는 내가 정말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않나 하고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처럼 똑같은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착각은 아니다. 형사는 택시를 불렀다. 치안국 마당에 들어서자 여기서 감간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남기고 형사는 안으로 살아졌다. 곧 뒤이어 그 형사는 정복을 한 총경과 함께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모셨는데 저하구 가 주실까요.』짚차가 나타났다. 경찰차가 아니고 『영』자가 붙은 새 짚차다. 나는 이 짚차에 오르는 순간 공포감에 전신이 오싹했다. 아직도 더위가 가지지 않는 이 늦더위에 짚차는 새까만 커어텐으로 둘러싸여 햇볕이라곤 바늘구멍 만치도 새어들 틈이 없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외계와 단절하는데는 이만 저만한 이유에서가 아닐 것이다. 거리는 이미 밤이었다. 짚차는 꽤 빠른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나 도무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운전수의 생김새도 어쩌면 그렇게 무뎉뎉하고 마치 교수형을 집행하는 교수인과 같을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 차는 형무소로 가는 거요?』나는 건디다 못해 이렇게 물었다. 생각하면 나는 손톱 끝만치도 죄를 지은 기억은 없다. 허지만 여러 가지 그럴싸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지금 착상하고 있는 모종의 정책 자료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 손에 흘러들어가서. 경주사건의 존슨이 자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혐의가 나에게 있어서.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선생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나 저의 임무는 선생님을 다른 어떤 분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끝나니까요.』뭐? 나를 또 다른 누구에게 인계하다니.

『대관절 당신은 누구이며 이 차는 어디를 가는거요.』

『저는 치안국의 모 계장이 올시다. 이차의 방향은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그는 딱 잘라서 말했다. 이상「문답 불필요」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차는 수 없이 카브를 접어가며 달리고 검은 커어텐에는 가로등 불빛이 스쳐갈 뿐 방향은 어딘지 전연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이렇게 차는 벌써 30분이나 달리고 있다.(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지도 모른다) 불혈 듯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중대한 어떤 일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흔히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국가적인 사건에 관련되거나 또는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냥 둘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터이다. 죽은듯한 침묵 속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리드미칼하게 극도의 불안에 싸여있는 나의 시경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차는 오르막 내리막을 몇 번 되풀이 하더니 불빛이 전연 보이지 않는 지점에 잠시 달려서 간신이 어느 지점에 바퀴를 멈춘다.(여기가 형무소 입구인가.) 형무소를 한번도 가보지 않는 나는 형무소의 거리조차도 모른다.

『자, 내리시죠.』총경이 먼저 내려서 정중하게 말한다. 나는 땅에 발을 붙이자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숲속인지 어느 큰 주택의 정원인지 얼른 짐작이 가지지를 않는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서울시내의 어느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근방에 큰 담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형무소 근처는 아닌 것 같다. 마포의 어느 구석도 같고 정능 같기도 하고 보기에는 영등포 어느 곳도 같다. 하여튼 방향을 상실해 버린 것 만은 틀림 없다. 나는 총경의 안내로 약 5미터 걸어서 숲속에 있는 아담한 주택으로 들어갔다. 들어선 방은 이 집 웅장실인 것 같으나 살풍경하기 짝이 없다. 등근 탁자, 안락의자 한쌍, 벽에는 그림 한 장도 붙여 있지 않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총경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했다.

5

사람을 압살 시킬것만 같은 초조와 불안이 나를 금방 미치게 할 듯 조아 들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며 무엇을 하는 집인가? 아니. 이렇게 있을때가 아니다. 우선 이 집을 탈출할 일이다. 그러나 그다음 순간, 나는 맥이 풀어지고 말았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 필경 이 집 주위에는 삼엄한 경비망이 펼쳐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함이 당연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도 놀랄만한 어떤 기상천외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정말 가공할 사건이요. 내 추리는 명석한 선을 그어 이 사건의 전모를 들어 내었다. 아까 그 치안국 증명을 가진 청년이며 모 계장이라는 총경이며 그 교수인 같은 운전자이며 모두가 북한괴뢰의 스파이다. 아니 그 미모의 김희자라는 여자도 존슨이라는 미국인도 이 스파이의 일당이다.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밀자료를 탈취하려는 것이다. 아 그 자료는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고 나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쪽같이 나를 처치해 버리자는 수작이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이 기상천외한 나의 추리의 정확성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그러나 암뜩달짝 속수 무책인 함정 속에 빠져 있음을 자인할 수 없었다. 나는 살며시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 도어가 열리지 않는가. 놈들은 망을 보고 있다. 내가 움직이자 벌써 경계하기 시작하는구나. 들어서는 사람은 아까 학교 앞 다방에서 부산에 갔던 민이라고 속이고 나를 불러내어 치안국으로 끌고간 그 가짜 형사다. 놈들은 미리 내 주위를 살살이 조사하여 내 친구 민씨가 부산에 간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변소에 가시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죠』하고 그 사형사인 괴뢰간첩은 자못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그를 쏘아보고는 잠잠고 도로 앉았다.

『담배를 태우십시오』 그는 들고 왔던 담배와 성냥을 탁자위에 놓고 다시 나가 버렸다. 나는 이때 또 다른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놈들이 나를 매수 포섭할 공작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제법 정중한 대접을 해가면서. 그런데 가만있자. 이제 들어왔던 가형사,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아닌가? 오-라, 그렇다. 내가 서울역에 내려서 아내와 얘기하고 있을 때 저어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얼굴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다. 다른 어디서도 본 기억이 있다. 어디서? 원체 긴장된 정신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살아나 주지를 않는다. 응, 생각이 났다. 경주서 봤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던 그날밤의 그 형사다. 아니 또 어디서 본 얼굴이다. 옳다 그날 저녁 내혼자서 고적을 돌아다녔을 때 노상 내 뒤를 따라 다니다 시피한 그 얼굴이다. 이제 생각하니 그는 곳곳에서 변장을 하고 있었다. 응, 그는 분명히 간첩이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내 나이나 된 어딘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신사가 들어섰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이 얼굴 또한 어디서 많이 보아온 얼굴이 아닌가.

『5대학에 나가시는 박우중 선생이시죠』 나는 대꾸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억을 찾아내고 있는 판이었다.

『나는 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선생도 저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하고 넌죽이, 그러나 짐작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웃음을 보였다. 오-라. 바로 그분이다. 언젠가 텔리비존에서도 보았지만 신문지상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얼굴-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겸 내무부 치안국장. 우리 치안당국의 사실사의 실권자. 『알지요. 매일같이 지상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고 더욱이 경주에서는 덕택으로 어마어마한 국제간첩을 체포할 수 있었구-』 나는 간장이 한꺼번에 확 풀려서 그 자리에 선체로 땅 속으로 녹아 내려버리고만 말 것 같았다. 그러나 간신히 그것을 가로막아 주는 것은 내 덕택으로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국제간첩을 체포했다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의 말이었다.

『오늘, 선생을 이처럼 모신 것은』미주 앉자 치안국장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음성성이 낮추어져 있었다.

『박선생에게 여러 가지 괴롭힌 사과와 아울러 부탁겸 다짐해야 할 말씀이 있어서』하고 담배를 내 밀면서 말을 계속했다.

이런 일 저런 일

◇프랑스인「파울」이라는 사람은 살인 미수죄로 처음 사형선고를 받고 그 후 무기로 감형- 그런데 그가 형무소에 들어가자 21년만에 파울이 살해 하려고한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무죄석방 되었다. 1860년에 있었던 일이다.

◇옛날에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그것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럴 경우 대개의 사형수는 그가 평소애 먹지 못했던 음식을 청한다. 그런데 한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

『복숭아 한 개만 먹고 싶습니다』

『동지 선달애 복숭아가 어디 있어. 평년 5·6월이 되어야 있겠지』그러자 사형수는 얼른 말을 받아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평년 5,6월이면 더욱 좋습니다』

◇1899년 미국의 F.트레드웰이란 사나이는 양말실로 철책철봉을 끊고 탈옥하였다. 그는 자기가 신고 있는 양말을 풀어서 그 실애 비누칠을 하고 감방 벽에서 모은 모래 시멘트의 부스러기에 골랐다. 이 실은 즐갈의 역할을 하게되어 그는 이것을 끈기있게 비벼어 마침내 철봉을 양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실은 존슨이란 그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고 독일인이며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동독 공산당의 국제간첩이었습니다』내가 뛰다싶이 놀란 것은 물론이다.

『그는 주한 유엔군의 중요한 군사기밀 문서를 훔쳐내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모 국제간첩으로부터 20만불의 계약으로 의뢰를 받고 5만불을 선금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유엔군 당국보다 우리가 약 2주일 앞서서 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슨- 그의 본명은 재루맨이며 소련국제간첩「Three six」즉 666호인데 그의 손애 그 기밀문서가 쥐어져 있는지 아직 중간 간첩의 손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사 우리는 그가 독일인이며 간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존슨이 미국인이며 미국대사관의 후원으로 한국애 주재해 있는 미국 상사의 지점장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서둘렀다가는 한미간에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파견된 것이 지금 선생이 심히 괴이 짝어하는 그 김희자라는 여자입니다. 자, 담배를 태우시며 들어주세요. 첩 그녀는 존슨에게 접근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도루 훔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문서가 그의 손애 들어왔는지 어떤지 그것조차도 알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존슨은 김희자가 그의 소지품을 들추어 본 기회를 전연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정보만 가지고 하등의 증거없이 더구나 미국인을 수색도 검거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김희자는 기발한 착상을 했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들추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즉 존슨으로 하여금 형사상 현행범의 유력한 용의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박선생에게 접근한 것은 그때부터이며 선생을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만든 것은 사건을 보다 그럴사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존슨의 깡짜로 살인이 날것 같다는 얘기등-』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국장은 말을 계속했다.

『존슨은 2중 추령크 속에 그 군사기밀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애 옮겨서 숨겨 두었습니다. 그는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주 관광단 속에 끼여 들어온 소련 국제간첩에게 그 필름을 인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뻔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잡지 못했다면 그 기밀이 소련과 북한괴뢰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엔군 당국에서는 긴급비밀 회의를 열고 도난당한 그 군사기밀이 무효가 되도록- 말하자면 모든 군사 계획을 개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10억불애 달하는 비용과 최소한 1년의 시일이 필요했고 가령 그렇게 한다해도 유엔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어떤 기본태세를 적어 알게 되는 것이니 중대한 일입니다.』연극치고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연극이다. 어쩌면 그 여자는 감쪽하게도 죽은 시늉을 그처럼 해내었을까?

『김희자란 물론 본명도 아니고 여대생도 아니죠. 그는 천부의 미모와 재치와 배우적인 소질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비밀은 어느 시기가 되면 알려져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완전히 보장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경관을 포함해서 일곱명이며 오늘 박선생을 모시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이 비밀을 타언하시지 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가족에게라 하더라도……』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도 물론 아까 타고온 그 검은 커어텐의 짚차이다.

-끝-

× × ×

편집후기



건국 열 네 돌을 맞는다. 탄생과 더불어 세기적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우리 국군은 그 나이에 비해 힘에 겨운 성장과정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초연속에서 불사신으로 자란 우리는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궁지와 신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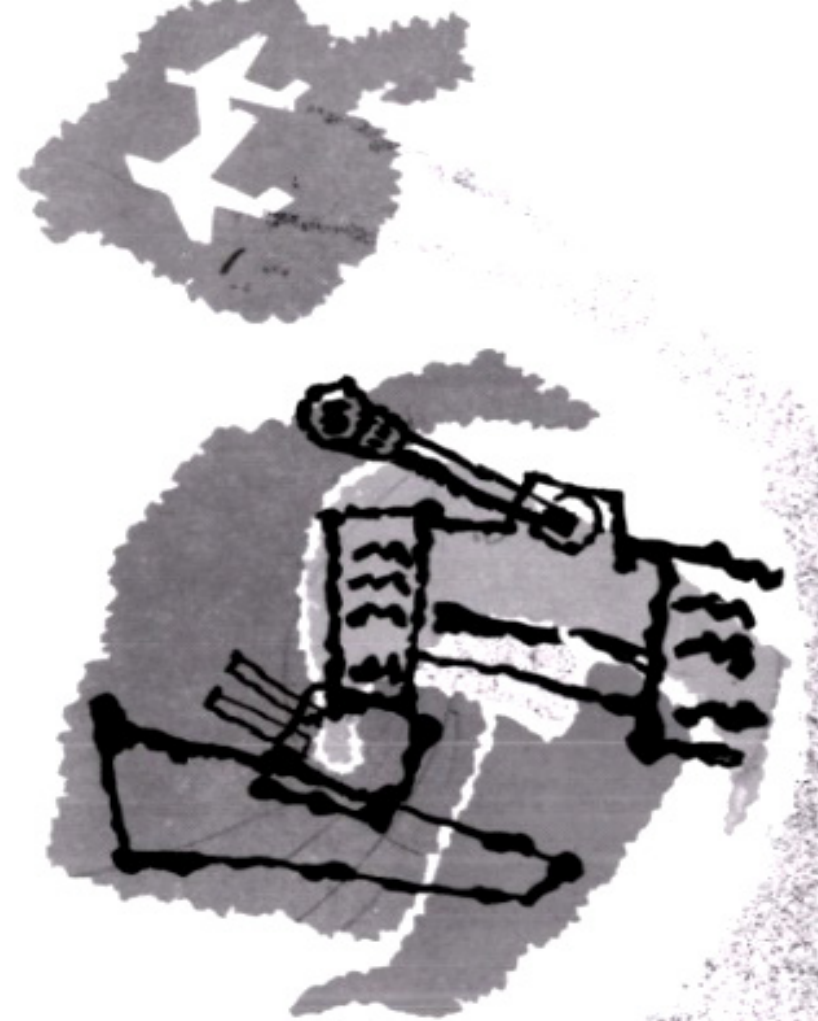
〈나의 출격회고〉와 〈나의 출격일기〉 두 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난날을 고심참담하던 투쟁기록을 단적으로 회고시켜 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권두의 화보는 현대화된「오늘의 공군」의 긴장된 일면을 부각해 주는 것으로 비록 병산의 일각애 불과한 적은 내용이지만 쉬임 없이 전진하는 우리의「자세」만은 보여 질 것이라 믿는다.

× × ×

〈군인과 명예〉를 특집으로 엮었다. 군의 세명이 군기에 있다면 군인 개개인의 생명은 고도의 명예심을 견지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우리 화랑도의 전통이나 중세 나이트 정신등 그 어느 것이나 예외없이「명예심」은 무인이 갖추어야할 으뜸가는 품성이었다.

민주군대의 군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군인의 명예심 확립-이런 각도에서 삼가 일독을 권한다. (문)



건군 14주년

미제 5명군사령관 자립 E 스마트 중장
이 내함하여 장참모총장과 교환(8월
30일)



지난번 공군장병들이 거출한 재향군인
회 재건축하성리에 대한 감사장이 김성
은 재향군인회장이로부터 장참모총장
에게 전함(9월 11일)



공군장교부인회에서는 순천지구수재민
을 구호하기 위한 정성오린 기념회를 학부
일포사에 기탁(9월 9일)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